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연구보고 22-일반04

---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저 자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연구진 연구책임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연구보조 김다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2-76-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76-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 참여연구진

구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김다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민윤경 부연구위원	—



## 보고서를 펴내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학교 밖 경험과 생활 실태, 지원 요구들에 기반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통계수치 이상의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제는 학교를 통해서서는 불가능한 다양한 경험과 지원이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는 가정 외의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 청소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며, 가정에서 충분한 지지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역사회가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이들의 성인기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2018년에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5년에 걸친 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과 비교적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신규 패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분량의 질적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2018년부터 축적된 질적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로 더욱 심층적인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술한 비와 같이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게 학교를 대신하여 지역사회가 더욱 중요해 짐에 따라, 이들의 지역사회 규모나 특성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자료 검토 및 지원 현장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과거와 올해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재정리하고, 또 새롭게 제안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를 그만둔 경험과 지원 요구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방안 모색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의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은 학교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회구성원 누구도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미래에는 또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 연구를 같이 추진하고 수행한 원내 연구진인 서고운 연구위원과 김다인 연구원, 외부 공동연구진인 공주교육대학교의 조혜영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깊은 통찰과 조언으로 도움을 주신 학계와 현장의 여러 전문가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책임자 김 희 진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과 경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진로발달, 지원 경험 및 요구 등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제도권 공교육 밖의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특히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5차년도 마지막 연구로 2018~2021년에 수행한 연구결과와 올해 연구결과를 함께 종합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 또한,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로서 올해 연구 수행결과와 2018~2021년간 지역규모 별로 수행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체계 개선방안들을 모색하였음.

### ■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및 지역사회 지원에 관한 행정통계 및 자료 검토, 성인기 이행, 지역사회 지원, 질적 종단연구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및 질적 조사 실시(27명), 지원 경험, 지원 요구, 학업중단 의미 재평가, 면접 참여 경험 회고 등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결과 분석
-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및 질적 조사 실시(24명), 지원 경험과 인식, 지원에서의 아쉬움, 지원 요구 등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결과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개선방안 연구: 지원체계 개관, 지역사회 우수지원 사례 시사점 도출, 현장실무자 및 관계기관 종사자 의견수렴결과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방안 제안: 정책우선순위·중요도 도출결과를 반영한 최종 정책과제 도출,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생태체계를 고려한 지원방안 제안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을 대상으로 수집된 질적자료의 체계적 관리

- 협동연구 수행: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주변 체계를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과 지원요구 파악을 위한 4개 주제의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 수행(기존 패널 및 신규패널의 질적종단자료 활용, 협동연구보고서로 별권 발간)
- 2018~2022년 연구의 주요 내용

연도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조사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협동연구
2018	학교 밖 청소년 패널(기존) 구축 및 면접 조사	지역규모별 지원체계 기초조사(협동연구로 수행)	
2019	학교 밖 청소년 패널(기존) 면접 조사	중소도시 지원체계 연구(협동연구로 수행)	
2020	기존 패널 대상 대도시 거주자 면접 조사	대도시 지원체계 연구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연구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 및 면접 조사		
2021	기존 패널 대상 중소도시/읍면 거주자 면접 조사	읍면/소도시 지원체계 연구 (2019년 연구에서는 실제 소도시 미포함)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 3개 주제 (기존패널)
	신규 패널 대상 면접 조사, 패널 추가(중소도시/읍면)		
2022	기존 패널 대상 면접 조사	전반적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개선 연구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 4개 주제 (기존/신규 패널)
	신규 패널 대상 면접 조사		

\* 기존패널은 대부분 2010년대 초반에 학교를 그만둔 대상들임에 따라,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수혜자로 정책 효과 및 개선에 대한 함의 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최근 학교를 그만둔 대부분 10대 중반의 청소년들로 패널을 구축하였음.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학교 밖 청소년관련 연구, 질적종단연구 등 선행연구 고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정부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 지원사례 등 행정통계 및 정책자료 검토
-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연구내용 전반, 면접조사지 등 검토를 위한 학계, 현장 등 전문가 자문, 질적자료 분석결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등 추진
- 질적조사: 기존 및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 심층면접조사, 현장종사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직업체험 관계기관 종사자 대상 FGI 실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존패널(20대 중후반)	면접조사: 60명	면접조사: 48명	면접조사: 22명, 패널관리조사: 20명	면접조사: 18명, 패널관리조사: 19명	면접조사: 27명
신규패널(10대 후반)			면접조사: 33명	면접조사: 38명	면접조사: 24명

- 양적조사: 2020년 대도시 꿈드림, 2021년의 읍면/소도시 꿈드림 종사자 대상 조사에 해당되지 않았던 중간규모 도시지역 꿈드림센터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식(AHP)과 세부 추진과제

## 중요도 산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면접조사 내용 및 정책 방향성 관련 협의
- 콜로키움 개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사회적 협동조합,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연계사업) 발표 및 논의
- 협동연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 본 연구진, 외부의 학교 밖 청소년 및 질적연구 전문가들을 통해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 수행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BR)심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지, 조사참여 동의서 양식, 현장실무자 설문조사지 및 연계기관과의 FGI 면접지 등 조사수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승인받은 후(202206-HR-고유-011) 조사에 활용

## ■ 연구결과

### 주요 연구결과

- 2021년 2월 기준의 학업중단 학생 수는 매우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원격교육 실시로 비등교나 해외 출국 불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대면 수업이 재개된 올해 다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질적 종단자료는 연구자에게 조사대상자에 대해 축적된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시간경과에 따른 개인과 환경의 변화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큰 장점이 있으나, 개인사적인 내용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됨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있음.
  - 연구참여자의 복지(well-being)와 해당 데이터의 장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연구윤리와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 기존 패널 대상 질적 조사(27명)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지원들이 제안되었음. 다양한 진로 체험 및 탐색 기회, 실질적인 진로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멘토 제공, 상담지원, 진로의지 및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평가는 시기에 따라 혹은 개인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수년간 종단조사 참여 경험은 스스로에 대해 성찰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주요 연구결과(계속)

- 신규 패널 질적 조사(24명)결과, 이들은 다양한 진로 안내와 검정고시와 멘토링을 포함한 진로 지원 및 체험,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받았으며, 일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해, 그리고 밖으로 나와 활동하고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함. 지원기회가 제한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례도 있었음.
  -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과 진로지도, 차별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에 대한 요청도 있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개선 방안: 여성가족부의 꿈드림센터를 주축으로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었고, 일부 지원현장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직업체험 및 탐색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었음.
  - 꿈드림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건강검진 안내 및 지원, 급식 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독립적인 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센터 간 서비스 질 차이, 과중한 행정업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에서 개선 필요성이 조사됨.
  - 현장실무자 FGI결과,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특징이 보고됨.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언어 장벽, 학습 부진, 무기력, 또래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진로 체험 기회로서, 대형 병원,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기업부터 지역의 작은 농장, 카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봉사 차원만으로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대상의 정책과제 우선순위 및 중요도 도출(AHP 방식) 결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정책 영역 중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개선’이었고, 각 영역별 중 1순위 정책과제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인적·물리적 인프라 개선’, ‘은둔 무업형 청소년 발굴·지원 확대’, ‘진로탐색 및 기초 학습지원’이었음. 전체 세부 추진과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강화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음.

## 핵심 정책제언

- 2018~2021년까지 수행된 연구결과와 2022년에 수행된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5개 방향성과 5개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17개 정책과제, 4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음.

### 정책 비전: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자립 구현

#### 정책 방향

- 다양한 환경 속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발달단계 및 수요 맞춤형 지원
- 전인적 관점의 통합 지원
-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

정책영역	정책과제
1. 학교밖청소년 발굴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연계 강화</li> <li>•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 체계 구축(학교, 지자체, 대안학교)</li> </ul>
2. 학교밖청소년 인식 및 차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및 지원 기관·사업 홍보 강화</li> <li>• 학교 밖 청소년 차별 금지 제도화</li> </ul>
3. 지원 전달체계 개선·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부모(보호자) 대상 서비스 확대</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인적·물적 인프라 개선</li> <li>• 학교 밖 청소년 친화적 원스톱지원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li> <li>• 지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격차 해소 및 도농 연계</li> </ul>
4. 지원대상·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체계 구축</li> <li>•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경제적 지원 확대(가정 밖, 사각지대 청소년)</li> <li>• 다문화·후기·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li> </ul>
5. 지원 프로그램·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적인 취약상황의 청소년에 대한 전인적 관점의 지원제공</li> <li>• 진로미결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li> <li>• 학습부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습지원 강화 및 교육 플랫폼 개발</li> <li>• 심리·정서·사회적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li> <li>• 학교 밖 청소년 수요·미래전망 기반 자기주도적 직업교육·취업지원</li> <li>• 대학 입학 심층 지원</li> </ul>

####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방안

## 핵심 정책제언(계속)

- 각 정책과제별로 여러 세부추진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새롭게 도출한 과제들과 기존에 제안된 정책과제 중 여전히 미흡하여 계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보완, 수정하여 포함하였음.
- 특히 주목할 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로, 의무교육단계 및 고등학교 단계, 미진한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의 꿈드림 연계 강화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마련, 경제적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다문화/후기/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대상 범위 확대 및 논의 필요성, 복합적인 취약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진단-지원 체계 구축, 진로미결정 및 학습부진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교육 플랫폼 개발, 도농지역 꿈드림센터 연계를 통한 지역 격차 해소,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뿐 아니라 미래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직업체험기회 확대와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취업과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제안됨.
- 이러한 지원 내용과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주기, 발달단계와 생태체계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음.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	학교를 그만둔 직후 단계	학교 밖 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단계	성인기 이행
당면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결석, 무기력 등</li> <li>•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계획이나 관련 정보 미흡</li> <li>• 부모/포레와의 갈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래에 대한 불안, 우울</li> <li>• 대인관계 스트레스, 은둔</li> <li>• 막막함, 경제적 어려움</li> <li>• 자원, 지원 결핍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미결정으로 갈피를 잡지 못함.</li> <li>• 진학/취업정보 및 준비에 대한 정보, 자원 부족</li> <li>• 포레 관계/활동 기회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미결정 상태사로 인한(대학/직장)에서 의사결정/취업 문제</li> <li>• 지속 등(입대 등)</li> </ul>
청소년 개인과 가족 체계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결석 상담, 학업중단수려제 과정의 꿈드림 조기 개입</li> <li>• 청소년과 부모(보호자) 대상 상담지원(복교를 포함한 진로선택지/ 방법 안내)</li> <li>• 꿈드림센터를 포함한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사업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특성, 상황, 자원 요구 파악을 위한 초기 상담 및 진단</li> <li>• 심리정서적 지원/트라우마 치료</li> <li>• 동기부여, 자신감 및 회복탄력성 증진 등(계속)</li> <li>• 가족지지체계 기능을 위한 부모(보호자) 대상 지원</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Out-reach, 방문상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 준비 및 학습 지원</li> <li>• 진로상담/전문적인 진로지도, 직업탐색</li> <li>• 대학 진학 준비 청소년 지원, 청소년생활기록부 준비</li> <li>• 취업 희망 청소년의 수요와 미래 전망 기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 인턴십 기회, 자격증 취득 지원</li> <li>• 포레/사회적 관계 구축, 멘토링 지원,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li> <li>• 교통비, 경제적 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대상 정부지원 안내, 정보 제공</li> <li>• 지속적인 사례관리</li> <li>• 심리사회적 지지체계로 기능, 멘티/멘토 기회 제공</li> <li>• 취약한 상황의 청소년에게 추가적인 직업훈련 등 계속 지원</li> </ul>
지역 사회/지역체/정부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자원 탐색</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홍보(이후 계속)</li> <li>•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 차별금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후 계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연계</li> <li>• 주민센터 포함 지역사회내 연계 기관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li> <li>• 원스톱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li> <li>• 거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센터 간 연계(도농 꿈드림 연계 등)(계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 인근 지역의 취업/인턴십 가능 기관, 작업장 발굴, 연계</li> <li>•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노력</li> <li>• 자원 및 경제적 지원 연계</li> <li>• 학교 밖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취업 시 차별 금지 및 무당 처우 대응 지원(계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대상 정부정책 탐색 및 자원 연계</li> <li>• 지역내 취업/아르바이트 정보 제공</li> <li>• 취업/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부당 처우 대응 지원</li> </ul>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22-일반04

<b>I. 서론</b> .....	<b>1</b>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추진체계 .....	6
3. 연구내용 .....	9
4. 연구방법 .....	13
<b>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b> .....	<b>21</b>
1. 학업중단 현황 및 사유 .....	23
1) 학업중단 현황 통계 .....	23
2) 학업중단 사유 .....	26
2. 질적 중단연구에 대한 논의 .....	29
1) 질적 중단연구 사례와 의의 .....	29
2)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중단연구 .....	34
3) 질적 중단연구 및 관리 주요 이슈 .....	38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과 지역사회 지원 .....	40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	40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의 중요성 ..	42

<b>Ⅲ.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조사</b> .....	<b>45</b>
1. 기존 패널 개요 .....	47
1) 기존 패널 현황 .....	47
2) 기존 패널 면접대상자 추적 결과 .....	50
2. 면접조사 내용 및 방법 .....	51
1) 조사내용 .....	51
2) 조사방법 .....	53
3) 면접참여자 특성 .....	55
4) 자료분석 방법 .....	60
3. 분석결과 .....	61
1) 학교 밖에서의 지원 경험 .....	61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제안 .....	68
3) 학업중단의 의미와 재평가 .....	77
4) 다년간 질적 종단조사 참여 경험의 의미 .....	83
4. 요약 및 시사점 .....	85
1) 기존 패널 면접조사 개요 .....	85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	86
<b>Ⅳ.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조사</b> .....	<b>91</b>
1. 신규 패널 개요 .....	93
1) 신규 패널 현황 .....	93
2) 신규 패널 면접대상자 추적 결과 .....	95
2. 면접조사 내용 및 방법 .....	97
1) 조사내용 .....	97
2) 조사방법 .....	99
3) 면접참여자 특성 .....	101
4) 자료분석방법 .....	107
3. 분석결과 .....	109
1) 학교 밖 청소년의 긍정적 지원경험 및 인식 .....	109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아쉬움 .....	114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요구 .....	118
4) 질적 종단조사 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 .....	126
4. 요약 및 시사점 .....	131
1) 신규 패널 면접 조사 개요 .....	131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31

<b>V.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b> .....	<b>135</b>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관 .....	137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	137
2)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진로 지원 .....	148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155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	155
2) 조사결과 .....	157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지역 연계기관	
현장종사자 면접조사 .....	181
1) 조사개요 .....	181
2) 조사결과 .....	185
4. 지역사회 지원방안 제언 .....	207
1) 분석결과 요약 .....	207
2) 정책적 시사점 .....	210
<b>V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b> .....	<b>213</b>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	215
1)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조사 .....	215
2)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	232
3) 학교 밖 청소년 해외지원사례 연구결과 요약 .....	241
2.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	243
1)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과정 .....	243
2)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결과 .....	248
3.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방안 .....	258
1) 기본방향 .....	258
2) 정책과제 .....	261
<b>참고문헌</b> .....	<b>295</b>
<b>부    록</b> .....	<b>307</b>

## 표 목차

표 II-1.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2019~2021년) .....	24
표 II-2.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자 수(2019~2021년) .....	25
표 II-3.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2019~2021년) .....	26
표 II-4.	질적 종단연구/질적 패널 조사 개관 .....	31
표 II-5.	NYPI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연구 .....	36
표 III-1.	기존 패널(2018~2022년) 연도별 조사 패널 수 .....	48
표 III-2.	2022년도 면접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존 패널관련 정리 파일(예시) .....	49
표 III-3.	2022년도 면접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산출 방식(예시) .....	49
표 III-4.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및 접촉 결과 .....	50
표 III-5.	기존 패널 대상(20대 중·후반) 면접조사 조사영역 및 내용 .....	52
표 III-6.	2022년 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의 학교를 그만둔 사유와 진로 관련 상황 .....	57
표 IV-1.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최종 현황 .....	94
표 IV-2.	신규패널 사전접촉 결과 .....	94
표 IV-3.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및 접촉 현황 .....	95
표 IV-4.	신규 패널 대상(10대 후반) 면접조사 조사영역 및 내용 .....	97
표 IV-5.	2022년 조사 참여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특성 .....	103
표 IV-6.	학교 밖 청소년의 긍정적 지원 경험 및 인식 .....	114
표 IV-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아쉬움 .....	117
표 IV-8.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 .....	125
표 IV-9.	질적패널조사 참여 경험 회고 .....	130
표 V-1.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	138
표 V-2.	전국 꿈드림센터 설치 현황 .....	139
표 V-3.	꿈드림센터 지원내용 .....	141
표 V-4.	서울의 친구랑센터 주요사업 .....	145
표 V-5.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 .....	146
표 V-6.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148
표 V-7.	꿈드림센터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내용 .....	149

표 V-8. 꿈드림센터의 다양한 자립·진로 지원 .....	149
표 V-9.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진로 지원 ..	150
표 V-10. 연도별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대상 수 ..	155
표 V-11.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내용 ..	156
표 V-12. 중소도시 지역: 현장종사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57
표 V-13. 지역 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주요 이용 경로(1순위) .....	158
표 V-14. 지역 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주요 이용 경로(1+2+3순위) .....	159
표 V-15. 지역 규모별 기관의 공간 사용 현황 .....	159
표 V-16.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의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생각 ..	160
표 V-17. 지역 규모별 꿈드림센터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생각 통계적 유의도 검증 .....	161
표 V-18. 중소도시 지역: 전용공간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 .....	161
표 V-19. 지역 규모별 꿈드림센터 제공 서비스 .....	162
표 V-20. 중소도시 지역: 경제적 지원이 확대·신설될 필요가 있는 분야(1순위) .....	163
표 V-21. 중소도시 지역: 경제적 지원이 확대·신설될 필요가 있는 분야(1+2+3순위) .....	164
표 V-22. 중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인식 .....	165
표 V-23. 지역 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인식 통계적 유의도 검증 .....	165
표 V-24.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관련 인식 .....	166
표 V-25. 지역 규모별 꿈드림센터 관련 인식 통계적 유의도 검증 ..	167
표 V-26. 중소도시 지역: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	168
표 V-27. 지역 규모별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통계적 유의도 검증 .....	169
표 V-28. 중소도시 지역: 기관 소재 지역에 대한 의견 .....	170
표 V-29. 지역 규모별 기관 소재 지역에 대한 의견 통계적 유의도 검증 .....	171
표 V-30. 중소도시 지역: 지역규모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내용 차별화 .....	171
표 V-31. 지역 규모별 지역규모에 따른 지원 내용 차별화 통계적 유의도 검증 .....	172
표 V-32. 지역 규모별 해당 지역의 강점/장점 유무 .....	172
표 V-33. 지역 규모별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율 ..	173

표 V-34. 지역 규모별 꿈드림센터 이용 중단 이유(복수응답) .....	174
표 V-35. 지역 규모별 시·도 센터의 지원 내용 .....	175
표 V-36. 지역 규모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순위) .....	176
표 V-37. 지역 규모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2+3순위) .....	176
표 V-38.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의 필요성 ·	177
표 V-39. 중소도시 지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온라인 공간(1순위) .....	177
표 V-40. 중소도시 지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온라인 공간 (1+2+3순위) .....	178
표 V-41.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의 향후 방향성 .....	179
표 V-42. 중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180
표 V-43.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체계 면접조사 개요 .....	181
표 V-44. 꿈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주요 면접 내용 .....	182
표 V-45. 지역사회 꿈드림센터 연계기관 종사자 대상 주요 면접 내용 .....	183
표 V-46. FGI 참여 기관 현황 관련 조사결과 .....	185
표 V-47.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개선 방향 관련 조사결과 ·	192
표 V-48. 지역사회 관심 및 지역연계 현황 관련 조사결과 .....	197
표 V-49. 연계기관 종사자들이 만나는 학교 밖 청소년 특징 및 연계 현황 관련 조사결과 .....	200
표 VI-1.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연도별(2018~2022년) 조사 현황	216
표 VI-2.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연도별(2020~2022년) 조사 현황	217
표 VI-3.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조사 내용 .....	218
표 VI-4.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조사 내용 .....	219
표 VI-5.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자료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2018~2022) .....	223
표 VI-6.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자료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2020~2022년) .....	226
표 VI-7.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의 면접 참여 경험 평가 .....	231
표 VI-8.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의 연도별 조사지역 .....	232
표 VI-9.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면접조사 연도별 개요 .....	233
표 VI-10.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연도별 개요 .....	234
표 VI-11. 연도별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	236
표 VI-12. 꿈드림센터 공간 현황 연도별 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	237

표 VI-13.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연도별 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	238
표 VI-14. 지역규모별 지원체계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40
표 VI-15. 학교 밖 청소년 해외 지원사례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241
표 VI-16. 우선순위 및 중요도 산출을 위한 정책과제 및 상세 설명 내용 .....	244
표 VI-17.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방식 예시 .....	247
표 VI-18. 세부추진과제 중요도 산출 예시 .....	247
표 VI-19. 정책영역 중요도 및 순위 .....	248
표 VI-20. 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	250
표 VI-21. 영역별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중요도① .....	252
표 VI-22. 영역별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중요도② .....	253
표 VI-23. 영역별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중요도③ .....	254
표 VI-24. 영역별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중요도④ .....	255
표 VI-25. 전문가들의 추가 제안 의견 .....	256
표 VI-26.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총괄표 .....	261
표 VI-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 ..	265
표 VI-28. 학교 밖 청소년 차별 금지 조항 신설 .....	269
표 VI-29. 호주의 학생 및 견습제도 참여 청소년 수당 지급 내용 ..	290

## 그림 목차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8~2022년) .....	8
그림 I-2.	협동연구 추진체계 .....	9
그림 I-3.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면접 조사 실시 과정 .....	15
그림 I-4.	2022년 연구 수행 체계 .....	20
그림 II-1.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2016~2021년) .....	23
그림 II-2.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사유(2019~2021년) .....	27
그림 II-3.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를 그만둔 사유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28
그림 III-1.	기존 패널 면접대상자 선정 절차 .....	48
그림 III-2.	2022년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 시 작성된 필드 노트 예시 .....	55
그림 IV-1.	2022년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 시 작성된 필드 노트 예시 .....	101
그림 IV-2.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자료 분석 틀 .....	107
그림 IV-3.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자료 분석 개요 .....	108
그림 IV-4.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 .....	118
그림 IV-5.	질적 중단조사 참여 경험에 대한 회고 .....	127
그림 V-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	140
그림 V-2.	2022년도 내일이룸학교 온라인 포스터 .....	142
그림 V-3.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절차 .....	144
그림 V-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소개 .....	147
그림 V-5.	CAFE 다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홈페이지 .....	152
그림 V-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관련 정책적 시사점 .....	210
그림 VI-1.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조사 실시 과정 .....	220
그림 VI-2.	학교 밖 청소년 질적자료 DB관리 체계도 .....	228
그림 VI-3.	학교 밖 청소년 면접관련 배경정보DB Excel파일 예시 .....	229
그림 VI-4.	우선순위 및 중요도 산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과정 .....	243
그림 VI-5.	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	249
그림 VI-6.	세부 추진과제 중요도(4점 이상 과제) .....	251

그림 VI-7. 연구수행 및 정책과제 개발 과정 .....	258
그림 VI-8.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	260
그림 VI-9. 지역사회 연계망 예시 .....	274
그림 VI-10. 지역규모별 특성에 따른 정책 고려사항 .....	276
그림 VI-11.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다차원적 지원체계 예시 ..	278
그림 VI-1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문 .....	281
그림 VI-13. 복합적으로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진단-지원 체계 예시 .....	284
그림 VI-14. 학교 밖 청소년의 향후 진로계획 .....	285
그림 VI-15.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생태체계 기반 종합적인 지원방안 .....	293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2022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전염병은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고 또 이후 지원받는 데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았다. 일례로, 최근 발표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이 학생 중심으로 발표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2)</sup>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학생’과 ‘청소년’이 혼용되어 있으나 정작 의료비 지원방법에 대한 안내에서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교육청, 또는 교육부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어떻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학생인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간의 지원에 있어서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여러 이유와 배경을 모두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중요한 지원정책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학생 청소년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예는 학생 1인당 연간 투자액이 2020년 기준 12,980,000원으로 천만 원을 상회하는 것<sup>3)</sup>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은 50만원 내외 수준인 것<sup>4)</sup>에서도 찾을

1) 이 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2)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게시일: 2022.01.19.). 코로나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041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02.15. 인출.

3)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학생 1인당 투자액 연도별 추이(학교회계를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산출 결산액을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한 정보). 출처: <https://www.eduinfo.go.kr/portal/theme/studentTap1Page.do>에서 2022.02.15. 인출.

수 있다. 이외에도 2021년 본 연구과제의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된 정보가 학교 교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얻을 수 있는 학생인 또래들과 비교해서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2021a).<sup>5)</sup> 오랜 기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본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다방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지원방식과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간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이전 연구결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러한 차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김희진 외, 2021a).

2018년에 시작된 본 연구는 올해 5차 년도를 마지막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본 연구를 통한 심층면접에서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이제 20대 중·후반이 된 청년과 또 비교적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경험, 진로발달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 대해 보고 하였다(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김희진 외, 2021a;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 장근영, 윤철경, 서고운, 이동훈, 2019). 최근의 2021년도 연구에서 7~8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2018년에 실시된 1차 조사에서부터 본 질적 패널조사에 참여한 20대 중반을 훌쩍 넘는 한 청년은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복을 입고 학교를 헤매는 꿈을 꾸다고 하였고, 또 다른 청년은 우리 사회가 일반적인 루트에서 벗어나면(즉, 학교를 그만두면) 이를 이상하게 바라본다고 진술하였다(김희진 외, 2021a). 2020년에 새롭게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로 구축되어 조사에 참여한 한 10대 후반 청소년은 집단따돌림으로 학교를 그만둔 상황에서 가족관계의 악화로 집과 학교를 동시에 나와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였고, 대학에 합격했으나 등록금 미납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으며, 또 다른 청소년은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하였고 향후 청년창업지원을 통해 카페 개업을 희망하였다(김희진 외, 2021a).

각각의 다른 이유와 과정을 통해 제도권 교육을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 모두

- 
- 4)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청소년정책과제 제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받는 1인당 예산 419,946원(대도시 자치구 기준)(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2022: p.36), 그리고 시사저널의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선입견 없어야" 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연간 지원예산은 54만원(출처: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336>에서 2022.02.15. 인출)으로 2~3년 전 기준이라고 해도 이는 학생1인당 투입예산에 비해 매우 적은 예산임에는 틀림없다.
  - 5) 출처: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내용으로,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애들한테 정보를 들 수 있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볼 어른들도 없고, 그래서 어려웠죠"(김희진 외, 2021a: 215)

다른 삶의 경로와 다양한 성인기 이행과정을 거쳐 예측하기 어려운 갖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학교로부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가장 가까운 지원체계인 가정과 또 지역사회의 절대적인 지원 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애경로와 진로발달 상황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수행된 질적조사 자료로 파악 가능했다. 단년도의 일회성 자료수집에 그친 것이 아닌 적어도 2~3회 이상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축적된 질적 종단 자료는 이들의 인식과 생활경험, 진로발달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는데, 이는 이전의 선행연구들과의 큰 차별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두었다. 공교육 체계를 떠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 외 가장 가까운 체계가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치환됨에 따라, 이들을 둘러싼 지역사회 체계의 특성 및 차이, 특히 인프라 수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역사회 지원방안에도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는 여러 지역규모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조아미, 임정아, 2018),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중소도시<sup>6)</sup>에서의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파악하여 지원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조아미, 임정아, 김남은, 2019). 3차 년도 연구에서는 대도시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김희진 외, 2020), 4차 년도 연구에서는 읍면지역과 소도시의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파악하였다(김희진 외, 2021a). 이러한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그리고 연계기관 담당자와의 FGI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 내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5차 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특징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역 격차 등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종합하여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5차 년도 연구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에 실시된 1차 면접조사에서부터 본 조사에 참여해 온 20대 중·후반의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과 2020년부터 본 조사에 참여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둘째, 그동안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체계 연구를 통해 파악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꿈드림 종사자 대상의 올해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2018~2021년까지 수행된 연구결과에

---

6) 실제로는 중간급 규모의 도시로 소도시는 포함되지 않아 2021년 읍면지역 연구에 소도시를 추가하였다.

기초한 정책제언과 올해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들을 통합, 정리하여 정책지원 우선순위와 함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수집된 질적 중단자료들은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여, 협동연구를 통한 질적 중단자료 심층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sup>7)</sup>

요약하면, 본 연구는 공교육을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경험과 진로발달,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실태와 현상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 특히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5개년 연구 중 마지막인 5차 년도 연구에 해당한다. 2018년의 1차 년도 연구에서는 과거 제도권 교육을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질적 패널로 구축하여 1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규모에 따른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윤철경 외, 2018). 2019년의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전년도에 패널로 구축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소도시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에 대해 연구하였다(장근영 외, 2019). 2020년에 수행된 3차 년도 연구에서는 기존 패널들에 대해 지역규모별로 구분하여 면접조사 및 패널관리조사를 수행하였고,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신규 패널로 구축하여 1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연구하였다(김희진 외, 2020). 2021년의 4차 년도 연구에서는 역시 기존 패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면접조사 및 패널관리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패널에 대해서는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김희진

---

7) 2020년에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 대상의 추가 면접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과(협동연구로 수행) 기존 패널 대상의 1~3차 질적중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기존 패널의 질적중단자료에 대해 심층분석을 수행하였다. 2022년에도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기존 패널의 질적자료뿐 아니라 올해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이 3차 면접조사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들 대상의 질적중단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중단연구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 조사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각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identifying) '지문(fingerprint)과 같은 고유한 일련의 자료를 축적하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질적자료 관리 및 공유와 관련하여 비밀보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Holland, Thomson, & Henderson, 2006: 27). 따라서 질적 중단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익명성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외, 2021a).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일부 추가 패널로 구축하여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읍면지역 및 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파악하였다(김희진 외, 2021a).

올해 수행된 마지막 5차 년도 연구에서는 기존 패널 및 신규 패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협동연구를 통해 축적된 질적 종단자료를 심층 분석하였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결과와 국내외 지원 사례, 그리고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와 관계자를 포함한 FGI 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지원방안 도출하였다. 올해 연구결과와 그동안 수행된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1차 년도 (2018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패널 구축 및 학업중단 이후 경험 및 변화 등 면접 조사 실시, 지역사회 지원 모델 도출위한 기초 조사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질적 조사 패널 구축(60명):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이행경로(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성별 고려</li> <li>• 면접질문지 개발 (주제: 생활세계, 학교중단 후 학교 밖 경험 등)</li> <li>•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li> </ul>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심층면접조사, FGI, 해외출장
2차 년도 (2019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대상으로 자신 및 주변과의 관계에 대한 면접 조사 실시, 중소도시에서의 지역사회 지원방안 질적 조사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질적 조사 패널 조사(2차 조사 48명 참여)</li> <li>•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주제: 자아·가족·또래·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li> <li>•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결과 분석</li> <li>•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체계 질적 조사</li> </ul>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심층면접조사, FGI
3차 년도 (2020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및 신규 패널 구축·조사 실시, 대도시 지역에서의 지원방안 도출(취약지역 중심)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패널(청년) 조사(3차 조사)</li> <li>•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구축 및 조사(1차) (최근 1년 학교를 떠난 만 15~19세 청소년)</li> <li>•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주제: 진로정체감, 지역사회 활동 및 지원 등)</li> <li>•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결과 분석</li> <li>• 학교 밖 청소년 대도시 지역사회 지원체계 질적 조사, 대도시 현장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학교 밖 여성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및 결과분석(협동연구)</li> <li>• 질적자료 DB구축 구상</li> </ul>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 심층면접조사

4차 년도 (2021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기존 질적 패널 및 신규 패널 대상 면접조사 실시, 읍면지역에서의 지원방안 도출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기존 패널 3차, 신규 패널 2차 조사)</li> <li>•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주제: 진로·직업발달, 자립, 생애사건, 지역사회 지원)</li> <li>•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결과 분석</li> <li>• 학교 밖 청소년 읍면/소도시 지역 지역사회 지원체계 질적 조사, 읍면지역 현장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및 협동연구(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수행</li> </ul>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 심층면접조사, FGI 등

5차 년도 (2022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기존 질적 패널 및 신규 패널 대상 면접조사 실시, 지역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체계 도출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패널 조사(기존 및 신규 패널 대상 면접조사)</li> <li>•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주제: 지원요구, 자립, 가족구성 등)</li> <li>•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결과 분석</li> <li>•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li> <li>•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통합적 지원방안 도출</li> <li>• 협동연구를 통한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li> </ul>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심층면접조사, 종사자 설문조사, FGI 등

주: 윤철경 외(2018) 연구 p.7, 김희진 외(2020) 연구 pp.11-12, 김희진 외(2001a) 연구 pp.8-9의 연구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함.

그림 | -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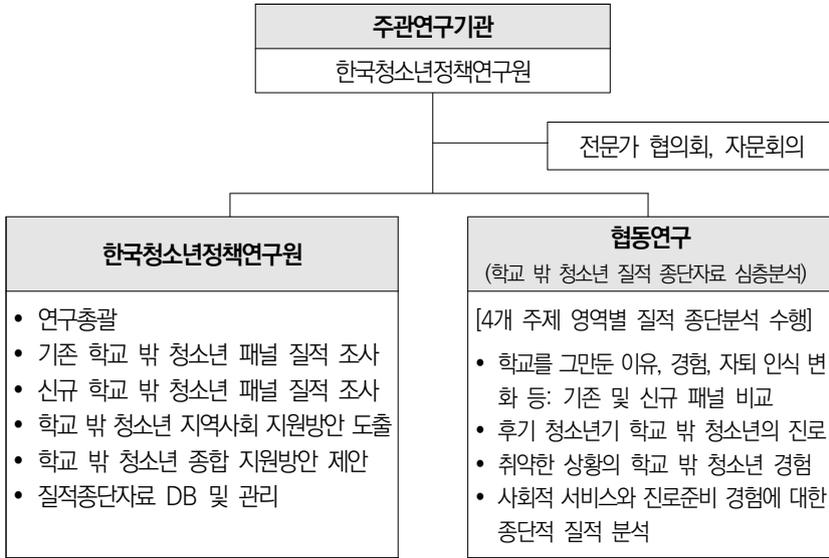


그림 1-2. 협동연구 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1)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역사회 지원관련 선행연구 고찰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및 지역사회 지원, 질적 종단연구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질적 종단연구와 관련한 유사 선행연구 사례들과 2018~2021년간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종단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검토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방안 도출에 활용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한 행정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 2)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조사 및 결과 분석

2018년부터 본 질적 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 중에 비교적 최근인 2020년과 2021년에 심층면접조사 및 패널관리조사 참가자들을 추적하여 근황을 파악하였고, 최종적으로 2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전년대비 변화내용과 더불어,

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거의 10년에 달함에 따라 어떠한 성인기 이행과정을 거쳐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생활 및 진로발달 상황,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적 상황, 자립 등의 내용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가 마지막 면접임에 따라 2018년부터 올해까지 참여한 면접 경험에 대한 회고도 포함하였다.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수집된 자료(음성파일, 전자자료, 필드 노트)들은 기존 패널들의 학교 밖 지원 경험, 본인의 경험에 기초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제안, 학업중단의 의미 및 재평가, 수년간 면접에 참여한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된 핵심내용을 코딩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유사한 의미들을 묶어 하위 범주들을 생성하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였고, 축적된 종단적 자료는 심층분석 후 협동연구보고서에 제시하였다.

### 3)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구축 및 조사, 결과 분석

학교 밖 청소년의 최근 현황과 지원 요구 파악, 그리고 지원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2020년에 새롭게 구축된 신규패널을 대상으로 3차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일부 2021년에 추가된 패널은 2차 면접조사에 참여함). 최종적으로 24명(신규 패널 15명, 추가 패널 9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으며, 면접내용은 기존 패널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학교를 그만둔 지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음에 따라 학교를 그만둔 경험과 이에 대한 회고, 그리고 지원받고 있는 내역과 개선방안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패널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음성파일, 전자자료, 필드 노트) 분석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경험과 인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아쉬움, 지원 요구, 질적 종단조사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외 내용과 종단적 자료 분석결과는 마찬가지로 협동연구보고서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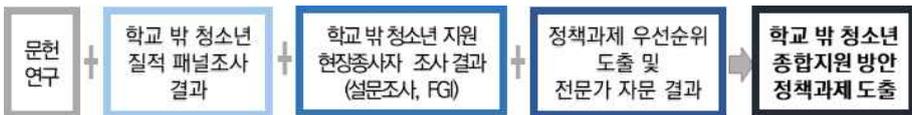
### 4)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개선방안 도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교육부 및 교육청,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와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진로 지원 우수사례(꿈드림센터·학교 연계 사회적 협동조합 등)들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실시한 학교밖청소년

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020년에는 대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 2021년에는 읍면지역/소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 2022년에는 과거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중간급 규모 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의 센터 이용 경로, 지원서비스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인식, 꿈드림센터 특징, 꿈드림센터 이용 중단 사유, 향후 역할 및 방향성 등에 대한 것으로 동일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2020년,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 제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실무자들과 연계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 내 진로·직업관련 기관) 종사자들과 4차에 걸친 FGI를 실시하였고(총 12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식 및 내용, 지역 네트워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탐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5)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방안 제안

선행연구 고찰의 일환으로, 우선 2018~2021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들을 총정리하였고, 법·제도적으로 추진된 정책현황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정책현황들에 대한 정책자료를 검토하였고, 2018부터 올해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조사 결과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연구결과(현장종사자 대상 조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총 정리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AHP 방식)과 중요도 산출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올해 연구결과를 통합한 결과를 기본 틀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성인기 이행의 주요 과업인 진로 및 취업,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된 신규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 중에서 여전히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재조명하여 포함시켰다. 정책과제 및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 6)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종단 자료 관리

2018~2022년에 수집된 기존 패널의 질적자료와 2020~2022년에 수집된 신규 패널의 질적자료(음성파일, 전자자료, 필드 노트) 들은 매우 방대한 분량으로 체계적으로 주의 깊게 정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자료 DB’라는 이름의 PC폴더에 자료수집 연도-자료유형-아이디(가명) 순서대로 정리했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연구진들이 복사본을 같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질적자료의 특성상 개인의 특성과 주변 환경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민감한 내용도 상당히 포함됨에 따라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각 질적자료들도 가명처리하여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여 취급하였다. 수집된 질적자료는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질적자료 심층종단분석에 활용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익명성 보장, 연구윤리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수집된 질적자료를 활용한 연구물도 학술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다.

## 7) 협동연구

올해 협동연구 역시 2021년과 마찬가지로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 연구자들을 섭외하여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으로 수행하였다. 교육학, 학교 밖 청소년, 질적연구 등에 전문성을 지닌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섭외하여, 각 학문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4개 주제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주제에 따라 연구자들은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일부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모두 활용하여 내용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 주제로는 기존 및 신규 패널 비교를 통한 학교를 그만둔 이유 및 이후의 경험,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인기 이행에 대한 탐색, 기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후기 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자립 경험, 신규 패널 중심의 취약한 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각 분석마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4.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특히 본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학교 밖 청소년 연구들과 2018~2021년 동안 수행된 본 질적패널 연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질적 종단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같은 대규모 질적종단연구를 수행한 국책연구기관들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내용과 시사점 도출까지 면밀히 살펴보았다. 학업중단 현황과 관련해서는 교육통계 행정자료를 활용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우수 지원사례와 관련된 정책자료와 관련 지자체 사업과 관련된 온라인자료들도 검토하였다.

### 2)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해 연구 전반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 및 현장종사자 대상 면접/설문 내용에 대해 학계, 현장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였다. AHP 방식의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질적자료 분석 방법과 도출된 결과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학계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도 함께 진행하였다.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일정
1차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 검토 및 면접 우선순위 선정 전문가 자문	○학계전문가	5/12
2차	학교 밖 청소년 관계기관 실무자 면접조사(FGI) 내용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지 내용 자문	○학계전문가	5/13~20
3차	학교 밖 청소년 기존·신규패널 면접조사내용 검토 및 자문	○현장전문가	5/16~23
4차	질적연구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학계전문가	8/2
5차	전문가 대상 AHP 방식의 정책과제 중요도 산출을 위한 자문	○학계/현장 전문가	9/16~19
6차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자료 심층분석 방법 및 결과 도출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	○학계 전문가	10/6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도출, 제안하기 위해, 학계 및 현장전문가 대상의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방식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결과(2018~2021년 연구)와 올해 조사결과에 기초한 정책과제와 세부추진 과제들 중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추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였다.

### 3) 질적조사: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현장종사자 대상 FGI 등

#### ○ 기존 및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및 조사

2018년부터 본 면접에 참여한 기존 패널 27명과 2020년에 신규 패널로 구축된 청소년 24명(이중 9명은 2021년 추가 패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존패널 (20대 중후반)	면접조사 : 60명	면접조사 : 48명	면접조사 : 22명, 패널관리조사 : 20명	면접조사 : 18명, 패널관리조사 : 19명	면접조사 : 27명
신규패널 (10대 후반)			면접조사 : 33명	면접조사 : 38명	면접조사 : 24명

주: 2020년의 신규패널 추가 구축에 따른 연구범위 확대와 제한된 연구예산 등으로, 기존 패널의 면접조사는 2020년에는 대도시 지역 패널을(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연구의 초점이 2020년에는 대도시였음), 2021년에는 중소도시/읍면 지역 패널을 대상으로 하였고 당해 다른 패널들을 대상으로 패널관리를 위해 웹조사를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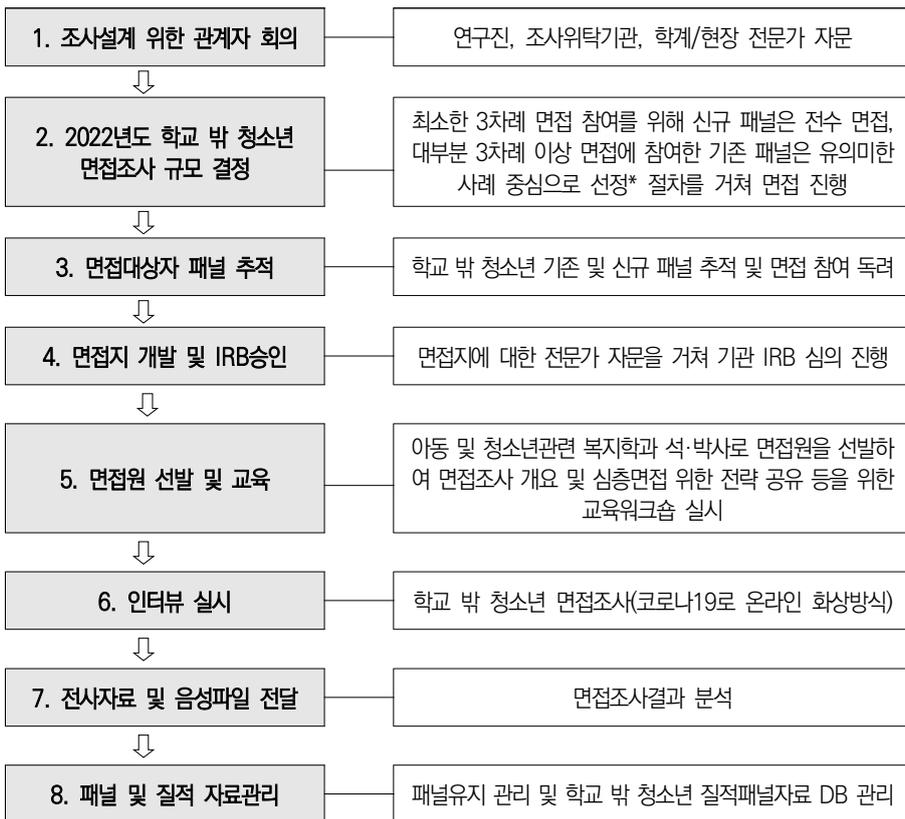
기존 패널 및 신규 패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미 올해까지 면접에 참여할 것에 동의한 바 있으며, 면접 참여 시 동의여부를 재확인하였다. 여전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면접방식을 활용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기존 질적 패널	신규 질적 패널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기존 패널 중 유의미한 사례 중심으로 선정*, 면접 실시	2021년도 면접조사에 참여한 신규 패널을 접촉하여 면접 실시
면담참여자 수	27명	24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현재 20대 중·후반의 청년	비교적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10대 후반 청소년
면담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개별 면담 진행	
면담 시간 및 횟수	각 60분 내외/ 1회	
면담자료 기록/녹취 여부	녹취 후 전사	
면담자	질적자료 수집에 훈련된 아동·청소년복지관련 석사 및 박사과정 4인 (면접원 교육워크숍 필수 참석 후 면접 진행)	
면접내용	학교 밖 이후 경험, 진로준비, 진로발달현황, 지원 요구 등 (IRB 승인번호 : 202206-HR-고유-011)	

주: \* 기존패널 중 2022년도 면접대상자 선정절차는 해당 장에서 상세 설명 제시

질적 자료 수집에 있어 면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질적자료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복지관련 전공자로 석사 및 박사과정 4인을 선발하여 집중적인 면접원 교육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연구에 대한 이해, 면접조사지 전체 리뷰 및 질의응답, 필드 노트 작성 양식 설명, 면접 진행 시 주의 사항들에 대한 것이었고 반나절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후 면접원들은 면접 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 연구진, 패널관리 위탁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 이러한 일련의 학교 밖 청소년 기존 및 신규 패널 대상의 면접조사 과정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 \* 기존패널 중 2022년도 면접대상자 선정절차는 해당 장에서 상세 설명 제시

그림 1-3.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면접 조사 실시 과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관계기관 종사자 대상 FGI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체계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기관의 종사자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는 총 4개 집단의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요소	내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시·도,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와 지역사회 연계기관 관계자 추천 및 접촉			
면담참여자 수 및 참여자 특성	<b>집단 1</b>	<b>집단 2</b>	<b>집단 3</b>	<b>집단 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명</li> <li>• 2개 지역 꿈드림 시·군·구 센터와 1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종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명</li> <li>• 2개 지역 꿈드림 시·군·구 센터와 1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종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명</li> <li>• 2개 지역 꿈드림 시·도 센터 현장 종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명</li> <li>• 4개 지역 꿈드림 센터 연계기관 종사자</li> </ul>
면담방식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면담 시간	60분 내외			
면담자료 기록/ 녹취 여부	면접영상 저장, 녹취 후 전사			
면담자	연구진			
기타	IRB 자침에 따라 조사참여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FGI 실시 전 취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은 각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기관 특성, 지원 현황, 해당 지역의 지역/지자체 특성,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관련 애로사항, 지역사회 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기관의 실무자와의 면접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현황(진료준비, 직업탐색 관련), 연계사업 관련 정보, 연계 프로그램 제공 시 애로사항 및 개선점, 향후 연계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4) 양적 조사: 현장 실무자 설문조사

중간규모 도시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웹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의 대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 조사, 2021년의 읍면 및 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간급 규모 지역의 꿈드림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관 현황, 청소년이용자 수 및 이용 경로, 시설/공간에 대한 인식,

지원 서비스 내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관련 쟁점(발굴 경로, 청소년 특성, 서비스 접근성, 예산문제, 종사자 처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 및 지원 등)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이전 다른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같은 조사지를 활용하였다(지역적 특성을 포함한 일부 문항은 수정하였음).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 전국 중간규모 도시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수 - 2020년과 2021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센터 전수
표집틀	• 전국 지자체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명단
표본수	• 2020년, 2021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센터 약 60개소를 목표로 함 (조사 기간 내 47개 센터의 종사자가 조사에 참여함)
표집 방법	• 모든 센터 전수조사(1개 센터당 1명 팀장급 종사자 대상 조사)
조사 시기	• 2022년 8월

### 5) 협동연구

2022년의 협동연구는 앞서 연구내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질적연구 전문가를 통한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규모의 한계로 외부 위탁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방식으로는 협동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와 그 과정 등에 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질적연구 전문가를 섭외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과 이들에 대한 지원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연구자를 집필진으로 섭외하였고, 외부 공동연구원과 본 과제 연구진도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을 수행하였다.

구분	내용	분석 사례 수	협동연구 연구자 기관
주제1	•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성인기 이행 기준 패널과 신규 패널 비교를 중심으로	기존패널 27명, 신규패널 24명	한국교육개발원
주제2	•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기존패널 14명	공주대학교
주제3	• 취약한 상황·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분석	신규패널 7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제4*	•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 연구	신규패널 8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 \* 주제4 심층분석은 공동연구진이 아닌 집필진이 참여하였음.

또한, 각 연구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현 전문성에 차이가 있어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질적종단자료 분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협동연구 진행을 위해 당초 연구기획과 주제 선정, 또 이 주제와 관련된 학교 밖 청소년 사례 선정 등에 있어 연구진들과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분석결과 초고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전문가워크숍을 개최하여 분석방법과 도출된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6) 기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콜로키움 개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구 내용과 면접조사내용, 그리고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였고, 실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에 대한 합의를 찾기 위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특히 콜로키움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꿈드림센터와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과 연계사업을 진행한 민간단체의 실무자 발표를 통해 진행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내 창업 준비 내용과 꿈드림센터의 역할,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이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회로 마련하였다.

- 콜로키움 주제1: 학교 밖 청소년 협동조합 설립 동기, 설립 과정, 현황(현재 하는 일 등 상황), 어려운 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곡성군 꿈드림)
- 콜로키움 주제2: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특성,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제공 경험 공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과정 중 어려운 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글로벌투게더음성)

#### 7)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본 연구의 기존 및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위한 면접조사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실무자 대상 설문지 및 면접지,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면접지 등과 조사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 등 필요한 제반 내용, 양식에 대해서는 본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IRB 승인번호: 202206-HR-고유-011)를 거쳐 연구에 활용하였다(상세 조사 내용은 부록 참조).

8) 2022년 연구 수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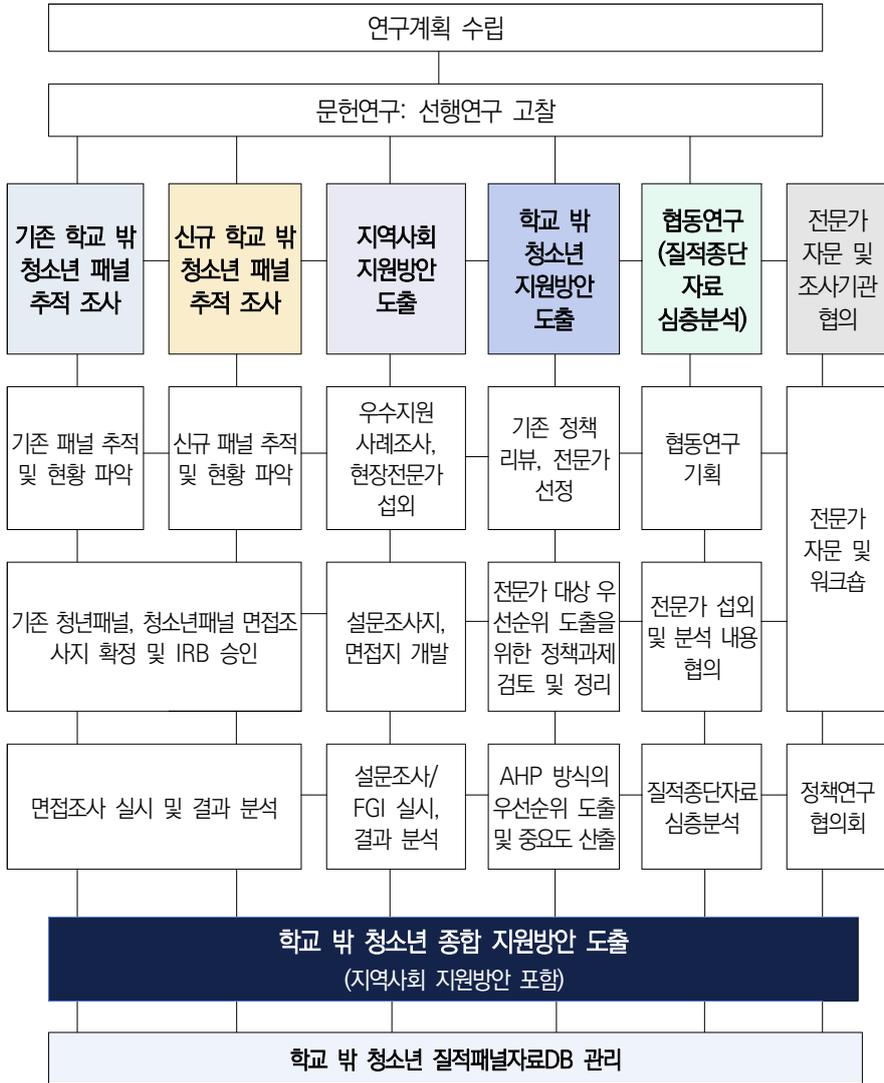


그림 1-4. 2022년 연구 수행 체계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학업중단 현황 및 사유
- 2. 질적 종단연구에 대한 논의
-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과 지역사회 지원



## 1. 학업중단 현황 및 사유

### 1) 학업중단 현황 통계

학업중단자 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대체로 매년 5만 명 내외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2.11.08.). 그러나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20년(2020년 3월~2021년 2월 말)<sup>9)</sup>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2.11.08.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학업중단자 수 검색

그림 II-1.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2016~2021년)

- 8) 이 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과 서고운 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9) 각 연도의 조사 기간은 해당 년도의 3월부터 다음 해 2월 말이다. 이러한 기준은 이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서 검색한 학업중단자 수 및 학업중단 사유 자료에 모두 적용된다.

수년 동안 매년 5만 명 내외의 수치를 기록했던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20년에 3만 2천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그림 II-1), 여기에는 코로나19라는 환경적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고, 또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국 불가에 따른 조기유학 감소, 그리고 학교부적응으로 등교가 힘들었던 청소년의 경우 굳이 원격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퇴이유가 없어진 것 등에서 일부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등교가 다시 시작되면서 학업중단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자 수를 지역규모와 학교급별로 살펴보면(표 II-1), 2020년에 특별시·광역시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13,103명(2019년 22,838명)이었고, 그 외 지역의 학업중단자 수는 18,924명(2019년 29,423명)으로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에는 특별시·광역시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가 17,822명, 그 외 지역의 학업중단자 수가 24,933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표 II-1). 학교급별로 보면, 2021년에는 초등학교에서 15,389명, 중학교에서 7,235명, 고등학교에서 20,131명이 학교를 그만두었다(표 II-1).

표 II-1.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특별시·광역시/ 기타 지역(2019~2021년)

단위: 명(%)

구 분(학교유형)	전체			특별시·광역시			그 외 지역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전체 학생 수	5,452,806 (100.0)	5,346,874 (100.0)	5,323,075 (100.0)	2,233,561 (100.0)	2,172,919 (100.0)	2,145,330 (100.0)	3,219,244 (100.0)	3,173,955 (100.0)	3,177,745 (100.0)
학업중단 학생 수/ 학생 수 비율	52,261 (1.0)	32,027 (0.6)	42,755 (0.8)	22,838 (1.0)	13,103 (0.6)	17,822 (0.8)	29,423 (0.9)	18,924 (0.6)	24,933 (0.8)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	52,261 (100.0)	32,027 (100.0)	42,755 (100.0)	22,838 (100.0)	13,103 (100.0)	17,822 (100.0)	29,423 (100.0)	18,924 (100)	24,933 (100.0)
초등학교	18,366 (35.2)	11,612 (36.3)	15,389 (36.0)	8,711 (38.1)	4,811 (36.7)	6,718 (37.7)	9,655 (32.8)	6,801 (35.9)	8,671 (34.8)
중학교	10,001 (19.1)	5,976 (18.7)	7,235 (16.9)	4,386 (19.2)	2,584 (19.7)	3,018 (16.9)	5,615 (19.1)	3,392 (17.9)	4,217 (16.9)
고등학교	23,894 (45.7)	14,439 (45.1)	20,131 (47.1)	9,741 (42.7)	5,708 (43.6)	8,086 (45.4)	14,153 (48.1)	8,731 (46.1)	12,045 (48.3)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2.11.08.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9년부터 2021년 학업중단자 수 검색

10)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학업중단자 수 감소는 15년만에 최저로, 코로나19에 따른 조기유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 감소가 원인으로 추정되었다(출처: 이데일리. 2021.08.26.게시, '팬데믹의 역설...학업중단을 15년만에 최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12726629151256&mediaCodeNo=257>에서 2022.01.19. 인출)

전체 학업중단자 수 대비 교급별 비율을 살펴보면(표 II-1), 2020년 특별시·광역시와 같이 지역규모가 큰 경우에는 전체 학업중단자 수에서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그 외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표 II-1).

학업중단자수가 가장 많은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II-2), 고등학교를 중단하는 학생 수에서 일반 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에 비하여 2020년 다소 증가하였으며, 특성화 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비율은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차지하는 학업중단 비율이 다시 증가하였고,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표 II-2). 2021년에 특별시·광역시의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전체 학생 수에서 일반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56.6%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자율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비율도 5.0%로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표 II-2). 2021년 특별시·광역시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33.6%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그 외 지역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28.5%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표 II-2).

표 II-2.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자 수(2019~2021년)

단위: 명(%)

구 분(학교유형)	전체			특별시·광역시			그 외 지역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고등학교(전체)	23,894 (100.0)	14,439 (100.0)	20,131 (100.0)	9,741 (100.0)	5,708 (100.0)	8,086 (100.0)	14,153 (100.0)	8,731 (100.0)	12,045 (100.0)
(일반고)	13,791 (57.7)	9,112 (63.1)	12,529 (62.2)	4,886 (50.2)	3,338 (58.5)	4,580 (56.6)	8,905 (62.9)	5,774 (66.1)	7,949 (66.0)
(특목고)	961 (4.0)	601 (4.2)	829 (4.1)	498 (5.1)	278 (4.9)	389 (4.8)	463 (3.3)	323 (3.7)	440 (3.7)
(특성화고)	7,927 (33.2)	4,121 (28.5)	6,143 (30.5)	3,557 (36.5)	1,766 (30.9)	2,713 (33.6)	4,370 (30.9)	2,355 (27.0)	3,430 (28.5)
(자율고)	1,215 (5.1)	605 (4.2)	630 (3.1)	800 (8.2)	326 (5.7)	404 (5.0)	415 (2.9)	279 (3.2)	226 (1.9)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2.11.08.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9년부터 2021년 학업중단자 수 검색

## 2) 학업중단 사유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모든 교급에서 미인정유학 혹은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중단율이 2020년에 감소하였다(표 II-3). 초등학교에서 2020년 미인정유학·해외출국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60.9%(2019년 78.2%)로 전년 대비 17.3%p 감소하였다(표 II-3). 중학교에서는 2020년 41.2%(2019년 51.6%)로 전년 대비 10.4%p 감소하였고, 고등학교는 2020년 해외출국으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9.2%(2019년 12.9%)로 전년도보다 3.7%p 감소하였다(표 II-3).

표 II-3.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2019-2021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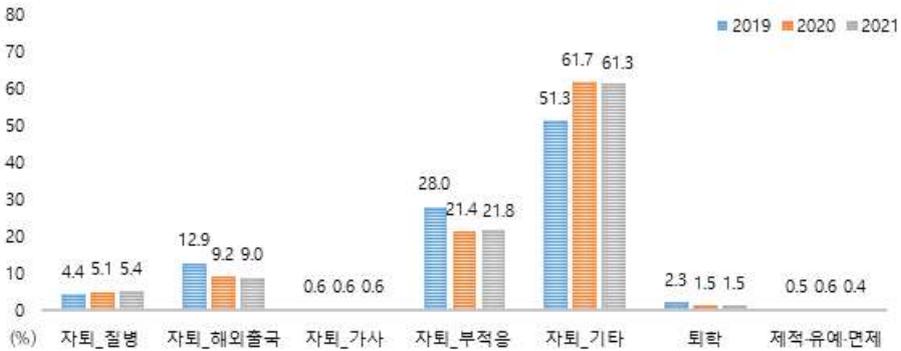
구분		합계	질병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장기결석	기타	
초등학교	2019	18,366 (100.0)	146 (0.8)	14,370 (78.2)	9 (0.1)	3,841 (20.9)	
	2020	11,612 (100.0)	132 (1.1)	7,074 (60.9)	10 (0.1)	4,396 (37.9)	
	2021	15,389 (100.0)	108 (0.7)	9,879 (64.2)	10 (0.1)	5,392 (35.0)	
중학교	2019	10,001 (100.0)	351 (3.5)	5,160 (51.6)	26 (0.3)	4,464 (44.6)	
	2020	5,976 (100.0)	172 (2.9)	2,464 (41.2)	17 (0.3)	3,323 (55.6)	
	2021	7,235 (100.0)	274 (3.8)	2,897 (40.0)	18 (0.2)	4,046 (55.9)	

구분	합계	자퇴					퇴학	제적·유예 ·면제	
		질병	해외출국	가사	부적응	기타			
고등학교	2019	23,894 (100.0)	1,054 (4.4)	3,077 (12.9)	147 (0.6)	6,694 (28.0)	12,252 (51.3)	545 (2.3)	125 (0.5)
	2020	14,439 (100.0)	733 (5.1)	1,327 (9.2)	87 (0.6)	3,090 (21.4)	8,903 (61.7)	211 (1.5)	88 (0.6)
	2021	20,131 (100.0)	1,081 (5.4)	1,814 (9.0)	111 (0.6)	4,397 (21.8)	12,337 (61.3)	309 (1.5)	82 (0.4)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2.11.08.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9년부터 2021년 학업중단 사유 검색

2021년에도 이렇게 감소한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는데, 초등학교에서 2021년 미인정유학·해외출국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64.2%, 중학교에서 40.0%, 고등학교에서 해외출국으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9.0%였다(표 II-3). 고등학교에서 부적응으로 자퇴하는 비율이 2021년 기준 21.8%로 2020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표 II-3). 이러한 감소세에 비해 모든 학교급에서 기타의 사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2020년 증가하였다(표 II-3).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2.11.08.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9년부터 2021년 학업중단 사유 검색

그림 II-2.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사유(2019~2021년)

2021년에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서고운, 2021b),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사유에 대해 세 가지를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29.6%, 심리·정신적인 문제 23.0%, 검정고시 준비 19.6%, 공부하기 싫어서 18.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I-3). 이 결과는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이용 기관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쉼터, 미인가대안학교, 보호관찰소, 소년원의 학교 밖 청소년 2,489명<sup>11)</sup>에 대한 응답으로(김희진 외, 2021b), 조사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일반 제도권 학교 재학에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이외에 원하는

11) 이 전국 규모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응답자는 검정고시장에서 조사한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3,291명으로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검정고시장 조사 표본은 제외된 결과이다.

것을 배우거나 검정고시 준비, 마지막으로 심리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부하기 싫거나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또 특기를 살리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었는데(김희진 외, 2021b), 이러한 결과는 특히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특기를 살리고 싶어서, 심리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응답이 내포하는 보다 심층적인 탐색을 통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계기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과 직후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출처: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서고운 (2021b).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 44의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

주: 복수응답 문항으로 그 중 10% 이상의 응답을 보인 항목에 대해서만 그래프로 제시함.

그림 II-3.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를 그만둔 사유(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2. 질적 종단연구에 대한 논의

### 1) 질적 종단연구 사례와 의의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질적 종단연구들에 대해서는 2021년 연구에서도 개관한 바 있다. 그동안의 양적 자료 수집을 위한 패널조사 및 종단연구가 대규모로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나, 질적 종단 자료 수집이 그와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통계치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계량화된 연구결과에 비해, 더욱 깊이 있고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종단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환경적 측면들까지 고루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질적자료가 맥락(context)과 특이점(particularities)에 집중하여 검증하는 과정에 적절하다고 할 때, 질적 ‘종단’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사회적 맥락에서의 과정을 조사하고 해석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다(Holland, et al., 2006).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적·물적 자원이 큼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질적 종단연구들은 전문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그마저도 사례가 많지 않다.

표 II-4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 질적 종단연구들은 질적자료 수집 및 분석뿐 아니라 양적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혼합연구(mixed-method research)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부 연차에서 질적 자료만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속성의 자료들을 혼합, 분석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 혼합연구의 장점이지만, 양적자료의 보조적인 수단이 아닌 질적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들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상황과 역동을 살펴보는데 큰 장점이 있는 질적 종단자료 수집을 병행하여 다양한 저소득층의 일상과 인식, 경험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김미곤 외, 2012; 김미곤 외, 2013; 최현수 외, 2011), 탈북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경험을 한 이후, 또 한국사회 적응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탈북청소년을 인터뷰하여 이들의 정착단계와 또 청소년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정책제안들을 제시하였다(김정원 외, 2016; 김정원 외, 2018; 김지수 외, 2017; 김지혜 외, 2019). 또한 중학교로의 교급 전환이라는 중요한 단계를 경험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생활을

포함하여 성장과정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교육기회, 관계의 문제, 교육격차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김경애 외, 2016; 김경애 외, 2017; 김경애 외, 2018; 정미경 외, 2019).

그러나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질적 종단연구를 설계하여 수행하면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도출해 왔으나, 장기간 추적 조사를 수행한 연구를 찾기 힘들다. 조사대상의 규모도 클 뿐 아니라, 또 오랜 기간 조사를 수행한 해외 질적 연구 종단사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호주의 생활 유형(Life Patterns) 종단 연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지금까지 양적, 질적 연구방법론을 모두 활용한 혼합연구 성격의 대규모 종단조사로, 첫 번째 코호트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50~100명이, 2005년에 구성된 두 번째 코호트는 2년 주기로 30~50명이 면접에 참여하고 있다.<sup>12)</sup> 또한 영국의 “The Inventing Adulthoods data”는 1996년에 당시 11~17세의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면서, 이들이 21~29세가 된 2006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질적자료(생애사 면접: biographical interviews, 회고록, 초점집단인터뷰 등)를 수집하였다(Thomson, 2007).

이러한 사례는 더욱 장기적인 조사 설계와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질적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면서,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정과 성인이 된 이후의 모습까지 관찰, 조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연구가 2018년에 시작되어 2022년인 올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패널들을 계속 추적,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

12) 출처: The University of Melbourne. Life Patterns Longitudinal Study Overview. <https://education.unimelb.edu.au/life-patterns#about>에서 2022.02.18. 인출.

표 II-4. 질적 종단연구/질적 패널 조사 기관

질적패널 연구/조사	기원(년도)	저자	연구대상 및 방법	주요내용(연구목적)	연구결과-장학적 시사점*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11~ 2013)	최현수 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복지패널 기준 저소득층 2,960가구(양적패널) 및 1007가구 (질적패널)</li> <li>혼합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li> <li>저소득층 수급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양상 및 일상적인 생활 탐구</li> <li>양적-질적 패널자료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는 질적 패널구축 및 자료수집을 통해 학술연구 및 정책적으로 활용</li> <li>양적, 질적연구방법 연계 및 혼함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조사결과 제공</li> </ul>
		김미근 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복지패널 기준 저소득층 2,880 가구(양적패널) 및 1207가구(질적패널)</li> <li>혼합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 빈민층의 삶과 일반 노력을 중심으로</li> <li>근로능력이 있는 빈민가구의 일반 노력과 경험,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장애 경험, 빈민층 아동의 빈부 인식 비교, 빈민가구의 정신건강 인식, 육구, 빈민 여성 노인의 일 경험 등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적패널을 통해 빈민의 다차원적인 동태분석 가능; 질적패널 표본 추가하고 빈민층의 일반 노력 중심으로 분석</li> <li>자립위한 유인 정책 마련, 사례관리 체계 구축,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욕구에 맞는 서비스 확대, 빈민가구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제안</li> </ul>
베이비부머 경력경 로 조사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1차년도)	한국고용 정보원 (2014~ 2016)	김미근 외,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복지패널 기준 저소득층 2,7887가구 (양적패널) 및 607가구(질적패널)</li> <li>혼합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차 취약계층의 삶에 중심으로</li> <li>이동, 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 장애 인(가)의 장애/장애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 일반민 정량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적 패널기구 대상으로 수집된 조사자료 분석(종단연구방법 활용)</li> <li>저소득가구 대상 교육복지서비스 전략적 활용, 저소득층 가정 양육 지원방안, 장애인 대상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노후대책 필요, 근로빈민층의 어려움과 생활전망, 탈수급 인식 고양 필요 등 제안</li> </ul>
		김은서 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이비부머 66명</li> <li>심층면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이비부머의 경력 이동과 퇴직 과정 파악 및 생애전환기에서 나타나는 경력적·직업적·환경적 변화에 대한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준비에 따른 심리정서적 지원 및 의미에 대한 지원, 자기정체성과 인생 살기에 대한 지원, 대상에 따른 고용서비스 지원 차별화, 구체적인 고용서비스 등의 정책 제안</li> </ul>

질적패널 연구/조사	기원(년도)	저자	연구대상 및 방법	주요내용(연구목적)	연구결과·정책적 시사점*
베이비부마의 주된 일터인 퇴직 후 경력 경로 및 경력개발이 이를 위한 질적 집단 연구(2~3차년도)		김은식, 오진호, 심우정, 하지영, 2015; 김은식 외,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비부마 66명 (2015), 60명 (2016)</li> <li>• 심층면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베이비부마, 은퇴자 유형화, 베이비부마 세대 유형화, 퇴직자의 귀농·귀촌 선택 동기 등 분석</li> <li>• 베이비부마의 경력경로, 일의 의미와 인식, 감정, 행동, 삶의 변화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 여성 베이비부마 특성에 따른 고용지원프로그램 개발</li> <li>• 일·개인·가족 균형을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 퇴직에 따른 심리·정서적 지원 시스템 구축, 귀농·귀촌 관련 실질적인 정보 및 교육 제공 등의 정책 제언 제시</li> </ul>
		김정원 외,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명의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13명 면담조사</li> <li>• 양적패널조사 포함한 혼합연구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년도: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재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의 주요 특징 추출 및 정책적 시사점 탐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탐색과 결정 과정, 피로 이동 후 교우관계 변화양상 분석, 적응 조정 분석</li> <li>• 탈북청소년 정착단계별 교육지원 내용, 교육 지원체계, 교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정책 목표 및 방향성 설정 제안</li> </ul>
		김지수 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명의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 면담조사</li> <li>• 양적패널조사 포함한 혼합연구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년도: 탈북생 및 탈북청소년 대상 교육 지원 정책 방안 도출,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성장 과정의 주요 특성과 변화 양상 분석 및 교육 지원 정책 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대학생, 사회인, 학업중단 학생 등 발달단계 및 생활별 면담 실시 및 분석</li> <li>•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초기 정착에서 사회 진출까지 체계적 지원, 대안교육시설과의 연계협력,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li> </ul>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6~2019)	김정원 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명의 탈북청소년과 부모, 교사를 포함하여 70명 면담조사</li> <li>• 양적패널조사 포함한 혼합연구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년도: 탈북청소년의 주요 삶의 영역 및 탈북청소년 허위범주별 출생지 특성별 계층별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생애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의 종단적 변화양상, 그리고 양자간 상호관계 분석, 성장단계별 주요 삶의 영역별 공부·진로, 친구·가족, 정체성 등 분석</li> <li>• 탈북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정책과 이를 위한 기반구축 관련 정책 제언</li> </ul>
		김지혜 외,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명의 탈북청소년과 부모, 교사를 포함하여 69명 면담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년도: 탈북청소년의 삶의 교육에서 드러나는 주요 전환(turning) 분석 및 탈북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 사회의 통합 차원에서 전환의 의미 탐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청소년의 삶의 주요 전환(기초 하위)과 재구성, 제도적 공간 변화, 대안과 관계 등과 배경·양면 전환 강화 분석</li> <li>• 교육단계에 기초한 제도적 전환기 지원, 관리·정서적 전환기 지원, 복지연계 등 전환기 지원의 토대 강화, 중장기적 정책 추진 방향성 제안</li> </ul>

질적연구/조사	기원(년도)	저자	연구대상 및 방법	주요내용(연구목적)	연구결과-정책적 시사점*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1~4 중심		김경애 외,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 학교에서 최소 6명씩 총 52명의 학생과 학부모 면담, 심리검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년도: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경험에 대한 기초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단연구 설계인 도출, 중학교 입학 전까지의 성장배경과 과정의 특징을 가정, 학교,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li> <li>교육기획 확대, 자소속중/면지역 방과후 학교 여학생 프로그램의 구조화된 운영과 정착수준 담보, 파동림 방지 지역적 합류시스템 마련</li> </ul>
		김경애 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 학교에서 최소 6명씩 총 52명의 학생과 학부모, 담임교사 면담, 심리검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년도: 중학교 1학년 생활과 성장 과정, 성장과정과 관계, 중학교 제도 변화와 중학생 등의 의미 탐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교 1학년의 생활과 학습경험의 특징, 부모-모래-교사와의 관계 파악</li> <li>전환기 교육 실행성 제고, 학교교육 개선, 강한 또래 관계 형성, 교사-학생 관계 개선, 교과 학습외 학교 역할 확대, 지역사회 연계 통한 자립시간 돌봄 지원 등 정책 제안 제시</li> </ul>
		김경애 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 학교에서 남녀 6명씩 총 51명 학생들과 학부모, 담임교사 면담, 심리검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차년도: 중학교 2학년 생활과 성장 과정, 정체성, 국제 동계에서 본 우리나라 중학생의 특징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 교원 학교 및 지역교육 체제, 가정과 전체 사회문화로 구분하여 중학교 2학년 생활, 정체성 발달, 집단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정책 제안</li> </ul>
		정미경 외,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 학교 11~15명의 학생 면담조사, 학부모, 교사 면담, 심리검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년도: 중학교 3학년에서의 생활과 성장과정, 진로, 교육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생 기초능력보장 등 교육개혁의 변화 측면, 중학생 성장 지지기반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역할 강화 측면, 중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유학기제 기간 조정 등 제안</li> </ul>

\* 출처: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V: 질적방법조사를 중심으로, pp.43-44. 표의 내용을 추가 보완 작성하였음.

주: 가능한 질적연구결과에 초점을 두어 제시하려 했으나, 질적·양적연구방법론을 모두 활용한 혼합연구인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연구결과도 포함되어 있음.

## 2)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중단연구<sup>13)</sup>

본 절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질적 중단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2018~2021년간의 연구를 개관하고 그 의의와 함께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년 동안 학교 밖 청소년 2개 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018년의 1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들은 대부분 오래전 학교를 그만두고(상당수는 2013년 이전), 이미 성인기에 진입한 상태였다(윤철경 외, 2018).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로 구축되어 1차 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은 총 60명이었으며, 2차 조사에서는 48명이 면접에 참여하였고, 3차 조사에서는 대도시 거주자 22명은 면접조사에, 타 지역 거주자 20명은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하였다(김희진 외, 2020; 윤철경 외, 2018; 장근영 외, 2019).<sup>14)</sup> 4차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한 18명에 대해 면접조사를, 대도시 거주자 19명에 대해서는 패널관리조사를 수행하였다(김희진 외, 2021a).

올해 5차 조사에서는 모든 패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연구일정 및 역량, 자원 등 외적인 요인에 따라 전수 면접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개인적, 환경적 특수한 상황에 있거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사례, 그리고 과거 여러 번의 면접 참여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 인원의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중·후반으로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이후 청년기에 어떠한 의미로 남아있는지, 또 실생활과 진로 및 경제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020년에 새로 구축한 신규 패널 학교 밖 청소년들은 2020년에는 33명이 1차 면접조사에 참여하였고, 2021년에는 읍면/소도시 지역 청소년들을 좀 더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37명이 면접에 참여하였다(김희진 외, 2020; 김희진 외, 2021a). 최소한 3개년 조사가

13) 여기에서는 질적 중단자료에 초점이 있음에 따라,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와 협동연구로 수행된 여성 학교 밖 청소년 연구와 질적중단자료 심층분석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14) 기존 패널 대부분이 오래전 학교를 그만두면서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파악과 201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수혜 경험과 지원 요구들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2020년에 비교적 최근 학교를 그만둔 10대 중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규 패널을 구성함에 따른 연구예산 및 연구일정 등의 제약으로 기존 패널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주제(지역사회 지원방안)에 부합하는 지역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2020년에는 대도시 지역 거주패널을, 2021년에는 중소도시/읍면 지역 패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수행되어야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때(김미곤 외, 2012), 기존 패널과 달리 신규 패널은 올해 모든 연구 참여자가 면접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기존 패널은 대부분 3회 이상 인터뷰에 참여함). 이들은 비교적 최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로, 기존 패널과는 달리 관련 지원 법률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이러한 지원사업의 경험여부와 만족도, 개선요구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사업의 간접적인 효과성도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관련 법률 제정 전에 이미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청년이 된 패널들과 또 최근 관련 지원 사업을 경험한 청소년들로부터 이들의 학교 밖 생활경험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관계, 진로발달 및 자립 상황과 관련한 매우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특히 정부의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지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매년 연구 말미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다양하게 도출하여 정책적, 실천적 개선점들을 제안 하였다(표 II-5 참조). 다만 올해 연구가 종료되면서 향후 더 이상 면접조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다 장기적으로 이들의 발달 및 자립상황, 이후 가족구성과 성인기 삶의 양태까지 살펴볼 수 없다는 점에 큰 한계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법률에 기초하여 2년마다<sup>15)</sup>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에는 양적 데이터 수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소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회성 면담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면담조사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면적인 삶의 모습을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렵다. 추적 조사와 질적 종단연구가 전환기 청소년 지원 및 이들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일련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때(Ward & Henderson, 2003: 255),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의 삶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도권 교육을 떠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위한 풍성한 질적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15) 과거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3년이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제6조: 2021.3.23.개정) 실태조사 주기가 2년으로 변경되었다.

표 II-5. NYPI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연구

연구지(년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주요내용	연구결과·정책적 시사점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청소년 패널 60명(기존 양적 패널 중 선정)</li> </ul>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이항경로 유형별(학업형, 취업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사건들, 가족관계,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한 면접조사 및 심층 분석</li> <li>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li> <li>이전년도 면접결과에서의 변화내용, 사자, 가족, 친구, 학교 등에서의 관계변화 등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조사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기 이행 중인 학교 밖 청소년 60명을 질적패널로 구축, 1차 면접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li> <li>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 수행</li> <li>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무업청소년 지원 강화,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 공동 학습터 서비스 개선, 진로체계의 다양성 확보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경제 구축, 교육체계의 통합적 개편 등 5개 영역의 18개 세부정책과제 제시</li> </ul>
장근영, 윤철경, 서고은, 이동훈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청소년 패널 47명</li> </ul>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도시 지역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합동연구 수행; 지역사회 특성 및 배경, 자원 분포 등 해당 지역의 지원체계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년도 조사대상 중 추적, 조사에 참여한 4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학업중단 이진, 그 직후, 현재까지의 3개 단계별로 재구성하여 분석</li> <li>중간 규모 도시를 선정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와 심층면접조사 실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파악</li> <li>관계 회복 및 구축에 초점을 맞춘 개인 중요성 시사, 중간규모 도시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용공간 및 전문 인력 확보, 센터의 기능 확장과 지지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 등의 정책제언 제시</li> </ul>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질적 패널 (면접조사 22명+ 패널관리조사 20명)</li> <li>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33명</li> <li>현충전문가 실무자</li> </ul>	면접조사, 설문조사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학교 밖 청소년(20대 초·중반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만 15-19세) 대상 면접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li> <li>대도시 지역 공동학습 종사자센터 실무자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대도시 지원체계 파악 및 지원방안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차 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 중 대도시 거주 2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다른 지역 거주 20명은 패널관리조사 실시</li> <li>최근 학교를 떠난 만 15~20세 학교 밖 청소년 33명을 대상으로 신규 질적 패널 구축 및 1차 면접 실시</li> <li>특정 시·세 곳의 공동학습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해당 지역 특성과 지원분포 등 대도시 지원체계 파악</li> <li>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의 면접조사결과와 대도시 지원체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시·자치-지역사회(대도시) 수준별 정책 및 개선방안 제안</li> <li>학교 밖 청소년 인구조, 지역사회 규모 및 자원 현황을 고려한 학교밖청소년지원 체계 모형 제시, 현직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 체계 등 개선방안 제안</li> </ul>

연구지(년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주요내용	연구결과·정책적 시사점
김희진, 서고운, 김은성(202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질적 패널 (면접조사 18명+ 패널관리조사 19명)</li> <li>신규 학교 밖 청소년 37명</li> <li>현장전문가, 실무자, 연계기관 담당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접조사</li> <li>설문조사</li> <li>(조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청소년(20대 초·중반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10대 중·후반) 대상 면접 실시, 결과 분석)</li> <li>읍면/소도시 품드림 중보자 대상 조사, 결과분석 및 읍면지역 자원체계 파악 및 지원방안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패널 중 여성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추가면접 실시, 그 결과, 학교와 지역 사회의 자원체계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안전망 강화, 여성청소년의 성·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의 정책 제안</li> <li>전년도에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한 대도시 외 타지역 거주 패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대도시 거주 22명은 패널관리조사 참여)</li> <li>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패널로 추가하여 37명에 대해 면접 실시</li> <li>읍면/소도시 5군데 품드림센터의 중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지역사회 특성 및 자원분포 등 놓아준 포항 소외지역 자원체계 파악</li> <li>연구결과를 토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계를 통한 지원방식 다변화와 접근성 확대, 학교체계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전문화된,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 읍면지역,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민항성에 기초한 정책제언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패널 대상 질적중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차회의 마련에 참여한 20대 중반의 기존 패널들의 면접자료를 활용하여 37개의 주제(학교 밖 생활 및 0후 청년기까지의 경험, 질적 중단연구, 학교 밖 청소년의 이동기 부정적 생애강함/생리·정서적 상태, 학교 밖 청소년의 사명 경험 중단연구)로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질적 중단 분석 수행</li> </ul>

\* 출처: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p.47-48 표의 내용을 추가 보완

### 3) 질적 종단연구 및 관리 주요 이슈

사회과학, 특히 사회정책연구에서 질적 종단연구의 잠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적 종단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단순히 결과보다는 그 과정과 변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인에 대한 초점과 관련되어 있다(Thomson, 2007: 571-572). 즉, 질적 종단연구는 특정 인구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를 측정하기보다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더 깊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Molloy, Woodfield, & Bacon, 2002: 6). 또한 사회문제가 어떻게 개인의 문제로 되어 가는지를 탐색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개입효과와 작동 원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계량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소수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의미 있는 이론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Farrall, 2006; 최현수 외, 2011: 58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질적 종단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특히 올해는 면접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데이터를 관리, 활용하는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질적 종단연구에서의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로, 비밀유지, 사생활 침해관련, 연구 과정에 대한 동의(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데이터의 소유권과 같은 연구윤리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Holland et al., 2006). 구체적으로 질적 종단연구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속 조사 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특히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문제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Holland et al., 2006). 또한 이러한 질적 종단자료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일에 직면하여,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다른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의 복지(well-being)에 대한 우려, 둘다에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Thomson, 2007). 앞서 살펴본 빈곤관련 질적 종단연구들 중에서도 연구 참여 가구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해, 일차적으로 원자료에서 신원파악이 가능한 정보들은 당연히 블라인드 처리하고, 연구 수행 시에도 개별 녹취록이 아닌 가공된 자료만을 활용하는 등 연구 참여 가구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최현수 외, 2011), 탈북청소년 종단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종단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지만 양적 데이터만 관련 지침 하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지혜 외, 2019).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0대 중·후반과 10대 중·후반의 학교 밖 청소년 패널로부터 광범위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매년 각 패널집단으로

부터 수집된 자료는 횡단분석에 활용하였고, 2020년에는 기존 패널로부터 2018~2020년에 수집된 자료 일부에 대해 종단자료 분석을 시범적으로 시도하였다(김희진 외, 2020).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2021년에는 협동연구를 통하여 기존 패널들로부터 수집된 질적 종단자료들에 대해 3개의 주제로 종단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김희진 외, 2021a). 이는 청소년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 연구자들의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을 통해 최대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학술적 기여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2022년에도 협동연구를 통해 기존 패널 자료 뿐 아니라 올해 3차 조사를 완료하게 되는 신규 패널 자료까지 이러한 종단적 심층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조사 참여자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최근의 사건들,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본 연구의 질적 자료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현재 원 자료인 전자자료와 필드 노트 등에서 청소년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자료파일 제공 등을 위한 이메일 전송 시에는 모두 암호화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년간 누적된 전자자료 속에서 해당 조사 참여 청소년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본명은 초성 처리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보안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질적 종단연구와 같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된 면접은 이야기 수면 밑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며, 또한, 그 전체는(the whole) 각 부분들의 합(the sum) 이상이 된다(Thomson, 2007: 579).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번 수행된 면접결과 역시 심층적인 자료 제공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프라이버시(사생활, 개인정보 등)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도 여전히 상존한다. 또한 현재 본 연구의 자료원이 대부분 취약한 상황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동연구를 통한 신뢰할만한 질적연구 전문가들을 통한 2차 자료 분석이 본 자료의 활용성과 또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본원의 수사과제 등의 후속연구를 통한 2차 자료 분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과 지역사회 지원

####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서 보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고등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학교 밖 청소년 사례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미진학 상태였다. 이는 학교를 그만둔 많은 청소년들이 10대 중·후반 연령대에 있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에 압박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성인기 이행과 성인으로서의 자립<sup>16)</sup>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성인기로의 이행은 청소년이 집을 떠나, 학교교육을 마치고, 직장(직업)에 안착하며, 결혼 상대를 찾아 가족을 구성하는 성인으로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MacArthur Research Network on Transition to Adulthood, 2005). 그러나 이 시기는 과거 수십 년간 더 불확실해지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일과 관련하여 더욱 고군분투하고 원 가족의 집에서 더 오랜 기간 머무르며, 결혼을 통한 가족 구성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Settersten, Furstenberg, & Rumbaut, 2005).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다(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성인기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미 1980~1990년대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초기 청년기(young adulthood) 시기의 연장, 즉 성인기 이행과정의 지연에 대한 것으로 앞서 언급한 성인기 이행(학교→노동시장, 독립 가구 구성 등)을 위한 규범적 시간 표가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Berlin, Furstenberg, & Waters, 2010; Rumbaut & Komaie, 2010). 위의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자녀들의 더 길어진 성인기 이행기의 부담(더 오랜 기간 교육체계에 남아 있거나, 부모의 집에서 동거하는 등)을 부모가 갖게 된 것이다(Furstenberg, 2010).

성인기로의 이행이 과거와는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자들로 부터 주목을 받아오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

16) “청소년의 자립(self-reliance)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의지하거나 예측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김지연, 백혜정, 2017: 11)라고 정의할 때, 여기에서는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은 결국 성인으로써 자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순차적으로 취업하고 독립하여, 가족을 구성하길 기대하고 있다. 성인기 이행과정의 청소년들 역시 정서적,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준비에 대한 부담을 함께 갖는다.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성인의 역할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학교에서 일자리로 (school to work), 그리고 원 가족에서 결혼 등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수반한다 (Rumbaut & Komaie, 2010). 여기에서 결혼이나 가족구성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구분한다고 해도(저출산 문제의 경우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성인기 이행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개인적 차원의 원 가족으로부터의 독립과 새로운 자신만의 가족 구성 역시 보편적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결국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school to work transition pathways) 결국 이들이 어떻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인으로 성장하는지를 예측하게 하는 주요 변수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이러한 성인기 이행과 관련한 담론에서 학생 청소년과 차원을 달리한다. 먼저, 대다수 또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자신의 성인기를 준비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원 없이 당장의 자신의 성인기 삶과 진로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하는, 대체로 또래보다 이른 성인기 이행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더 부모가 관여하게 되는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진학의 사례가 아니라면, 많은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스스로 진로를 결정, 준비하고, 등교 대신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라도 마련해서 경제적으로도 더 독립적이 되어야 하는 등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을 거쳐야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부모를 설득하고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분명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둔 후 바로 자신의 계획대로 실행하는 사례도 많지만, 심리정서적, 경제적으로 성인기 이행과정을 빨리 거쳐야 하는 무언의 기대감과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렇게 성급하게 성인기 이행과정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또래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이 일반적으로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이 학교 교육을 끝내고 고용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김기현 외, 2021: 23-24),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의 자원(교사의 지도, 진학/취업 정보와 같은 자원)이나 자본(예, 교사

및 친구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또는 더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대부분 혼자 힘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인기 삶을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많은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이제는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체계를 통한 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학교를 나오면서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 사회의 장(場)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 자립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학교 대신 사회의 다양한 기회들이 어떻게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의 중요성

청소년은 가족, 친구 등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성장하게 되며(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2012), 지역사회 역시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맥락 중 하나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이제 지역사회는 학교 대신 가장 다음의 가장 인접한 체계로서, 또 다층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사회학의 정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적 개념과 심리, 문화, 사회적 유대감 등으로만 살펴본다고 해도(예, 문창용, 나주몽, 2013; Hillery, 1955 등)<sup>17)</sup> 이러한 사회의 영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는 또래의 학생 청소년보다 더욱 중요한 체계이다.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인기 이행을 위한 여러 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로부터 성인기 이행을 위한 여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생들보다 빨리 사회로 진입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다양하고 시급하게 그들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에 위치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설치된 이 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

17) 지역사회 개념과 정의에 대한 많은 논의를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지리적 공간, 상호작용과 유대감, 정체성, 공동체성, 심리적 유대감 등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예, 문창용, 나주몽, 2013; 천정웅, 2011; Fellin, 2001; Hillery, 1955 등).

지원하는 중심체계로서, 검정고시 지원, 자격증 준비 지원,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다(김희진 외, 2020).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징과 욕구 역시 다변화됨에 따라, 이들의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중요성이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내 지원의 중요성은 특히 인간발달과 관련한 전통적인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모델(Bronfenbrenner, 1979)을 통해 잘 설명된다. 즉,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환경인 미시체계(가족, 학교 등), 중간체계(가족과 학교, 이웃 등과의 상호관계 등), 외체계(부모의 직장, 형제가 재학 중인 학교, 지역의 학교위원회 활동 등), 거시체계(예: 규범, 문화 등)(Bronfenbrenner, 1979: 22-26)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더욱 잘 조명한다. 지역사회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미시체계로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또 이 지원센터와 청소년사업장과 같은 지역사회 내 연계기관과의 관계는 중간체계로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기관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학교 밖 청소년 자신들을 위한 정책수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장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인식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중요성,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논의에서 지역사회의 규모, 특성 등에 따른 지역별 지원의 격차 역시 재조명되어야 한다. 실제로 몇몇의 실증논문들은 사회적 약자 혹은 취약계층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원의 불평등을 지적하였는데, 최민정과 권정호(2014)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과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을 비교분석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은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건강측면에서, 사회참여 분야에서, 또 가족관계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아동의 건강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는데, 연구 결과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은 건강, 병원입원 경험, 영양섭취적인 측면, 운동관련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적 인프라를

확장시킬 필요성 등의 지역사회 불평등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제안하였다(김세원, 김선숙, 2012).

이러한 지역별 지원 격차 이슈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일정부분 평준화된 지원을 전국 각지의 학교체계를 통해 제공받는다. 그러나 학교 대신 사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역별 지원 격차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018년부터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들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지역별 인프라와 관련 예산, 지자체의 관심 등의 차이가 실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원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김희진 외, 2020; 김희진 외, 2021a; 조아미, 임정아, 2018; 조아미 외, 2019). 그 중에서도 읍면지역의 지원체계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 이들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내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학업준비 및 진로와 관련한 활동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며, 또 이동성(mobility)이 문제로 지원서비스 접근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김희진 외, 2021a).

상기한 연구 결과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제 더 이상 제도권 교육의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정배경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인 경우가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들을 둘러싼 주요 환경체계인 지역사회라는 변수로 지원 격차를 경험하는 것은 결국 불평등,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sup>18)</sup>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이는 지자체의 재정적 수준과 지자체장 및 지역사회 공무원의 관심도와 같은 여러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한다고 해도, 지역사회 차이로 인한 지원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

---

18) 지역 격차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에서의 고용, 주택, 사회적 서비스, 교통,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과 결핍의 문제는 결국 사회적 배제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Shucksmith & Philip, 2000).

# ○ — 제3장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조사

- 1. 기존 패널 개요
- 2. 면접조사 내용 및 방법
- 3. 분석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 1. 기존 패널 개요

### 1) 기존 패널 현황

#### (1) 기존 패널 규모·현황

본 연구의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은 2013~2017년에 수행된 학업중단 청소년 양적중단조사의 패널로 구축된 인원 중, 2018년에 질적 패널로 선정되어 당시 1차 조사에 참여한 이들이다.<sup>20)</sup> 2013년 당시 이미 학교를 그만둔 상태임에 따라 현재 이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20대 중·후반이며, 학교를 떠난 이후 약 10여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 이들은 2014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대부분 동 법률에 따른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지원 사업 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해밀’사업이 있긴 했지만, 현재와 같이 전국의 시·군·구에 대부분 설치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수준에 비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수집된 질적자료에서 대부분의 기존 패널들은 취업현장에 있었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가족을 꾸리며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하는 일이 뚜렷이 없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김희진 외, 2020; 김희진 외, 2021a; 윤철경 외, 2018; 장근영 외, 2019). 따라서 이들이 청소년기 시절 공교육을 중단한 이후 성인기 이행과정으로서의 삶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 이 장의 1절과 2절의 1)~3)의 내용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절의 4)의 내용과 3절 및 4절은 외부공동연구자인 조혜영 교수(공주교육대학교)가 집필하였다.

20) 이외에 2014~2016년 동안 패널 유실에 따른 대체 패널로 일부 포함된 사례들도 있다.

표 III-1은 2018년 이후 매년 면접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들의 규모를 보여준다. 2020년에 최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규 패널을 구축하면서, 제한된 연구 예산문제로, 연도별로 패널들의 거주지 규모를 구분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이들 모두는 어느 정도 종단분석이 가능한 3차 면접조사까지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신규 패널은 올해까지 모두 면접에 참여해야 최소한 두 차례 이상의 질적자료 수집이 가능해진다. 이에 2021년까지 면접 및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 약 40여명 모두가 면접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에 따라, 일부 조사거절이나 조사에 불성실한 사례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 함의를 줄 수 있는 사례들을 우선 선정하였다.

표 III-1. 기존 패널(2018~2022년) 연도별 조사 패널 수

구분	2018년(1차)	2019년(2차)	2020년(3차)	2021년(3차)*	2022년(4차)
나이	만18~24세	만19세~25세	만20세~26세	만21세~27세	20대 중후반
조사완료 패널 수	면접조사 : 60명	면접조사 : 48명	42명 (면접조사 : 22명, 패널관리조사 : 20명)	37명 (면접조사 : 18명, 패널관리조사 : 19명)	27명

\* 출처: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98의 표 III-1 업데이트

주: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이 거주하는 지역이 대도시(특별·광역시)인 경우는 2020년 면접조사에, 중소도시/읍·면 거주자는 2021년 면접조사에 참여함에 따라, 패널이 참여한 면접조사 차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 (2) 조사대상자 선정

올해 면접조사에 참여 가능한 기존 및 신규 패널 면접 대상자 숫자는 70명 내외로, 단기간 질적 조사를 수행하기에 매우 큰 규모이다. 이에 제한된 연구 범위와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기존 패널 대상 면접조사는 더욱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또 그동안 면접에 성실하게 임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신규 패널은 모두 면접에 참여하게 하여 종단분석을 위해 최소 2차례 이상의 질적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기존 패널 중 올해 면접조사대상자 선정절차를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I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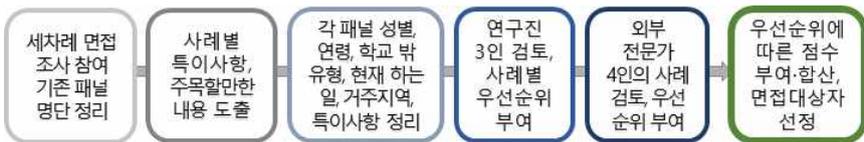


그림 III-1. 기존 패널 면접대상자 선정 절차

기존 패널 중 올해 면접에 참여하게 되는 조사대상자 선정이 중요한 절차가 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세 차례에 걸쳐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기존 패널 40여명의 성별, 연령, 학교 밖 유형, 거주지 규모와 이들의 과거 전사자료에서 유의미한 사항들, 현재 하는 일 등을 간단히 정리하였다(표 III-2 참조).

다음으로 각 사례별로 특징이나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과거 전사자료들을 통해 정리한 후 개별 사례들에 대해 먼저 연구진이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 및 질적연구 전문가 4인에게 해당 자료 검토 후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하였다. 우선순위는 성별, 거주 지역, 학교 밖 이후 이행경로에 따른 유형(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을 적절히 안배하면서, 각 사례의 학업중단과정 및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진로발달과 현재 진로 관련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표 III-3과 같이 우선순위별 사례 정렬을 위해,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총 7인이 우선순위 및 후순위 선정 사례들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1차 면접대상: 2점, 후순위 면접대상: 1점), 점수화 한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여 패널을 접촉·관리하는 조사위탁기관에 전달하였다. 선정된 패널들에 대해 조사위탁기관은 우선순위가 높은(점수가 높은) 패널들의 면접참여 의사를 순서대로 확인하여 면접대상자를 확정하였다.

표 III-2. 2022년도 면접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존 패널관련 정리 파일(예시)

이름(가명)	성별	출생년도	학교밖 유형	거주지 규모	현재 하는 일	비고*
이 O	남	97년	직업형	대도시	사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단따돌림으로 학업중단</li> <li>학교 재학시 친구들과 마주치면 아직도 괴롭힘</li> <li>OO대 XX학과 재학 중 그만둠</li> </ul>
안O은	여	95년	무업형	소도시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자퇴후 결혼 및 출산(한국나이 21세경)</li> <li>정신과 치료 중</li> </ul>

주: \* 여기 제시된 내용들은 매우 구체적임에 따라 특정되지 않도록 여러 사례들을 혼합한 것이며, 실제 내용과는 다름. 실제로는 더욱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하였음.

표 III-3. 2022년도 면접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산출 방식(예시)

가명	성별	출생년도	학교밖 유형	1순위(2점)		후순위(1점)		총 점수
이 O	남	97년	직업형	전문가 4인이 1순위로 선정	4명×2점=8점	연구진 3인은 후순위로 선정	3명×1점=3점	11점
안O은	여	95년	무업형	전문가 2인, 연구진 1인이 1순위로 선정	3명×2점=6점	전문가 2인, 연구진 2인이 후순위로 선정	4인×1점=4점	10점

## 2) 기존 패널 면접대상자 추적 결과

기존 패널 중 면접대상자 접촉 우선순위를 정하여(그림 III-1 참조), 패널관리 기관에 전달하여 패널들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2018~2021년까지 면접에 참여한 기존 패널 40명을 우선순위에 따라 접촉한 결과, 최종적으로 접촉에 성공하고, 또 조사 참여에 동의한 27명의 현황은 표 III-4와 같다. 올해 면접에 참여한 기존 패널은 총 27명으로 남자가 17명, 여자가 10명으로 남자참여자의 수가 훨씬 많았다. 가장 나이가 많은 패널은 만 28세로 1명이었고, 만 27세 8명, 만 26세 6명, 만 25세 10명, 만 24세 1명, 만 23세 1명으로 대부분 20대 중·후반이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규모별로 보면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거주자가 11명, 중소도시 거주자가 14명, 읍면지역 거주자가 2명이었다. 2018년에 처음 패널로 구축될 당시 학교 밖 이행경로 유형별로는 학업형 9명, 직업형 10명, 무업형 8명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현재는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었다. 일부는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조만간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 패널들의 상당수가 직장인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면접조사를 추진하였다.

표 III-4.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및 접촉 결과

ID	성별	출생 연도	만 나이	1차 조사 시 (2018) 학교 밖 유형	현재거주 지역규모	면접참여 연도	현재하는 일
1	남자	94년	28	직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2021	취업(공장 정규직)
2	여자	95년	27	무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2021	아르바이트
3	남자	97년	25	직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2020	취업
4	남자	95년	27	무업형	특별·광역시	2018, 2019, 2020	취업
5	여자	97년	25	직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취업
6	남자	95년	27	무업형	읍면지역	2018, 2019, 2021	음식점 운영
7	남자	97년	25	직업형	특별·광역시	2018, 2019, 2020	취업
8	남자	99년	23	무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2020	식당보조/입대예정
9	여자	96년	26	학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2020	취업
10	남자	98년	24	직업형	특별·광역시	2018, 2019, 2020	취업(보안업무)
11	남자	95년	27	무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2021	취업
12	남자	97년	25	학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2021	아르바이트(배달)

ID	성별	출생 연도	만 나이	1차 조사 시 (2018) 학교 밖 유형	현재거주 지역규모	면접참여 연도	현재하는 일
13	남자	97년	25	직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2021	아르바이트(편의점)
14	여자	97년	25	직업형	특별·광역시	2018, 2019, 2020	특별히 하는 일 없음
15	여자	95년	27	학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2021	특별히 하는 일 없음
16	여자	96년	26	학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2021	기타
17	여자	97년	25	무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2021	취업
18	여자	97년	25	학업형	특별·광역시	2018, 2019, 2020	취업
19	여자	97년	25	학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2021	취업
20	남자	96년	26	직업형	특별·광역시	2018, 2019, 2020	특별히 하는 일 없음
21	남자	95년	27	무업형	중소도시	2018, 2019, 2021	취업(강사)
22	남자	96년	26	학업형	특별·광역시	2018, 2019, 2020	취업(웹관리)
23	남자	95년	27	직업형	읍면지역	2018, 2019, 2021	취업(전기)
24	남자	95년	27	무업형	특별·광역시	2018, 2019, 2020	취업(건설)
25	남자	97년	25	학업형	특별·광역시	2018, 2019, 2020	군복무, 아르바이트
26	남자	96년	26	학업형	특별·광역시	2018, 2019, 2020	취업 준비(공무원)
27	여자	96년	26	직업형	특별·광역시	2018, 2019, 2021	취업

주: 정확한 만 나이 산출은 출생년월일을 모두 고려해야 하나 편의상 일괄적으로 '2022-출생연도=만 나이'로 계산하였다.

## 2. 면접조사 내용 및 방법

### 1) 조사내용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내용은 2018년 1차 조사 시 개발된 면접지를 기초로 하여 전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재정비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및 질적연구 전문가,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현장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개인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들을 모두 아우르되, 이들이 건강한 성인기이행을 거쳐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현재생활 및 진로발달 상황,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청소년기 경험에 대한 인식 및 영향, 경제적 상황 및 자립과 미래 전망, 자신에 대한 생각과 사회적 관계(지지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올해가 마지막 인터뷰에 따라 어떠한 진로발달과정을 거쳐 자립에까지 이르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학교 밖 경험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및 정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적연구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따라 과거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과 이후의 삶의 과정 속에서 거의 매년 본 연구의 면접에 참여한 것에 대한 회고를 듣고자 하였다(구체적인 상세 면접지는 부록1 참조). 여러 면접원이 인터뷰를 진행함에 따라 최대한 구조화된 형태로 면접지를 구성하였으나, 개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다. 이에 따라 본 총괄보고서에서는 정책과제 도출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진로발달 현황과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횡단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올해 수집된 면접자료는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그동안 축적된 질적자료들과 함께한 질적중단자료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질적중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에 제시하였다(별권으로 발간).

표 III-5. 기존 패널 대상(20대 중·후반) 면접조사 조사영역 및 내용

영역	면접내용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살고 있는 곳(이사 등 확인): 거주형태(자취, 부모님 집, 친구 등)</li> <li>• 마지막 학교 그만둔 시기 재확인</li> <li>• 현재 주로 하는 일: 변화 여부 확인</li> </ul>
현재생활 및 진로발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생활 탐색: 학업, 직업준비, 취업, 무업, 군대 등 응답자 상황에 따라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상황과 비교하여 진로관련 변화 내용 탐색</li> <li>- 과거 검정고시,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경험 등 조사</li> <li>- 학업/취업의 경우 현 상황과 목적/이유, 현재 활동, 만족도와 요구 등</li> <li>- 무업의 경우는 하루일과, 이유, 만족도, 변화 가능성 등</li> <li>- 군복무 여부, 이후 생활</li> </ul> </li> <li>• [무업인 경우] 하루 일과 및 일정, 만족도와 원하는 생활과 요구</li> <li>• 직업 결정 유무 및 직업 준비 상황</li> <li>• 최근 관심사나 고민(건강, 경제적 어려움, 거취나 생활문제 등)</li> </ul>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생각과 시간 경과에 따른 차이</li> <li>- 본인이 계속 학교를 다녔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와의 비교</li> <li>-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만족도</li> </ul> </li> <li>•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학교/정부(국가)의 역할</li> </ul>
청소년기 경험에 대한 인식 및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 청소년기(10대)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과정 및 학교 밖 생활 경험 포함</li> </ul> </li> </ul>
경제적 상황 및 자립과 미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경제 상황 및 주거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수입원, 소비현황,</li> </ul> </li> </ul>

영역	면접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상황(부모님과 거주 또는 독립생활)</li> <li>- 대출, 빚, 신용불량 상황</li> <li>• 성인기 이행과 자립</li> <li>- 성인과 자립의 의미, 이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인식</li> <li>• 미래 전망: 미래에 대한 걱정/불안, 극복 방안</li> </ul>
자신에 대한 생각과 사회적 관계(지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에 대한 인식</li> <li>- 자신에 대한 생각(자존감 등)과 학업 중단, 학교 밖 경험과의 관계,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과 대처 방식</li> <li>• 심리사회적 상태: 스스로에 대한 만족/불만족, 부정적 감정 유무 및 이유, 사회적 고립감</li> <li>• 소중한 사람(역할 모델 및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포함)</li> <li>• 가족과의 관계, 친구·이성 관계, 이외 중요한 관계(학업·취업 현장, 지원체계에서의 관계/중요도 등)</li> </ul>
가족구성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본인 가족 구성 현황</li> <li>- 동거/결혼, 자녀 유무 및 동거/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 상황</li> <li>- 학교 밖 경험과 동거/결혼 상황·인식 관련성</li> <li>• 결혼관, 동거/결혼 생활의 어려운 점/만족스러운 점, 지원 요구</li> </ul>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과 세부 정책과제, 사회 일반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과 지원 요구</li> <li>- 학교를 그만둔 후 지역사회(기관 포함)로부터의 도움 경험과 경로, 어려움</li> <li>- 학업중단 이후 가장 필요했던 지원</li> <li>-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자체, 정부의 노력/지원 요구(꿈드림센터에 기대하는 점)</li> <li>• 기타 세부 정책 과제(학교 밖 청소년 공간 마련, 경제적 지원, 진로상담사 배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방법 등)들에 대한 생각</li> <li>• 사회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 인식, 낙인/차별 경험 유무</li> </ul>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경험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본 면접에 여러번 참여했던 경험에 대한 회고</li> <li>- 삶의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둔 경험에 대한 생각, 후배나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li> </ul>

\* 출처: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p. 103-104의 면접조사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함.

## 2) 조사방법

위의 면접조사지와 조사참여에 필요한 모든 동의 양식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마친 후, 바로 면접원을 선발하여 면접교육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합하여 대략 50여명을 대상으로 각 1~2시간에 달하는 면접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면접원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제한된 기간 내 면접을 완료할

수 있다. 따라서 질적자료 수집에 있어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한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있는 청소년복지 전공 석사와 아동·청소년 복지 전공 박사과정생으로 총 4명의 면접원을 선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년도에 면접을 잘 진행한 것으로 평가된 면접원을 재섭외하였으며, 일부는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전공 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면접원 교육 워크숍에서는 본 연구의 개요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였고, 면접지를 전체적으로 리뷰하면서 각 질문의 의도와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면접진행을 위한 당부와 주의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면접원들이 본 인터뷰에 임하는 생각과 태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고, 또 해당 면접에 대한 전문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에 대한 면접진행은 동일하지만 이들의 연령대와 패널로 구축된 시기,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수혜에 있어 차이가 큼에 따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면접대상자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면접을 진행할 때는 구조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진행하되, 면접에 응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였고, 질문내용을 적절히 스크리닝 하면서 진행하도록 주문하였다. 면접원들과 면접지를 리뷰하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면접지에 제시된 질문내용에 따라 진행하되, 단답형 응답이 되지 않도록 답변 내용의 이유와 맥락 등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도록 질문하는 방법 등 질적자료 수집 방법을 더욱 강조하였다. 또한 면접을 진행했을 당시의 면접참여자의 태도와 분위기, 환경, 그리고 특정 질문 등에 대한 반응 등 특이사항에 대해서 면접사례마다 필드 노트(field note)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필드 노트 내용은 이후 개별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면접내용에 대한 검증차원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아직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면접대상자가 특별히 대면면접을 희망하지 않는 한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면접을 기본방식으로 면접을 수행하였고, 대략적으로 사례마다 1시간~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신상 및 개인정보(연령, 거주지 등)를 확인하였으며, 중간에 면접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과 녹음의 필요성을 고지하였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조사결과로 수집된 면접 음성파일, 전자자료, 필드 노트는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 DB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었다.

Field Note					Field Note					
[면접자 성명: 전○○ ]					[면접자 성명: 조○○ ]					
<b>1.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b>					<b>1.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b>					
PID	성명	연령	면접일시	면접장소	면접시간	PID	성명	연령	면접일시	면접장소
5x×x	○○○	만 27세	2022. 6. 25. 토. 오전 11시	ZOOM 온라인	평일세 점심시간 아르바이트, 그 외 시간에는 육아 및 집안일	7x×x	○○○	25세	22.07.02. 14:00-15:20	온라인
<b>2. 면접분위기과 제언</b>					<b>2. 면접분위기과 제언</b>					
<b>1) 면접참여자의 전반적인 인상 및 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문에 대해 성실한 태도로 대답을 해주었지만 답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었음.</li> <li>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거나 잘 알지 못한다고 하여 답변을 듣지 못한 질문들도 있었음.</li> </ul>					<b>1) 면접참여자의 전반적인 인상 및 태도</b> <p>면접참여자가 면접시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자고 일어난 상황이었음. 곧바로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하여 참여자는 핸드폰으로 접속하여 이야기를 나눔.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참여자의 배경으로 보이는 집안은 깔끔한 편이었음. 인터뷰 질문에 모두 성실성있게 대답해주었음.</p>					
<b>2) 면접 분위기(상행/하행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용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이루어짐.</li> </ul>					<b>2) 면접 분위기(상행/하행 등)</b> <p>질 안에서 휴식을 취하다 면접자의 전화를 받고 일어나 인터뷰를 시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었음. 인터뷰 과정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 사회성이 부족하여',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이 반복되기는 했지만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하는 모습 등이 느껴졌음.</p>					
<b>3) 분석 시 유의할 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한 상태이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li> <li>결혼과정과 결혼생활 중 학교 중단 경험의 영향은 없다고 생각함.</li> <li>본인에게 시간이 있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집안일과 육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직업과 진로 방향, 이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다고 함.</li> <li>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다녔다면 고등학교 때 본인의 전공(레완동물 관리)을 살려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학교 중단을 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음.</li> <li>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공간이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밖으로 걸돌 것이기 때문에 전용 공간이 있어서 보살핌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함.</li> <li>푸드필, 내일이음학교 등이 본인인 학교를 중단했을 때에도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다고 생각함.</li> </ul>					<b>3) 분석 시 유의할 점</b> <p>특별한 사항 없음.</p>					
<b>4) 기타사항(추가 질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등)</b>					<b>4) 기타사항(추가 질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등)</b> <p>초등학교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하면서 시골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서울로 왔다고 하였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으나 면접참여자가 말하기 불편해 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음. 향후 추가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그 시기가 학업 중단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참여자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음.</p>					

그림 III-2. 2022년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 시 작성된 필드 노트 예시

### 3) 면접참여자 특성

이 절에서는 기존 패널을 대상으로 2018~2022년간 수집된 방대한 질적 자료 중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성인으로 자립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 제안 도출에 함의를 주고자 이들이 면접 당시 하고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수십 명이 수차례 면접에 참여함으로써 산출한 질적 자료는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이들이 면접 당시 진로와 관련하여 하고 있는 일과 준비하고 있는 일 등에 대해서만 따로 정리하는 것도 용이한 작업은 아니었으나, 최대한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면접당시 주로 했던 일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그 결과인 표 III-6은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본 면접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나, 진로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어떻게 생활했으며, 진로가 어떻게 정해지고, 또 현재 어떤 상태인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2018년에 처음 패널로 구축될 당시의 학교 밖 이행경로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학업형 9명, 직업형 10명, 무업형

8명이었는데, 2022년 현재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부분 취업을 했거나 구직 상태 중이었다. 즉, 현재 대부분의 패널들이 취업상태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거 대학에 재학 중이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던 패널들은 일부 결혼도 하고, 다양한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에 성공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으나 가족을 더 잘 부양하거나 가족의 채무로 추가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기도 했고, 그동안의 특별한 기술이나 업무 경력으로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하거나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도 하였다(테마파크, 보안업무, 간호조무사, 출판사, 회계, 웹 관리, IT, 자재물류관리 업무, 전기기술 등). 드물게는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등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관련 직종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도 여럿 있었고(식당 서빙, 오토바이 배달대행, 편의점, 오락실, 약국 등), 일부는 퇴사 후 잠시 쉬면서 이직이나 공무원 준비를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2018년 패널 구축시의 학교 밖 유형, 거주 지역, 학교를 그만둔 이유,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각 패널 개인의 다양한 삶의 경로를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학교를 그만둔 20대 중·후반 연령대라는 점이다. 즉 이들 대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학교를 그만두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뒤늦게 연령대가 낮은 소수의 경우 약간의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음). 따라서 대부분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돈이 되는 모든 일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1번 패널), 또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비영리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례도 있었다(8번 패널).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하는지 여러 측면의 함의를 제공한다.

표 III -6. 2022년 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의 학교를 그만둔 사유와 진로 관련 상황

ID	이름 (기명) <sup>1)</sup>	성 별	출생 연도	만 나이 <sup>2)</sup>	2018년 학교 밖 유형	가주지 규모	학업 중단 시기	학교를 그만둔 이유	면접 참여 당시 진로 상황(주로 하는 일) (빈칸은 면접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가 없음)			
									2018년	2019년	2020~2021년 <sup>3)</sup>	
									2022년			
1	안□□	남	94년	28	직업형	중소 도시	고2	유형주점 서빙 등 경험, 퇴학처분	건설현장 일용직	유형주점 서빙	(2021) 아르바이트 (게임장)	공정 기술직으로 정규직 취업 운동 관련 자격증 취득 계획(장신과 치료 경험, 3년전 결함)
2	최○○	여	95년	27	무업형	중소 도시	고2	학교 무단결석	무직(육아)	무직(육아)	(2021) 아르바이트 (음식점 서빙)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학교를 그만둔 후 결함, 출산 경험, 육아중)
3	이□□	남	97년	25	직업형	중소 도시	고1	학교 결석, 출석일수 미달	상근예비역	아르바이트 (뷰티 서빙)	(2020) 취업예정	골프장에서 근무 중(기술 자격증 있으나 돈을 더 벌기 위해 골프장에서 일함)
4	김○○	남	95년	27	무업형	특별·광역시	고2	학과 적성 맞지 않음, 학교 결석	취업준비	○○자동차 협력업체	(2020) 심업급여/취업준비	퇴사 후 쉬는 중(공무직 준비 혹은 창업 희망)
5	장△△	여	97년	25	직업형	중소 도시	고1	집단 따돌림 경험(아직도 동네에서 만나면 실랑이가 있음)	소광물 사무직/방통대 재학	온·오프라인 소광물 사무직/ 방통대 후학	—	테마파크에 정규직으로 취업(경제적 이유/시간관계로 방통대 그만둠)
6	강 ○	남	95년	27	무업형	읍면 지역	고1	놓고 싶은 마음에 학교 결석	음식점 운영	음식점 운영	(2021) 음식점 운영 (점포 확장)	친인척 운영 음식점을 이어받아 운영중, 확장계획이 있음.
7	오△△	남	97년	25	직업형	특별·광역시	고1	학교에 다니는 패턴에 대한 실패, 사회생활 경험 필요	백화점 판매직	백화점 판매직	(2020) 백화점 판매직	공정일을 하면서, 개인방송일을 취미로 하고 있음(학교 밖 청소년 멘토에 관심있음).
8	오○○	남	99년	23	무업형	중소 도시	중1	학교생활 부적응, 친구 구와 교사와의 갈등	아르바이트 중	아르바이트	(2020) 무상으로 군 제입대 판정 기다리는 중	군입대 예정, 자격증(컴퓨터활용, 시계차) 준비
9	장□□	여	96년	26	학업형	중소 도시	고1	친구와 교사와의 갈등	IT 개발	IT 개발	(2020) IT 개발/ 대학원 진학	IT 개발/ 대학원 졸업 더 큰 회사로 이직 준비중(자격증 취득 준비)

ID	이름 (가명 <sup>1)</sup> )	성 별	출생 연도	만 나이 <sup>2)</sup>	2018년 학교 밖 유형	가주지 구도 시기	학업 중단 시기	학교를 그만둔 이유	면접 참여 당시 진로 상황(주로 하는 일) (빈칸은 면접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가 없음)			
									2018년	2019년	2020~2021년 <sup>3)</sup>	2022년
10	김△△	남	98년	24	직업형 특별· 광역시	고1	집단 따돌림, 학교에 기기가 싫었음.	이르바이트	군대 의거사 심사 (실병)	군대 의거사 제대/안 전관리팀 보안업무 (정규직)	(2020) 의거사 제대/안 전관리팀 보안업무 (정규직)	이직/보안업무(정규직) (동물관리 등의 일에 관심)
11	안○○	남	95년	27	중소 도시	중5	무단 결석, 친구들이 랑 더 놀고싶은 마음	자체 구매 업무/방 통고 제하	자체 구매/일반 사무	(2021) 구매 관련 업무	자체 및 물류창고 정리 업무 (다문화가정 배경)	자체 및 물류창고 정리 업무 (다문화가정 배경)
12	박○○	남	97년	25	중소 도시	고1	집단 괴롭힘, 진로& 전공 흥미	군부무	자원봉사(청소년 문화 재단 운영기관에서 멘토링)	(2021) 휴대폰 대리점	(2021) 휴대폰 대리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대학 휴학상태
13	강□□	남	97년	25	중소 도시	고1	폭력적인 아버지 피해 서기름, 아르바이트와 학업병행 어려움.	아버지 공장 업무/ 대학 제하	무직	(2021) 아르바이트(음식 점 서빙) 예정	(2021) 아르바이트(음식 점 서빙) 예정	아르바이트(편의점)(아버지와 같이 후 우물증으로 입원 경험)
14	강□□	여	97년	25	특별· 광역시	중3	학교 결석, 출석 일수 부족	자동차관련 검사	불량장	(2020) 휴식	(2020) 휴식	아르바이트 (오락실 관리 및 서빙)
15	장○○	여	95년	27	중소 도시	고2	학교생활에 대한 싫증	병원 코디네이터	아르바이트(음식점 주방)/ 중국 어학연수 예정	(2021) 병원 간호조무사/ 학점은행(간호사 준비)	(2021) 병원 간호조무사/ 학점은행(간호사 준비)	특별한 일 없음. 간호조무사 복직 계획
16	안△△	여	96년	26	중소 도시	고1	친구관계, 적성에 안 맞는 공부, 학교결석	취업준비/ 자격증 공부	사회복지 공무원 시 험 준비	(2021) 아르바이트(약국)/ 대학원 진학(심리상담)	(2021) 아르바이트(약국)/ 대학원 진학(심리상담)	아르바이트(약국)/ 대학원 진학 (심리상담)
17	조○○	여	97년	25	중소 도시	중3	집단 따돌림	아르바이트 (매장 카운터)	병원 원무과/ 간호조 무사 자격증 공부중	(2021) 병원 간호조무사/ 학점은행제 과정	(2021) 병원 간호조무사/ 학점은행제 과정	병원 간호조무사
18	이○○	여	97년	25	특별· 광역시	고1	학교제도에 대한 불만	대학(4년제)휴학/ 콜센터 관리자(비정 규직)	복합/ 경찰 공무원 준비	(2020) 대학졸업/ 출판사 편집자 취업	(2020) 대학졸업/ 출판사 편집자 취업	출판사 편집자

ID	이름 (가명) <sup>1)</sup>	성 출생 연도	만 나이 <sup>2)</sup>	2018년 학교 밖 유형	가주지 규모	학업 중단 시기	학교를 그만둔 이유	면접 참여 당시 진로 상황(주로 하는 일) (빈칸은 면접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가 없음)				
								2018년	2019년	2020~2021년 <sup>3)</sup>	2022년	
19	성OO	97년	25	학업형	중소 도시	고1	성적 하락, 학교생활 미상실 필요 못느낌	대학 재학/ 화계 관련 자격증 취득	세무사 사무실 업무	(2021) 세무사 사무실 업무	회계정산관련 업무	
20	강△△	96년	26	직업형	특별·광역시	고1	진학, 새로운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사회복무	사회복무	(2020) 아르바이트(음식점 주빙)	(2020) 아르바이트(음식점 주빙)	특별히 하는 일 없음(실업급여요리사로 창업 희망).
21	오△△	95년	27	무업형	중소 도시	고1	규제 유학 시험 준비	수능 준비	수능 준비	(2021) 학점은행제/가상화폐 관련 사업	(2021) 학점은행제/가상화폐 관련 사업	학원강사/가상화폐관련 사업(부동산, 제테크에 관심이 많음)
22	오□□	96년	26	학업형	특별·광역시	고1	학교생활에 회의감	대학(2년제) 졸업/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사회복무 예정	(2020) 사회복무면제/아르바이트(편의점)	(2020) 사회복무면제/아르바이트(편의점)	회사 웹 관리 업무(정규직)
23	박△△	95년	27	직업형	읍면 지역	고1	경제적인 이유	전기관련자격 공부/전기관련 회사 취업	전기 관련 업무	(2021) 전기 관련 업무(정규직)	(2021) 전기 관련 업무(정규직)	전기 관련 업무(정규직), 공기업으로 이직 준비 중임.
24	이□□	95년	27	무업형	특별·광역시	고1	통학 거리, 학교에 대한 실증	건설 관련 업무	건설 관련 업무	(2020) 부상으로 쉬고 있음/복직 예정	(2020) 부상으로 쉬고 있음/복직 예정	건설 관련 업무
25	한○○	97년	25	학업형	특별·광역시	고1	학교폭력, 가족과의 갈등	대학 휴학/ 편입 준비 중 휴식	대학 휴학/ 편입 준비	(2020) 대학 재학	(2020) 대학 재학	공익근무/아르바이트(편의점) 병행
26	문○○	96년	26	학업형	특별·광역시	고1	통학 거리	대학 임시 관련 공부	공익 근무	(2020) 공익 근무/ 공무원 준비	(2020) 공익 근무/ 공무원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
27	서○○	96년	26	직업형	특별·광역시	고1	학교생활 부적응	회사 경리직 퇴사/ 취업 준비	회사 경리직 퇴사/ 취업 준비	(2021) 아르바이트(학원보조업무)/부모님회사(정규직) 경리	(2021) 아르바이트(학원보조업무)/부모님회사(정규직) 경리	신용평가기관 재직(계약직)

주: 1)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및 기호표시함. 2) 정확한 생년월일 정보의 부재로 만 나이는 '2022-출생년도-만나이'로 일괄 계산하였음.

3) 2020년의 연구는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방안에, 2021년에는 읍면지역과 소도시 중심의 지역사회 자원방안에 초점을 둔데 따라, 이에 맞춰 2020년에는 특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패널들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패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음.

#### 4) 자료분석 방법

본 절에서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22년 인터뷰에 참여한 27명의 학교 밖 후기 청소년들로부터 얻어진 면접 전사자료이다. 인터뷰는 비교적 구조화된 질문지에 대한 질문과 응답으로 이루어졌지만, 개별 참가자마다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의 풍부함이 다르고, 개별 경험에 따라 파생되는 인터뷰 질문이 추가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인터뷰 내용은 기본정보, 현재생활 및 진로발달 상황,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청소년기 경험에 대한 인식 및 영향, 경제적 상황과 자립 전망, 자신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계, 가족구성에 대한 생각,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 사회 일반에 대한 인식, 장기간 인터뷰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절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20대 중·후반의 연령대인 연구참여자들이 학교 밖에서 받았던 지원에 대한 경험, 학업중단이라는 생애 사건이 삶의 궤적에서 어떠한 의미였는지, 그리고 다년간 인터뷰 참여에 대한 소회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이러한 대주제에 대한 내용분석을 위해 우선, 참가자별 전사록 전체 읽기를 시작하였다. 전사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읽으며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복적 비교 분석과 주제별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을 위해서 전사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며, 의미있는 진술에 줄을 치고 의미단위들에 주요 개념을 부여하는 핵심내용 코딩을 시작하였다(Emerson, Fretz, & Shaw, 1995). 그리고 주요 코딩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유사한 의미들을 묶어 하위 범주들을 생성하는 반복적 비교분석법(Glaser & Strauss, 1967; Merriam & Tisdell, 2015)을 이용하였다. 1차 코드 생성과 범주화 과정에서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상위 범주 도출과정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경험, 지원 요구, 학업중단 이후 삶의 과정에서 부여된 학업중단의 의미 변화, 다년간 연구에 참여한 소감 등에 대한 대주제와 비교하면서, 유사한 의미단위들을 묶어나가는 연역적 과정을 거치며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의 엄격성을 도모하기 위해 범주화 과정에서 동료 검토 방법(박휴용, 2014)을 활용하여 분석 방향의 편향성에 대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연구의 연도별 질적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분석의 일관성과 연계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3. 분석결과<sup>21)</sup>

#### 1) 학교 밖에서의 지원 경험

##### (1) 사적 영역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학교를 떠난 기존 패널들이 당시 학교를 그만두고 도움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먼저, 사적 영역의 지원을 영역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심리 정서적 유대감 및 사회관계 형성, 나아가 진로 설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한 지원 기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등이었다.

##### ① 인터넷 커뮤니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활동을 통하여 학교 밖에서의 고립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나아가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덜어내기도 하였다.

이OO: △에(인터넷 포털사이트) 자퇴생 관련한 카페가 있었어요.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이었는 데 거기서 저 말고도 다른 자퇴한 친구들이 겪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마음 같은 걸 많이 들여다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하는 공감을 얻기도 했고 거기서 자퇴생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중략) 자퇴생이라고 하면 보통 문제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모임 친구들은 다들 입시나 그런 쪽에 오히려 치중되어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면서 내가 집안에서는 문제야 취급을 받지만 (중략) 학교를 나온다고 다 문제아는 아니다.

학업 중단 후 방황하던 연구참여자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래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정표를 새로 설정하고, 교류집단을 형성함으로써 학교에서 얻지 못했던 정서적 사회적 지지집단을 얻기도 하였다. 시기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을 만난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1) 본 절에서는 기존 패널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 지원에서의 아쉬움, 지원 요구 본 면접에 참여했던 경험 등과 같은 지원정책 도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횡단분석하였다. 기존 패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적중단분석은 협동연구보고서에서 수행하였다.

오OO: **바뀐 이정표를 제대로 잡아준 게 저는 OO라는 (인터넷)카페? 그거에 대해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중략) 정말 그때 이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이정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면 고개를 들게 해준 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중략) 덕분에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만나고 지내고 그러고 있어요.**

### ② 청소년단체 활동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를 통해서도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학교를 나오면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경험할 기회가 드문 청소년들은 기관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관계를 형성하거나, 단체생활의 추억을 쌓기도 하였다.

오OO: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만든 소수 단체가 있거든요. (중략) 활동 자체의 취지가 너무 저랑 맞았고 그리고 또 팀원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팀원들 모두가 다 같은 공통분모라는 학교 밖 청소년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잘 맞게 되고 거기서 **정말 그동안 못 느꼈었던, 다른 의미로도 친한 동생들도 생겼었던 것 같고 (중략) 그게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소속감 자체.**

오△△: YOOA 다니면서 여름에 한 번 놀러 갔었는데 그런 게 재밌었어요. 저는 **학교 자퇴를 빨리 해서 사실 친구들이랑 이런 수학여행이 없잖아요. 그런 걸 조금 느끼게 해줬던 그런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 ③ 부모의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원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이다. 지원 방식은 자립과정에서의 정보 및 경제적 지원, 정서적지지 등을 제공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내면서 20대 중·후반에 이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 개척 과정에서 부모의 지원이 무엇보다 소중한것임을 언급하였다. 실질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창업을 하여 가정도 이룬 사례도 있었다. 아래 강 O의 사례는 부모가 운영하는 체인점 하나를 인수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안정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강 O: 가장 큰 영향을 준 거? 솔직히 말해서 치킨집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인 것 같은데. 부모님 도움으로 가게 하나를 하는데 솔직히 힘든데 **부모님이 해주셔서 그게 가장 큰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책임감도 있어지고. 그거인 거 같고 솔직히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 지금 사회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야기와 부모님 도움**

한편,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로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 지원 경험임을 언급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중도입국청소년인 안00의 남미지역 출신 어머니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진로 정보를 얻고 자녀에게 권유함으로써 진로 개척에 도움을 주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다니는 이주민센터와 성당 지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자녀의 한국 정착과 진로 안내를 제공하였고, 학교 밖을 나와 방황하는 자녀를 꾸준히 설득하였다. 결국, 7-8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어머니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안00: 성당에서 어머니한테 친구분이 있는데 친구분이 취업 이거 학교가 있다고 알려줘서 어머니가 저한테 해볼 생각 없냐고 그래서 같이 그때 성당 가서 여쭙보고 알아보고 한 번 알아본다고 하셔서 그 다음에 연락이 와서 된다고 하니까 한 번 가서 시험 한 번 면접 보러 가서 면접 보고 됐어요. (중략) 전 깨달은 게 일단 부모님이 인도해주면, 아무리 나쁘게 노는 친구들도 부모님만 꾸준히 설득해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걸. 저도 엄청 말 안 들었거든요.

박00의 경우도 성장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활동 이력을 잘 파악하고 있던 부모님의 관심과 진로 안내로 방송고등학교와 폴리텍대학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다.

박00: 부모님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애가 기계 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기계 쪽으로 진로를 설정해서 기계 관련 학과를 나와서 직업을 갖는 게 이로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따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과 진로 안내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추후에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상담 기관을 알아본다던가, 관련된 전공으로 대학원 진학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례도 있었다.

안△△: 사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청 무뚝뚝하시거든요. 말씀이 없으시고 뭘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자퇴할 때 아침에 같이 울어주신 적도 있으셨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울 줄도 아는구나, 우리 아빠도 이런 면이 있네 조금 이렇게 느끼고 아빠가 나를 많이 걱정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조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힘들었을 때.

학교를 그만두면서 부모와 갈등도 빚었지만,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후 대학에도 진학하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지를 얻고, 관계가 돈독해 진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20대 중, 후반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보다 허심탄회한 소통을 하고 있었으며,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부모를 들고 있었다.

면접자: OO씨를 제일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장OO: **엄마요. 제일 지지하면서 제일 막는 것도 제일 잘하세요.** (중략) 예정에 없던 남자친구가 생기고 **아버지랑 진로 얘기를 이번에 진지하게 했었어요.** 워낙 진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버지랑 하면서 네가 잘 생각을 해라, 3, 4억은 들 거라고 생각해보라고 (중략) 남자친구 얘기 언급한 게 결혼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 ④ 주변 지인들로부터의 지원

비공식적으로 개별 청소년들이 지근거리에서 만났던 지인들이 도움이 되었던 사례도 있었다. 종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준 경우도 있었고, 군대 복무 중 상급자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에 신경을 써 도움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박OO: 주변에는 종교활동을 할 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저를 잘 챙겨주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김OO: 그때 군대에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전역하고 아마 졸업장을 취득했겠죠? 그런데 그때 말씀해주시고 또 일과를 안 하고 여기 가서 공부하면 된다고 하고 또 책 이런 것도 다 준비해서 주시고 엄청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중략) 거기서 검정고시를 볼 병사들 도와주고 그리고 공부를 알려주시는 병사분들도 과목마다 뭐 **수학이면 이런 분이 있다. 소개를 한 명씩 짝 해주거든요.** 그래서 설명 들으면서 잘 알려주시던데요. 그냥 학원처럼 그렇게 했어요.

## (2) 공적 영역

### ① 청소년수련관 활동

학교를 그만둔 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청소년 중에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기관을 통해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로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할 때 청소년기관이 의미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박OO의 경우도 지역 청소년수련관에서 다양한 활동과 상담 연계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 기관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박OO: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던 활동이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연결이 되면서 제가 청소년 수련관을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기관인 것 같아요. (중략)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대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연계를 해 주는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첫 눈에 느꼈죠. 되게 좋은 기관이다.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저한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기관이 청소년 수련관 자체인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진짜 힘들 때 상담 연계도 해 주셨고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심리적으로 더 안정을 찾았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청소년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계를 많이 시켜주셨고 그래서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기존 패널 중 비교적 뒤늦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중에는 학교를 그만둔 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시점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지역에 따라 시범사업 등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었고, 지원 혜택에 대해 긍정적 경험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오OO의 경우 꿈드림센터를 통해 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과 운전기능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꿈드림 연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꿈드림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원거리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교통비도 부담스러웠는데,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해 꿈드림센터 이용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그에 따라 진로 준비를 위한 센터 이용 시에는 교통비 등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필요함에 대해 언급하였다.

면접자: OO씨가 검정고시도 그때 꿈드림 통해가지고 다 따신 거죠, 열일곱 열여덟 이때 오OO: 그때 따고 올해 4월에 재시험을 봤거든요 두 가지 과목을. 그래서 다행히 두 가지 과목 다 성적이 좋게 나와서 지금 평균이 어느 정도 갖춰져 가지고 영어 쪽에만 어느 정도 되면 수시로 지원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중략) 요새 꿈드림센터에서 진행 중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준비랑 지게차 운전기능사 그거 준비하고 있고, 일단 지게차는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저 실기 지금 받고 실기가 21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하셔서 그거 결과

기다리고 있고, 컴퓨터 실기 시험은 20일 날 있어 가지고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장OO과 조OO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장△△의 경우 동아리활동과 유사한 단체활동 경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 일단 (꿈드림) 센터를 다니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있고 같이 단체활동, 단체라고 해봐야 사실 몇 없긴 하지만 그런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략)수업을 월요일은 미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도 학원으로 노래도 배우러 가고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동아리처럼 해서 거기에 가서 선생님이 또 따로 해주셔서 배우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검정고시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고.

조OO: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영어나 수학 이런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려웠고 시험 신청 뭐라고 하지 수험신청 같은 거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해서 그런 건 거기 두드림인가 그 도움을 받긴 했어요. 거기에서 신청해주고 청소년센터 같은데서.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꿈드림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도 있었다. 한OO의 경우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 연계가 이루어졌으나,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검정고시 공부를 위한 멘토링 지원도 받아보았으나 자신과 달리 공부에 의지가 없는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해야 해서 적절한 지원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OO: (꿈드림센터에서) 학원은 검정고시 학원에 보내줬어요. 수능 공부를 도와준 건 아니고. 그런데 뭐 제가 공부를 하다가 나와서 저는 크게 도움은 사실 안 돼서 그냥 조금 다니다가 그만뒀던 것 같고요. 멘토링은 저 같은 친구가 두 명 정도 더 있었는데 그 친구들 세 명이랑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공부 같은 거 가르쳐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검정고시 그거여서 잘 진행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공부를 셋이서 하러 가면 저는 공부를 하려는 편인데 나머지 두 친구는 별로 공부하려는 생각이 없어서 이게 분위기도 잘 그게 안 돼서 그게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 ③ 정부의 직업 훈련과정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연계 제도를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내일이룸학교 및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등을 통한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지원을 통하여 취업에 도움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다. 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1년 이내 기간 동안 관심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내일이룸학교의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주로 꿈드림센터를 통해 연계되는 방식이지만, 이들 청소년이 학업을 그만 두었을 당시에는 개인적인 연락망이나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고, 직업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안OO: 공장 기계에 들어가는 ... 중소기업에 많이 활용되는 거였거든요. 선반이라고 쇠를 깎는 기계거든요. 선반밀링 **자격증이라고 있어요. 그걸 취득했어요.** (중략)

면접자: 그러면 그때 □□□□ 직업전문학교에서 받았던 그런 취업 준비나 이런 진로 탐색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OO: 나름대로 된 것 같아요.

면접자: 고용센터는 어떻게 알고 가게 되신 거예요?

서OO: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어요. (중략) 처음 세무 사무소에 19살 때 들어갔거든요. 학교 검정고시 보고 나서 아마 상반기에 다녀서 **자격증을 빨리 따서 하반기에 취업을 나갔어요. 19살 때...**

성OO은 대학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는 도중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 회계 자격증 1, 2급을 취득하고 회계 쪽으로 취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 재학중 근로장학생으로 경리 업무를 하던 중 이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취업은 대학 전공과는 상관이 없는 회계전산 관련 업무 분야로 결정한 것이다.

성OO: 전공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기업체에서 우연찮게 몇 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경리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잘 맞아서 사회복지 관두고 회계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지난 7월초부터 알바를 했는데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예요. 취업준비 계속 하고. (중략) 저희 학교 안에 기업체가 있는 창업관이 있어요. 외부인데 법인이 그쪽이니까 거기 가서 했었는데 잘 맞아서. (중략) **취업성공패키지 하면서, 지금 3단계 하고 있고 어제 면접 갔었어요.**

박△△은 고등학교 1학년에 학교를 그만둔 뒤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다 주변으로부터

국비지원 직업훈련과정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스스로 검색한 뒤 폴리텍대학 1년 기능사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후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관련 분야 직종에 종사하게 되었다.

박△△: 우연하게 어디서 직업훈련학교 얘기를 들어서 폴리텍 대학 쪽으로 1년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전기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이곳 저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알려줬죠. 이런 것도 있다고 관심 있으면 가서 해보라는 식으로 조언식으로 해줬죠. (중략) 그분들도 잘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더라 찾아보라고 해서 찾다 보니까 나온 거라서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제안

### (1) 멘토링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멘토링이 언급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군분투하며 진로 정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나 또래의 안내가 있었다면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검정고시 정보나 입시, 진로 정보 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 및 지원을 위해서도 멘토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OO: 저는 멘토를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멘토가 자퇴생 출신이거나 하면 더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멘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공간도 마련해서 그 아이들끼리 같이 정보도 나누고 마음도 교환하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긍정적일 것 같아요.

성OO: 검정고시를 정말 너무 정말 현실적인 것부터 검정고시를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사실 저는 그런 거 어디서 알려주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제가 다 찾아봐서 신청하고 접수하고 공부하고 이랬던 건데 그냥 그런. 지금 그런 게 엄청 잘 되어있을 것 같은데. (중략) 저 때는 없었어서 그런 현실적인 거랑 멘토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정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진로적인 거라든지 뭔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멘토 멘티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개인적인 생각으로 멘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로 쪽으로 관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멘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학교 밖 애들 중에서 나이가 차고 경험이 많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라도 들어줄 수 있는 멘토 같은 거 (중략) 중간에서 연결할 수 있게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2) 상담 지원

### ① 학업중단 결정과정에 필요한 상담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 결정과정에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는 학업중단숙려제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이들이 학교를 그만 둘 당시에는 적절한 숙려기간활동이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OO의 경우 학업 중단 과정에 대한 상담이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홀로 3일을 고민한 경험을 토로하며,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그 배경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이OO은 청소년 당사자의 학업 중단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고 부모-자녀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OO: 상담. 뭔가 바로 관두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하고 며칠의 기간 동안 학생이 왜 그렇게 관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좀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 상담이라는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담임선생님이 그럼 3일 정도 시간 갖고 다시 와라 해서 집에서 그냥 혼자 3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그냥 이 학생이 왜 관두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지 좀 상담 같은 거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OO: 아이뿐 아니라 부모님이든가 사실 아이가 자퇴한다고 하면 부모님도 당연히 마음이 이상하겠죠.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같이 있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가장 아이가 일단 학교를 안 나가면 집에서 정말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아이만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나아질 일은 아닌 것 같고 같이 알아보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②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

한편,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상담을 받은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청소년의 학업중단 결정과정에서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개별 청소년이 처한 여건이나 욕구, 어려움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오□□: 그만두기 전에 상담도 했었고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 계신지 모르겠고 딱 틀에 상담 틀 그대로만 하고 학생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너는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리고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중략) 솔직히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장△△: 너무 오래전이라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학교에서 도움을

받거나 그랬던 건 없고 그냥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학교 워센터 상담 권유받은 거 말고는 기억이 없어요.** (면접자: 그 워크래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략) **그때 하긴 했는데 사실 진짜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중략) 워크래스 말고 다른 데 가서도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중략)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따로 무슨 센터에 가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솔직히 다 너무 똑같은 질문을 항상 하시니까 이거를 왜 계속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하고 다녀야 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언급하였고, 지나치게 원거리인 경우 찾아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통비 부담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가는 상담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00: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기관들이 되게 멀리 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조금 있고 특히 지방에는 훨씬 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서울은 더 많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지방은 또 많이 그런 편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지원이 좀 더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한번 그 상담센터를 가는 것만 해도 1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모르기도 모르겠지만 1시간 걸린다고 하면 자주 가기가 어려우니까. (중략) 서울에는 버스가 위기청소년들 상담하러 다니는 버스 같은 게 있기도 하거든요. 이동 쉽다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꼭 어떤 거점이 있는 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버스를 이용해서 지방 곳곳까지 만나러 가는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 ③ 학교 밖으로 나온 후 심리정서적 지원

학교를 그만두고 소속집단이 없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돌볼 수 있는 상담도 요구된다. 학교를 그만둔 후 자존감이 저하되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고민거리에 대해 소통하는 창구가 필요한 것이다. 비용이 부담되는 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심리적 위기로 인한 상담이 아니더라도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소통할 수 있는 상담 채널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장00: 진로든 고민이든 무슨 상담, 뭐든 그런 애들은 누군가한테 고민이나 어려운 부분을 엄마, 아버지한테 그 당시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것도 많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들어주고 충고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다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청소년이든 누구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없으니까 밖으로 나돌거나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담을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해 주고 충고를 해 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OO: 진로도 심리 상담도 다 필요한 게 아무래도 학교를 나오면 내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거 때문에 인식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거고 주의 깊게 관심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중략) **내 마음이 어땠고 뭘 원하고, 심리도 하면서 원하는 게 뭔지 같이 알 수 있게 그게 확실히 돼야지 진로도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OO: **청소년을 위한 그런 상담사들이 지금 존재하겠지만, 저는 받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렇게 전문화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후기를 보고 그랬어 가지고,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략) 그거에 대해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 친구가 다시 일어사게 되거나 고개를 들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피해와 그런 것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떨고 있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고개를 들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당당하게 할 수 있게

### (3) 학교 밖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안내

청소년의 대다수가 학교에 재학 중인 현실에서 학교를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며, 그에 대한 판단 과정 또한 불안과 불확실성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다. 면접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학교 밖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들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있다면, 보다 안정된 진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고 있다.

이OO: 그때 자퇴 설명회라는 걸 했었는데 자퇴에 대해 알려주자는 취지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말고도 자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몰라서 자퇴를 아예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그때 서울에서 열리는 모임이었고 그 카페를 통해서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하고 아이들이나 청소년 관계들이나 그런 분들 초대하고 해서 강연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토크콘서트 같은 거 하고.

한OO: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취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미리 일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되면 좋을 것 같고 **당장 학교를 그만뒀을 때는 제일 필요했던 건 책 같은 거랑 공부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든 뭔가 검정고시를 따고 대학 가는 거. 그거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서OO: 학교를 그만뒀을 때 그때 저는 학교를 그만두면 무조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앞으로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요. 뭘 하나 알아보고 싶더라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선생님이 조금은 알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와 다니지 않을 때 장, 단점에 대해서 길라잡이처럼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만두려고 해도 그런 걸 보고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OO: 자퇴한 애들에 한해서 개내들도 직업이나 진로를 정해야 될 때는 맞잡아요. 그런 걸 원래는 학교에서 자기... 이렇게 공부만 하는 학교는 그런 쪽이었다고 하면 **자퇴한 애들에 한해서 진로 결정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오O△: **정보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일단 정보가 있어야지 거기서 고를 거잖아요. 내가 뭐가 하고 싶다고 정했을 때도 그쪽으로 쪽 연계가 될 수 있게** 어쨌든 성인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그걸 내가 의지만 있다면 다 준비해서 성인이 됐을 때 이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다리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봐요.

#### (4) 다양한 진로 체험 및 탐색 기회 제공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진로상담을 통한 관심사 발견도 바람직하겠지만, 다양한 진로활동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 준비와 취업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OO: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배우고 싶은 걸 마음껏 해봤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를 수 있게 최소 10군데 둘러보고 자기가 잘 맞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기저기 해봤을 것 같아요. 한 번 같이 해보지 않았냐고 저것도 해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중략) 상담은 좋긴 하지만 그보다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진로상담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있어야 되는데 비중이 크지 않다.**

한OO: **이게 다양한 활동 같은 걸 해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봐야 재미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그 진로 활동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다 직접 해봐야 하니까 사실은 그런 걸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중략) 학생들이 사실 그 당시에 원하는 게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저만 해도 뭔가 진로 같은 걸 정하는 게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경험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안□□: **만약에 선생님이든 전화 와 갖고 너 학교 그만뒀어도 일은 하고 먹고 살아야지 너 이거 배워봐 하면서 흑시 그런 기술적인 시설 같은 데를 알려줘서 그랬으면 눈 딱 감고 가서 한번 배워보고, 추천받아서 일자리도 구하고 하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중략) 무조건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자격증 같은 거 진짜 흥미 있게, 자동차 쪽 자격증이나 드론 자격증이나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문OO: **그냥 정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미리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알았으면 더 빨리. 이것도 제가 한 것도 구청에서 공익하고 있을 때 같이 계신 공무원분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소방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분이 말해줘서 들어보니까 이거 되게 괜찮네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좀 접하기, 그전까지는 그런 걸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접할 기회가 좀 더 있으면, 뭐 공고라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장OO: 숙려기간 때도 상담센터를 가잖아요. 숙려기간이 아니어도 상담센터에 들러서 체험프로그램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제일 중요하게 직업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적성 검사나 아니면 대학 진로를 원하는 애들은 알아서 아마 할 거예요. 검정고시 보고 수능을 보든 학원을 다니든 뭐든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취업을 원하거나 대학 안 갈 거라는 애들은 **취업이든 뭐든 알려줄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5) 진로의지 고취 전략 필요

성인기로 접어들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현재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로 및 취업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의 유용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로 참여 동기나 의지가 부족하여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하더라도 분위기를 흐려 정작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진로 및 인생 설계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 역설하였다.

김△△: 일단 **본인 의지에 따라서 많이 힘든 게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할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싶고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알려줘야 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장□□: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홍보는 따로 안 해도 거기 센터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들 하나하나 다 챙기더라고요. 이런 거 있으니까 와라, 어디 간다, 같이 가자 이렇게 연락도 다 하고 센터에서 부모님이랑도 연락하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집에서 아예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오OO: 지금 제가 센터 내에서 들어도 정말 원치 않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원치 않고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하든지 친구들이랑 이야기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열심히 하는 친구들, 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중략) 그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안 한 프로그램도 몇 가지 있었고. 나는 이 프로그램 제대로 하고 싶은데 저 친구들은 정말 진심이 아니니까 그런 친구들이랑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 (6)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학업이나 진로 준비 지원 외에 다양한 활동을 체험해 보는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학교 밖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신체활동이 부족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체육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OOO: 자기가 원하는 배움 그게 있으면 그런 체험활동? 이런 걸 원하는 걸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원하는 공부라든지 아니면 내가 스포츠를 하고 싶은데 실력은 되지만 그래도 기회가 안 되면 그것도 못하는 거니까는, 그런 쪽 분야에 대해서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어느 정도 뭘 하고 싶었는지, **쉽게 말해 적성? 적성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OO: 학교 밖 청소년도 체육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그리고 체육관이나 그런 거를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아마 나왔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데 운영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그게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중략) 최근에 어쩌다가 본 건데 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영강사라든가 아니면 배드민턴 강사나 이런 분들을 붙여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 (7) 소속감 부여, 또래 관계 형성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진로 및 취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인기 이행과정에 필요한 소속감 및 사회관계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학교 밖에서 자칫 고립되어 지낼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또래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집단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심리 정서적 안정 뿐 아니라, 사회적 형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래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향후에 대학 입시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성OO: 확실히 소속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감이 없으면, 인간의 욕구 중에서도 소속감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퇴를 하고 나면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거니까 일단. 어디 소속되어있지 않으니가 되게 불안정한 것 같아요. (중략) 집단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퇴한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소속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중략) 봉사활동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동아리, 취미활동. (중략)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자소서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대학교나 앞으로의 진로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

한OO: 저희는 학교 커뮤니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뭔가 커뮤니티 같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생각해보니까 이게 학교가, 그러니까 고등학생 시절엔 학교가 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가 되게 공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감을 느낄 만한 게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박OO: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자기들끼리 그 학생들끼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기획해서 어떠한 공간에서 완성을 프로젝트 형식으로 그렇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자기들끼리 짜서 어떠한 결과를 발표처럼 완성이 됐을 때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을 때 한 공간에서 같이 놀거나 그렇게 어쨌든 학교를 그만뒀으니깐 또래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렇게라도 아이들끼리 주기적으로 만나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성장물 같은 거죠.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8)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소비 교육 제공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지원을 받아본 경험에 기초해서, 지원금을 받더라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던가, 일시적 소비를 위해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비 교육, 사용처에 따른 지원, 성과를 담보하는 지원 등 보다 계획과 용처가 분명한 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방적 금전 제공이 아닌, 일을 한 대가로 제공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안△△: 그런데 제가 되게 일방적인 돈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50만원씩 여섯 번 주거나 25만원씩 주거나. 그런데 사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략). 뭔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내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돈만 주는 거 말고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OO: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온다고 하면

그 금액의 목적이 저는 딱 이 정도였으면 왜냐하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으니까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 시간에 학교를 안 다니니까 차라리 그럴 때에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영화를 예매할 수 있게 얼마를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어쨌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문화생활 용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매달 지원을 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강 O: (생략)학생들한테 돈을 좀 줘서 학생들이 저처럼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이걸 다 나쁜 데에 쓸 수도 있고 도박에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딱히 해결책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한OO: 그리고 그거 하면 알바비를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걸 내가 일로 가졌을 때 뭔가 수익 같은 게 들어오고 경제활동이라는 자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 (9) 학업 및 수능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 입학에 위한 수능능력고사 준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개인적 비용을 투자하여 학원이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한OO: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관련해서 지원을 받길 원했어요. 책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인강이라든가 학원 같은 걸 바라긴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서 가능하다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조금 각각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오OO: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시간을 늘려주거나 배우는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비단 검정고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물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는 하거든요 지금 센터에서. 그래도 아직은 그 친구들한테 그런 제대로 된 수능 공부? 그런 거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나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알려주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강밖에 없거든요 의지할 데가. 인강이거나 아니면 자기 사비를 써서 학원 다니는.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인프라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OO: 나라에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국비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학원을 알아봐주거나 그런 방법도 있고 (중략) 학원을 알아봐 주거나 나라에서 유능한 과외 형식으로 학습을 진행해 주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 (10) 자립을 위한 여건 조성: 근로, 주거, 경제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근로 참여과정에서 요구되는 근로자의 권리, 금융 관련 지식, 부동산 관련 지식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주거지 마련을 위한 지원,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근로계약 등 보호자 동의를 필요한 경우, 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꼭 필요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OO: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가정 관련해서 문제 있는 친구들의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중략) 아마 거주 그런 게 먼저 해결이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취업도 좋긴 한데 사실 취업한다고 해서 바로 거주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전세나 월세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오OO: 일단 자립에 대한 그런 금융적인 지식과 부동산의 지식, 제일 중요한 게 노동에 관한 지식, 노동법에 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지금 강의가 있다 그래도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화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는 자립에 대한 난이도가 더 줄어든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금융 지식과 부동산 지식, 노동법에 대한 지식. 그런 걸 모르고 바로 나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OO: 저는 저희 가정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기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내면서 뭔가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보통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에 나가서 하는 활동 그런 거 진행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오□□: 꿈드림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서 애들이 일을 해볼 수 있도록 그건 꼭 해보면 좋겠어요. (중략) 부모님이란 사이가 괜찮아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보호자 동의를 직접 받아서 일을 하겠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업 중단 때문일 수도 있고 사이가 안 좋아서 보호자 동의를 못 받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 3) 학업중단의 의미와 재평가

### (1) 대학교 진학 혹은 전공 선택에 영향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학업중단이라는 생애 결정이 자신의 대학 진학이나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였다. 이OO의 경우 자신의 학업중단 경험이 청소년관련학과라는 대학 전공으로 이어졌으며, 안△△의 경우에는 자신의 학업중단 경험에 대한 미해결된 정서가 대학원에서 심리상담 전공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이○○: 학과 입학할 때는 그냥 자퇴했던 쪽이랑 더 이유가 있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청소년 쪽에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저도 자퇴를 한 다음에 자퇴생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부당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많이 차별받고 했던 것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런 학과를 들어갔었고요.

안△△: 자퇴하지 않았다면 이런걸 전공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런 걸 전공하게 된 계기는 댔지만 그런 건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이 당당하게 자퇴했다고 얘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생각해보면 평생 저 사실은 자퇴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력서 컨설팅 이런 것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퇴했다고 쓰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상처 아닌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한편, 대학 진학에 대한 계획이 없었지만, 학업을 중단한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주변 인물의 무시를 경험하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대학에 재학중인 지인으로 부터 학교 중퇴생이라는 무시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이 학력과 관련되어 사회에서 평가됨을 느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어준 애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개가 제 심기를 건드려서 저를 쫓아내리더라고요. 너는 머리가 나빠서 자퇴한 ○○이 이러면서(욕을 하면서) 그걸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댓글 이런 걸로 얘기를 하길래 저는 △△대 체대생이다 이거예요. 보는데 맞춤법이 다 틀려요. 네가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간 것 같아요. 무시당하는 걸 못 참아서 대학 들어갔고 (중략) 원래는 들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를 그만둔 뒤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 전공과 관련된 IT업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이 참여자는 학업 중단에 대한 후회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대학 진학 준비 기간을 단축하였다는 점, 친구들보다 자신은 보다 나은 선택을 하여 취업하였다는 점 등 자신의 선택에 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장□□: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도 1년을 일찍 갔고 그리고 첫 취업도 4학년 1학기 끝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쉰 기간도 없고 빨리빨리 갔다 보니까 오히려 좋게 봐주는 면이 많았지. 불이익은 없었어요. (중략) 저도 엄청 좋은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립대

는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은 비슷하게 그때 공부했던 친구들도 되게 학교를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같이 그만뒀으면 학교 더 잘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우스갯소리로 하긴 해요. (중략) **그냥 편하게 잘 갔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운도 되게 좋았고.**

## (2) 취업성공자들의 학업 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연구참여자들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지만, 현재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학업중단 결정과 그 이후 바로 이어진 취업 준비에 따라 현재 취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수입을 갖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박△△의 경우 폴리텍대학 1년 기능사 과정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함으로써 비교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박△△: 제가 학업 중단하고 일단 남들보다는 빨라야겠다고 생각해서 검정고시도 바로 보고 군대도 20살 되고 엄청 빨리 가서 그때는 **애들 한참 다 대학 다닐 때는 부러워했는데 전역할 때가 되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군대 안에서도 보면 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은 극히 드물고 가더라도 과가 안 맞는 사람도 엄청 많고 전역하면 뭐 할거냐고 다 물어봤었는데 복학은 다시 안 한다고 (중략)

면접자: 그러면 대학을 안 간 것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시겠어요?

박△△: 그렇죠. 일단 돈이 굳었으니까

대학병원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의 경우도 자신이 학업을 중단하고 현재 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운동선수의 길을 꿈꾸다 고1때 학업을 중단하고 □□□□ 직업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기계조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장에 들어갔고, 17세부터 20세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중졸 상태에서 공장일을 계속 하는 과정에 불이익을 받는 경험을 한 사례이다. 그 과정에서 공장을 나오게 되었고, 여러 업종을 전전하다 보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뒤 YOOA를 통해 검정고시 공부,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였고, 현재 여자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오△△의 경우도 학업을 중단하고 현재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김△△: 아마 제가 일반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취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성장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거고 정신적으로 어렸을 거고 경험도 없다 보니 남들보다 일찍 취업해서 사회에 발을 들인 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오△△: 시간적인 게 일단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 동안 수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돈도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돈을 더 벌수도 있는 거고.. (중략) 저는 늘 그만뒀다는 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잘 그만뒀다고 생각해요.

### (3) 학업 중단에 대한 생각 변화: 후회

#### ① 진로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에 대한 후회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에는 학업 중단에 대하여 후회를 하지 않고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였으나, 현재적 시점에서는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상호작용 방식이나 성격 특성에 대해 돌아보거나, 구직을 위한 이력서 작성과정에서 학력란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안OO: 과거에는 그냥 학교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만 벌면 되지 아무거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하고 과정이 있어야 어느 정도 내가 과정도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도 그런 거 때문에 있는 것 같고 (중략) 일단 소심한 건 학교 다녔으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대화할 때 더 많이는 해봤는데 요즈음 느껴지는 게 학교 다니는 애들이 활동적이고 말도 잘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서 (중략) 요즈음은 이력서 쓸 때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최종 학력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었고 특히 대학교 이상이 많거든요. 그런 거 아예 지원을 못하니까

강△△: 지금은 좀 후회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중략) 그냥 다니고 있으면 좀 다른 생각도 더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학교생활을 계속 했으면. 대학교 진학이나 이런 생각 더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중략) 그냥 좀 더 길게 있었으면 진로 결정 같은 거 할 때나 선택 폭이 조금 더 넓었을 것 같아요 뭔가.

김OO: 그 당시에는 뭣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자' 이런 거였고 지금은 좀 고등학교의 추억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학교를 계속 다녀서 졸업했으면 좋겠다' 싶죠. (중략) 저는 고등학교 추억 이런 게 중요한 편이라서 그런 게 남는 게 없으니깐 그것 때문에 후회가 많이 되죠. (중략) 그래도 그때 학교 다녔으면 하고 싶은 걸 해보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은 쪽, 직업 쪽으로.

최OO: (후회하는 이유)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이랑 다르지 않았을까 해서요 (면접자: 어떤 점에서?) **공부를 더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직장을 구했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해서요.**

## ②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관계 형성에 대한 미련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 됴으로써 학교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관계 부재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학교를 그만둔 뒤 남는 후회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동생활 경험, 친구들과 함께 하는 학창시절의 추억, 또래 관계 형성의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조OO: 일단은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공동생활이나 그런 걸 또 배우잖아요. 그런 걸 뭔가 못 배운 게 아쉽고, 학창시절에 애들 또래 친구들한테 같이 그럴 수 있는 추억이 없는 것도 좀 아쉽고.** 물론 그냥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만나는 친구랑 개네 학교 끝나고 저 혼자 따로 나가서 만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개네 좀 그런거죠.

강□□: **고등학교 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때 얘기를 하면 끼어들 수 없으니까 그런 게 많이 부럽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고 이런 거

박OO: 후회가 있다는 생각이 그대로 있어요. 후회가 돼요. 옛날 후회가 지금도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고등학교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일반 인문계를 다녔을 것 같아요. (이유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학교 생활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중학교 때까지는 일반적인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가 진짜 학교를 다닐 때가 좋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지만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안 갔던 것에 대해서 그런 차이를 몸소 느껴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진학을 안 했던 거 자체가, 친구들이랑 놀고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을 학창시절이라는 게 인생에서 조금 크게 작용할 줄 몰랐어요. 옛날로 돌아간다면 인문계를 다시 가고 싶어요.**

한OO: 지나고 보면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학교에서 그런 걸 잘 배운 건 아니었는데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다 같이 어울려 지내는 법이라든지 공부 외에도 뭔가를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는 거의 배운 게 없어서 이제 사회생활 할 때쯤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되게 그 시기 때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못 배우고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 ③ 학교생활을 통한 암묵적 지식 습득 기회 제한

연구참여자들은 학업 중단에 대한 후회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학생생활 문화나 학생으로서 공유하게 되는 느낌이나 감성,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동년배 집단과 소통하며 은연중에 습득하게 되는 암묵적 지식 등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서OO: 새로운 사람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생활 얘기할 때 진짜 크고, 여행을 가잖아요. 수학여행, 수련회 그런 얘기 듣거나 축제 얘기, 더 이상 나한테 멈췄던 시간 이후의 일들을 들을 때 많이 느끼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얘기 할 때도 그렇고 정보 같은 것도 계속 다니던 애들이 뭔가 빨리 빨리 캐치를 하더라고요.

오OO: 그때 그 시기만의 배우거나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하고 그 이후로부터 1년 뒤에, 1년 뒤인 15살 때부터 저는 남들과 다른, 많이는 아니지만 다른 길을 걸었으니까 많이 아쉬워요. 사람들 만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그 나이 때 막 이야기를 하고 나 그때 어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을 했던 기억밖에 없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공백이라 해야 되나? 그 공백이 아쉬워요. 물론 다른 의미로도 채워졌지만 남들과 다른 공백이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 ④ 학업 중단으로 인한 심적 부담

학업을 중단한 뒤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고 대학입학을 하였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학업 중단에 대한 후회의 소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또래 보다 일찍 대학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마치고 일을 하고 있는 성OO의 경우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 힘든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대학원 재학 중인 안△△의 사례도 학업 중단이라는 생애 사건이 여전히 자신의 심리에 남아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성OO: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후회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거 인터뷰 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는 게 저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돌아가면 자퇴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혼자서 아등바등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아등바등 살았던 것 같아서. (중략) 예전에는 그렇게 후회 안 한다고 했으면서. 저는 제가 후회하게 될 줄 몰랐어요, (중략) 어른들 말씀 틀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예전에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뭔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제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대학교도 있었던 학교라서 학교가 엄청 넓었거든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복을 입고 교실을 찾아서 해매는 꿈을 엄청 많이. 그래서 **뭔가 그런걸 봤을 때 내가 진짜 엄청 엄격 되게 스트레스였구나 이런걸 요즘에 좀 받아들여서 내가 그때 많이 상처가 됐구나 엄청 후회하고 있구나 약간 근래에는 조금 그런 걸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 4) 다년간 질적 종단조사 참여 경험의 의미

##### (1) 학업 중단 이후 삶에 대한 회고 및 자기 객관화

20대 중반이나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학업 중단 이후 2013년부터 시작된 연구에 대부분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2018년부터는 해마다 인터뷰라는 형식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학업중단 경험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며,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와 새로운 해석 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 자기 객관화를 해보게 된다고 하였다.

성OO: 예전에는 진짜 제가 자퇴하고 이랬을 때 생각을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자퇴했을 때 그 시절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인터뷰를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그때 그랬었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예전에 아예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 스스로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안□□: 느낀 점이 있다면 이게 확실히 반복적인 게 무섭구나 반복적인 패턴이 무섭구나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좋구나, 이런 거 좋구나 (중략) **별거 아닌 얘기지만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풀리는 게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중략)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한 번 더 생각해요 끝으면**

오○△: **그냥 할 때 매번 처음에 몰랐는데 질문 하나 하나 받으면 저도 몰랐던 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뭔가 글로 정리가 돼서 돌아보는 과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간혹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몰랐던 사실들, 요즘에는 애들이 너무 센터가 있으면 따로 바우처 같은 걸 받아서 금전 지원도 되고 제도도 새로 알게 돼서 흥미롭더라고요. 할 때마다, 일단 새로운 정보를 알게 돼서 좋고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 (2) 자신의 이야기가 소중함을 느낌

연구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인터뷰 참여경험이 생애과정에서 특별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주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거나 ‘연예인’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장OO: 왜냐하면 일단 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잖아요. 설문조사지만 근데 이렇게 있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자신감이 생기기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조OO: 어쨌든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런 관심을 공부 잘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많지 사실은. 뭔가 그래서 좀 고마운 것 같아요.

오OO: 과연 저의 이런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거나 제가 뭐랄까 특별한 케이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많이 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 재밌었고요. 사실 이런 경험이 인생에 흔치 않잖아요.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좋고

## (3) 비슷한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

연구참여자들은 다년간 면접에 응하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신기한 경험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들이 학업중단이라는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겪은 다양한 시행착오나 어려움이 후배들에게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었다.

박OO: 저에 대한 얘기로 인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많이 소외되거나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강□□: 저는 사실 면접이라고 그런 것보다 힘들었던 걸 많이 털어 놓을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 제가 항상 예전부터 말해왔던 것들이 실행이 된다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더 방황하지 않고 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한OO: 사실은 인터뷰라는 자리가 저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되고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이 뭔가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미 그만둔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성공적인 인터뷰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인터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조금 '이거 내가 왜 해야 하지', '내가 솔직하게 쓴다고 뭐가 바뀌나'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점점 바뀌는 것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저기에 한 몫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안□□: **저 같은 애들이 더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안△△: **뭔가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그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하면 요즘에는 어떻게 이랬는지 정보도 찾아볼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 4. 요약 및 시사점

### 1) 기존 패널 면접조사 개요

기존 패널의 대부분은 2013년에 수행된 본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위해 구축된 사례들로, 2014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15년의 꿈드림센터를 주요 체계로 한 본격적인 공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대 중·후반으로 청소년기 학교를 그만둔 이후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아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올해 조사에는 그동안 본 면접에 성실하게 참여해준 패널들 중, 또 본 연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의 선정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27명의 사례(남자 17명, 여자 10명)가 면접에 참여하였다. 취업 및 경제적인 상황, 자립 등에 초점을 두어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총괄보고서에서는 면접결과를 활용하여 이들의 지원 경험과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경험과 이후 삶의 과정, 본 면접에 다년간 참여한 경험에 대한 회고에 대해 횡단분석하였고, 축적된 질적중단자료를 함께 활용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협동연구보고서에 제시하였다. 이들을 통해 수집한 면접 음성파일, 전사자료, 그리고 필드 노트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질적중단 DB에 통합되었다.

##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지원 경험

기존 패널들이 학교를 떠난 후 경험하였던 지원들에 대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사적 영역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 간에 소통을 하고, 사회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정서적 지지를 얻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부모의 지원이 이들의 자립과정에서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진로정보 제공, 꾸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과정 혹은 학업 중단 이후 단계적 시점에서는 부모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해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 지인 등 사적 네트워크로부터 검정고시와 취업관련 정보를 지원 받은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내용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 경험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경험을 유용한 자원으로 꼽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청소년시설이 있고 학교를 떠나기 이전부터 시설을 이용하던 경우에는 학교를 떠나고 나서도 이를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상담 등을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부 참가자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도 긍정적 자원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이들은 본 질적패널조사 이전의 양적 종단 연구 당시 대체 패널<sup>22)</sup>로 2015년 정도에 학교를 그만둔 사례가 있었는데, 이들이 초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또는 해밀사업)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센터로부터 검정고시 지원을 받거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의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과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나 국비 직업훈련과정 등을 통하여 직접 취업에 도움을 받았으며, 장기적인 진로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결국, 제도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22) 윤철경 외(2013)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로 당시 대부분의 패널(원패널)은 2012~2013년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쉽게 이용 가능한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실질적인 진로 및 취업 준비 정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기존 패널들은 자신들이 학교 밖에서 고군분투하던 과정을 되짚어보며, 향후에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여러 제안을 하였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을 제안하였다. 학교를 떠난 후 실질적인 길잡이가 없이 방황한 경험들 때문에 검정고시나 입시 준비, 진로 정보, 정서적 지원을 위한 멘토가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방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상담이 필요하며, 자녀 뿐 아니라 부모와 함께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담, 개별 청소년의 상황에 부합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 학교 밖으로 나온 개별 청소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를 그만 두는 과정에서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 체험 및 탐색의 기회도 주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진로의지와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진로와 취업 준비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체육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들이 함께 어울려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었다. 또한, 단순한 현금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소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돈의 가치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 및 수능 지원,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근로 참여에 필요한 보호자의 역할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후 이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은 심리 정서적 차원, 사회관계 형성의 차원, 진로 준비,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 기회 부족, 경제적 지원 및 소비 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진로나 취업준비 등을 넘어서서 성인기 이행에 필요한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성장 지원을 모색하는 방안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3) 학업중단의 의미와 재평가

학교를 그만둔 후 10여년 가까이 지난 기존 패널들 중에는 현재 시점에서 학업중단의 의미에 대해 재평가하거나 과거와는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학업 중단이 대학 진학이나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으며, 고등학교 중퇴로 인해 대학 진학 시기가 앞당겨진 점이 장점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았지만, 학교를 그만두면서 일찍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관련 분야에서 진로를 개척해가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학업중단에 대한 재평가로 과거에 비하여 후회된다는 인식을 보이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먼저, 과거에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취업과정에서 이력서 작성시 학력란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하거나, 학교생활에서 형성될 수 있는 사회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학교생활을 통해 암묵적으로 습득하는 지식과 문화를 터득하지 못한 점, 학업중단 이후 삶이 고단하고 여전히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에 대해 후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학업중단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삶의 궤적에서 시기에 따라 혹은 개인의 상황이나 욕구 변화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이라는 생애 결정은 즉흥적이거나 충동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 삶의 맥락에서 보다 전향적인 대안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업중단이 여러 생애 선택지 중에 하나로 인식되어야 하며, 개인의 삶에 낙인으로 부과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변화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 (4) 질적중단조사 참여 경험의 의미

2013년 설문조사 참여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루어진 인터뷰에 참가해 온 기존 패널들은 장기 중단연구 참여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먼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의 학업중단이라는 인생 사건에 대해 회고하며, 그 이후의 삶의 궤적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학업중단이라는 이벤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으며, 자신의 삶을 관조하며 객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도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경청을 해주는 상황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였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나 ‘연예인’도 아닌데, 살아온 이야기에 대하여 관심을 받고 있음을 느끼며, 자신감을 갖게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향후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의 삶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나름대로의 삶의 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향후에 이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고려할 만하다.



# ○ — 제4장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조사

- 1. 신규 패널 개요
- 2. 면접조사 내용 및 방법
- 3. 분석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 1. 신규 패널 개요

### 1) 신규 패널 현황

기존 패널은 대부분 2010년대 초반에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현재 20대 중·후반의 청년이 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떠한 성장과정을 거쳐 청년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이에 비교적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10대 중반의 청소년들로 신규 패널을 구축하여 기존 패널과 다른 특성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희진 외, 2020). 또한 이들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개선을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신규 패널은 2020년에 당시 대부분 10대 중반의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축되었으며, 1차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총 33명이다(김희진 외, 2020). 2021년에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위해 접촉했을 때는 연락 두절 4명, 조사 거절 3명, 추적 불가능이 3명으로, 23명이 2차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김희진 외, 2021a). 이에 2020년 패널 구축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패널 구축에 어려움이 많았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총 14명을 추가 섭외하였고(김희진 외, 2021a),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신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은 표 IV-1과 같이 남자 13명, 여자 25명으로 총 38명이다. 이들의 학교 밖 이행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학업형은 21명, 직업형 7명, 무업형 10명으로, 아직 학교를 그만둔 지 오래되지 않아 무업형(실제로는 진로미결정

23) 이 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상태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도시에서 12명, 중소도시 16명, 읍면지역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최종 현황(2022년 현재)

유형분류	지역 규모									합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학업형	4	1	3	11	1	10	6	1	5	21	3	18
직업형	3	2	1	1	1	0	3	2	1	7	5	2
무업형	5	3	2	4	1	3	1	1	0	10	5	5
합 계	12	6	6	16	3	13	10	4	6	38	13	25

전년도 면접조사에 참여한 38명의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중 23명은 2021년까지 두 차례에 면접조사에 참여하였으나, 2021년에 추가된 패널들은 1차 면접조사에만 참여함에 따라, 올해 일부는 세 차례 면접에, 일부는 두 차례 면접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면접조사를 위해 사전 접촉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전체 38명의 신규 패널 중 접촉에 성공한 사례는 32명으로, 이 중 31명이 조사 참여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접촉에 성공했으나 인터뷰를 거절한 사례는 1명이었으며, 접촉실패 사례 6명 중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가 4명, 수신 정지가 1명,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은 사례가 1명이었다.

표 IV-2. 신규패널 사전접촉 결과

구 분	전체	접촉성공		접촉 실패		
		조사참여 <sup>주)</sup>	조사거절	없는 번호	수신정지	지속부재
인원수(명)	38	31	1	4	1	1

주: 처음 접촉시에는 조사 참여에 응했으나 이후 번심 등으로 조사거절 사례가 늘어, 최종 면접에 성공한 인원은 24명임.

## 2) 신규 패널 면접대상자 추적 결과

올해 면접조사를 위하여 사전접촉을 시도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접 참여에 동의한 31명의 현황을 살펴보면, 남자가 10명, 여자가 21명이며, 연령대별로는 만 16세가 1명, 만 17세가 8명, 만 18세가 10명, 만 19세가 11명, 만 20세가 1명으로 대부분 10대 후반으로 패널이 구성되어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가 각각 12명, 읍면지역 거주자는 7명이었으며, 2020년과 2021년의 패널 구축 및 패널 추가 시 파악한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유형별로는 학업형이 17명, 직업형이 6명, 무업형이 8명이었다. 현재 주로 하는 일을 파악한 결과, 학생(복교한 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은 17명, 취업한 청소년이 1명, 아르바이트 1명, 취업 준비 1명, 검정고시 준비 1명 등이었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청소년은 3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들 중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두 차례에 면접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은 19명이었고, 12명은 2021년에 추가로 패널에 포함되어 올해 두 번째 인터뷰대상이다.

표 IV-3.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및 접촉 현황

번호	성별	출생연도	1차 조사 시 (2020) 학교 밖 유형	1차 조사 시 (2020) 지역규모	2차 조사 시 (2021) 지역규모	3차 조사 시 (2022) 지역규모	사전 접촉 결과	2022년 주로 하는 일 (간략정리)	심층면접 참여 유무 <sup>*)</sup>
신규1	남자	04년	무업형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성공	하는 일 없음	X
신규2	여자	04년	학업형	중소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심터/ 대학 진학 준비	O
신규3	남자	06년	직업형	중소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검정고시 합격/ 운동선수	O
신규4	여자	03년	학업형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성공	대학진학 준비	O
신규7	남자	04년	학업형	중소도시	중소도시	-	실패	학생	X
신규9	여자	04년	학업형	중소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취업/자격증 준비	X
신규11	남자	03년	직업형	대도시	대도시	-	실패	검정고시 합격/ 아르바이트	X
신규12	여자	04년	무업형	대도시	중소도시	-	거절	검정고시 준비	X
신규14	여자	03년	학업형	중소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대학생	O
신규15	남자	05년	무업형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성공	고등학생	O
신규16	남자	04년	학업형	중소도시	대도시	-	실패	-	X
신규19	남자	04년	무업형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성공	아르바이트/ 대학진학 준비	O

번호	성별	출생연도	1차 조사 시 (2020) 학교 밖 유형	1차 조사 시 (2020) 지역규모	2차 조사 시 (2021) 지역규모	3차 조사 시 (2022) 지역규모	사전 접촉 결과	2022년 주로 하는 일 (간략정리)	심층면접 참여 유무 <sup>주)</sup>
신규20	여자	03년	학업형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성공	대학생	X
신규21	여자	03년	학업형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성공	대학생	O
신규22	여자	03년	학업형	중소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대학생	O
신규24	여자	05년	무업형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성공	검정고시 준비	O
신규25	남자	02년	직업형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성공	하는 일 없음	O
신규26	여자	03년	직업형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성공	취업/자격증 준비	X
신규28	여자	03년	학업형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성공	대학생	O
신규29	여자	05년	학업형	중소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검정고시 준비	O
신규30	남자	03년	학업형	읍·면지역	읍·면지역	읍·면지역	성공	대학생	O
신규31	여자	05년	학업형	읍·면지역	읍·면지역	읍·면지역	성공	학생	O
신규32	여자	03년	학업형	읍·면지역	읍·면지역	읍·면지역	성공	검정고시 합격/하는 일 없음	O
신규33	여자	01년	학업형	읍·면지역	읍·면지역	-	실패	검정고시 준비	X
신규34	남자	04년	무업형	-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검정고시 합격/하는 일 없음	O
신규35	여자	03년	학업형	-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수능 준비 중	X
신규36	여자	05년	학업형	-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수능 준비 예정	O
신규37	여자	04년	학업형	-	읍·면지역	읍·면지역	성공	수능 준비 중	O
신규38	남자	05년	직업형	-	읍·면지역	읍·면지역	성공	취업/자격증 준비	O
신규39	여자	03년	학업형	-	중소도시	-	실패	수능 준비 중	X
신규40	남자	04년	직업형	-	읍·면지역	대도시	성공	취업	X
신규41	여자	04년	학업형	-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대학진학 준비	O
신규42	여자	05년	직업형	-	읍·면지역	대도시	성공	검정고시 합격/자격증 준비	O
신규43	남자	03년	무업형	-	읍·면지역	읍·면지역	성공	하는 일 없음	O
신규44	여자	04년	학업형	-	읍·면지역	읍·면지역	성공	대학진학 준비	X
신규45	여자	05년	무업형	-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동아리 활동/하는 일 없음	O
신규46	여자	05년	학업형	-	중소도시	-	실패	대학진학 준비	X
신규47	여자	04년	무업형	-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진로 탐색 중	O

주: 접촉에 성공하고, 또 당시에는 면접참여의사를 보였으나 이후 번심이나 여러 이유로 면접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음.

## 2. 면접조사 내용 및 방법

### 1) 조사내용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의 면접조사 역시 기존 패널 면접지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들이 비교적 최근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또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임에 따라 이전 인터뷰에서 기존 패널에 비해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과 지원내역 및 요구 등에 더욱 초점을 두어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면접에서도 기존 패널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들의 학교 밖 생활 및 진로발달 상황,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청소년기 경험에 대한 인식 및 영향, 경제적 상황 및 자립과 미래 전망, 자신에 대한 생각과 사회적 관계(지지체계), 가족구성에 대한 생각,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과 세부 정책과제, 사회 일반에 대한 인식 등의 영역에 걸쳐, 이들과 주변 환경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두루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 경험이 현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인식에서의 변화 여부와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어땠을지 등 자신의 상상 속 이미지와 실제 현재 모습과의 비교와 복교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기존 패널 조사와 차이를 두었다. 이외에도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지원내역과 지원요구에 있어 기존 패널들 조사에서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여 정책제언 도출에 함의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면접지의 재검토 및 수정과정을 거친 2022년도 면접조사는 기존 패널의 면접지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학계 및 현장, 정책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보완, 작성된 면접조사는 본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BR) 심의(승인번호: 202206-HR-고유-011)를 거쳐, 실제 면접자료로 활용되었다. 신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4와 같으며, 상세 질문지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표 IV-4. 신규 패널 대상(10대 후반) 면접조사 조사영역 및 내용

영역	면접내용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살고 있는 곳(이사 등 확인): 거주형태(자취, 부모님 집, 친구 등)</li> <li>• 마지막 학교 그만둔 시기 재확인(고등학교, 대학교 복귀 여부)</li> <li>• 현재 주로 하는 일: 변화 여부 확인</li> </ul>
현재생활 및 진로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생활 탐색: 학업, 직업준비, 취업, 무업, 군대 등 응답자 상황에 따라 질문</li> <li>- 전년도 상황과 비교하여 진로관련 변경 내용 탐색</li> </ul>

영역	면접내용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검정고시,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경험 등 조사</li> <li>- 학업/취업의 경우 현 상황과 목적/이유, 현재 활동, 만족도와 요구 등</li> <li>- 무업의 경우는 하루일과, 이유, 만족도, 변화 가능성, 하루 일과 등</li> <li>- 군대(사회복무요원) 입대 예정 시기 및 이유, 군복무 완료 후 계획</li> <li>• [무업인 경우] 하루 일과 및 일정, 만족도와 원하는 생활과 요구</li> <li>• 직업 결정 유무 및 직업 준비 상황</li> <li>• 최근 관심사나 고민(건강, 경제적 어려움, 거취나 생활문제 등)</li> </ul>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인식 변화</li> <li>-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학교 대응),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생각과 시간 경과에 따른 차이</li> <li>- 그만둔 이후의 계획 이행 여부, 만족/불만족스러운 점</li> <li>- 학교를 계속 다녔을 상황을 가정했을 때 현재와의 비교</li> <li>-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만족도</li> <li>•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의 학교/정부의 역할</li> </ul>
청소년기 경험에 대한 인식 및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 청소년기(10대)의 경험</li> <li>- 학업중단과정 및 학교 밖 생활 경험 포함</li> </ul>
경제적 상황 및 자립과 미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경제상황 및 주거 상황</li> <li>- 본인,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어려움 유무</li> <li>- 주 수입원, 소비현황</li> <li>- 주거상황(부모님과 거주 또는 독립생활) 및 주거 마련 시 어려움</li> <li>- 대출, 빚, 신용불량 상황</li> <li>• 성인기 이행과 자립: 성인고 자립의 의미, 이와 관련한 자신에 대한 인식</li> <li>• 미래에 대한 걱정/불안</li> </ul>
자신에 대한 생각과 사회적 관계 (지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에 대한 인식: 자신에 대한 생각(자존감 포함)과 학업중단 및 학교 밖 경험과의 관계,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과 대처 방식</li> <li>• 심리사회적 상태</li> <li>- 스스로에 대한 만족/불만족,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 유무 및 이유, 사회적 고립감</li> <li>-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의 친구관계의 영향, 그리고 이후 관계의 변화</li> <li>-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학교 밖에서의 사회적 관계 및 차이</li> <li>• 소중한 사람 및 역할 모델 등</li> <li>• 가족 및 친구, 이성 관계, 학업/취업 현장, 지원체계에서의 관계 및 중요도 등</li> </ul>
가족구성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가족 구성 관련</li> <li>• 결혼관, 동거/결혼 생활의 어려운 점/만족스러운 점, 지원 요구</li> </ul>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과 세부 정책 과제, 사회 일반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에서의 주요 경험과 인식</li> <li>- 현재 지역사회 내 학업/일 경험 등에서의 장점, 어려움</li> <li>• 지역사회 및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과 지원 요구</li> </ul>

영역	면접내용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역사회(기관)(꿈드림 포함)로부터의 도움 경험, 경로 등</li> <li>- 학교를 그만둔 이후 가장 필요했던 지원</li> <li>-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및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자체, 정부의 노력/지원 요구(꿈드림센터에 기대하는 점)</li> <li>• 세부 정책과제(학교 밖 청소년 공간 마련, 경제적 지원, 진로상담자 배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방법 등)에 대한 생각</li> <li>•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 인식, 낙인/차별 경험 유무</li> </ul>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경험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본 면접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한 회고</li> </ul>

\* 출처: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p. 173-174의 면접조사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함.

## 2) 조사방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연구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과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청소년들과 미성년인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수령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sup>24)</sup> 올해 면접조사를 위한 컨택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면접조사 참여를 약속하였으나, 이후 변심이나 수험능력시험 준비 등을 이유로 직전에 면접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2022년 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2020년에 수행된 1차 조사에서부터 면접에 참여한 인원 23명 중 15명과 2021년에 새로 패널로 추가되어 1차 면접에 참여했던 청소년 중 9명까지 총 24명이었다.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까지 실제 면접대상자가 50여명이 초과함에 따라 전년도 본 면접조사에 참여하여 본 패널들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터뷰에 상당히 숙련된 면접원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청소년과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가 깊은 아동 및 청소년복지관련 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전공자들로 총 4명의 면접원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면접을 시작하기 전 이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개관, 학교 밖 청소년 특성, 각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성 현황, 본 연구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의 면접조사 방법 등에 대해 면접원 교육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특히 여러 면접원이 진행함에 따라 면접조사지의 질문들은 가능한 구조화하였으나, 실제 면접현장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도출되는 내용을 중심

24) 신규 학교 밖 청소년들을 패널로 구축하고 1차 조사를 실시할 당시, 올해 2022년까지 면담조사에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동의를 받았고, 매번 면접조사를 위해 컨택과정에서 이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방법을 포함한 질적자료 수집 방식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다. 면접조사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리뷰하였고, 각 상황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면접 지침들을 공유하여 원활한 질적 자료 수집이 되도록 하였다. 이후에는 면접원들에게 각 면접대상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의 개인적인 특성 및 전사자료를 송부하여 인터뷰를 담당하게 된 각 청소년들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친숙한 분위기에서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접 진행시 면밀한 관찰을 통해 필드 노트(field note)도 꼭 작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2022년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이 대면면접을 고수하지 않는 한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하였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회의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1시간~1시간 30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대면 면접을 독려하였다. 온라인상임에도 대면 면접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후 면접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면접대상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하면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면접 진행 시작 전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나이와 이름, 거주지와 같은 개인신상정보를 확인하면서 이전 조사 당시에서 변경된 사항을 점검하였고, 이번 면접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또한 면접 참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및 익명성을 보장하였고, 진행 중에 더 이상 면접을 원하지 않을 때는 도중에 그만둘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되며, 전사되는 것 역시 고지하였고, 가능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태도와 말투, 표정, 전반적인 인상 등에 대한 면접원들의 필드 노트는 그림 IV-1과 같다. 마지막으로 면접조사결과인 음성파일과 전사자료, 그리고 면접원이 작성한 필드 노트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 DB에 포함,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Field Note						Field Note					
[면접자 성명: 최○○]						[면접자 성명: 전○○]					
<b>1.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b>											
ID	성명	연령	면접일시	면접장소	현재 상황	ID	성명	연령	면접일시	면접장소	현재 상황
20XX	□□□	19	2022.07.21. 목 15:00-16:15	Zoom 온라인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유시간을 즐기는 중	20XX	○○○	만 20세	2022. 7. 16. 노 오후 4시	ZOOM 온라인	대학교 XX학과 재학생
<b>2. 면접분위기와 재언</b>											
<p><b>1) 면접참여자의 전반적인 인상 및 태도</b></p> <p>좀 더 성숙한 말투와 분위기를 갖고 있고 다른 면접참여처럼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적었으나, 인터뷰를 끝마치고 면접자와 대화를 나눌 때 안도의 미소를 짓는 등 꽤 나이다운 모습을 보임. 전반적으로 면담형의 이야기들을 했고, 이전 인터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내용을 전달해줌.</p> <p><b>2) 면접 분위기(상황/환경 등)</b></p> <p>본인의 방에 앉아 인터뷰에 응하였고, 성심껏 대답을 하려 함.</p> <p><b>3) 분석 시 유의할 점</b></p> <p>적자를 2번하였고, 동일한 사유는 '공부의 의욕이 없다'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친구관계 또는 사회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깊이 있는 탐색은 되지 않음. 첫 번째 학교를 지워했을 때는 우울증 약을 복용했을 정도로 힘든 부분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피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임. 단순히 학원을 많이 다녔고 당시 부모님이 이혼을 거론할 정도로 집안 사정이 안 좋았다고 하지만, 학교 내에서도 보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기라 추측되는 부분이 있음.</p> <p>전반적인 대답에서 학업중단 이후 주변에서도 어떻게든 면접참여자를 '박으로 나오게 함'. 또한 면접참여자로 되도록 집 안에 있지 않으려고 신체 관련한 활동을 하거나 청소년문화센터 및 풋볼팀을 활용하려 노력했음.</p> <p><b>4) 기타사항(추가 질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등)</b></p> <p>없음</p>						<p><b>1) 면접참여자의 전반적인 인상 및 태도</b></p> <p>전반적으로 어투가 느린 편이긴 하였지만 비교적 질문을 깊이 생각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음.</p> <p>하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주어서 면담자가 다시 답변의 의미에 대해 정리하여 물어보거나 재확인하여야 할 때가 있었음.</p> <p><b>2) 면접 분위기(상황/환경 등)</b></p> <p>면접 초반에 참여자 핸드폰 놓인 위치에 의해 목소리가 한음절씩 끊겨서 들림. 이후 핸드폰 위치를 조정하여 끊기는 현상이 없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음.</p> <p>조용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됨.</p> <p><b>3) 분석 시 유의할 점</b></p> <p>학교를 중단한 시기(교1)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표현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어하지 않았음.</p> <p>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 했고 본인에게 소중한 사람은 없다고 함. 몇 달에 한 번씩 어머니와 만난다고 함. 기초수당을 받을 정도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p> <p>본인의 진로를 위해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바쁜 대학 생활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p>					

그림 IV-1. 2022년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 시 작성된 필드 노트 예시

### 3) 면접참여자 특성

올해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24명의 인구학적 배경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특성은 표 IV-4와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 면접을 위해 접촉한 패널 38명 중 처음 접촉 당시에는 대부분이 면접 참여를 약속했었으나, 이후 심경 변화 및 대학 입시 준비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24명이 면접을 완료하였다.

전체 24명 중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은 15명이며, 2021년에 패널로 구축되어 올해 2번째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은 9명이다. 남자청소년이 8명, 여자청소년이 16명이었고, 2022년 거주지 규모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은 8명, 중소도시 10명, 읍면지역 6명이었다. 일부 읍면지역이나 중소도시의 청소년 중 대학진학이나 기숙형 내일이룸학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이유로 특별시·광역시로 이동한 사례가 있었다. 2021년에 추가 패널로 구축된 청소년들은 2020년 신규 패널 구축 당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선정된 청소년의 수가 대도시에 비해 적음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역규모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수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패널에 추가되었다.

2022년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IV-5), 만16~17세가 9명, 만18~19세가 14명, 만 20세가 1명이었다. 대부분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일부 한부모가정도 있었다. 전년도에 대학진학을 희망했던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올해 대학에 진학하였고, 아직 연령대가 10대 후반으로 여전히 대학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대부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와 관련있는 청소년들이었지만 소수 청소년쉼터와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하면서 본 패널로 구축된 사례들도 있었다.

2022년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유형별로 보면, 학업형이 14명, 직업형이 3명, 무업형이 7명이었는데, 여기에서 학업형은 대학생이거나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무업형은 대체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상태가 해당된다. 2020년이나 2021년에 신규 패널에 포함되어 1차 면접했을 당시와 올해 면접 시점에 학교 밖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무업형에서 학업형으로 바뀐 사례가 2명, 직업형에서 무업형으로 바뀐 사례가 1명 있었다.

진로발달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이나 2021년 첫 면접 당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고 당시 수시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했던 사례들은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상당수가 대학 진학에 성공하였다. 또한, 현재에도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진학에 성공했거나 또는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전공들은 동·식물 분야, 치·위생, 상담, 사회복지학, 사학과, 간호과, 실용음악, 호텔관련분야 등 매우 다양했고, 향후 취업에 용이해 보이는 전공들도 많았다. 대학 진학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은 컴퓨터 활용능력과 바리스타, 한국사 등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취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음식점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에서 근무했다. 이외에도 올해 기준 3명의 청소년이 고등학교로 복교하였고, 남자청소년 중에는 조만간 군 입대를 염두에 두기도 하였다.

표 IV-5. 2022년 조사 참여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폐업 특성

신규폐업 번호*	연령 (만)**	성 별	거주지 구도 (2022)	가족관계	이용자 기관	학교종 단시기	학업중단 주요사유	학교 밖 유형			면접 당시 진로 상황(주로 하는 일)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청소년2	18	여	중소도시	한부모(부), 여동생	청소년 쉼터	2020년 3월	친구관계 영향, 들여 써야하는 학교생활	2020년 학업형 학업형 학업형	2021년 경정고시 준비, 대학(수 업지원제도 통해 컴퓨터 외 학회 등 자격 취득	2021년 청산년 삶터 생활/포근년 업지원제도 통해 컴퓨터 등 자격 취득	2022년 대학 수시전형 준비 중, 동문사육사 희망	
청소년3	16	남	중소도시	부모님, 여동생	꿈드림	2019년 중 1	운동실력 향상	2020년 직업형 무업형 직업형	2021년 경정고시 준비, 영어 공 부, 축구 연습	2021년 경정고시 합격	운동관련 고등학교 입학	
청소년4	19	여	특별광역시	부모님, 남동생	꿈드림	2019년 11월	다른 공부를 하고 싶음.	2020년 학업형 학업형 학업형	2021년 경정고시 응시 후 휴식, 대학(수업지원)에서 아르바 이트 취득 계획	2021년 대학(수업지원) 준비,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 이트	대학생 취업생 전공, 햄 버거 프랜차이즈 아르바 이트	
청소년14	19	여	중소도시	부모님, 동생 1명	꿈드림	2019년 7월	학교폭력 피해	2020년 학업형 학업형 학업형	2021년 경정고시 미졌고, 대학 입시 준비, 워드-검출 자 격증 준비	2021년 대학(간호학), 학교생 활 만족	대학생, 간호과 전공, 도 외 준비	
청소년15	17	남	특별광역시	한부모(모), 여동생 1명	꿈드림	2018년 10월	규칙적인 생활 어려움.	2020년 무업형 무업형 무업형	2021년 중학교 경정고시 취득, 특성고고 진학과 경정고 시 중 고민	2021년 특성고고 진학	특성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진학 준비	
청소년19	19	남	특별광역시	부모님	유사 지원 기관	2020년 (고교 미진학)	학교 필요성을 못 느끼서	2020년 무업형 무업형 무업형	2021년 도위 공부, 대학(음악) 입시 준비	2021년 고득점유해 경정고시 제 준비, 인턴십 제반 아르바 이트 중	대학(생성분분야), 공인 중개사 관련 자격증 준 비, 음악 진로 희망	
청소년21	19	여	특별광역시	한부모(모), 자매 2명	꿈드림	2019년 8월	학교에서 진로를 찾을 수 없었음 (시간 아까움).	2020년 학업형 학업형 학업형	2021년 경정고시 미치고 수능 준비 중, 전공 탐색 중 진학 희망	2021년 대학 진학 준비(수시), 사 업(수업지원) 희망, 대학원 진학 희망	대학(생성분분야), 취업 방 향 미결정, 구체적 계획 없음	
청소년22	19	여	중소도시	부모님, 오빠 1명	꿈드림	2019년 11월	집단지들림	2020년 학업형 학업형 학업형	2021년 수능 준비, 자기소개서 준비, 심리 전공 희망	2021년 대학(특수교육), 임용 고시 목표	대학생, 편입생 아르바 이트 중, 워킹홀리데이 외 진로 고민 중	

신규패널 번호*	연령 (만)**	성 별	거주지 구도 (2022)	가족관계	이용자 기관	학교중 단시기	학업중단 주요사유	학교 밖 유형		면접 당시 진로 상황(주로 하는 일)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소년24	17	여	특별광역시	한부모(모), 여동생 1명	청소년 센터	2019년 5월	자유롭지 않은 학교생활로 인한 우울감, 교사의 언어폭력	무업형 무업형 무업형 무업형	인턴십 중, 이후 경정고 시/고등학교 진학 고민 중 취직 희망	경정고시 준비, 비리스타 인턴십 중, 비리스타 자격 증 취득 희망	경정고시 취득, 고 등 경정고시 준비, 이트 바이트 계획, 대학진학 계획 없음, 우울증	
청소년25	20	남	특별광역시	한부모(모), 여동생 2명	꿈드림	2018년 12월	어제는 진로에 대 한 선입견, 학교 로부터 진로관련 도움 없음.	직업형 직업형 직업형 직업형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 (음악), 이트바이트희망 경정고시 합격, 대학 진 학 희망, 비리스타 자격 증 취득, 2-3년 뒤 입대 예정	대학(음악), 대학원 진 학 희망, 비리스타 자격 증 취득, 2-3년 뒤 입대 예정	대학(음악), 대학원 진 학 희망, 비리스타 자격 증 취득, 2-3년 뒤 입대 예정	
청소년28	19	여	특별광역시	한부모(부), 남동생, 고모	꿈드림	2019년 8월	집단지음림	학업형 학업형 학업형 학업형	대학 입시 준비 중, 진로 미결정, 급히 사회복지 진공 결정	대학(생사회복지), 학생 징학생 근무 중, 졸업 후 바로 취직 희망	대학(생사회복지), 근로 징학생 근무 중, 졸업 후 바로 취직 희망	
청소년29	17	여	중소도시	부모님, 오빠 1명	꿈드림	2019년, 2021년	집단지음림 연루 죄책감	학업형 학업형 학업형 학업형	드림잡 통해 사서 이트 바이트 중, 중학교 경정 고시 합격, 고등학교 진 학 준비	대학 진학 목표, 심리학 학과-심리학 전공 희망, 이트바이트 희망이나 잘 안됨.	수능 공부 중, 문헌정보 학과-심리학 전공 희망, 이트바이트 희망이나 잘 안됨.	
청소년30	19	남	읍·면지역	부모님, 누나 1명	꿈드림	2019년 7월	해외 교환학생으 로 가기 위해	학업형 학업형 학업형 학업형	경정고시 합격, 전문대 학 입학, 외국교환학생 사무 국으로 갔으나 코로나19 로 귀국	대학(생호텔분야), 호텔 레스토랑에서 실습 중, 호텔리어희망, 취업/편 입 중	대학(생호텔분야), 호텔 레스토랑에서 실습 중, 호텔리어희망, 취업/편 입 중	
청소년31	17	여	읍·면지역	부모님, 언니 1명	꿈드림	2019년 중 2	진로 결정 후 학업중단	학업형 학업형 학업형 학업형	특성화고 진학 희망, 카 페인 이트바이트 예정 페 이트바이트 중, 비리 스타 체험	특성화고 3학년 재학 중 (중학교 단계 경정고시 합격)	특성화고 3학년 재학 중 (중학교 단계 경정고시 합격)	
청소년32	19	여	읍·면지역	한부모(모), 오빠 1명	꿈드림	2013년 초 4	학교 부적응, 친구 관계	학업형 무업형 무업형 무업형	경정고시 수학 과목 준 비 중, 대학 진학 희망하 지만 학신 없음.	미술학원 수강, 취업 계 획없음, 일리스트레이 더 작업 희망(프리랜서)	미술학원 수강, 취업 계 획없음, 일리스트레이 더 작업 희망(프리랜서)	

신규패널 번호*	연령 (만)**	성 별	거주지 구도 (2022)	가족관계	이용자됨 기관	학교중 단시기	학업중단 주요사유	학교 밖 유형		면접 당시 진로 상황(주로 하는 일)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소년34	18	남	중소도시	부모님, 누나, 동생	꿈드림	2021년 4월	자유롭지 못한 학교생활	—	무임형 무임형	—	꿈드림 멘토링으로 한국 사 공부, 음식점 아르바이트, 경찰분야 대학 진학 희망, 20세 임대 예정	2022년	검정고시 합격, 수능 준 준
청소년36	17	여	중소도시	부모님	꿈드림	2020년 고 1	건강 문제	—	학임형 학임형	—	검정고시 합격, 경찰 자격 증 취득 후 수능 준비 중	2021년	최근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수능 준비, 경찰 2급 취득, 교사 희망
청소년37	18	여	읍·면지역	부모님	꿈드림	2020년 고 1	친구 문제	—	학임형 학임형	—	검정고시 취득, 대학 진학 준비(수시전형), 영어면 접 과외 중	2021년	대학생 공공기관 아르바 이트 중, 취업한다면 4 년제 편입 고려
청소년38	17	남	읍·면지역	부모님, 누나2, 동생2	꿈드림	2020년 고 1	종교영향	—	직임형 직임형	—	검정고시 합격, 컴퓨터 자 격을 취득 준비, 대학 진 학과 취업 중 고민	2021년	학원/음식점 서빙 아르 바이트 등으로, 경찰, 자 격을 취득, 회계 자격증 공부 중
청소년41	18	여	중소도시	부모님, 동생2	꿈드림	2017년 중 2	심리적 문제	—	학임형 학임형	—	검정고시 합격, 7급, 10급 비트, 비리스타 자격증 취득, 대학 진학 희망	2021년	대학생(동물관련 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희망
청소년42	17	여	특별광역시	부모님	꿈드림	2020년 고 1	대인관계 스트레스	—	직임형 직임형	—	방직 아르바이트, 꿈드림 센터를 통해 알게 된 공방 준비 중, 내년 대입 준비 에 직원으로 취업	2021년	내일이룸학교에서 수업 이수하면서 관련 자격증 준비 중, 내년 대입 준비 계획, 음식점 아르바이 트를 하고 있음.
청소년43	19	남	읍·면지역	부모님	꿈드림	2019년 고 1	친구 문제	—	학임형 무임형	—	검정고시 합격, 부모님 사 업 농사 돕는 중, 구체적 인 진로 계획 없음.	2021년	편의점 아르바이트, 내 년 초 임대 예정, 이후 취업/대학 고려하지 않 고 부모님과 창업 계획

신규매년 번호*	연령 (만)**	성 별	거주지 규모 (2022)	가족관계	이용지원 기관	학교중 단시기	학업중단 주요사유	면접 당시 진로 상황(주로 하는 일)			
								2021년	2020년	2021년	
청소년45	17	여	중소도시	부모님	꿈드림	2016년 초 5	홈쿨링	—	—	2021년 검정고시 합격, 바리스타 교육 이수 후 카페 직업체 험 중	2022년 대형에 예비 신입생으로 입학, 진로분야 고민
청소년47	18	여	중소도시	부모님, 오빠	꿈드림	2021년 고 2	진로탐색	—	—	2021년 검정고시 준비, 재과제형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수강, 대학진학 희망 참여, 관련 자격증 취득 부모님 사업장에서 강사 준비	2022년 검정고시 준비 중(영어 대형) 대학진학 희망, 부모님 사업장에서 강사 로 아르바이트 중

주: 1) 청소년 관련 정보는 본 연구의 2021년도 보고서(김화진 외, 2021a: 183-184)의 해당 내용에서 일부 발췌함.

2) 페널번호 기준 청소년 2~32는 2020년에 페널로 구축되어 올해 3차 면접에 참여하였고, 청소년 34~47은 2021년에 페널로 구축되어 올해 2차 면접에 참여하였음.

3) 과거 검정고시 연령 산출에 차이가 있어 '2022 - 출생연도 = 만 나이' 기준으로 일괄 계산함.

4) 과거 검정고시 준비도 학업형으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대부분 검정고시는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대학입학까지 준비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여기에서 학업형은 대학에 진학했거나 대입을 준비하는 경우이며, 무업형은 대체로 검정고시는 준비하고 있어도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없거나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사례를 의미함.

5) 1차 면접이 청소년 32번까지는 2020년에, 청소년 34~47은 2021년에 실시됨에 따라 해당 면접 당시의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유형에 따른 구분임.

#### 4) 자료분석방법

2022년도 면접조사에 참여한 신규 학교 밖 청소년들을 통해 수집된 질적자료는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 분석(Inductive analysis)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 총괄보고서에서는 정책제안 도출과 더욱 관련성이 있는 지역사회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경험 내용과 인식,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과 지금까지 본 조사의 면접에 여러 번 참여했던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앞에서 제시한 면접조사내용에서 보듯이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내용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집된 질적자료의 양이 방대함에 따라, 총괄보고서의 범위와 지면상 모든 내용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면접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과거 전자자료도 함께 활용한 질적자료 중단분석은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제시하였다.

관점에 따라 면접조사 내용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론에서 정책제안 도출을 위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생각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자자료 내용에 주목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과 이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하였다. 또한, 신규 패널 학교 밖 청소년이 2~3차례 본 질적중단조사에 참여한 경험을 조명함으로써,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 조사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내용 분석의 틀을 아래와 같이 크게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의미있는 내용들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IV-2.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자료 분석 틀

분석을 위해, 먼저 분석적 메모 등 개방 코딩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과 관련한 의미 단위를 찾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전자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그 앞-뒤 맥락과 또 청소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차 반복적으로 비교, 검토하였고, 범주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료의 속성이 잘 반영되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면접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요청한 필드 노트는 전자자료만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필드 노트에 제시된 해당 청소년의 면담 환경과, 면접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면접질문 외의 대화 내용 등은 청소년 사례를 분석하는데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석이 타당성있게 수행되었는지 분석결과와 신뢰도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질적자료 내(과거 및 현재 전자자료, 과거 동일 사례 분석결과, 필드 노트)에서의 검증뿐 아니라, 의미단위 도출 및 범주화 과정에 대해 연구진들이 일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질적 연구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질적 연구과정의 엄격성과 분석결과와 신뢰성을 기하였다. 질적자료 분석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IV-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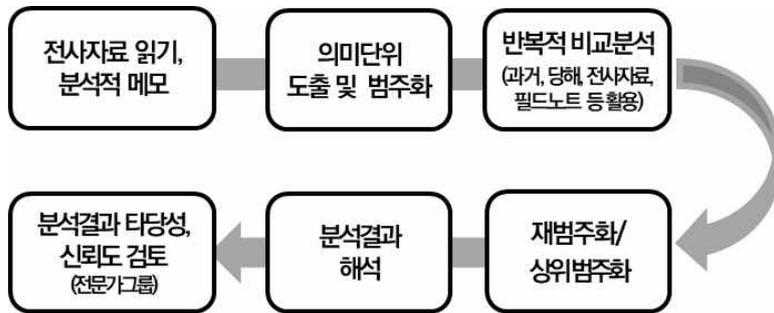


그림 IV-3.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자료 분석 개요

### 3. 분석결과<sup>25)</sup>

#### 1) 학교 밖 청소년의 긍정적 지원경험 및 인식

(1) 실질적인 진로 탐색, 진로 지원이 되었음

○ 갈피를 잡아주고 다른 진로를 안내함

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에 나온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와 지금까지 학교가 전부였다면 다른 어떤 기회가 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이는 본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학교를 나온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회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청소년 14). 이와 관련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대안학교에서 그 다음해에 총 두 차례에 걸쳐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에서 중학교 학력취득 검정고시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례로 이렇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갈피를 잡아준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청소년 15). 또한 청소년 41은 꿈드림센터의 안내를 통해 꼭 학교를 가는 것만이 아닌 다른 진로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자칫 방향을 잡지 못해 방황하거나,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꿈드림센터를 통한 이러한 진로 안내, 진로지도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받고 싶었던 지원은) 역시 그냥 정보였던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지** 이런 기회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그렇게 알려주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뭐 정보가 있어야 그걸 짜든 말든 하니까 계획을 (청소년 14)

꿈드림은 다시 이렇게, 그래도 고등학교를 가지는 **갈피를 잡아줬으니까**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만약에 **꿈드림 안 다니고 있었으면 계속해서 집에 있었을 수도 있고.** 자퇴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청소년 15)

(꿈드림 가서) 선생님들이 꽤 좋았어요 (중략) 확실히 뭔가 더 친절하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학교를 가는 쪽만 생각을 해 주셨는데 **그쪽에서 처음으로 안 가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셔서** (청소년 41)

25) 본 절에서는 신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 지원에서의 아쉬움, 지원 요구와 본 면접에 참여했던 경험 등과 같은 지원정책 도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횡단분석하였다. 올해 수집된 자료와 그동안 축적된 질적중단자료는 협동연구보고서의 질적중단자료 심층분석에 활용되었다.

○ 검정고시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됨

검정고시 지원은 제도권 교육을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에서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학력취득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모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이다. 본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꿈드림센터를 통해 검정고시학원을 소개받은 것도 도움이 되었으며, 대학생 멘토링이나 자원봉사 형식의 검정고시 준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검정고시 학과목 지도뿐 아니라 검정고시 접수에서부터 일련의 과정이 지원됨으로써 걱정 없이 검정고시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청소년 36의 사례는 상당히 인상적인 평가로 보인다.

자퇴 이후로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은 건 꿈드림밖에 없어서 여기서 **검정고시학원 소개 받은 게 가장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14)

**검정고시가 제일 큰 도움**이었어요 (중략) 대학생 멘토링 선생님 분들은 하나 하나 과목에 대해서 많이 해 주셨고 꿈드림 선생님이 치면 저희는 아무래도 모르니까 혼자 검정고시 접수하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청소년 36)

수업할 수 있는 그 뭐더라? 봉사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수업). 그게 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34)

○ 실질적인 진로지원, 체험이 도움이 되었음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향후 진로를 모색하면서 검정고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또는 이를 위한 자격증 취득 준비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방향이든 청소년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면접조사에서 신규패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 컨설팅이 도움이 되었으며(청소년 34, 41), 꿈드림센터를 통해 경험하게 된 아르바이트가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도 갖게 한 가장 인상 깊은 지원이었다고 보고하였다(청소년 29). 또한 한국사능력시험이나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과 같은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꿈드림센터의 지원이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36).

대학 진학에 관해서 따로 컨설팅받은 게 있거든요. **입시컨설팅** 그게 도움이 됐어요 (청소년 34)

꿈드림에서 **대학 컨설팅**해서 갈 수 있는 대학들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 선생님 한 분 불러서 다 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청소년 41)

꿈드림에서 하는 **알바 지원 프로그램**이요 (기억에 남아요) 프로그램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처음 경험해봤고 꿈에 대한 확신도 생겼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어요 (청소년 29)

만족스러웠던 건 장기 한 달 이상 두고 봐야 했던 **자격증**들 한국사, 컴활이나 그런 자격증이랑 길게 있었던 활동들이 저한테 마음에 들었고요 (청소년 36)

### ○ 성취감을 갖게 됨

학교 밖 청소년 42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진, 또래들 간의 관계문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학교를 그만둔 사례이다. 이 청소년은 이때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한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 이후에 꿈드림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중 한 연계 활동에서 해당 강사가 이 청소년을 보조강사로 동반하여 과거 그만둔 학교에 방문하면서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보조강사로 참여했던 이때의 경험은 청소년 42로 하여금 학교를 그만둔 이후 여유를 갖게 했고, 성취감도 느끼게 한 기회였다. 청소년은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하기도 했으나, 자신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한 친구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그동안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 때문에 느꼈던 부담에서도 다소 벗어나 여유를 갖기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저희 공방 대표님께서도 그냥 저한테 던지듯이 □□아(청소년 42 이름) 갈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그때 굉장히 무섭긴 했는데 갑자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내가 자퇴했던 학교 가서 수업도 못하나**,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애들도 오랜만에 봤는데 애들이 보고 □□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중략) 그동안 초조하긴 했거든요, 학교 밖에 나와서 애들보다 열심히 살아야지, 시간적으로 좀 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이 정도면 됐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을 거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고. (중략) 내가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네 하면서 되게 **성취감도 있었던 거 같아요** (청소년 42)

### (2) 집에서 나와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회성 증진

#### ○ 덕분에 집 밖을 나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됨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며, 특히 우울증인 상태이거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그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지속적으로 이 시간이 길어지면 학교 밖 청소년은 더욱 집 밖을 나가기 힘들어지고, 수면시간 등 일상생활

역시 불규칙해질 위험이 있다. 꿈드림센터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통해 진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집 안에서 머물지 않도록, 집 밖으로 이끌어내는 지원체계의 역할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본 면접조사에서 여러 학교 밖 청소년들은 꿈드림센터의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집에만 있었으면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고 꿈드림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소속감도 생겨 좋았다고 하였고(청소년 37), 집에만 있기 보다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청소년 15). 우울증으로 한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던 한 청소년은 집에서 나와 꿈드림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고, 덕분에 수면시간도 규칙적이 되면서 결국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청소년 43).

**집에 혼자 있으면 계속 시간만 허비했을 것 같은데 꿈드림센터에 나가니까 사회를 좀 더 알 수 있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학교 다닐 때랑 다르게 그래도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았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구나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37)

그래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보다는 그런 거 하러 가는 게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청소년 15)

(면접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자주 나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중략)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되고 (중략)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영향을 준 거 같아요. (청소년 43)

### ○ 사회성이 증진됨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이유로(학교부적응, 다이어트 강박에 따른) 학교를 그만둔 한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활동을 통해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으며, 자신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회고하였다(청소년 41). 이 청소년은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꿈드림은) 나를 괜찮았어요. 이것 저것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서 나를 학교에서만 인맥을 쌓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게 더 좋았어요 (중략) (꿈드림은) **사회성을 길러줬어요** (청소년 41)

### (3)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경험

#### ○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긍정적 효과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지원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턴십을 포함한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한 청소년에게는 프로그램 참여 수당 자체가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경험이었고(청소년 19), 특히 인턴십을 경험한 청소년은 수당도 받으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청소년 28).

서울에서 처음에 친구랑(센터에서) 20만 원씩 받은 게 너무 행복했어요 (청소년 19)

꿈드림에서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 선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턴십 같은 걸 했었거든요. 기관이랑 연계해서 거기서 학생들이 돈도 받으면서 3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하고 그런 직업체험 같은 거 할 수 있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좋았어요 (중략) 직업 선택하고 앞으로 이게 내 적성에 맞을까 생각하는데 직접 체험해보는 거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28)

#### ○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31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꿈드림센터까지 거리가 다소 멀었지만 교통비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었고, 더불어 식사도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집을 나오게 된 재혼가정의 한 청소년은 고군분투하며 살았어야 했고, 경제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다(청소년 25).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로부터 약간의 생활비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 있었던 이 청소년에게 꿈드림센터의 특별 지원금은 청소년의 표현대로 '숨이 턱었던' 경험이었다. 이후에도 꿈드림센터를 통한 급식지원이나 식료품 지원은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아닐까. 돈이 많이 딸렸어요. 버스비를 지원 받았어요. 꿈드림에서 버스비를 지원을 받았고, 그거 덕분에, 제가 그 돈으로 같이 밥도 먹고 버스비도 충전했었는데 덕분에 더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청소년 31)

(꿈드림에서의) 지원금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시기라서 그때 지원금이 있다고 숨이 턱었던 적이 있어서 (중략) 대부분 거의 급식 지원 같은 거 코로나 때... 식품 같은 거나 그런 거 자주 보내줬었는데.. 만족스러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청소년 25)

표 IV-6. 학교 밖 청소년의 긍정적 지원 경험 및 인식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경험 및 인식	실질적인 진로탐색, 진로지원 이 되었음	갈피를 잡아주고 다른 진로를 안내함	진로와 관련해서 갈피를 잡아줌(15) 학교 쪽만이 아닌 처음으로 다른 길 가는 방법을 알려줌(41)
		검정고시와 관련 한 다양한 지원 이 큰 도움이 됨	검정고시 학원을 소개받은 도움이 컸음(14) 대학생 멘토링 통해 검정고시를 도움받을 수 있어서 걱정 하지 않고 공부함(36) 봉사로 오시는 선생님들 도움을 받음(34)
		실질적인 진로지 원, 체험이 도움 이 되었음	대학입시 컨설팅 지원이 도움이 됐음(34)(41) 꿈드림 통해 처음 경험한 아르바이트가 가장 인상깊었음(29)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했던 자격증 취득 지원이 마음에 들었음(36)
		성취감을 갖게 됨	꿈드림 연계활동으로 자신이 그만둔 학교에 보조강사로 참여하 면서 초조함이 덜어지고 성취감도 있었음(42)
	집에서 나와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회성 증진	덕분에 집에서 나와 다양한 활 동을 하게 됨	집에만 있었으면 시간을 허비했을 것, 꿈드림 통해 사회를 좀 더 알 수 있었음(37) 집에만 있기보다 꿈드림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것이 도움 이 되었음(15) 자주 나와서 활동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고 수면시간도 규칙적 이 됨(43)
		사회성이 증진됨	꿈드림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좋았고 사회성을 길러줬음(41)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경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경제적지원 의 긍정적 효과	20만원씩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받는 것이 행복했음(19) 인턴심을 통해 수당을 받으면서 직업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음 (28)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음	돈이 부족했는데 교통비 지원이 도움이 되었고 식사도 해결되 었음(31) 지원금을 통해 숨이 턱이었던 적이 있었음, 급식지원, 식료품 지 원도 도움이 됐음(25)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아쉬움

### (1) 꿈드림센터를 (일찍)잘 몰라서 아쉬움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는 더 일찍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알지 못했다거나, 지원프로그램의 아주 세부적인 일부 내용에 국한한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지원 요구로 연결되기도 하고 지원서비스 개선의 기초가 될 수 있어 별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좀 더 일찍 알지 못해 아쉬워하기도 하였고,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이러한 지원을 잘 알아서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청소년 31은 학교에서 사전에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음을 지적하였다.

좀 더 **꿈드림을 일찍 알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중략) (학교에서 꿈드림에 대해) 일단 얘기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 꿈드림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학생들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 같아요(청소년 31)

뭔가 아쉬운 건 저는 그래도 꿈드림을 소개 받아서 왔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도 자퇴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꿈드림을 잘 모르기도 하고** (중략) 자퇴한 애들이 다 꿈드림이라는 곳을 알아서 많이 이용하고 더 좋게 되면 좋겠는데 잘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아쉬웠어요 (청소년 28)

## (2) 지원사업 참여에서의 아쉬움

### ○ 제한된 지원과 기회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이후 청소년들의 진로와 생활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딱 짜여진 교육 시스템에서 갑자기 많아진 시간에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기도 한다. 다행히 꿈드림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꿈드림센터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한 청소년은 정해진 수업 외에 꿈드림센터를 가도 할 일이 없어 아쉬웠다고 회고하였다(청소년 15). 이 청소년의 이야기는 시간을 구조화하여 유용하게 쓰고 싶을 뿐 아니라, 집을 나와 학교 대신 단순히 어딘가를 가고 싶은 청소년에게 꼭 꿈드림센터가 아니더라도 갈 곳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또 다른 청소년은 멘토링을 받고 싶었으나 지원자가 많아 멘토링 기회가 없었던 것을 아쉬워했다(청소년 29). 멘토링은 대부분의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례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거기(꿈드림)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 **며칠씩 나가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긴 해요.** 매일 나가도 되긴 하는데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뭐 하고, 저 날은 뭐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수업이 딱 있어서 그 외에는 가면 할 게 없어서 그게 살짝 아쉬웠어요. (15)

멘토링도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쉬웠어요.**(29)

### ○ 실효성 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에 일회성 단기 체험활동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길 희망하는 청소년도 있었다(청소년 36). 또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데 있어 지나친 자신감 독려는 기대수준만 높아지게 함에 따라, 청소년 지원자의 현재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청소년 42).

**자격증 관련해 너무 전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직업인과 만남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하긴 하지만 소방관, 경찰관, 교사 그런 전형적인 것들만 많이 만나고 (청소년 36)

(대학) 입시설명회 할 때 이걸 뭔가 맹목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계속 말을 해줬었거든요. 결과만 너무 막 이렇게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잘 분석해서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너무 기대만 갖게 하잖아요 (청소년 41)

### (3) 청소년이 인식한 지역 간 지원 격차

#### ○ 지역 간 지원 내용/기회의 차이

면접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꿈드림센터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타 지역의 꿈드림센터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파악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 소도시에서 거주하는 청소년 36은 네일 아트를 포함한 몇 가지 기술자격증 취득 지원을 꿈드림센터에 이야기했으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관련 학원이나 지원이 부족하여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다른 청소년은 타 지역의 꿈드림센터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과 교류하면서 센터 간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됐으며, 자신보다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청소년 21).

이외에도 지방의 소도시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인원수가 부족하여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경험을 회고하였는데(청소년 45), 앞서 지원자가 많아 멘토링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청소년 29의 사례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는 지원 프로그램 내용이나 성격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으나, 청소년 29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구가 6배 이상 많은 수도권의 큰 도시여서, 이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 차이로 인한 기회 제한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연계사업 확대 등 유연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바리스타랑 제과제빵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중략)  
네일 포함해서 기술 자격증 몇 개를 해 주시면 안 되는지 말해본 적이 있거든요. □□시 자체는 아예 안 된다고 그래서.. 해 줄 학원도 없고 (청소년 36)

꿈드림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꿈드림이 편차가 큰 것 같더라고요. 지역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물론 좋은 데를 다녔지만 저보다 지원을 못 받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 21)

(프로그램을 위해) 모집을 하면 3명에서 5명 정도까지밖에 안 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 45)

### ○ 지방의 열악한 시설 문제

지역사회 내 다른 청소년관련시설을 이용하는 읍면거주 청소년은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청소년 43).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도 특히 지방에서는 단독건물이 아닌 다른 청소년관련 시설이나  
기관의 공간을 일부 활용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전용 공간이나 독립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청소년 문화센터도 다른 건물 3층을 빌려 쓰는 거라 다른 활동도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고  
크게 못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 43)

표 IV-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아쉬움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의 아쉬움	꿈드림센터(일찍) 몰라서 아쉬움		꿈드림을 일찍 알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31) 자퇴한 친구들이 꿈드림을 잘 몰라서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움(28)
		제한된 자원과 기회	정해져 있는 수업외에는 (꿈드림센터에) 가도 할 일이 없어 아쉬움(15) 지원자 많아 멘토링을 못받음(29)
	지원사업 참여에서의 아쉬움	실효성 부족	일회성 체험활동은 도움이 되지 않았음(36) (대입 지원) 청소년들 수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격려와 지원이 되었으면(42)
		지원 내용/기회 의 차이	희망하는 기술 자격증 지원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불가능했음(36) 지역마다 꿈드림지원에 편차가 있는 것 같음(21) 참여인원이 적어서 진행이 안됨(45)
	청소년이 인식한 지역간 지원 격차	지방의 열악한 시설	지방에 있어서 꿈드림 시설이 열악함(42)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요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뿐 아니라 지원 방식과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2019~2021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많고, 또 일부 청소년들은 꿈드림 청소년단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보다 깊은 통찰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일례로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수요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교류를 통한 보다 전문화된 지원 제공, 지역규모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편차 등에 대해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범주와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IV-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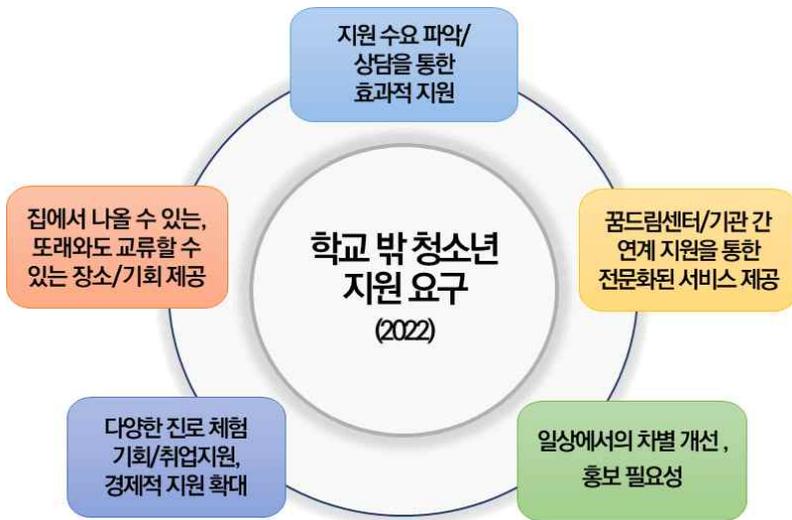


그림 IV-4.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

## (1) 지원 수요 파악, 상담을 통한 효과적 지원

### ○ 지원 수요 파악

본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일부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원을 파악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청소년 24, 41, 43). 청소년 43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원을 제공한다면, 꿈드림센터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선생님들끼리의 생각만 하지 말고 애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너네들은 뭐가 필요하니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가지 물어봐 가지고 설문 같은 걸 받아서 나는 이게 필요하더라고 나서 뭔갈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24)

애가 뭘 좋아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신청을 받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청소년 41)

원하는 걸 물어봐서 종합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런 걸 사업이나 음식 같은 걸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청소년 43)

### ○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정보 안내와 맞춤 상담 제공

위에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수요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면접참여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또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상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청소년 14, 15, 28, 32). 청소년 14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또 다른 청소년은 개별 상담을 통해 청소년에게 맞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청소년 28).

청소년 맞춤 상담을 해보고 그 친구한테 맞는 사업이나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소개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년 28)

일단 청소년 개개인한테 뭔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일단 상담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 32)

## (2) 집에서 나와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장소·기회 제공

### ○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곳·기회 제공 필요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집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리고 집을 나와 학교 대신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청소년 38, 41, 43, 47). 청소년 41은 학교를 그만두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고 하였고, 또 다른 청소년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흥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청소년 43).

**일단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는 학생들이 쉴 수도 있는 작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38)

저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41)

(청소년들이) **밖으로 잘 나갈 수 있게 유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센터도 몇 번 나오다가 집에서 잘 안 나가서 출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고. 그 친구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43)

### ○ 또래 교류 기회 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또래 간 교류를 위한 기회나 장소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청소년 22), 또 다른 청소년은 학교처럼 학습지원과 필요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함을 보고하였다(청소년 28). 특히 청소년 22는 꿈드림 청소년단을 통해 또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거 외에 **또래 애들끼리 만날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아무래도 청소년단이라는 그런 걸 했었으니까 그래도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아닌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난 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장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청소년 22)

뭔가 학교처럼 공부도 알려주고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정보도 많이 제공해주고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끼리 친구도 많이 사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28)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집에서 나와 다양한 활동과 또래를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한편으로 일부 청소년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면, 또래와의 교류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청소년 4, 14). 이는 충분히 참고해야 할 의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의 상황과 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3) 센터·기관 간 연계지원 서비스

#### ○ 연계지원을 통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기존의 면접조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했다. 이번 면접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꿈드림센터들 간, 또는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연계 방식을 통한 전국적인 지원을 제안하였다. 시·도 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주길 희망했고(청소년 32), 연계를 통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원했다(청소년 36).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한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원수가 부족하여 진행이 안 된 적도 있다고 보고하였는데(청소년 45), 이 역시 센터 간 연계사업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 ○ 센터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관계 확대

청소년 30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센터 간 연계·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앞서 전문적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던 청소년 32는 시·도 센터에서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여 다소 위축된 청소년들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을 만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청소년 32).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상태나 요구를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위축된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직업을 정한 아이들한테 뭔가 거기서 심화돼서 거기 하고 싶은 분야에 전문가들 만나보거나 그런 체험이나 수업이 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중략) 그래서 애들이 많이 지원하는 쪽은 **도 센터에서 크게 해서** 다른 지역 아이들이 같이 와서 듣거나 하면 같은 **공통사를 가진 아이들이 친해질 수도** 있으니까 (청소년 32)

네일 포함해서 기술 자격증 몇 개를 해 주시면 안 되는지 말해본 적이 있거든요. ○○시 자체는 아예 안 된다고 그래서..(중략) **다른 지역이랑 연계를 해주거나** (청소년 36)

**센터간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이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좀 더 위축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더 좋을 수도 있고 관계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센터와 많은 교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 30)

#### (4)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취업 지원 확대

##### ○ 진로·직업체험 기회, 범위 확대

올해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예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과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 깊이와 범위가 더욱 다채로워지길 기대하였다. 청소년들은 미래에 유망한 직업에 대한 상담 지원과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희망했고, 깊이 있는 체험 경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였다(청소년 36, 24, 32, 47).

##### ○ 일자리 소개 및 취업연계 필요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지원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자리 소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희망할 경우 취업을 연계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이야기하였다(청소년 41, 2, 22)

학교를 그만두고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저희는 잘 모르니까 **많이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41)

검정고시나 취업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취업 연계**나 그런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2)

그리고 **취업 연계** 이런 시스템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청소년 22)

## (5)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지원 확대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많았으나, 장학금 지원 등에서 가구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청소년도 있었으며(청소년 30), 교통비 지원의 경우도 사용처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청소년도 있었다(청소년 31). 또한 취업 준비나 학원비 지원과 같이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도 있었다(청소년 3).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현금 수당 지원만을 원하기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목적에 맞게 자신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장학금을 신청했어요. 근데 소득 기준이 1순위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고 같은 꿈드림이라도 소득 기준이 낮은 사람이 받고

면접자 집안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 그렇죠 (청소년 30)

(교통비 지원에 관련하여) 다른 걸로 사용하면 내역이 남아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버스카드로 맛있는 걸 사먹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못하게 만든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인 거 같고. 바른 곳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좋았어요 (청소년 31)

청소년 아무래도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자립해야되니까 취업도 준비해야되고 당연히 돈이 좀 들어서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면접자 그러면 학원비를 얘기하는 걸까요?

청소년 네, 학원비나 (청소년 3)

## (6) 차별 개선 및 홍보 필요성

### ○ 일상에서의 차별

청소년 22는 일반 학생 청소년을 위한 복지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인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아쉬워했으며, 더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 간 편차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인 교통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사례와 미용실 요금 할인을 위해 교복을 입고 가야 한다는 등의 상당히 구체적인 일상에서의 차별 경험을 보고했다(청소년 32, 36). 특히 청소년 32는 대중교통(사전 예약을 통한 해당 지역에만 운행되는 택시 또는 버스) 이용 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인

요금을 요구받았는데, 당시 막무가내로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답답하고 두려웠다고 회고하였다.

일반적인 고등학생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그런 복지시스템이 자퇴생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중략)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서 그런 복지들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상대적으로 못 받으니까 아쉬운 것 같아요. 지역별로 복지해 주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꿈드림이 (중략) (청소년 22)

학교를 그만뒀어도 청소년이니까 성인 요금을 내지 않고 학생이랑 똑같은 요금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언성을 높였거든요. 그때 조금 더 답답하기도 하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청소년 32)

일단 흔히 많이 보여지는 건 설문조사를 하거나 뭔가 앱에 가입을 할 때 어디 학교를 쓰거나 몇 학년 몇 반 이런 걸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청소년 47)

#### ○ 행사/공모전 참여

청소년 대상의 큰 국제 행사의 참가비 지원에 해당이 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사례를 보고한 청소년도 있었다(청소년 47). 또 학생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공모전에 대한 사례에서 청소년 36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지 못함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내년에 ○○에서 △△△(국제행사)가 열리거든요. (중략) 중위소득 몇 퍼센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족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면 지원을 못 받거든요. 아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소년 47)

가끔 그런 건(차별) 있어요. 미용실 할인을 하는데 교복을 입고 가면 할인이 된다거나 공모전을 하는데 학교 내에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하고 이런 건 꼭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재학생들만 해야되는 이유가 충분하면 저희도 수공할 수 있죠. 근데 마냥 학교 밖 청소년을 생각하지 못한 거라면 서운했어요 (청소년 36)

#### ○ 효과적인 홍보 방안

진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홍보 방안으로, 본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SNS)와 온라인 방식의 홍보를 제안하였고,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와 후기(꿈드림센터 경험 후기)등

을 활용하는 것도 언급하였다(청소년 2, 3, 22, 32). 이외에도 다소 전통적인 방식으로 현수막을 활용하거나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TV 프로그램 제작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청소년 43, 45). 청소년 43은 해당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현수막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을 회고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래도 SNS가 가장 많이 홍보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하니까 검색해볼 것이고 검색을 했을 때 다양한 자료나 후기가 있으면 좀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요 (청소년 2)

좀 더 광고를 적극적으로 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요즘 애들은 핸드폰으로 SNS 많이 하니까 그런 걸로도 광고를 했으면 좋겠고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이나 홈스쿨링을 한다 그런 글을 SNS에 쓴 사람이 있으면 DM으로 청소년에게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센터도 있고 상담도 하고 있다고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청소년 32)

현수막도 걸면 좋을 텐데 ○○군은 청소년 센터에서 검정고시 지원 같은 거 해준다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군 측에서 그런 걸 걸어두면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빼달라고 (중략)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에 현수막을 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43)

좀 어렵긴 하겠지만 TV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학교 밖 청소년만 참여해서 어떤 일상을 보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청소년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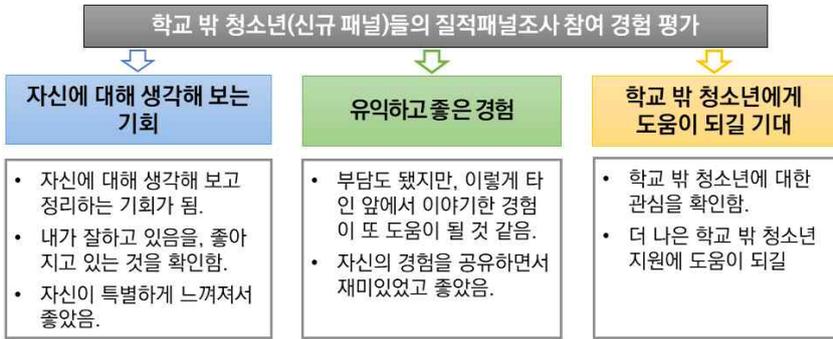
표 IV-8.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	지원 수요 파악/상담 을 통한 효과적 지원	지원 수요 파악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함(24)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신청을 받는 것이 나올 것(41) 청소년이 원하는 걸 물어본 후 프로그램 진행 필요(43)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정보 안내/맞춤 상담 제공	학교를 그만둔 후에는 정보, 가이드라인이 필요함(14) 청소년에게 일단 맞는 직업이 뭔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음(15) 맞춤 상담을 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28) 청소년 개개인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부터(32)
	집에서 나와 도래와 교류할 수 있는 장소/기회 제공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곳/기회	정기적으로 갈 곳이 필요했음(41)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집 밖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43) 종일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 갈 곳이 있으면 좋을 것(47) 집에서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필요(38)
		도래 교류 기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듯(22) 공부뿐 아니라 친구들도 사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음(28)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센터·기관 간 연계지원 서비스	연계지원을 통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도 센터에서 크 게 사업을 추진해주길(32)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다양한 자격증 취득기회 제공(36)
		또래 교류를 위한 센터간 협력	다양한 또래들과 만날 수 있도록 센터간 교류 필요(30)
다양한 진로 체험기회/ 취업 지원 확대	진로/직업체험 기회, 범위 확대	전도유망 직업에 대한 상담 지원 필요(36)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 제공해 줬으면(24) 깊이 있는 체험 경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32) 진로관련 체험 횟수가 늘어났으면 (47)	
		일자리 소개 및 취업연계 필요	일자리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소개 필요(41) 취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취업 연계를 위한 시스템이 있었 으면(2)(22)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지원 확대		가정의 경제수준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 필요(30) 목적에 맞는 사용이 되도록 지원(31) 취업준비나 학원비 지원(3)	
차별 개선 및 홍보 필요성	일상에서의 차별 경험	학생 수준의 복지자원을 받지 못함(22) 교통요금 차별(32), 미용실 요금 할인 제외(36), 설문조사에서도 차별 느낌(47)	
	행사/공모전 참여 차별	청소년 대상 국제 행사 참가비 지원 차별(47) 공모전 참여 차별(36)	
	효과적인 홍보 방안	SNS뿐 아니라 다양한 자료나 후기 활용(2) SNS, 온라인 활용 지원(3)(22) SNS에서의 DM 통한 대상자 직접 발굴(32)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에 현수막 활용(4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으면(45)	

#### 4) 질적 종단조사 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들은 2020년과 2021년에 패널로 구축되어 1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2회에서 3회의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질적 패널조사가 올해까지만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그동안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로 본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질문하였다. 청소년들은 그동안 면접에 참여하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유익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회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였다.



**그림 IV-5. 질적 종단조사 참여 경험에 대한 회고**

(1)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먼저, 면접에 참여했던 경험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본 면접에 참여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했던 일들과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청소년 21, 25, 32, 36, 45). 청소년 25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좀 더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32번 청소년은 자신이 2020년, 2021년에 했던 생각이 바뀐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면접을 통해 자신이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청소년 36).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면접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잘하고 있으며,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청소년 4는 과거와 다른 답변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청소년 4), 또 다른 청소년은 지원받으면서 자신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청소년 21), 과거 우울하고 힘들었던 자신이 점차 괜찮아지고 있음을 알게 되기도 하였다(청소년 14). 또한, 인터뷰 한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는 청소년도 있었고(청소년 31), 자신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들어주는 경험이 즐거웠다고 회고한 사례도 있었다(청소년 24).

이런 질문에 대답하면 과거도 생각하게 되고 미래도 생각하게 되고 지금 상황도 생각하게 되다 보니가 이 얘기가 끝나고 혼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구나, 더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청소년 25)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얘기를 하면서 정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중략) 생각보다 내가 생각을 깊게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런 게 전혀 평소에는 와 닿지 못했는데 정리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와 닿는 것 같아요 (청소년 36)

매년 하니까 작년 답변이랑 달라질 수도 있고 제가 얼마나 더 성장했나 그런 걸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까요? (청소년 4)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덕분에 제가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청소년 21)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 같지도 않은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이제 중요하게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동안 즐거웠어요 되게 (청소년 24)

### (2) 유익하고 좋은 경험이었음

그동안의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부담은 됐지만, 한편으로 타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경험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청소년 29는 타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후 면접을 보게 될 계기가 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청소년 43은 면접에 참여할 때마다 어떤 질문을 듣게 될지 두근거리긴 하지만, 다른 학교 밖 청소년도 많은 지원을 받고 집 밖에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이 청소년의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있는 진술이었다. 청소년 38도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걱정했지만, 말을 잘하게 되어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청소년 15는 자기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재미있었으며 좋았다고 회고하였고, 또 다른 청소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면접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 등 좋았던 경험으로 평가하였다(청소년 25). 학교를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 이야기를 할 상대가 없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면접이 좋았다고 회고하였다(청소년 42).

평소에는 이렇게 누군가와 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로 된 것 같고 나중에 면접을 보게 될 계기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29)

(인터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중략) 인터뷰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 어떤 질문을 할까 걱정도 됐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하면서 좋은 영향도 있었고요** (청소년 38)

되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 (면접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제 경험이잖아요, 경험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재밌었어요** (청소년 15)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 이런 얘기는 사실 어디서 잘 안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제 생각이나 바뀔 때도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25)

이런 속 얘기를 할 사람이 물론 지금은 있긴 하지만, 작년에 했을 때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습니다** (청소년 42)

### (3)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함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질적패널조사에 참여하면서 우리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면접 참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더 나은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청소년 3은 이러한 면접조사에 응하면서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켰으며, 청소년 15는 청소년들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새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인터뷰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으며(청소년 22),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청소년 42). 청소년 28은 자신의 경험이 학교를 그만둘 것인지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여러 질문을 하셔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었고 아까 말했듯이 아예 사람들이 **학교 밖 청소년한테 무관심하지 않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청소년 3)

일단 긴장 안 하고 제 주장을 잘 펼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인터뷰가 모여서 좀 더 나은 학교 밖이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2)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한 게 다른 학교 밖 청소년 복지 같은 거에 의견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더 좋은 대우 받으면서 지낼 수 있겠지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같아서 **굉장히 부듯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청소년 42)

학교를 그만두려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래도 제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 28)

이 질적패널조사에 참여하면서 생각하게 된 이러한 내용 외에, 여러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은 올해 면접이 종료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에 마지막 면접조사라는 이야기에 “아쉽고 섭섭하다”고 표현하였는데, 수년간 청소년들을 추적하고 면접을 실시했던 과정이 단순히 학교 밖 청소년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그 이상으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였을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표 IV-9. 질적패널조사 참여 경험 회고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질적패널 조사에 참여한 경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음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정리하는 기회가 됨	그동안 했던 일을 되돌아 볼 수 있었음(21)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음(25) 과거와 올해 생각이 바뀐 것을 알게 됨(32) 스스로 돌아켜 볼 수 있는 계기였음(36) 그동안의 활동과 생각에 대해 정리가 됐음(45)
		내가 잘하고 있음 을,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함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음(4) 지원도 많이 받으면서 잘 생활하고 있다고 느낌(21) 괜찮아지고 있다는 생각(14)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져서 좋았음	인터뷰 자체가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기분 좋았음(31) 자신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들어줘서 즐거웠음(24)
	유익하고 좋은 경험이었음	부담도 됐지만, 이렇게 타인 앞에서 이야기한 경험이 또 도움이 될 수도	누군가와와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 경험이 나중에 면접을 보게 될 때 도움이 될 것 같음(29) 면접할 때마다 부담이 되었지만 다른 청소년도 혜택을 받으면서 밖에 나오길(43) 고민했지만 말도 잘했고 좋은 영향이 있었음(38)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좋은 경험이 됐음(41)
		자신의 경험을 공유 하면서 재미있었고 좋았음	누군가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재밌었음(15) 잘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지만 많이 좋았음(25)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켜줌(3) 청소년을 위한 조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15)
		더 나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인터뷰를 통해 더 나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되길(2) 학교 밖 청소년 복지가 개선될 것을 기대(22) 다른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음(42) 자신의 경험이 다른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28) 다른 친구들도 혜택을 받으면서 밖에 나오길(43)

## 4. 요약 및 시사점

### 1) 신규 패널 면접 조사 개요

오래 전 학교를 그만둔 기존 패널과 달리 신규 패널은 비교적 최근에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을 대상으로 2020년에 1차로 패널을 구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 좀 더 할당하여 2021년에 추가 패널을 구축, 면접조사에 포함시켰다. 면접조사 내용은 전반적인 생활실태, 학교 밖 경험, 경제적인 상황, 진로 및 자립 준비 등 기존 패널과 대동소이하지만, 이들의 경우 특히 지원서비스 경험 및 지원 요구 등에 더 초점을 두었다. 2020년에는 33명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추가 패널을 포함하여 3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 올해에는 그중 24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내용은 기존 패널과 마찬가지로 기관 IRB 승인을 받았고, 연구윤리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여전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줌(zoom)으로 온라인 화상방식의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올해 면접에 참여한 전체 24명의 학교 밖 청소년 중 남자 청소년이 8명, 여자 청소년이 16명이었고, 이 중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세 번째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은 15명, 2021년부터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은 9명이었다. 이들의 현재 상황과 진로 발달 상황들에 대해 개관하였고, 정책과제 도출에 직접적으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과 아쉬움, 지원 요구, 그리고 그동안 질적 패널 조사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외 다양한 면접조사 내용과 질적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은 협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면접 녹음파일과 인터뷰 전사자료, 필드 노트는 이전 질적 종단자료 DB에 함께 통합하였다.

###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경험 및 인식

올해 면접조사에 참여한 신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 안내와 검정고시, 멘토링을 포함한 진로 지원 및 체험,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진로탐색 및 진로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검정고시 준비 지원뿐 아니라,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 컨설팅을 지원받았고, 아르바이트와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특히 한 청소년은 꿈드림 연계사업을 통해 자신이 또래관계 스트레스로 그만둔 학교에 보조강사로 참여하는 경험을 하면서 성취감을 얻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받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므로써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수면시간이 규칙적으로 되었고 사회성도 증진되었다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특히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사례가 많고 한동안 집을 나오기 힘들어하였는데, 장기화될 경우 고립·은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특히 직업체험과 수당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와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한 학교 밖 청소년은 일시적인 지원금으로 큰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면밀한 사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아쉬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례에서 뿐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잘 몰라서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는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바로 지원 사업에 신속히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꿈드림센터에 대한 홍보와 개인정보 연계와 같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이외에도 꿈드림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기회가 제한되거나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지원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러한 지원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또한 원하는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해당 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청소년 사례와 다른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통해 지원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례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지역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요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뿐 아니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꿈드림센터 등을 통한 여러 지원을 경험하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들에 대한 수요 파악을 통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청소년들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장소나 기회를 필요로 했다. 학교를 대신해서 정기적으로 갈 곳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집에만 있을 수 없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또래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제공도 희망했다. 이는 별도의 다른 공간을 의미하기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히 오갈 수 있는 전용공간과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청소년 의견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가 힘든 청소년에게 이러한 장소나 기회는 오히려 꿈드림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더 낮출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특성,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대학입시나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화된 지원을 필요로 했는데, 이를 위해 다른 꿈드림센터나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진로 및 직업체험 기회와 일자리 소개 및 취업연계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서도 청소년들은 전문성을 위한 연계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일부 청소년은 경제적 지원도 확대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일방적인 수당 지급이 아닌 진로와 관련하여 목적에 맞는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여러 차별경험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꿈드림센터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어떠한 차별들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더욱 광범위하면서도 면밀한 검토,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4) 학교 밖 청소년의 질적 패널조사에 참여한 경험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은 2020년 또는 2021년부터 본 면접조사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패널보다는 면접 참여 기간이 다소 짧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이러한 면접 경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은 2~3차례 면접조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자신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게 되었고, 더 성장하였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타인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됐지만, 이러한 경험이 향후에 면접 기회 등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공유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학교 교육을 중요시 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큰 용기와 가족 및 주변과의 갈등을 불사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며, 생애 사건 수준의 큰 일 일수도 있다. 그러한 와중에 청소년들은 이 질적패널조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의 노력과 제공받은 지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더구나 타인과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을 더 객관화하고, 발전의 여지를 갖게 된 점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울증이나 또래관계 스트레스가 컸던 청소년들 역시 여러 차례의 면접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전했는데, 이는 자신을 더 솔직하게 드러내는 경험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질적패널조사가 청소년들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예상치 않은 부분이었다. 여러 해 이들을 추적하여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성장·발전하고 있는지, 생각이 바뀌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언어로 이러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 — 제5장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관
-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 조사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지역 연계기관 현장종사자 면접조사
- 4. 지역사회 지원방안 제언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관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본 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핵심적인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들과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교육부, 청소년 및 청년의 교육, 진로, 자립을 위한 지원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주요 정책들을 검토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 (1) 여성가족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고, 이를 통하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예: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지원, 자립지원 등)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4.05.02.). 이러한 법률 제정으로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추어진 지원이 강화될 수 있었고,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욕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4.05.02.). 2015년 2월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가 신설되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단’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26) 이 장은 서고운 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게 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5.02.05.). 그 이후 중앙부처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 제공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표 V-1), 여기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생활기록부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표 V-1).

표 V-1.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구분	사업 내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자원, 교육자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제공</li> <li>• 전국 220개 설치·운영(2021년)</li> </ul>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li> <li>• 전국 240개 설치·운영(2021년)</li> </ul>
청소년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li> <li>•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li> </ul>
내일이룸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 제공</li> </ul>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청소년들에게 현금급여(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li> </ul>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에 대한 1:1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 제공</li> <li>• 전국 1,354명의 청소년 동반자 활동 중(2021년)</li> </ul>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관련된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li> <li>• 전국 238개 청소년안전망 구축(2021년)</li> </ul>
청소년생활기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대학진학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li> <li>• 시범사업 운영 중(2021년 4개 대학이 시범적으로 도입)</li> </ul>

\* 출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내일이룸학교 내용은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1.asp>에서 2022.05.30. 인출. 청소년생활기록부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2.15.).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43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439)에서 2022.05.30. 인출. 그 외 정보는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 II에서 발췌하여 정리

###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27)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28)를 주축으로 제공된다. 2015년 5월 29일 「학

27) 본 영역은 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2022a)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pp.191-195) 부분과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 II(여성가족부, 2022b)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부분(pp.577-580)을 요약, 정리하였다.

28) 본 절의 해당 부분 이하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꿈드림센터'로 지칭한다.

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당해 연도에는 전국에 199개의 꿈드림센터가 설치되었고, 이후 매년 확대되어 현재(2021년 기준) 전국 총 220개의 꿈드림센터가 지정·설치되었다(표 V-2). 꿈드림 시·도 센터에서는 약 5명의 전담인력이, 꿈드림 시·군·구 센터에서는 약 2~4명의 전담인력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a).

표 V-2. 전국 꿈드림센터 설치 현황

(‘21년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16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04	25	16	8	8	5	2	4	1	30	11	12	15	9	22	14	20	2
계	220	26	17	9	9	6	3	5	1	31	12	13	16	10	23	15	2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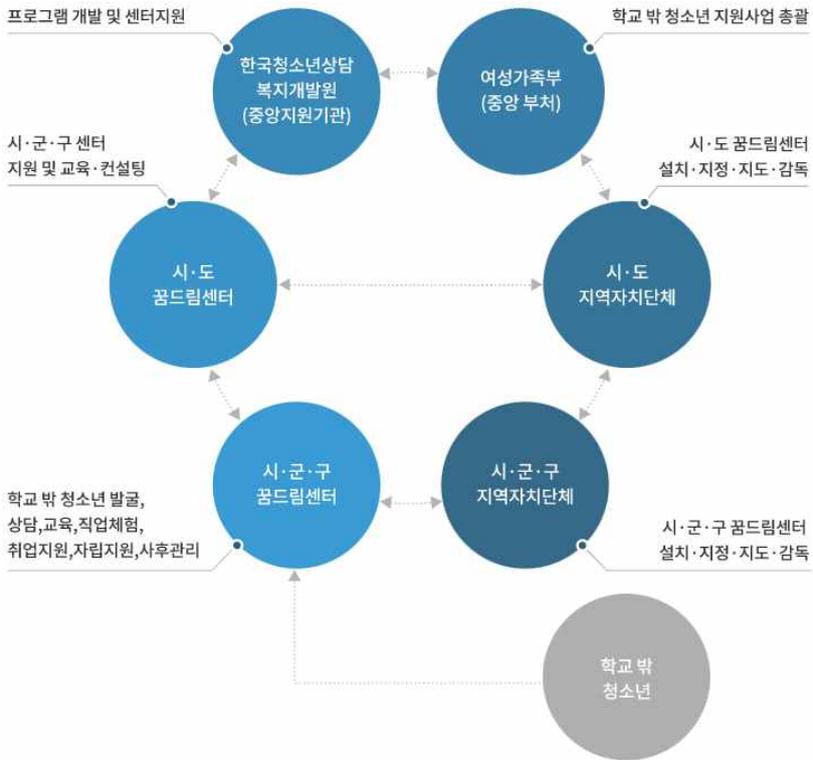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Ⅱ, p.558

꿈드림센터가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9~24세인 청소년으로,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 제적·퇴학·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 청소년으로 정의하며, 학업중단숙려대상 청소년도 잠재적인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여성가족부, 2022b). 꿈드림 시·군·구 센터에 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는데, 시·군·구 센터는 시·도 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중앙지원기관), 여성가족부(중앙부처), 시·도 지역자치단체, 시·군·구 지역자치단체와 연계하며 지원체계를 구성한다(그림 V-1).

표 V-3에서 보듯이, 꿈드림 시·도 센터는 크게 시·군·구 센터의 역량 강화, 광역 연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시·군·구 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종사자 교육, 컨설팅, 지역 내 민간지원 개발 및 연계, 정책 수요 조사·분석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우수 지원 사례 발굴 및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역 연계기능으로 지역사회 지역안전망 참여, 직업역량 강화 및 직업훈련 연계 프로그램 운영, 중앙부처와 꿈드림 시·군·구 센터 사이에서의 전달체계 역할, 지역사회 의견 수렴, 꿈드림센터 멘토단 운영, 꿈드림센터 청소년단 모집과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표 V-3).

시·군·구 센터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자립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표 V-3). 상담지원은 대면상담 및 비대면상담 등 학교 밖 청소년

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심리,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다양한 사항들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학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학업동기 증진 및 학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교 복귀 지원, 대학 입시 지원(예: 대학 진학 관련 정보 제공, 대학입시설명회 참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직업탐색·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내일이룸학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 권익보호,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화·예술, 체육,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출처: 꿈드림센터. 서비스 소개.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1/sub010204.asp>에서 2022.05.30. 인출.

그림 V-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표 V-3. 꿈드림센터 지원내용

구분	사업 내용
시·도 센터	시·군·구 센터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센터 종사자 교육 실시</li> <li>• 시·군·구 센터 컨설팅</li> <li>• 지역 내 민간자원 개발·연계</li> <li>• 시·도 단위 정책 수요 조사·분석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li> </ul>
	광역연계기능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안전망 참여</li> <li>• 직업역량 강화 및 직업훈련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li> <li>• 여성가족부, 중앙지원기관과 꿈드림센터 간의 전달체계로의 역할 및 지역의건 수렴</li> <li>• 꿈드림센터 멘토단, 꿈드림센터 청소년단 모집, 교육, 회의 등 구성·운영 지원</li> <li>• 시·도 단위 연합 프로그램 운영</li> <li>•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및 꿈드림센터 홍보</li> </ul>
시·군·구 센터	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포함)을 대상으로 대면상담, 비대면 상담(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모바일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심리, 진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에 대한 상담 지원 제공</li> <li>• 연락두절, 서비스 거부 등의 의사를 표명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반자와 협력하여 방문 상담 지원 제공</li> </ul>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동기 증진 및 학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li> <li>• 검정고시 준비 지원</li> <li>• 학교 복귀 지원</li> <li>• 대학 입시 지원(예: 대학 진학 정보 제공, 대학입시설명회 참여, 대학캠퍼스 투어 등)</li> </ul>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탐색·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li> <li>•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li> <li>• 직업훈련,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기관 연계 지원</li> <li>• 내일아름학교 지원</li> </ul>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실시</li> </ul>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조치</li> <li>• 지자체별 시행하는 복지사업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조치</li> <li>• 자체 사례판정을 통하여 직접지원 실시</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체육,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li> </ul>

\* 출처: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Ⅱ, pp.577-580의 내용 정리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sup>29)</sup>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29) 본 영역은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Ⅱ(여성가족부, 2022b)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개요’ 부분(pp.63-65)을 요약, 정리하였다.

기관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상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자립 및 의료지원 등 폭넓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240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표 V-4). 시·도 센터는 시·군·구 센터를 관리하고 지원하며, 성과관리를 점검하고 지역 내 보고체계를 관리한다. 또한 시·군·구 센터 컨설팅을 진행하고, 역량강화 지도를 지원하는 등 시·군·구 센터를 총괄·지원하며, 그 외에 지자체 특성에 부합하도록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사업을 운영한다. 시·군·구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하거나 지역사회와 다른 지원·자원에 연계한다.

### ③ 내일이름학교<sup>30)</sup>

내일이름학교는 여성가족부의 주관 하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현재 전국 12개의 직업훈련기관에서 약 3~12개월 동안의 과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생 지원내용으로는 무료 직업훈련 제공, 자립장려금 지급(월 30만원 한도), 기숙사(숙식) 제공, 기숙사 미보유 기관은 교통비 및 식대 지급(월 16만원 한도),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훈련교육 수료 후 취업처 연계 및 취업 정보 제공, 훈련기관별로 배치된 전담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제공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1.26.).

학교 밖 청소년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면, 훈련기관은 직업적성검사 및 면접을 통하여 훈련생을 선발하고, 예비학교(직업훈련과정 안내 및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한 적응지원), 직업훈련 및 특화프로그램(훈련기관별 직업훈련 및 특화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거쳐 수료를 하게 되며, 수료과정에서도 취업처 알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01.26.). 내일이름학교, 이 안에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가 있다.

그림 V-2. 내일이름학교 온라인 포스터

30) 해당 내용은 꿈드림센터 홈페이지의 내일이름학교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꿈드림센터, 내일이름학교.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1.asp>에서 2022.10.01. 인출).

선, 취업정보 제공,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등 취업 연계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 ④ 청소년생활기록부<sup>31)</sup>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입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꿈드림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유사한 양식에 인적 및 출결상황, 수상경력과 함께 자격증 취득, 창의적 체험활동, 학업노력 및 독서활동 등의 상황, 청소년들의 행동특성과 종합 의견의 항목으로 구성한 자료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로, 학교생활기록부 없이 수시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2021년 입시에서 4개 대학이 시범 운영하여, 29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하여 대학 입시에 응시하였다. 2022년 입시에서는 6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는 16개의 시·도별로 1개 이상의 대학에서 추진할 예정이다(여성가족부, 2022a).

### (2) 교육부·교육청

#### ① 학업중단숙려제<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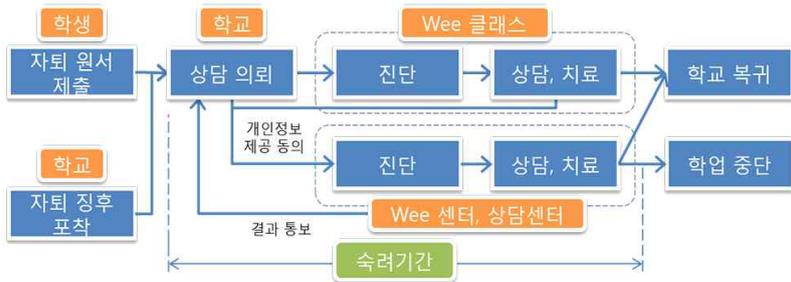
교육부 및 교육청의 학업 중단 예방에 초점을 둔 학업중단숙려제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친구랑센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부는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2년 6월부터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였는데, 학교를 그만두려는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하여 2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게 하는 제도로,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숙려 기간 동안의 청소년들은 상담, 심리검사는 물론,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학교를 중단하고 난 이후에 겪게 될 삶의 상황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제공되

31) 해당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학교 밖 청소년, 「생활기록부」로 대학 간다’ (2020.12.15.)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 정리하였다(출처: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43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439)에서 2022.05.30. 인출).

32) 해당 내용은 교육부·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2012.05.29.),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수립’ (2013.11.28.)(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3061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10.01. 인출)와 교육부 보도자료 ‘학업중단숙려제 공통 운영기준 마련’ (2016.12.13.)(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65149&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10.01. 인출) 내용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는 여러 가지 지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학업중단숙려제는 그림 V-3과 같이 진행되는데, 학생이 자퇴 원서를 제출하거나, 학교에서 자퇴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상담 의뢰를 시작으로 숙려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 상담 의뢰를 받은 Wee클래스, Wee센터, 상담센터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상담, 치료를 시작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학생들을 학교에 다시 복귀시키거나, 학생이 학교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들에 대해 안내를 제공한다. 기존에 최소 2주에서 최대 50일 이하로 진행하던 숙려 기간을 2016년부터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로 두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출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05.29.) p.1에서 인용

그림 V-3.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절차

## ② 친구랑센터33)

교육부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여 학업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돌봄 공간 '친구랑'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5월 시·도 교육청 별로 계획서를 공모하여, 서울, 대구, 강원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각 센터에 3억 원씩의 지원을 시작으로 친구랑센터 운영을 지원하였다. 친구랑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로의 복귀를 도와주며, 학교에서의 공부 외에 다양한 진로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미활동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여러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33) 해당 내용은 다음의 출처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4.05.28.). 학업중단 학생 보호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돌봄 공간 「친구랑」 설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연혁. [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034&menuNo=1050000](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034&menuNo=1050000)에서 2022.10.01. 인출. 친구랑 주요사업 내용. [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018&menuNo=2020000](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018&menuNo=2020000)에서 2022.10.01. 인출.

서울시의 친구랑센터는, 2014년 신림 지역의 친구랑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마포지역에, 2018년에는 노원, 영등포, 고덕 지역에 친구랑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서울의 친구랑센터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 제공, 학교 복귀를 위한 학습 멘토링 제공, 다양한 진로 및 진학 방법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학력인증 기회 제공, 교육참여수당 지급, 부모교육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표 V-4).

표 V-4. 서울의 친구랑센터 주요사업

구분	사업 내용
학업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인문학, 외국어,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 지원(예: 초등국어, 초등사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역사교실, 토론과 글쓰기, 미술사, 코딩이론, 웹툰, 네일아트, 메이크업, 사진, 도예, 액세서리 디자인, 오케스트라, 뮤직, 메이킹, 축구 등)</li> </ul>
학습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복귀를 위하여 지속적인 학습기회 제공</li> <li>• 학교 복귀를 위한 입학지원(예: 재입학, 편입학 위한 컨설팅), 검정고시 및 기초학습 교육지원 (예: 대학생 멘토를 통한 학습멘토링 진행)</li> </ul>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및 진학과 관련된 정보 제공</li> <li>• 전문가 및 직업인 특강, 입시 컨설팅 및 설명회 등</li> </ul>
학력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교육단계에 미취학하거나 학교를 중단하여 다시 학교로의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학력인정</li> <li>•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과정을 통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 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꿈이음 사업 운영</li> </ul>
교육참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랑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중 프로그램에 주 2회(60%) 이상 출석한 만9~18세의 청소년에게 수당 지급(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li> <li>• 평생학습 관련 교육비(검정고시 교재·도서구입, 수강료 등), 문화체험비, 교통비, 식비 등 제공</li> </ul>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 학교 밖 청소년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기적인 부모 교육 실시</li> </ul>

\* 출처: 친구랑. 친구랑 주요사업. [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018&menuNo=2020000](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018&menuNo=2020000)에서 2022.10.01. 인출. 꿈이음. 제도소개. <https://www.educert.or.kr/webmdl/institution/menuHtmlfetail.do?cmkey=10823>에서 2022.10.01. 인출.

### (3) 고용노동부<sup>34)</sup>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권익 보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일자리 기반 마련, 일자리 지원 등의 고용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은 물론, 여성,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

34) 해당 내용은 다음의 출처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출처: 고용노동부(2020). *한눈에 보는 청년고용지원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의 사업소개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nwDeductEmplInfo.do>에서 2022.10.01. 인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에서 2022.10.01.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기관소개 <https://www.moel.go.kr/agency/overview/vision/list.do>에서 2022.10.01.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취업지원 내용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4.do>에서 2022.10.01. 인출.

등의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수행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의 여러 정책 중,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표 V-5에 정리하였다. 프로그램 지원 혹은 지원금, 훈련금 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다양한 청년 정책 관련 정보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및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표 V-5.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

구분	사업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 만 34세 이하의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	•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만18~34세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심층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청년센터	• 온라인 청년센터와 오프라인 청년센터 운영 • 온라인 청년센터( <a href="https://www.youthcenter.go.kr/main.do">https://www.youthcenter.go.kr/main.do</a>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정책, 청년 공간 정보, 상담 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 청년센터: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 만 18~34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자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15세 이상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훈련비 전액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익힐 수 있는 훈련에 참여하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 제공(훈련비 전액지원)
일학습병행	• 입사 1년 이내의 신규 입사자 혹은 특성하고 및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직장의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비 등 제공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 만15~34세의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시설견학, 현장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

\* 출처: 고용노동부(2020). 한눈에 보는 청년고용지원정책의 내용 정리

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종료로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2020)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로 해당 사업이 설명되어있음.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휴학인 자는 제외되며,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하여 대상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주는 제도로, 청년들은 해당 제도를 통하여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지원금의 방식이 구분된다(그림 V-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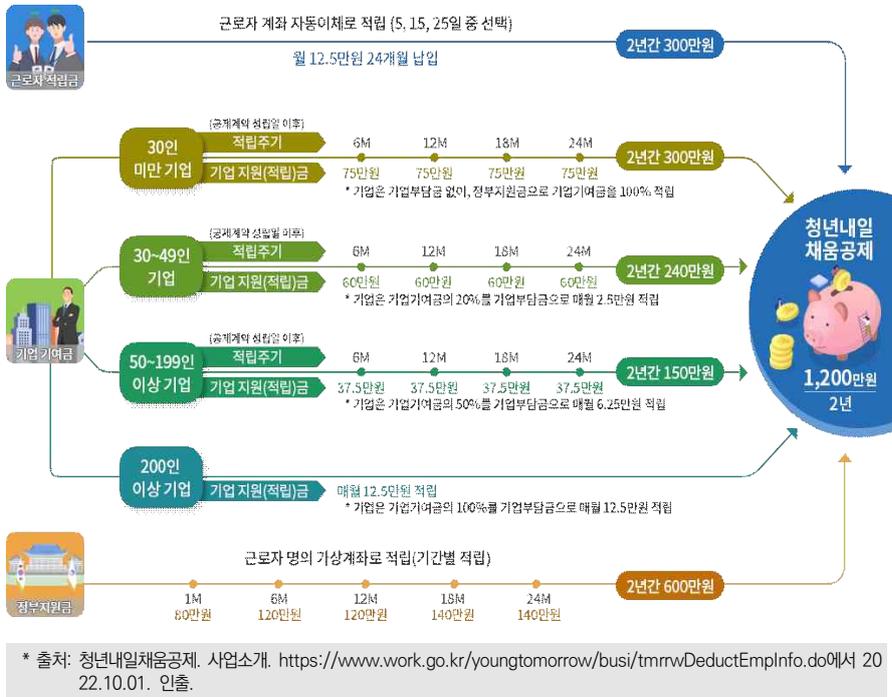


그림 V-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에서 69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특성을 진단하여, 이를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18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특례 사항이 적용된다. 또한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I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15~69세의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II유형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과 같은 특정계층, 18~34세의 청년층 구직자, 35~69세의 중장년층 구직자로 지원요건을 세분화하였다.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I 유형, II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참여자의 취업 능력 등을 파악한 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표 V-6.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용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청년은 5억) 이하인 취업경험이 있는 자</li> <li>선발형: 요건심사형이나, 취업경험 없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li> <li>취업지원서비스</li> </ul>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li> <li>청년: 18~34세 구직자</li> <li>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활동비용(최대 6개월 범위 수당 지급)</li> <li>취업지원서비스</li> </ul>

\*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에서 2022.10.01. 인출.

## 2)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진로 지원

### (1)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진로 지원 현황<sup>35)</sup>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및 진로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꿈드림센터는 검정고시 지원, 복교 및 진학 지원 외에도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안내·지원하고 있는데, 내일이룸학교,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표 V-7). 내일이룸학교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국의 총 12개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3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다양한 직업 기술을 익히게 된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전국의 꿈드림센터(세종특별자치시 제외)에서 운영 중이며, 진로상담과 진로적성검사부터 자립 동기 부여 프로그램, 기초기술훈련, 직장체험, 취업연계까지 폭넓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도 지자체의 꿈드림센터 차원에서 다양한 자립·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표 V-8).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개발한 창업

35) 해당 내용은 협동조합 형태에 관한 내용(표 V-9 관련)을 제외하고 다음의 출처(꿈드림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출처: 꿈드림센터 홈페이지의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내용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1.asp>에서 2022.05.30, 2022.10.01 인출,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의 직업역량강화 내용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2.asp>에서 2022.10.01. 인출,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3.asp>에서 2022.10.01. 인출, 꿈드림센터 우수프로그램 내용 [https://www.kdream.or.kr:446/user/sub/list.asp?bid=bid\\_305](https://www.kdream.or.kr:446/user/sub/list.asp?bid=bid_305)에서 2022.05.30. 인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진로 영역을 체험해보고 배워볼 수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여러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진로 체험 및 직업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표 V-7. 꿈드림센터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내용

구분	내용
내일이룸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주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li> <li>• 직업훈련기관에서 다양한 기술을 3~10개월 과정으로 익히게 됨</li> <li>• 자립장려금 지급, 기숙사, 교통비 및 중식비 제공, 특화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수료 후 취업처 알선 및 취업 정보 제공</li> <li>• 2022년 현재 전국 총 12개 기관 운영</li> </ul>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또는 취업연계 이전에 직업선택과 관련된 기초기술습득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li> <li>• 전국 꿈드림센터에서 운영</li> <li>•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 자립 동기 부여 프로그램 참여, 기초기술훈련, 직장체험, 전문직업훈련,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의 폭넓은 기회 제공</li> </ul>
국민취업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주관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li> <li>• 맞춤형 취업상담 제공, 심리상담·금융지원·육아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 제공</li> <li>• 훈련참여지원수당과 같은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지원</li> </ul>

\* 출처: 꿈드림센터.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1.asp>에서 2022.10.01. 인출.

표 V-8. 꿈드림센터의 다양한 자립·진로 지원 예시

구분	사례
창업 관련 프로그램·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군포시 꿈드림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창업프로젝트 「이 좋은 기회에 사장이 되어보겠습니다」</li> <li>• 울산 남구 꿈드림센터의 창업동아리 「따담공방」</li> <li>• 울산 꿈드림센터의 창업동아리 「유벤져스플러스」</li> </ul>
직업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 장성군 꿈드림센터의 「농촌자원 활용 전문가 양성교육」</li> <li>• 부산시 꿈드림센터의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집아락」</li> </ul>
자기계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해운대구 꿈드림센터의 문예창작 자기계발 프로그램 「밖에서 ON 편지」</li> <li>• 부산 해운대구 꿈드림센터의 영상·영화 자기계발 프로그램 「씨네플러스」</li> </ul>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 곡성군 꿈드림센터의 「다얼 협동조합」</li> </ul>

\* 출처: 꿈드림센터. 우수프로그램. [https://www.kdream.or.kr:446/user/sub/list.asp?bid=bid\\_305](https://www.kdream.or.kr:446/user/sub/list.asp?bid=bid_305)에서 2022.05.30. 인출.

또 다른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진로 지원 형태로는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지역 내 다양한 조합원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 및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 지원, 다양한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대안학교 운영,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카페, 활동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이 있다(표 V-9).

표 V-9.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진로 지원

조직명	내용
함께시작	- 13~17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기관 「아름다운학교」, 마을 목공소 「목청」, 서울시 청년센터 「광진 오랑」 위탁운영 * 출처 및 관련 링크: <a href="https://starttogether.or.kr/">https://starttogether.or.kr/</a>
내일새싹교육	- 지역 내 초1~중3(8~16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내일새싹학교 운영 * 출처 및 관련 링크: <a href="http://naeilschool.org/xe/seoul">http://naeilschool.org/xe/seoul</a>
동방센터	- 13~24세(만 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15명 이하) - 도시형 대안교육기관 동방 운영 - 검정고시 대비반, 진로준비(IT수업/게임) 등 제공 * 출처 및 관련 링크: <a href="https://dbschool.modoo.at/">https://dbschool.modoo.at/</a>
은평도서관마을	- 17~24세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대상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도서관 「작공」 운영(마을 작은도서관이자 휴식공간) * 출처 및 관련 링크: <a href="https://cafe.daum.net/youthcafejk">https://cafe.daum.net/youthcafejk</a>
원두	- 서울시립금천청소년센터 내 비인가 대안학교 '원두' 졸업생과 학교 밖 청소년 참여(총 7명) -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사업 - 서울 지역학교 밖 청소년 카페(데일리로스팅) 개점 첫 시도 * 출처 및 관련 링크: <a href="https://www.facebook.com/DailyRoasting12/">https://www.facebook.com/DailyRoasting12/</a>
스마일어게인	-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거리 청소년, 미혼모 등) 자립 지원 - 사회적 기업인 「소년희망공장」, 「소년희망센터」,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 - 「소년희망공장」: 청소년들에게 일터(카페)이며 청소년들에게 음식 제공 - 「소년희망센터」: 대안교육·문화·스포츠 공간 * 출처 및 관련 링크: <a href="https://www.sagain.org/">https://www.sagain.org/</a>
일하는 학교	- 「길찾기 학교」, 「청소년맞춤제작소」, 「청소년활동지원」 운영 - 「길찾기 학교」: 진로·직업 프로그램 제공(예: 마을활동, 진로멘토링 등) - 「청소년맞춤제작소」: 취업-자립 지원 프로그램 제공(예: 진로상담, 직업 가치관 검사,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청소년활동지원」: 자유활동 지원 * 출처 및 관련 링크: <a href="https://www.workingschool.net/264">https://www.workingschool.net/264</a>
청소년자립학교	- 취약계층 청소년(16~20세 이하의 학업중단 청소년), 퇴소 청소년, 보호처분 및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20명 이하)

조직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유학교, 길잡이학교, 꿈개발학교 등 청소년 자립 지원</li> <li>- 주거공동체 블루하우스 운영</li> <li>- 전라북도 우수 협동조합 선정</li> </ul> <p>* 출처 및 관련 링크: <a href="http://youthschool.co.kr/24">http://youthschool.co.kr/24</a></p>
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한 미디어 작업장에서 발전하여 협동조합 설립(미디어협동조합)</li> <li>- 청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는 미디어 공간</li> </ul> <p>* 출처 및 관련 링크: <a href="https://www.facebook.com/chalna1324">https://www.facebook.com/chalna1324</a></p>
카페 다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꿈드림센터 1층 공간 활용한 카페(학교 밖 청소년이 운영)</li> </ul> <p>* 출처 및 관련 링크: <a href="https://dream.gsyouth.kr/cafe-%EB%8B%A4%EC%96%BC">https://dream.gsyouth.kr/cafe-%EB%8B%A4%EC%96%BC</a></p>

\* 출처: 각 조직의 출처는 표 안에 제시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예: 함께시작, 내일새싹교육, 동방센터, 은평도서관마을 등),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음식 및 문화·스포츠 공간을 제공하는 사례(예: 스마일어게인),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 제공 및 자유 활동을 지원하는 사례(일하는 학교) 등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다.

## (2) 지역사회 우수 자립·진로 지원 사례

꿈드림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내 청소년문화의 집 공간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전라남도 곡성의 '카페 다얼', 학교 밖 청소년, 미혼모 등의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스마일어게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진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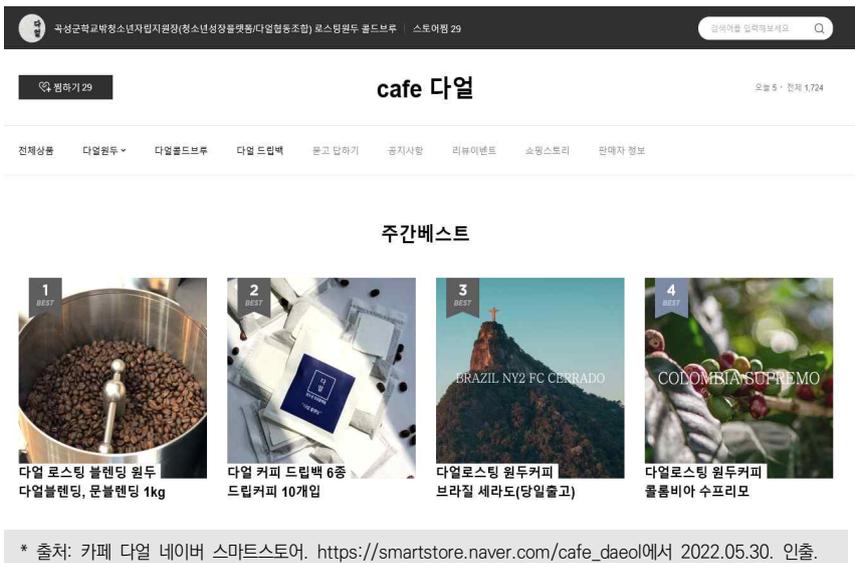
### ① 카페 다얼: 전라남도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협동조합<sup>36)</sup>

곡성군 꿈드림센터는 2019년에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지역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하여 인턴십 및 공방카페를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 기술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지자체에 제안하게 되었고, 이후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존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협동

36) 해당 내용은 다음 출처의 꿈드림센터 홈페이지의 2021년 7월 우수프로그램집에서 발췌, 정리하였다(출처: 꿈드림센터. 우수프로그램. 2021년 7월 우수프로그램집. [https://www.kdream.or.kr:446/user/sub/view.asp?page=1&rows=15&task=ins&bid=bid\\_305&boldx=4736&si=title&st=에서](https://www.kdream.or.kr:446/user/sub/view.asp?page=1&rows=15&task=ins&bid=bid_305&boldx=4736&si=title&st=에서) 2022.05.30. 인출).

조합으로 설립된 카페 다얼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위하여 출발한 공간으로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아이템 발굴, 생산, 판매 등의 전 과정에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한다.

지역 내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MOU체결을 통하여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1층의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고, 전라남도 협동조합 컨설턴트(사단법인 상생나무)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과정을 거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남과대학학과의 평생교육원 커피지도사 과정, 바리스타 2급 교육과정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방식으로 드립커피, 더치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다(그림 V-5).



\* 출처: 카페 다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cafe\\_daeol](https://smartstore.naver.com/cafe_daeol)에서 2022.05.30. 인출.

그림 V-5. CAFE 다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홈페이지

## ※ 카페 다얼 상세 소개

### 1. 조성 배경 및 목적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하던 직업체험이 단순한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종결됨에 따라, 실질적인 자기주도적 자립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웠으며, 꿈드림센터의 한정적인 예산만으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20년 군정 운영방안 정책이

수립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협동조합인 다얼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협동조합은 소속감이 필요했던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며,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수평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이유로 협동조합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생산, 판매하는 전 과정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였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카페 다얼이 시작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설립으로 인해, 일회성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나 단순 체험 프로그램 제공이 아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질 좋은 교육 서비스 및 직업체험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다.

## 2. 주요 상품

현재 카페 다얼의 주요상품으로는 로스팅 원두, 콜드브루, 드립백이 있다.



## 3. 운영 현황

협동조합은 만 18세 이상 만이 가입 가능하며 5명 이상의 조합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카페 다얼 협동조합은 대표 1명, 이사 2명, 감사 1명, 조합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명은 꿈드림센터 실무자이다.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방학 이벤트로 나만의 DIY음료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하여 1일 바리스타 체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0년 12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세 페이지에 처음 등록하여,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하여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콜드브루 자기품질검사와 원두 영양성분 검사를 진행하는 등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트롤우드 견학, 스마트 로스팅머신 계약, 선진지 견학 등과 더불어 전남과학대학교 연계를 통한 커피지도사 2급 취득과 같은 다양한 전문성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판매품의 홍보를 위하여 곡성 기차당 독방마켓의 셀러로 참여하고, 다얼 SNS(인스타그램) 계정을 활발히 이용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다얼'이라는 프로그램(읍면주민센터, 학교, 카페 등을 방문)을 통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곡성청소년 내그린학교,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4. 애로사항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우선 18세 이상만 협동조합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실무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서류 작성(계획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실무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종사자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대표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을 운용하는 비용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현재 필요한 지원으로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인데,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들의 창업을 지원할만한 리더십, 회계, 창업 운영과 같은 다양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 5. 향후 계획

2023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중에 있으며, 지역 내 홍보 에이전시를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다. 홍보 에이전시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정기적인 진로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본 연구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개최된 콜로키움(2022.9.29)에서의 곡성군 꿈드림센터 사업담당자 발표 내용 요약]

#### ② 스마일어게인: 위기청소년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sup>37)</sup>

스마일어게인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위기청소년과 미혼모를 지원하며, 소년희망공장, 소년희망센터,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는 미혼모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미혼모 가정의 자립을 돕고 있다. 소년희망공장은 스마일어게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다음 스토리펀딩을 통해 후원된 지원금으로 2016년 9월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설립되었다. 밥집과 카페로 시작한 소년희망공장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서부권을 중심으로 6개가 운영되고 있다.

소년희망공장은 위기청소년들에게 아픔을 치유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비 마련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우울증 등을 치유하며, 대학 진학 등의 사회진출을 돕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소년희망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문화·스포츠 공간으로, 스토리펀딩을 통하여 500여 명의 후원자 등에 의해 만들어졌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에 자리하고 있다.

37) 해당 영역은 스마일어게인 홈페이지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스마일어게인. <https://www.sagain.org/>에서 2022.05.30. 인출).

##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2022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sup>38)</sup>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는 전국 중간 규모 지역(중소도시)에서 총 60개의 꿈드림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국 중간 규모의 지역(중소도시)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수 20만 이상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3차 년도(2020년) 연구에서는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지역의 꿈드림센터 실무자를, 4차 년도(2021년) 연구에서는 인구수 20만 이하 지역(소도시·읍면지역)의 꿈드림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올해 5차 년도 연구에서 대도시(특별시·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수 20만 이상 중간규모 지역(중소도시)의 꿈드림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2020년, 2021년, 2022년 3개 년도에 걸쳐 전국의 모든 꿈드림센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완료되었다(표 V-10). 이를 통하여 올해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읍면지역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표 V-10. 연도별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대상 수

지 역	2020년 (대도시)	2021년 (소도시·읍면지역)	2022년 (중소도시)
목표 수	75	85	60
실제 완료 수 (목표 수 대비 비율)	56 (77.8%)	63 (74.1%)	47 (78.3%)

\* 출처: 김희진 외(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꿈드림센터 목표수, 지역 꿈드림센터 찾기. <https://www.kdream.or.kr:446/user/kdm200pm/list.asp>에서 2022.05.30. 인출.

올해의 설문조사지는 중소도시 설문결과를 대도시, 소도시·읍면지역과 비교하기 위하여 2020년, 2021년에 사용하였던 기본의 설문문항을 대부분 비슷하게 유지하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경제적 지원,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표 V-11).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지는 기관의 IRB 심의 과정을 거쳤으며,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된 설문

38) 본 절의 해당 부분 이하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꿈드림센터'로 지칭한다.

조사지는 부록 3에 첨부되어 있다.

표 V-11.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내용

구분	설문조사 내용
응답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기간 및 직급</li> <li>• 성별, 연령대</li> </ul>
기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이용(발굴) 경로</li> <li>• 기관의 전용공간 사용 여부, 전용공간이 필요한 이유</li> <li>• 기관의 위치 및 공간/시설 여건(접근성 및 쾌적한 시설환경 등)</li> </ul>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 및 동아리, 봉사활동 등 심리·사회 지원 및 연계</li> <li>• 건강검진, 자산관리, 기초생활 지원 등 일반생활 지원</li> <li>• 복고 안내 및 검정고시 준비와 대입진학 상담 등 학업지원</li> <li>• 진로지도, 직업훈련(인턴십) 및 취업준비 지원 등 진로취업지원</li> <li>• 필요한 경제적 지원 종류</li> </ul>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청소년의 자립의지 및 사회적 기술, 행동문제, 부모의 지도도 등</li> <li>• 꿈드림센터 관련: 예산 부족, 시설(인프라) 미흡, 전문 인력 부족, 종사자 처우 수준, 정보 접근 어려움, 기관 간 서비스 수준 편차 등</li> <li>• 지역사회 및 정부 정책 관련: 지역사회 내 연계기관 부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 행정업무의 과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li> </ul>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도시 꿈드림센터 실태 인식: 인프라 부족, 서비스 접근성의 어려움, 인력의 전문성, 협력체계 등에 대한 인식</li> <li>• 지역규모에 따른 꿈드림센터의 차별화 필요성</li> <li>• 중소도시 지역 센터로서 운영에 초점을 둘 부분, 강점</li> </ul>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청소년의 이용 비율 및 필요한 지원</li> </ul>
사업 방향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드림센터 이용 중단 이유</li> <li>• 시·도 센터의 역할</li> <li>•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방향성(개방형 질문)</li> <li>•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에 대한 필요성</li> <li>•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필요 정책 및 서비스(개방형 질문)</li> </ul>

\* 출처: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332의 조사내용 수정·보완

대도시(특별시·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수 20만 이상 지역의 꿈드림센터는 총 60개소로, 해당 지역 꿈드림센터에 설문조사 관련 공문과 조사 링크(웹/모바일)가 전송되었고, 각 꿈드림센터 당 한 명의 실무자(팀장급 또는 2년 이상 종사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꿈드림센터 종사자는 47명이었다(표 V-12).

표 V-12. 중소도시 지역: 현장종사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47	100.0
성별	남자	15	31.9
	여자	32	68.1
연령	20~30대	27	57.4
	40대 이상	20	42.6
시설/기관 직급	시설장	1	2.1
	팀장/선임	20	42.6
	실무자	26	55.3
종사경력	5년 미만	23	48.9
	5년 이상	24	51.1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32명(68.1%), 남자가 15명(31.9%)으로 여자의 비율이 남자의 비율보다 두 배가량 더 많았다. 40대 이상이 20명(42.6%), 20~30대가 27명(57.4%)으로,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직급은 시설장이 1명(2.1%), 팀장/선임이 20명(42.6%), 실무자가 26명(55.3%)이었으며, 종사경력은 5년 미만이 23명(48.9%), 5년 이상이 24명(51.1%)으로 거의 비슷하였다.

각 설문문항별 조사결과는 응답률 혹은 평균을 살펴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문항에 따라 연도별 비교가 가능할 경우 비교·분석하였으며, 특히 척도 문항의 경우 t-test, F-test를 활용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 2) 조사결과<sup>39)</sup>

### (1) 기관 특성

#### ① 꿈드림센터 주요 이용 경로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주요 발굴경로로는 학교·교육청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선호배의 소개로 발굴되는 경우가 17.0%로 그 뒤를 이었다(표 V-13). 검정고시 시험장, 가족의 소개, 아웃리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꿈드림센터를 찾는 경우에 대한 응답률은 모두 각각 10%미만이였다. 대안학교, 직업훈련

39) 동일 문항에 한 해 그동안 수행되었던 대도시와 읍면/소도시 꿈드림센터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이하 조사결과 부분에서 대도시에서의 조사결과 통계치는 김희진 외(2020)연구에서, 읍면/소도시에서의 조사결과 통계치는 김희진 외(2021a)연구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학교(내일이룸학교), 청소년 쉼터, 경찰,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 주민자치단체·지자체에 대한 응답률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경로 양상은 읍·면/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경로와 매우 유사하였다.

표 V-13. 지역 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주요 이용 경로(1순위)

(단위: 빈도(%))

주요 이용 경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학교·교육청 통제(Wee클래스 등)	28(59.6)	34(54.0)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	1(2.1)	4(6.3)
대안학교	-	1(1.6)
직업훈련학교(내일이룸학교)	-	-
청소년 쉼터	-	-
경찰,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센터의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	-
주민자치센터·지자체(교통카드 또는 수당 신청 과정에서)	2(4.3)	2(3.2)
검정고시 시험장	4(8.5)	4(6.3)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2(4.3)	2(3.2)
가족의 소개로	2(4.3)	4(6.3)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8(17.0)	11(17.5)
기타	-	1(1.6)

주: 중소도시 비율은 총 47명, 읍·면/소도시의 비율은 총 63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꿈드림센터의 주요 이용 경로로 조사된 1, 2, 3순위 응답을 합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V-14), 중소도시에서는 학교·교육청을 통한 발굴이 85.1%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가 51.1%로 그 뒤를 이었다. 아웃리치를 통해 발굴되는 경우가 31.9%,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꿈드림센터를 찾아오는 경우가 25.5%였으며, 검정고시장이 23.4%였다.

중소도시는 읍·면/소도시 지역에 비해, 학교·교육청, 아웃리치, 검정고시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발굴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가족소개,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를 통하거나, 자발적으로 꿈드림센터를 찾아오는 경우를 포함한 그 외의 발굴경로 응답률 읍·면/소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양상을 보였다.

표 V-14. 지역 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주요 이용 경로(1+2+3순위)

(단위: 빈도(%))

주요 이용 경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학교·교육청 통해(Wee클래스 등)	40(85.1)	49(77.8)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	7(14.9)	16(25.4)
대안학교	5(10.6)	9(14.3)
직업훈련학교(내일이룸학교)	-	-
청소년 쉼터	-	-
경찰,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센터의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10(21.3)	14(22.2)
주민자치센터·지자체(교통카드 또는 수당 신청 과정에서)	15(31.9)	11(17.5)
검정고시 시험장	6(12.8)	9(14.3)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11(23.4)	6(9.5)
가족의 소개로	12(25.5)	19(30.2)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10(21.3)	19(30.2)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24(51.1)	35(55.6)
기타	1(2.1)	2(3.2)

주: 중소도시 비율은 총 47명, 읍·면/소도시의 비율은 총 63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② 꿈드림센터 공간 사용 현황

꿈드림센터의 공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표 V-15), 중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 중, 독립된 전용공간이 확보된 비율은 36.2%로, 읍·면/소도시(11.1%)나 대도시(23.2%) 꿈드림센터의 독립 공간 확보 비율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중소도시의 많은 꿈드림센터 역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 중에서 타 기관과 공간을 공유하는 비율은 38.3%, 타 기관 내 설치된 전용공간을 사용하는 비율은 25.5%였다. 타 기관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32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 문화센터, 문화의 집, 친구랑 등이 보고되었다.

표 V-15. 지역 규모별 기관의 공간 사용 현황

(단위: 빈도(%))

	기관의 공간 사용 현황			전체
	독립된 전용공간 확보	타 기관 내 설치된 전용공간 사용	타 기관과 공간 공유	
대도시	13(23.2)	12(21.4)	31(55.4)	56(100.0)
중소도시	17(36.2)	12(25.5)	18(38.3)	47(100.0)
읍·면/소도시	7(11.1)	9(14.3)	47(74.6)	63(100.0)

중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표 V-16), 78.7%의 응답자가 “기관이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위치에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하였고, 87.2%가 “기관이 안전한 곳(위치)에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10명 중 8~9명의 종사자들이 꿈드림센터 위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문항에는 10명 중 5명 정도가 부정적으로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하였으며, 10명 중 9명 정도가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중소도시 지역의 많은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전용공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충분하다”는 문항에는 대략 50%가 조금 넘는 종사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V-16.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의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생각

(단위: 빈도(%), 평균)

항목	빈도(%)			평균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전체 사례	
1)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위치에 있다	10 (21.3)	37 (78.7)	47 (100.0)	2.96
2)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22 (46.8)	25 (53.2)	47 (100.0)	2.53
3)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충분하다	21 (44.7)	26 (55.3)	47 (100.0)	2.57
4)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	6 (12.8)	41 (87.2)	47 (100.0)	3.43
5) 우리 기관은 안전한 곳(위치)에 있다	6 (12.8)	41 (87.2)	47 (100.0)	3.15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부정응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응답으로 통합함.

꿈드림센터의 위치 및 공간 인식에 대한 지역 규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V-17),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문항에서 지역 규모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한 대도시의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의 응답은 평균 2.68점(4점 만점)인데 비해,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의 응답은 2.53점, 읍·면/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의 응답은 2.27점으로, 작은 규모 지역의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일수록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표 V-17. 지역 규모별 꿈드림센터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생각 통계적 유의도 검증

(단위: 평균)

항목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t, F
1)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위치에 있다	2.98	2.96	2.67	2.41
2)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2.68	2.53	2.27	3.25*
3)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충분하다	2.70	2.57	2.46	1.13
4)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	-	3.43	3.60	-1.40
5) 우리 기관은 안전한 곳(위치)에 있다.	-	3.15	3.10	0.36

\* $p < .05$ , \*\* $p < .01$ , \*\*\* $p < .001$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짐.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표 V-17 조사항목 중 4번인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긍정 응답한 총 41명을 대상으로, 전용공간이 시급하게 필요한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표 V-18),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1.5%, 학교 밖 청소년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39.0%로 가장 많았다.

표 V-18. 중소도시 지역: 전용공간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

(단위: 빈도(%))

전용공간이 필요한 이유	전체
학교 밖 청소년과의 개인 상담공간이 필요해서	2(4.9)
학교 밖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 필요해서	6(14.6)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17(41.5)
학교 밖 청소년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16(39.0)
기타	-

주: 위 문항의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항목에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총 41명을 대상으로 한 비율임.

## (2) 기관 서비스

### ① 꿈드림센터 제공 서비스

꿈드림센터의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면(표 V-19),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꿈드림센터가 건강검진을 안내·제공하고 있었으며,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인턴십,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은 직업훈련 지원과 급식지원도 95.7%의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대입 정보 제공 및 대학 진학 상담은 93.6%의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며, 심리·상담 지원, 동아리, 체육, 문화예술, 봉사활동,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의 지원,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강의(수업) 제공 등의 직접 지원, 학원 및 교재 지원도 91.5%의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55.3%)와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59.6%)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였다.

표 V-19. 지역 규모별 꿈드림센터 제공 서비스

(단위: 빈도(%))

지원항목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심리·상담 지원	43(91.5)	61(96.8)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	26(55.3)	32(50.8)
동아리, 체육, 문화예술, 봉사활동,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지원	43(91.5)	61(96.8)
건강검진 안내 및 제공	47(100.0)	63(100)
수당(교통비) 등 배움을 위한 지원	38(80.9)	52(82.5)
자립을 위한 기초생활 지원	36(76.6)	48(76.2)
급식 지원	45(95.7)	62(98.4)
자산관리 등 경제 교육(저축 관리, 합리적 소비생활 등)	31(66.0)	29(46.0)
복고 절차 및 방법 안내	37(78.7)	54(85.7)
검정고시 준비 위한 강의(수업) 제공 등 직접 지원	43(91.5)	62(98.4)
검정고시 위한 학원 및 교재 지원	43(91.5)	63(100.0)
대입 정보 제공 및 대학 진학 상담	44(93.6)	59(93.7)
진로지도(진로상담, 적성검사 등)	42(89.4)	59(93.7)
직업훈련 지원(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인턴십, 자격증 취득 등)	45(95.7)	56(88.9)
취업준비 지원(면접 준비/이력서 작성 지원, 노동권리 알기 등)	41(87.2)	53(84.1)
취업정보 제공(일자리 알선·연계 등)	28(59.6)	45(71.4)
기타	12(25.5)	10(15.9)

주: 중소도시 비율은 총 47명, 읍·면/소도시의 비율은 총 63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중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는 읍·면/소도시 지역의 센터에 비하여 직업훈련 지원,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 자산관리 등 경제 교육, 취업준비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공하고 있었으나, 검정고시 지원, 진로지도, 취업정보 제공 등과 같은 지원은 읍·면/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에 비하여 더 적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 ② 필요한 경제적 지원 분야

경제적 지원 분야 중 확대 혹은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살펴보면(표 V-20),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의 36.2%가 교통비 지원의 확대를, 그리고 29.8%가 학자금, 장학금 및 포상제도가 신설 및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통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유로는 꿈드림센터 방문 및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학자금, 장학금 및 포상제도가 필요한 사유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V-20. 중소도시 지역: 경제적 지원이 확대·신설될 필요가 있는 분야(1순위)**

(단위: 빈도(%))

분야	전체
교통비 지원	17(36.2)
급식 지원	4(8.5)
생필품 지원	4(8.5)
내일이룸학교 교육훈련수당	1(2.1)
청년주택지원	2(4.3)
학자금, 장학금 및 포상제도(대학 진학 시)	14(29.8)
기타	5(10.6)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 분야의 1, 2, 3순위를 합친 결과(표 V-21), 1순위 결과와는 조금 달랐는데, 학자금, 장학금 및 포상제도의 필요성이 76.6%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비 지원이 63.8%로 그 뒤를 이었고, 급식 지원도 51.1%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생필품 지원(36.2%), 청년주택지원(27.7%)도 낮은 비율의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신설 혹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문화활동지원비, 교육비, 생활비, 프로그램 참여 수당 등이 언급되었다.

표 V-21. 중소도시 지역: 경제적 지원이 확대·신설될 필요가 있는 분야(1+2+3순위)

(단위: 빈도(%))

분야	전체
교통비 지원	30(63.8)
급식 지원	24(51.1)
생필품 지원	17(36.2)
내일이룸학교 교육훈련수당	4(8.5)
청년주택지원	13(27.7)
학자금, 장학금 및 포상제도(대학 진학 시)	36(76.6)
기타	17(36.2)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인식

#### ①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인식을 살펴보면(표 V-22),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의 83.0%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항에 긍정 응답(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문항에는 78.7%가,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는 문항에는 66.0%가 긍정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문항에는 66.0%가 부정적으로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함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상당수의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심리적, 행동적 문제가 있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며, 자립의지가 부족하고,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가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청소년이 방임되었거나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많다”는 문항에는 72.3%가 긍정 응답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부모 대부분이 자녀에 대해 (충분히) 지지적이다”는 문항에는 72.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가 지지적이지 못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방임되거나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인식에 대한 지역 규모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표 V-23), 모든 문항에서 지역 규모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22. 중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인식

(단위: 빈도(%), 평균)

항목	빈도(%)			평균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전체 사례	
1)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31 (66.0)	16 (34.0)	47 (100.0)	2.30
2)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	8 (17.0)	39 (83.0)	47 (100.0)	2.98
3) 청소년이 방임되었거나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많다	13 (27.7)	34 (72.3)	47 (100.0)	2.83
4) 청소년들의 부모 대부분이 자녀에 대해 (충분히) 지지적이다	34 (72.3)	13 (27.7)	47 (100.0)	2.19
5)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	16 (34.0)	31 (66.0)	47 (100.0)	2.68
6)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대인관계/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다	10 (21.3)	37 (78.7)	47 (100.0)	2.96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부정응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응답으로 통합함.

표 V-23. 지역 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인식 통계적 유의도 검증

(단위: 평균)

항목	구분			t, F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소도시	
1)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2.30	2.32	-.18
2)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	2.86	2.98	2.89	.47
3) 청소년이 방임되었거나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많다	3.00	2.83	2.76	2.29
4) 청소년들의 부모 대부분이 자녀에 대해 (충분히) 지지적이다	-	2.19	2.38	-1.80
5)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	2.77	2.68	2.83	.70
6)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대인관계 /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다	2.84	2.96	2.92	.52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 ② 꿈드림센터 관련 인식

꿈드림센터 관련 인식을 살펴보면(표 V-24),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의 91.5%가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는 문항과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는 문항에 긍정(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응답하여, 대부분의 종사자가 처우 수준이 낮고,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76.6%가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상담, 서비스 연계 등)이 부족하다”는 문항에는 66.0%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항에는 63.8%가 긍정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정보 찾기)이 어렵다”는 문항에는 57.4%가,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항에는 46.8%가 긍정 응답하였다. 요약하면, 꿈드림센터의 종사자 처우, 센터 간 서비스 질의 차이, 예산, 기관 내 시설(인프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24.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관련 인식

(단위: 빈도(%), 평균)

항목	빈도(%)			평균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전체 사례	
7) 예산이 부족하다	17 (36.2)	30 (63.8)	47 (100.0)	2.87
8)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다	11 (23.4)	36 (76.6)	47 (100.0)	3.02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상담, 서비스 연계 등)이 부족하다	16 (34.0)	31 (66.0)	47 (100.0)	2.89
10)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	4 (8.5)	43 (91.5)	47 (100.0)	3.64
11)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25 (53.2)	22 (46.8)	47 (100.0)	2.51
12)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정보 찾기)이 어렵다	20 (42.6)	27 (57.4)	47 (100.0)	2.55
13)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	4 (8.5)	43 (91.5)	47 (100.0)	3.30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부정응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응답으로 통합함.

꿈드림센터 관련 인식에 대한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표 V-25), “예산이 부족하다”,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는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항에는 대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평균 3.23점(4점 만점), 중소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2.87점, 읍·면/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2.73점으로,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는 문항에는 대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평균 3.73점, 중소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3.64점, 읍·면/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3.35점으로, 역시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꿈드림센터 종사자 처우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다.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는 문항은 중소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3.30점, 읍·면/소도시 종사자들이 2.94점, 대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2.89점으로, 중소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5. 지역 규모별 꿈드림센터 관련 인식 통계적 유의도 검증

(단위: 평균)

항목	구분			t, F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7) 예산이 부족하다	3.23	2.87	2.73	6.11**
8)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다	2.95	3.02	3.17	1.19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상담, 서비스 연계 등)이 부족하다	2.88	2.89	2.65	1.75
10)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	3.73	3.64	3.35	5.22**
11)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2.43	2.51	2.63	1.38
12)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 (정보 찾기)이 어렵다	2.55	2.55	2.71	1.08
13)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	2.89	3.30	2.94	5.55**

\* $p < .05$ , \*\* $p < .01$ , \*\*\* $p < .001$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 ③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표 V-26),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97.9%)가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는 문항에 긍정 응답(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하였으며,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95.7%)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정부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항에는 70.2%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항에는 61.7%가 긍정 응답하여(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기관(상담센터, 취업지원 기관 등)이 부족하다”는 문항에는 48.9%가 긍정 응답하였으며, “지역 내 담당공무원이 협조적이다”는 문항에는 63.8%가 긍정 응답하였다.

표 V-26. 중소도시 지역: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평균)

항목	빈도(%)			평균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전체 사례	
14)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 기관(상담센터, 취업지원 기관 등)이 부족하다	24 (51.1)	23 (48.9)	47 (100.0)	2.60
15) 지역 내 담당공무원이 협조적이다	17 (36.2)	30 (63.8)	47 (100.0)	2.89
16)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18 (38.3)	29 (61.7)	47 (100.0)	2.70
17)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14 (29.8)	33 (70.2)	47 (100.0)	3.09
18)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	1 (2.1)	46 (97.9)	47 (100.0)	3.57
1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2 (4.3)	45 (95.7)	47 (100.0)	3.40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부정응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응답으로 통합함.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의 대한 지역 규모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표 V-27),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는 문항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문항에서 지역 규모별 차이가 나타났다.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는 문항에는 중소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평균 3.57점(4점 만점), 대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3.52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으며, 읍·면/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은 3.10점이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읍·면/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에 비하여 행정 업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문항에서는 대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3.40점, 읍·면/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3.37점으로 비슷하였다.

표 V-27. 지역 규모별 지역사회 및 정부 관련 인식 통계적 유의도 검증

(단위: 평균)

항목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t, F
14)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 기관(상담센터, 취업지원 기관 등)이 부족하다	2.43	2.60	2.68	1.83
15) 지역 내 담당공무원이 협조적이다	-	2.89	3.02	-0.80
16)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2.55	2.70	2.48	0.92
17)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3.05	3.09	2.84	1.61
18)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	3.52	3.57	3.10	8.88***
1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3.61	3.40	3.37	3.06*

\* $p < .05$ , \*\* $p < .01$ , \*\*\* $p < .001$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 (4) 지역 관련 인식

##### ① 기관 소재 지역에 대한 의견

꿈드림센터 소재 지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표 V-28), “협력업체(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는 문항에는 83.0%가 긍정적으로 응답(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하였으며,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문항에는 80.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는 문항에는 78.7%가,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는 문항에는 66.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의 종사자들은 지역의 협력체계, 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접근성, 인프라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28. 중소도시 지역: 기관 소재 지역에 대한 의견

(단위: 빈도(%), 평균)

항목	빈도(%)			평균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전체 사례	
1)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	16 (34.0)	31 (66.0)	47 (100.0)	2.64
2)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	10 (21.3)	37 (78.7)	47 (100.0)	2.87
3)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9 (19.1)	38 (80.9)	47 (100.0)	2.91
4) 협력체계(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8 (17.0)	39 (83.0)	47 (100.0)	2.91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부정응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응답으로 통합함.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인식이 지역 규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표 V-29),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는 문항들에서 차이를 보였다.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는 문항에는 대도시 지역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이 평균 2.54점(4점 만점), 중소도시 지역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이 2.64점이었으나, 읍·면/소도시 지역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은 2.10점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읍·면/소도시 지역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이 지역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는 문항 역시, 대도시 지역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은 2.80점, 중소도시 지역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은 2.87점이었는데, 읍·면/소도시 지역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은 2.38점으로, 이들 지역의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에 비해,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의 문항에는 대도시 지역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이 3.05점, 중소도시 지역의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이 2.91점이었으나, 읍·면/소도시 지역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은 2.78점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에 비하여, 이 역시 읍·면/소도시 지역 콤팩트센터 종사자들이 지역에서의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9. 지역 규모별 기관 소재 지역에 대한 의견 통계적 유의도 검증

(단위 :평균)

항목	구분			t, F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 소도시	
1)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	2.54	2.64	2.10	8.26***
2)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	2.80	2.87	2.38	7.02**
3)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3.05	2.91	2.78	3.32*
4) 협력체계(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3.00	2.91	2.92	0.31

\* $p < .05$ , \*\* $p < .01$ , \*\*\* $p < .001$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②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화 필요성

지역규모에 따른 지원의 차별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V-30), 설문조사에 참여한 종사자 중 2명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95.7%)들이 지역규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에 차별화나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표 V-30. 중소도시 지역: 지역규모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내용 차별화

(단위: 빈도(%), 평균)

항목	빈도(%)			평균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전체 사례	
지역규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에 차별화나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4.3)	45 (95.7)	47 (100.0)	3.51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부정응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응답으로 통합함.

중소도시의 종사자들에게 지역규모에 따라 차별화나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획일화된 평가 기준의 개선, 지역사회 내 자원의 부족에 따른 한계 극복, 지역마다 필요로 하는 지원의 차이 반영(예: 급식비, 교통비, 학습지원, 복지지원 등에서의 예산 범위 및 지원 방식의 차별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진로, 직업, 자립 프로그램 마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마련, 넓은 지역적 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분소나 거점 공간 필요 등이 언급되었다.

지역 규모별 지원 내용 차별화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표 V-31),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의 평균이 3.51점(4점 만점)으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읍·면/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3.22점, 대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3.05점이었다. 필요성을 느끼는 데에는 비록 지역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지역 평균이 3점이 넘으면서 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지역 규모에 따라 지원 내용 차별화에 유사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31. 지역 규모별 지역 규모에 따른 지원 내용 차별화 통계적 유의도 검증

(단위: 평균)

항목	구분			F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지역규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에 차별화나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3.05	3.51	3.22	6.16**

\* $p < .05$ , \*\* $p < .01$ , \*\*\* $p < .001$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 ③ 해당 지역의 강점/장점

조사에 참여한 중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가 대도시 혹은 읍·면지역의 꿈드림센터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좋은 점(강점/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V-32), 좋은 점(강점/장점)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46.8%, 별 차이 없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44.7%, 좋은 점(강점/장점)이 없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8.5%였다. 좋은 점(강점/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작은 규모의 지역보다는 인프라 등 자원이 많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좋은 점(강점/장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무인력과 예산 및 지역사회 내 자원 부족 때문이었다.

읍·면/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해당 지역 센터가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에 비해 좋은 점(강점/장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0%로 중소도시 지역 결과와 비슷하였다. 별 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1.7%로 중소도시 지역의 응답률 보다 낮았으며, 좋은 점(강점/장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2%로 중소도시 지역에서 보다 높았다.

표 V-32. 지역 규모별 해당 지역의 강점/장점 유무

(단위: 빈도(%))

	해당 지역의 강점/장점 유무			전체
	그렇다	별 차이 없다	아니다	
중소도시	22(46.8)	21(44.7)	4(8.5)	47(100.0)
읍·면/소도시	29(46.0)	20(31.7)	14(22.2)	63(100.0)

주: 중소도시 비율은 총 47명, 읍·면/소도시의 비율은 총 63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5)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일 년 동안 기관을 이용하는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의 평균 비율을 질문한 결과(표 V-33), 조사에 참여한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 중,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1.3%였으며, 74.5%는 10% 미만, 4.3%는 10%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 규모별 비교 결과, 읍·면/소도시 지역에서보다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이 아예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표 V-33. 지역 규모별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율

(단위: 빈도(%), 평균)

구분	빈도(%)				전체평균
	없음	10% 미만	10% 이상	전체 (%)	
중소도시	10(21.3)	35(74.5)	2(4.3)	47(100.0)	2.40
읍·면/소도시	22(34.9)	33(52.4)	8(12.7)	63(100.0)	3.75

주: 중소도시 비율은 총 47명, 읍·면/소도시의 비율은 총 63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기초학력, 한국어 등 교육 지원, 심리상담 지원, 생활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또래 관계 증진 관련 지원, 부모 지원 등이 언급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높지 않고 다문화 청소년 지원 관련 타 기관(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 센터,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등)들이 있으므로 꿈드림센터에서의 추가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6) 기타 사업 방향성 관련

① 꿈드림센터 이용 중단 이유

중소도시 지역에서의 꿈드림센터 이용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표 V-34), 타 지역으로 이사했거나, 타 지역의 꿈드림센터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63.8%로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꿈드림센터 이용을 중단했다는 비율이 55.3%로 그 뒤를 이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44.7%),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센터가 제공하지 않아서(42.6%), 꿈드림센터가 너무 멀리 위치해 있어서(38.3%) 꿈드림센터 이용을 중단했다는 비율도 낮지 않았다. 중소도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사, 타 지역 꿈드림센터 센터로의 이동으로 꿈드림센터 이용을 중단하는 응답 비율이 읍·면/소도시의 비율보다 낮았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이유는 중소도시에서의 응답 비율이 읍·면/소도시에서보다 높았다. 특히,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센터가 제공하지 않아서, 다른 서비스/프로그램 연계로 인해서, 그리고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이용을 중단했다는 응답의 비율은 중소도시 지역이 읍·면/소도시 지역보다 높았다.

표 V-34. 지역 규모별 꿈드림센터 이용 중단 이유(복수응답)

(단위: 빈도(%))

이용 중단 사유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꿈드림센터 센터가 멀리 위치해 있어서	18(38.3)	20(31.7)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타지역의 꿈드림센터 센터로 옮겨가서	30(63.8)	53(84.1)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1(44.7)	21(33.3)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예: 우울증 등)	26(55.3)	25(39.7)
센터 내부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4(8.5)	6(9.5)
센터 실무자(종사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	-
센터 실무자의 연락 부재(이직 등)로 인하여	11(23.4)	8(12.7)
다른 서비스/프로그램 연계로 인하여	11(23.4)	6(9.5)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센터가 제공하지 않아서	20(42.6)	11(17.5)
기타	10(21.3)	11(17.5)

주: 중소도시 비율은 총 47명, 읍·면/소도시의 비율은 총 63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 ② 시·도 센터의 지원 필요 내용

중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응답한 시·도 센터로부터 원하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표 V-35),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이 4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 노력이 14.9%, 센터 간 청소년과 실무자 교류 지원이 12.8%로 그 뒤를 이었다. 중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은 읍·면/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 종사자들보다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과 시·군·구 센터 운영 컨설팅 및 모니터링 부분에서의 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였다.

표 V-35. 지역 규모별 시·도 센터의 지원 내용

(단위: 빈도(%))

지원 내용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시·군·구 센터 운영 컨설팅 및 모니터링	4(8.5)	1(1.6)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23(48.9)	26(41.3)
시·군·구 연합사업 및 지원	4(8.5)	12(19.0)
센터 간 청소년과 실무자 교류 지원	6(12.8)	8(12.7)
모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대	1(2.1)	-
효율적인 업무 수행 노력 (행정 허브 역할, 전달 체계 공문으로 일원화 등)	7(14.9)	15(23.8)
기타	2(4.3)	1(1.6)

주: 중소도시 비율은 총 47명, 읍·면/소도시의 비율은 총 63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 ③ 코로나19 관련

중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경험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표 V-36), 방역수칙으로 인해 여러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 이용 및 오프라인 활동, 모임을 꺼려했다는 응답이 23.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읍·면/소도시 지역 결과와 비슷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1, 2, 3순위 응답을 합친 결과(표 V-37), ‘방역수칙으로 인해 여러 오프라인 활동들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74.5%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 이용 및 오프라인 활동, 모임을 꺼려함’이 59.6%,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을 위한 기자재 부족’이 53.2%로 그 뒤를 이었다.

표 V-36. 지역 규모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1순위)

(단위: 빈도(%))

이용 중단 사유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아웃리치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이 어려움	8(17.0)	11(17.5)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 이용 및 오프라인 활동, 모임을 꺼려함	11(23.4)	18(28.6)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여러 오프라인 활동들을 진행하기 어려움	17(36.2)	25(39.7)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사업 수행이 어려움	1(2.1)	2(3.2)
추가 필요 지원들이 많아짐(예: 방역물품 지급, 심리적 지원, 재정 지원 등)	3(6.4)	-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을 위한 기자재(pc, 태블릿 등 관련 인프라) 부족	7(14.9)	7(11.1)
비대면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데이터 부족(통신비 부담)	-	-
기타	-	-

주: 중소도시 비율은 총 47명, 읍·면/소도시의 비율은 총 63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표 V-37. 지역 규모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1+2+3순위)

(단위: 빈도(%))

이용 중단 사유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아웃리치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려움	20(42.6)	33(52.4)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 이용 및 오프라인 활동, 모임을 꺼려함	28(59.6)	32(50.8)
방역수칙으로 인해 여러 오프라인 활동들을 진행하기 어려움	35(74.5)	58(92.1)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사업 수행이 어려움	10(21.3)	24(38.1)
추가로 필요한 지원들이 많아짐 (예: 방역물품 지급, 심리적 지원, 재정 지원 등)	15(31.9)	11(17.5)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을 위한 기자재(pc, 태블릿 등 IT관련 인프라) 부족	25(53.2)	25(39.7)
비대면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데이터 부족(통신비 부담)	3(6.4)	3(4.8)
기타	5(10.6)	3(4.8)

주: 중소도시 비율은 총 47명, 읍·면/소도시의 비율은 총 63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임. 읍·면/소도시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④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의 필요성

메타버스와 같은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다(표 V-38).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의 51.1%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4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꿈드림센터 가상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8.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의 필요성**

(단위: 빈도(%), 평균)

	빈도(%)			전체평균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전체 사례수(%)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의 필요성	24(51.1)	23(48.9)	47(100.0)	2.43

주: 응답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1), '필요하지 않다'(2), '필요하다'(3), '매우 필요하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짐. '전혀 필요하지 않다'와 '필요하지 않다'를 부정응답으로,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긍정응답으로 통합함.

위의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의 필요성 문항에서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로 응답한 총 2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온라인 공간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V-39). 그 결과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온라인 수강 및 자습 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친목도모를 위한 공간이 26.1%로 그 뒤를 이었다.

**표 V-39. 중소도시 지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온라인 공간(1순위)**

(단위: 빈도(%))

온라인 공간	전체
검정고시 준비 위한 온라인 수강 및 자습 공간 (예: 도서관, 스터디 카페와 같은 공간)	12(52.2)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온라인 자습 공간	-
온라인 대학입시 박람회 공간	3(13.0)
온라인 취업·직업 박람회/직업체험 공간	1(4.3)
온라인 상담 공간	1(4.3)
온라인 친목 도모 공간(예: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카페 등)	6(26.1)
기타	-

주: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이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총 23명을 대상으로 한 비율임.

필요한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에 대한 응답의 1, 2, 3순위를 합친 결과는 다소 상이했다(표 V-40).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온라인 수강 및 자습 공간(87.0%)의 필요성이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상담 공간(52.2%), 온라인 친목 도모 공간(47.8%)이 그 뒤를 이었고, 온라인 대학입시 박람회 공간(43.5%), 온라인 취업·직업 박람회/직업체험 공간(43.5%)도 낮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V-40. 중소도시 지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온라인 공간 (1+2+3순위)

(단위: 빈도(%))

온라인 공간	전체
검정고시 준비 위한 온라인 수강 및 자습 공간 (예: 도서관, 스터디 카페와 같은 공간)	20(87.0)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온라인 자습 공간	5(21.7)
온라인 대학입시 박람회 공간	10(43.5)
온라인 취업·직업 박람회/직업체험 공간	10(43.5)
온라인 상담 공간	12(52.2)
온라인 친목 도모 공간(예: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카페 등)	11(47.8)
기타	1(4.3)

주: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이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총 23명을 대상으로 한 비율임.

#### ⑤ 꿈드림센터의 향후 방향성

꿈드림센터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표 V-41),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취합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의 연계가 보다 강화되어 학교를 그만두면서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청소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프로그램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양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개별적인 사례관리,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다양한 훈련장소 확보, 비대면 프로그램의 내실화,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상담원 확충 등의 필요성도 보고되었다.

꿈드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인력증원, 임금 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었고, 고용 안정화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전문가 배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예산 확충의 필요성, 독립적 공간 확보의 필요성, 꿈드림센터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센터에 대한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궁극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받는 지원의 수준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V-41.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의 향후 방향성

영역	내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과의 연계 강화</li> </ul>
프로그램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적인 부분보다는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 초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서비스 제공</li> <li>- 청소년 욕구에 맞춘 서비스 개발</li> <li>- 체계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도입</li> <li>-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닌, 개별적인 사례관리 필요</li> </ul> </li> <li>•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li> <li>•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별 다양한 직업훈련처 확보</li> <li>• 비대면 프로그램의 내실화</li> <li>• 전문 상담원 배치 및 확충</li> </ul>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증원, 임금개선, 고용 안정화를 통한 전문가 배출</li> </ul> </li> <li>• 예산 확충</li> <li>• 독립적 공간 확보</li> <li>• 꿈드림센터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li> </ul>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li> <li>• 꿈드림센터 홍보</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 받는 지원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 제공 필요</li> </ul>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차원과 지자체, 지역사회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표 V-42).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교육청 연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꿈드림센터의 아웃리치 진행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지역연계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인프라 연계 지원과 취업훈련 기관 확대를 희망하였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진로 컨설팅, 자격증 취득, 인턴십, 직장 체험처 등의 발굴 지원과 지역사회 내의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꿈드림센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수당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과 실무자 소진 예방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진행, 독립적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산 증액,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수당 지원, 종사자 고용의 안정화 지원, 독립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기관 평가 방식 개선, 나이스와 같은 통합시스템 개발,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센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등 큰 차원에서의 지원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행정의 간소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과 꿈드림센터 사이의 중간 매개체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V-42. 중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영역	중앙부처 차원	지자체, 지역사회 자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의무연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웃리치 지원</li> </ul>
지역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지원</li> <li>취업훈련 기관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로 컨설팅, 자격증 취득, 인턴십, 직장 체험 처 등의 발굴 지원</li> <li>지역의 공공자원 활용 지원</li> </ul>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확보</li> <li>수당지원</li> <li>종사자 처우 개선</li> <li>실무자소진예방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진행</li> <li>독립적 공간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증액</li> <li>수당 지원</li> <li>종사자 고용 인력의 안정화</li> <li>독립적인 공간 확보</li> </ul>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 평가 방식 개선</li> <li>나이스와 같은 통합시스템 개발</li> <li>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센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li> <li>학교 안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등의 동일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 간소화</li> <li>미인가 대안교육기관과 꿈드림센터의 중간 매개체 역할</li> </ul>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지역 연계기관 현장종사자 면접조사

#### 1) 조사개요

##### (1) 대상 및 면접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체계에 대한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취합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총 4개 집단의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로 수행되었다(표 V-43).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접지원을 수행하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sup>40</sup> 시·군·구 센터의 현장종사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종사자로 구성하였다(각 집단은 꿈드림 시·군·구 센터 현장종사자 2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종사자 1명, 총 3명으로 구성).

표 V-43.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체계 면접조사 개요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명</li> <li>• 2개 지역 꿈드림 시·군·구 센터 현장종사자, 1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종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명</li> <li>• 2개 지역 꿈드림 시·군·구 센터 현장종사자, 1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종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명</li> <li>• 2개 지역 꿈드림 시·도 센터 현장종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명</li> <li>• 4개 지역 꿈드림센터 연계기관 종사자</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li> <li>•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온라인 화상면접 진행</li> </ul>			
시간	60분 내외			
기타	IRB심의를 따른 조사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사전에 취합하였음.			

다양한 지역규모별 특성을 반영하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특히 다양한 자립·진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센터)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꿈드림센터 홈페이지의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사례집 내용,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하였고, 꿈드림 시·도 센터의 팀장급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시 ○○ 꿈드림센터(A), 경기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B), 강원도 ○○ 꿈드림센터(C), 충청북도 ○○ 꿈드림센터(D), 경상남도 ○○○ 꿈드림센터(E), 전라북도 ○○○ 청소년상

40) 본 절의 해당 부분 이하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꿈드림센터'로 지칭하였다.

담복지센터(F)의 현장종사자가 참여하였다.

집단 3은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 지원과 관련하여 꿈드림 시·도 센터 현장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꿈드림 시·도 센터 현장종사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집단 1, 집단 2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꿈드림 시·도 센터의 팀장급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진로 탐색을 위해 지역사회의 연계사업을 활발히 주도하고 있는 2개 지역 시·도 센터(G, H)를 선정하였다.<sup>41)</sup>

집단 4는 지역사회 꿈드림센터 연계 현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자, 꿈드림센터와 연계하는 지역사회 기관의 종사자 4명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관련하여 활발히 연계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집단 1과 집단 2에 참여한 현장종사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경기도 카페 대표(I), 충청북도 비영리법인(카페도 운영) 사무국장(J), 경상남도 사회적농장 대표(K), 전라북도 카페 대표(L)가 참여하였다.

꿈드림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종사자 대상(집단 1~3) 면접문항은 기본적으로 2021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지와 비슷하게 유지하되, 꿈드림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관계, 효과적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경로,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 필요한 경제적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서의 어려움 등을 추가하였다(표 V-44). 면접 시간의 제약으로 참여자들의 응답내용에 따라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특히 집단 3의 경우는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지는 기관의 IRB 심의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사용한 면접조사지는 부록 4에 첨부되어 있다.

**표 V-44. 꿈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주요 면접 내용**

조사 영역	세부내용
기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현황, 공간 현황, 조직 현황 등</li> <li>꿈드림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관계</li> </ul>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업중단 시기 및 이유, 주 이용자 연령, 실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경로, 효과적인 발굴경로, 청소년 욕구 등</li> </ul>
기관 프로그램 제공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성공사례, 안타까웠던 사례)</li> <li>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연계 유지의 어려움</li> <li>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관련 서비스 현황,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진로상담전문가/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법률에 제시된 지원 중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원</li> <li>프로그램 제공 시 중점을 두는 부분, 프로그램 제공 시 애로 사항</li> <li>프로그램 홍보방법</li> </ul>

41)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센터와 지역은 모두 익명화하였다.

조사 영역	세부내용
지역 특성 및 꿈드림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적 특성(학교 밖 청소년 발생인원 수, 환경적 특성)</li> <li>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li> </ul>
해당 지역의 지역적/지자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의 위치 및 시설의 적합성</li> <li>지역 청소년 이용기관의 종류</li> <li>지역사회 지원 협의체 유무 및 관련 내용</li> <li>지자체장의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li> </ul>
지자체 및 지역 네트워크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의 지원, 지자체 특화사업</li> <li>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개선방안</li> <li>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협력체계의 어려움/개선방안</li> <li>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li> </ul>
종사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사자 처우, 업무 부담, 센터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li> <li>기관의 종사자 전문성 수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li> </ul>
코로나19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상황 대처 경험, 필요한 지원</li> </ul>

\* 출처: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299의 조사내용 수정·보완

지역사회 연계기관 종사자 대상(집단 4) 면접조사지도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제공하는 서비스 현황, 운영 시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표 V-45). 지역사회 연계기관 종사자 면접 역시, 시간 제약으로 핵심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지는 기관의 IRB 심의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사용한 면접조사지는 부록 4에 첨부되어 있다.

표 V-45. 지역사회 꿈드림센터 연계기관 종사자 대상 주요 면접 내용

조사 영역	세부내용
기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로 이루어지는 사업</li> <li>꿈드림센터를 알게 된 경로</li> </ul>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원, 연령, 성별, 욕구(관심분야), 특성</li> </ul>
프로그램 제공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 서비스, 연계하는 사업</li> <li>서비스 제공 방법</li> <li>사후관리</li> <li>연계 프로그램 제공시 어려운 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li> <li>성과, 연계 사업을 지속할 의향</li> </ul>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꿈드림센터와의 연계 필요성</li> <li>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li> </ul>

조사 영역	세부내용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콤드림센터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점</li> <li>전반적인 발전방향</li> </ul>
코로나19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운 점, 필요한 지원</li> </ul>

\* 출처: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301의 조사내용 수정·보완

## (2) 자료 수집 및 분석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과 지역 연계기관 현장종사자 면접조사는 초점집단인터뷰(FGI)로 진행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하였고, 면접내용은 녹음·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이용하여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질문의 순서를 변경, 진행하기도 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FGI)는 여러 참여자가 함께 면접에 참여하여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어 관찰하고, 그들 간 상호작용과 역동을 통하여 주제와 관련된 깊은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강종구, 김영표, 정광조, 최종근 역, 2018). 면접내용의 분석은 이전 연도와 동일하게 수행되었는데, 면접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자가 알고자 했던 내용, 조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 그 외에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독특한 내용을 중심으로(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15: 222) 코딩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의미 있는 단위로 엮고 이름을 부여하는 코딩과정을 거치고, 코딩된 단위들을 보다 큰 범위로 묶어 범주화하며,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작성, 제시하였다(조홍식 외, 2015).

집단 1, 집단 2, 집단 3은 비록 같은 면접지를 사용하여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특성 및 면접 진행 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역동, 관심 주제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집단 1과 집단 2는 기관의 예산, 공간, 제공 프로그램, 지역연계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집단 3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지역연계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분석은 면접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된 참여자들의 구성은 분석 주제별로 상이하였다.<sup>42)</sup> 집단 4는 집단 1~3의 참석자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형태가 다르고<sup>43)</sup>, 이에 따라

42) '예산'은 집단 1과 집단 2의 참여자인 A, B, C, D, E, F의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집단 3의 참여자인 G, H의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연계'는 집단 1, 집단 2, 집단 3의 참여자인 A, B, C, D, E, F, G, H의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면접 내용이 상이하였으므로, 집단 4의 면접내용은 집단 1~3과는 별개로 분석하였다.

## 2) 조사결과

꿈드림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집단 1~3)들의 면접 내용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1) 기관 현황,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개선 방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지역사회 관심 및 지역연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연계기관 종사자(집단 4)들의 면접 내용은 (4) 연계기관 종사자들이 만나는 학교 밖 청소년 특징 및 연계 현황으로 별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 기관 현황

기관 현황과 관련해서는 예산, 공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경로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V-46).

표 V-46. FGI 참여 기관 현황 관련 조사결과

영역	범주	의미 단위
1. 예산	① 지역마다 다른 예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에서는 급식비만 지원(A)</li> <li>• 서울시의 절반 정도는 지자체 예산이 없음(A).</li> <li>• 국비 70% : 지방비 30%, 급식비는 국비 50% : 지방비 50%(C, D, E)</li> <li>• 외부사업: 지자체에서 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에 공모를 하여 프로그램 운영(C), 지자체의 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금 확보(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복지센터와 꿈드림센터가 같이 있는데, 두 개의 공간을 합쳐도 145제곱으로, 필수공간도 없는 상황(A)</li> <li>• 청소년들이 답소를 나눌 전용공간은 있으나, 상담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사용(B)</li> <li>• 공간 대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공간부족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C)</li> <li>• 읍에 있는 건물하나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전용공간이 부족하고, 화장실은 남·여 구분 없는 열악한 상황(D)</li> <li>• '렛츠런'을 통하여 공간을 확보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사무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사용(E)</li> </ul>
2. 공간	② 외부 공간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경우 외부 공간 대여(A)</li> <li>• 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경우 외부에서 진행(F)</li> </ul>

43) 집단 1~3(꿈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은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였으나, 집단 4(예: 카페 대표, 농장 대표 등)는 본업이 따로 있고, 꿈드림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기회 등 간헐적 연계사업을 진행한다.

영역	범주	의미 단위
	③ 공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에서 ○○와 협약하여 10년 무상임대로 전용공간 마련(C)</li> <li>실질적인 전용공간이 없어서 전용공간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의견 전달 중(D)</li> <li>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음(E).</li> </ul>
	④ 온라인 가상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 코로나19로 인하여 메타버스 등의 온라인 가상공간을 활용한 적이 있는 기관 종사자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이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함(E, F).</li> <li>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상공간에서의 만남보다는, 직접적인 교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음(A, F).</li> <li>중양부처 혹은 큰 기업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반영되어 마련될 때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A, E)</li> </ul>
3. 학교 밖 청소년 현황	① 코로나 이후 급증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이전 1,200명 정도였는데, 코로나19로 700명대까지 줄었다가, 최근 등교를 시작하면서 다시 급증하여 현재 1,100명 정도(G)</li> <li>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도에는 급감하였다가, 올해 초 전면등교가 시작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 증가폭은 상반기에 많이 쏟아지는 상황(H)</li> </ul>
	②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에서 2021년 저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H)</li> </ul>
4. 학교 밖 청소년 특징	①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연계 받아 상담(A, F).</li> <li>우울증, 거식증,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으며(F), 병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심각한 사례도 많음(B).</li> <li>꿈드림센터 종사자들도 심리적 상담이 필요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예: 우울, 불안)들이 많음(C, E).</li> </ul>
	② 목표가 뚜렷한 청소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있음(B).</li> <li>홈스쿨링을 하거나 진로를 뚜렷하게 갖고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음(C, D).</li> <li>학교 내신을 통한 대학진학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음(C).</li> </ul>
	③ 다문화 청소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부진, 언어로 인한 장벽, 불안정한 심리·정서(무기력 포함), 또래 관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D).</li> <li>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중 가정에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음(D).</li> </ul>
5.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경로	① 교육청 연계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청 연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성공률은 낮음(A, D, G, H).</li> <li>연계가 되어도,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가 많고, 꿈드림센터에서 연락을 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생각하거나, 이상한 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며(G), 전학이나 다른 사유로 해당 지역에 없는 경우가 많음(H).</li> <li>학교에서 정보를 주는 시점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H)</li> </ul>
	② 다양한 발굴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구의 소개(A, E, F, G, H), 검정고시장 등에서의 아웃리치(B, F, G, H), 꿈드림센터 수당(C) 또는 재난지원금(D) 이용, 온라인 홍보(SNS포함; B, D, G) 등을 통하여 발굴</li> </ul>

주: 1. 예산, 2. 공간, 4. 학교 밖 청소년 특징의 경우 집단 1과 집단 2의 참석자(꿈드림 시·군·구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종사자)인 A, B, C, D, E, F의 응답을, 3.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집단 3의 참석자(꿈드림 시·도 센터 현장종사자)인 G, H의 응답을, 5.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경로는 집단 1, 집단 2, 집단 3의 참석자(꿈드림 시·군·구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시·도 센터 현장종사자)인 A, B, C, D, E, F, G, H의 응답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였음.

### ① 예산: 지역마다 다른 예산 현황

지역마다 예산 현황이 달랐는데, 대부분의 지역 예산이 국비 70%, 지방비 30%로 이루어졌으나,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만 지원받는다는 지역도 있었다.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하거나, 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확보한 지역도 있었다.

### ② 공간

#### 가. 부족한 공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자체와 ○○의 협약으로 10년 무상임대 전용공간을 마련한 지역조차, 사무실, 바리스타 공간, 카페 공간, 다목적실,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간대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요일과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하여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C). 또한 한 지역의 종사자는 꿈드림센터의 독립적인 공간(작은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전용공간이 부족하고, 화장실은 남·여 구분이 없는 열악한 상황이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받고 싶어도 임대 상황이라 그것조차 할 수 없다고 보고 하였다(D).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간을 공유하는 센터가 많았는데, 꿈드림센터의 모든 공간을 합쳐도 145제곱미터로 필수공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없이 사무실과 상담실만 있는 형태인 곳도 있었다(A).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화 공간은 있으나 상담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유하고 있는 지역도 있었다(B).

D : ...꿈드림센터까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읍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의 전용공간도 부족합니다. 작게나마 상담실, 사무실, 상담대기실, 교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는 화변기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 나. 외부 공간 대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의 부족은 외부 공간의 대여로 이어졌다. 공간이 없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공간을 찾아 외부 공간을 대여하였다(A). 공간이 있더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큰 행사일 경우에는 외부의 공간을 대여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F).

#### 다. 공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장종사자들은 지자체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 지역

의 종사자는 꿈드림센터의 전용공간은 있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전용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대안을 조율 중에 있다고 하였으며(D), 또 다른 지역 역시 '렛츠런' 프로그램 공모 후 공간을 확보하였으나 여전히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E). 지자체의 노력으로 공간 확보가 이루어진 지역도 있었는데, 이 지역의 꿈드림센터는 지자체가 ○○의 협약(공공기관 장소 무상임대 협약)으로 10년 무상임대 전용공간을 마련해주었다고 하였다(C).

#### 라. 온라인 가상공간

온라인 가상공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실제 메타버스 등의 온라인 가상공간을 활용했던 기관의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이 화상으로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직접 교류하며 만나는 것을 선호하여 온라인 가상공간이 그렇게 활발히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E, F). 온라인방식의 모집 및 참여에 이러한 이유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종사자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온라인 활동을 준비하였는데도, 청소년들끼리 한 친구의 집에 3~5명씩 모여서 참여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서로 간에 직접적인 만남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A).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온라인 가상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온라인 가상공간을 마련한다면, 중앙부처 혹은 큰 기업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좋아할만한 요소를 반영한 가상공간이 마련되어야 청소년들이 활발히 활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A, E).

### ③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에는 본격적인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었다. G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700명 정도로 줄어들었던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슷한 1,100명 정도였다.

#### 나.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유입

H지역 센터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과 2021년에 지역의 센터별로 저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티머니 사업,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급식지원(식품꾸러미 보내주는 사업), 대안교육, 홈스쿨링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과 같은 복지에 대한 요청이 늘어났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었다.

#### ④ 학교 밖 청소년 특징

##### 가.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우울증, 불안, 거식증,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거론되었다(C, E, F). 특히,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들이 만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꿈드림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사례가 많다고 보고하였다(B).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함(B)으로 이러한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 나. 목표가 뚜렷한 청소년들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스펙트럼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B). 특히, 홈스쿨링을 하고 있거나 명확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의 대신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 목표가 뚜렷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였다(C, D).

##### 다. 다문화 청소년들

D지역의 꿈드림센터 종사자는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징으로,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심리·정서 상태, 학습부진, 언어로 인한 장벽,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에 대해 보고하였다. 외국에서 온 아버지 혹은 어머니 역시 본인의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소년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불안과 같은 심리·정서 상태는 물론이고, 큰 무기력감을 보이며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꿈드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D: ... 아무래도 다문화아이들의 어머니가 모국어는 알지만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언어에서 오는 장벽도 있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부진이 있으며 심리·정서적으로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중략) 더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학교 밖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을 직접 접해보면 많은 아이들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고, 굉장히 무기력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 ※ 다문화가정 지원 현장전문가가 인식하는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 특성

### 1. 다문화가정 자녀의 환경

#### (1)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선입견

한국 학생들은 타 인종,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일례로 백인에게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비해, 다른 동남아시아인이나 중국인에게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은 다수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 출신이 많은데, 이러한 나라 출신의 가정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또래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등 그들에 대한 선입견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 (2) 문화적 갈등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하나의 가정안에 부모로 인하여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는 부모의 다른 가치관, 생활태도로 청소년들이 혼란을 경험하고 결국, 자아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 (3) 돌봄의 부재 및 부모와의 갈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거나 고단한 경제활동, 고령 등의 이유로 양육 및 돌봄에서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며, 결혼이민자인 어머니는 국내에서의 소통 및 정보공유가 어려워 자녀들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의 부모와 본인의 부모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 2.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나와 사회에 들어서게 되면 두 가지 선입견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선입견이고,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선입견이다. 따라서 다른 학교 밖 청소년 혹은 다문화가정 자녀보다 더 큰 선입견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안에서 따돌림과 같은 부적응을 경험함에 따라 학교를 나온 후에도 이러한 피해로 무기력하고 사람을 경계하며,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등 은둔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꿈드림센터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출처: 본 연구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개최된 콜로키움(2022.9.29.)에서의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 현장전문가 발표 내용 요약]

## ⑤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경로

### 가. 교육청 연계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주요 경로로 대부분 교육청 연계를 우선 언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였다. 한 지역의 종사자는 교육청으로부터 꾸준히 학교 밖 청소년명단이 전달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0~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A). 교육청 명단을 가지고 연락해도 기관에 나와 보지 않고 1년 정도 놓고 싶다면 기관을 방문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보고도 있었다(D). 학교 밖 청소년명단이 넘어와도 이들에게 연락을 할 때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많은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친구관계 문제나 부모님들의 선택으로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아예 없애버려 연락을 취하기 어렵거나(G), 연락이 되어도 콧님센터에 오해하고, 개인정보유출로 생각하여 불쾌해하는 보호자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고 보고하였다(G). H지역의 종사자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정보연계 시점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서, 명단의 청소년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오래전에 학교를 그만두어 이미 콧님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등 행정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 나. 다양한 발굴 경로

교육청 연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중 기관을 이용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친구를 소개하여 발굴되는 경로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기관을 방문하는 청소년이 혼자 오기 민망하여 주변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방식이 흔하였다(A). 이렇게 친구의 소개로 오는 경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회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도 있었다(G, H). 이 외에도 점검고시장, 점검고시 접수장과 같은 곳에서의 아웃리치, SNS 홍보를 포함한 온라인 홍보를 통한 발굴사례도 많았다. 어떤 지역은 콧님센터 수당, 재난지원금 등을 이용하여 발굴하기도 하였다(C, D).

C : ...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콧님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지 그 수당이 나가는데 지금도 그 방법은 아이들의 상담이 중단됐을 때나 아웃리치에서 만났을 때 홍보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D : ... 부모님들이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놓고 개인정보를 작성하면 정리해서 지자체에 넘겨주고 개인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콧님센터에서 접수를 직접 받으면 저희도 발굴이 되고, 지자체에 있는 직원들도 업무를 맡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개선 방향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제공 프로그램, 경제적 지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V-47).

표 V-47.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개선 방향 관련 조사결과

영역	범주	의미 단위
1. 제공 프로그램	① 학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정고시 지원(예: 집단 및 개별 검정고시 대비 수업 진행, 개별 멘토링, 인터넷 강의 교재 지원, 검정고시 교재 지원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원으로 언급됨(A, B, C, D).</li> <li>진학지도와 관련하여 대학컨설팅 지원(A), 멘토링(C), 진학상담(C), 원서접수 지원(C) 등 진행</li> </ul>
	② 사회진입(취업) 관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증 취득(C, D)과 같은 지원(예: 코딩 자격증반, 컴퓨터반 등)부터 바리스타 프로그램(C, D), 창업프로그램(A), 진로캠프(C)까지 다양하게 진행</li> </ul>
	③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 이용 청소년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다양한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많았음.</li> <li>헬스장 연계, 스트리트 댄스 지원,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지원사업, 동아리 활동, 청소년참여위원단 활동 등 운영(A, C, D, F)</li> </ul>
	④ 어려운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후원금, 반찬 등의 지원(E) 뿐 아니라,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B)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제공</li> </ul>
2. 경제적 지원	① 수당, 지원금 등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마다 수당 지급에는 차이가 있었음.</li> <li>수당 지급을 분기별로 나누서 하면, 정기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고, 이를 통하여 꿈드림센터를 안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음(C).</li> <li>수당 지급은 학교 밖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님의 관심도 이끌 수 있는 수단(C, D)</li> <li>재난지원금을 꿈드림센터에서 접수받아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효과가 있었음(D).</li> </ul>
3. 효과적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	① 종사자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많은 종사자들이 인력 총원, 급여 인상, 복지 혜택 개선 등을 통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A, B, D, E, H).</li> <li>- 2~3명의 직원이 센터의 많은 일을 담당하기에 벅차고, 좋지 않은 처우로 인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현장을 떠나는 문제 발생</li> </ul>
	② 예산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A, D, E, H), 사업비가 부족하여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었음(A).</li> </ul>
	③ 독립적인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음(E).</li> </ul>
	④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매칭을 통한 지원, 혹은 소규모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음(B, D).</li> </ul>

영역	범주	의미 단위
	⑤ 지역 연계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에서 얻을 수 없는 자원 연계를 통하여, 지자체에 따른 지원에 차이가 없게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음(C, D, G).</li> <li>•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의 전문적인 업체와의 연계 필요(G)</li> </ul>

주: 1. 제공 프로그램의 경우 집단 1과 집단 2의 참석자(꿈드림 시·군·구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종사자)인 A, B, C, D, E, F의 응답을, 2. 경제적 지원과 3. 효과적 지원 위한 개선 방향은 집단 1, 집단 2, 집단 3의 참석자(꿈드림 시·군·구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시·도 센터 현장종사자)인 A, B, C, D, E, F, G, H의 응답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였음.

## ① 제공 프로그램

### 가. 학업 지원

학업과 관련해서는 검정고시 지원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집단수업과 개별 멘토링을 포함한 검정고시 대비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수업은 상시로 운영되거나 개별적인 수준에 맞게 대학교 선생님들의 1대1 수업 등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D, E). 검정고시 대비 수업 외에도, 직접적인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온라인 멘토링이나 인터넷 강의 교재 지원을 하였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장학재단의 비용으로 검정고시 교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C). 검정고시를 위한 지원 외에도, 진학 상담, 대학컨설팅 지원, 원서접수를 도와주는 지원 등 다양한 진학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A, C).

### 나. 사회진입 관련 지원(취업 등)

학업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사회진입 관련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코딩 자격증반, 컴퓨터반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바리스타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진로 캠프 등이 진행되었다(C, D, A). 특히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종사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옷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00만원 정도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한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은 실제 독립하여 창업에 성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A).

### 다.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 지원

학업과 사회진입 관련 지원 외에도 각 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소수 청소년의 의견도 듣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하려고 노력하였다(A). 스트리트 댄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행사에 참여하고 문화축제를 기획하였으며, 헬스장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문화·예술지원 사업, 문화체험, 다양한 봉사 및 동아리 활동, 청소년참여 위원단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A, C, D, F). 청소년참여위원단을 운영 중인 지역의 종사자는 위원단의 위촉식을 열어주고 위원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지자체의 군수를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동시에, 꿈드림센터 홍보 및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효과까지 이룰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D).

#### 라. 어려운 청소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및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금, 반찬 등을 지원하였으며, 고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도 이루어졌다. 임신을 한 상태인데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꿈드림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개입하여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미혼모시설과 연계하여 아이는 시설의 돌봄을 받게 하고 청소년은 학습 멘토를 통하여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는 등의 지원을 하였다(B).

### ② 경제적 지원

#### 가. 수당, 지원금 등의 지원

지역마다 수당 지급 여부,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금액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 지역의 종사자는 작년 ○○지자체에서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꿈드림센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보고하였다(D), ○○지자체는 전 지역의 꿈드림센터가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자체내의 ○○시에 서만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G). G지역에서는, 교통비를 증액하였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올해 추가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수당 지급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한 지역은 분기별로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지 않으면 패널티가 생기거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1년에 적어도 4번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C).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기관을 방문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잠시라도 기관의 종사자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C).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의 접수를 꿈드림센터가 받은 D지역의 종사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접수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당 지급은 학교 밖 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관심도 이끌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였다(C, D).

C: ...친구들이 가기 싫어한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전화 상담이 아닌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해하기도 하고 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때까지 꿈드림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었지만 30분~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 꼭 센터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1년 동안의 계획을 물어보면서 같이 정리하는데, 친구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체험이 있거나 지원할 것이 있으면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정고사라는 급한 불이 꺼지면 대학가기 전까지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관련 정보를 물어보는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 ③ 효과적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

#### 가. 종사자 처우 개선

FGI에 참여한 여러 종사자들이 인력 충원, 급여 인상, 복지 혜택의 개선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A, B, D, E, H). 특히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2~3명의 적은 인력이 많게는 수백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청소년들의 욕구 파악과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진행 등 담당 업무가 많아 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종사자 처우 문제로, 현장의 유능한 인재들이 현장을 떠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으며, 이는 남은 실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될 뿐 아니라, 그 직원과 관계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A: ...저희 센터는 저를 포함하여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무자 인력 부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여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계속 바뀌면서 청소년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떠나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E: **200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명의 실무자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상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 나. 예산 확충

예산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A, D, E, H). 사업비 부족으로 다른 업무가 많은 와중에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이러한 업무 과중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쓸 수 있는 종사자들의 시간을 뺏음으로써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하였다(A). 또한 지역마다 예산이 달라 지원의 지역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산을 충분하게 하여 규모가 작은 지역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D).

A: ...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라 저희 센터는 **공모사업을 5개,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예산이 꿈드림센터 예산의 두 세배 정도** 되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부분들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 독립적인 공간 확보

많은 종사자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독립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지역사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곳이 많고 꿈드림센터 공간마저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실무자들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라.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 제공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에게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B, D). 학교 밖 청소년은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1:1로 실무자와 학교 밖 청소년을 매칭하여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이 제공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B), 이와 비슷하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D).

#### 마. 지역연계의 필요성

다양한 차원의 지역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사자들만으로는 전문적인 지식 전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의 전문적인 업체 및 전문가들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G). 또한 지역마다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끼리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지역의 종사자는 해당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대학 진학 관련 지원이 대입설명회나 컨설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학습 지원, 개인 컨설팅, 전문적인 상담사 연결과 같은 지원을 위해 지역끼리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계는 지역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상이하다는 꿈드림센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G).

### (3) 지역사회 관심 및 지역연계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관심 및 지역연계 현황은 지역협의체와 지역연계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V-48).

표 V-48. 지역사회 관심 및 지역연계 현황 관련 조사결과

영역	범주	의미 단위
1. 지역 협의체	① 협의체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협의체가 없다고 응답한 곳이 많았고(A, E, F), 있더라도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회의 대상이 되었을 때만 꿈드림센터가 참여하는 정도였음(C, D).</li> <li>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과의 회의를 주최하려고 노력함(D).</li> <li>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장에 따라 간담회 등의 회의 개최(C)</li> </ul>
	② 지역연계 현황	<p><b>[꿈드림 시도 센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들과 청소년들을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G)</li> <li>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추어 지역사회의 기관을 찾아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들의 욕구 우선 파악 후, 연계 기관을 찾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G)</li> <li>크게는 기업과 연계하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까지 다양하게 진행(H)</li> </ul> </li> <li>대도시인 H의 경우, 큰 기업들은 물론 작은 개별 업체들까지 연계 진행</li> </ul> <p><b>[꿈드림 시·군·구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규모에 따라 지역연계 상황이 달랐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도시에서는 주로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나 대형병원, 대학교, 지자체 운영 센터 등을 통해 연계가 이루어졌고(A), 농촌 지역은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농장과 연계를 진행하였음(D, E).</li> </ul> </li> <li>지역의 대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으며(C), 정보박람회, 컨설팅, 직업전공체험, 진로특강, 바리스타 자격증반, 제과제빵 대비반 등 대학 진학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C, E).</li> <li>다양한 분야와의 지역연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페를 통한 바리스타/일자리 체험과정 제공과 청소년도서관을 통한 글쓰기반 운영, 레저소 집위원회를 통한 레저스포츠 체험 제공 등 다양하게 진행(C, F)</li> </ul> </li> <li>다양한 자원(예: 강사진, 예술체험촌)과 MOU를 맺어 진행하기도 하였음(D).</li> <li>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심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을 통해 기회 제공(D, F).</li> </ul>
2. 지역 연계	② 성공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일을 하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이 지역 연계 카페에서 일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G)</li> <li>과거에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교 밖 청소년이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직원이 된 사례(H)</li> </ul>
	③ 지역연계 시 어려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의 기관, 업체들은 그들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봉사 차원에서 그들을 연계하기가 쉽지 않음(G, H), 세금감면, 지원금과 같은 실질적 혜택 필요(G)</li> <li>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H)</li> </ul>

주: 1. 지역 협의체의 경우 집단 1과 집단 2의 참석자(꿈드림 시·군·구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종사자)인 A, B, C, D, E, F의 응답을, 2. 지역연계의 ① 지역연계 현황은 집단 1, 집단 2, 집단 3의 참석자(꿈드림 시·군·구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시도 센터 현장종사자)인 A, B, C, D, E, F, G, H의 응답을, 2. 지역연계의 ②성공적인 사례와 ③지역연계 시 어려운 점은 집단 3의 참석자(꿈드림 시·도 센터 현장종사자)인 G, H의 응답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였음.

## ① 지역협의체

### 가. 협의체의 부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협의체가 존재하는지, 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논의를 위한 지역사회의 정기적인 회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반 정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의 참여자들도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협의체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최하는 실행위원회 정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C, D). 이러한 회의는 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모든 실행위원회에 꿈드림센터 종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 회의의 대상이 될 때에만 꿈드림센터 종사자도 참여하였다(D).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지자체장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였는데, C지역의 전·현 시장 및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커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시장과 매년 한 번 정도씩 간담회를 갖고 직접 학교 밖 청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회의를 주최하였다고 보고하였다(코로나19 이후로는 없어짐).

## ② 지역연계

### 가. 지역연계 현황

꿈드림 시·도 센터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체험 기회 등의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들을 발굴하여 꿈드림 시·군·구 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G지역에서는 지역연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들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였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현재 약 20여개의 사회적 기업 혹은 마을공동체 기업을 학교 밖 청소년과 연결해주고 있었다. 단순히 지역사회의 기관을 발굴하고, 발굴된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을 맞추기보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관을 찾아 연결해주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의 중도 탈락률도 낮아지고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보고도 있었다(G).

G: 단순히 업체를 나열해놓고 아이들을 넣는 방식은 지양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욕구에 맞춰 업체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중도 탈락률도 낮고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작년에는 5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는데, 욕구에 맞추어 연계를 하다 보니 중도 탈락자는 한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공연티켓 배부와 같은 문화체험 기회 제공부터, 큰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대기업 호텔서비스, 바리스타 훈련 등의 기회를 연계해주시기도 하였다(H). 학교 밖 청소년

에 대한 직접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꿈드림 시·군·구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역 규모에 따라 양상이 다른 지역연계현황을 보였다. 대도시에서는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나, 대학 병원과 같은 대형병원, 대학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예: 창업지원 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한 연계가 주를 이룬다고 하였고(A),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농장과의 연계가 진행되기도 하였다(D, E). 농부체험을 제공하는 D지역에서는 8~9개월 정도의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와 관련하여 충분히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E지역에서는 농장과의 연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확한 작물을 직접 판매까지 진행하여, 그로 인해 얻게 된 수익금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지역사회 연계기관 중 대학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C). 대학에서 제공하는 체험은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으로 연결될 수 있어, 대학 차원에서 이러한 연계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춤, 창업, 헬스 등 특화사업에 대학 측에서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는데, 교수들이 창업 컨설팅을 해주거나, 춤과 관련된 강사진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A). 또한 대학 측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공 페어, 정보박람회, 컨설팅, 직업전공체험을 따로 열어주기도 하였다(C). 이외에 대학 측에서 바리스타 자격증반, 제과제빵 대비반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실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과제빵을 배웠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E).

이처럼 다양한 분야와 지역 연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카페를 통한 바리스타 체험 및 일자리 체험 제공은 물론(F), 청소년도서관과 연계하여 독서·글쓰기 반을 운영하기도 하고, 레저 소집위원회에서 패러글라이딩, 빙상과 같은 여러 레저 종목을 무료로 지원받기도 하였다(C). 지역의 여러 강사진, 관계기관, 예술체험촌과 같은 여러 지역 자원들과 MOU를 맺어, 이러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D), 1388 지원단과 연계하여 주변의 카페들을 소개받아 인턴십 과정을 진행하였다(F).

#### 나. 성공사례

G센터 종사자는 ○○카페에서 직업체험을 경험한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였고, 카페에서의 경험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부연하였다. 이 카페에서 일한 학교 밖 청소년 중 많은 수가 우울 증세가 있거나 자살 혹은 자해

문제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다른 일반 사업장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센터에서 관리하는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일 경험을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 종사자는 베이킹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업체를 알아보던 중, 한 업체의 직원이 과거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직업체험 경험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H).

#### 다. 지역연계 시 어려운 점

FGI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지역연계를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업체들을 만날 때, 본래의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복지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관과 업체에서의 경험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마음만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였다(G, H). 또한 더 많은 기업체들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G). 한편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실제로 진로체험현장에 들어갔을 때 중퇴나 검정고시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청소년들과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H).

#### (4) 연계기관 종사자들이 만나는 학교 밖 청소년 특징 및 연계 현황

지역사회 연계기관 종사자들이 만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징 및 연계 현황은 꿈드림 센터를 알게 된 경로, 진행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특성, 애로사항, 지역연계 관련 발전방향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V-49).

표 V-49. 연계기관 종사자들이 만나는 학교 밖 청소년 특징 및 연계 현황 관련 조사결과

영역	범주	의미 단위
1. 꿈드림 센터를 알게 된 경로	①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참여자들이 취약계층과 이들의 지원에 관심이 있었음.</li> <li>꿈드림센터를 통해 검정고시 멘토를 해줄 정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며(K),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종사자로, 다문화가족, 장애가족과 지역의 취약계층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었음(J).</li> <li>카페 운영 중인 연계기관 종사자는 대학교 때 상담심리를 전공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선·후배들이 꿈드림센터 Wee센터와 같은 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해당 사업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였음(L, I).</li> </ul>

영역	범주	의미 단위
	② 꿈드림센터 종사자와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의를 꿈드림센터 종사자로부터 받거나(J), 주변 지인, 혹은 지인을 통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과의 만남을 주선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됨(I, K, L).</li> </ul>
2. 진행 프로그램	① 다양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들의 욕구에 따라 지역 연계 기업들이 발굴되어지는데, 면접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농장체험(K)과 카페체험(I, J, L)을 제공하고 있었음.</li> <li>비영리법인의 종사자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어서 카페뿐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경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음(J).</li> </ul>
	② 단순 체험에서 취업까지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체험 제공을 통해 알게 된 학교 밖 청소년을 실제 채용까지 한 종사자가 있었으며(L), 본인의 카페는 아니지만 직장 체험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른 카페에 종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알고 있다는 종사자도 있었음(I).</li> </ul>
3. 학교 밖 청소년 특성	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중퇴를 했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있었는데,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누구보다 성실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모습을 알게 되어 현재는 편견이 사라진 상태임(I, L).</li> </ul>
	② 다양한 스펙트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서적으로 불안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하거나 자해를 시도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부터, 성인 직원들보다도 더 성실히 일하거나, 대학을 진학한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I, K, L).</li> </ul>
	③ 과거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차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랜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난 연계기관 종사자는 과거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비해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목표의식이 더욱 뚜렷하고 꿈드림센터의 다양한 지원 덕분에 체험의 폭,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보고하였음(K).</li> </ul>
4. 애로사항	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K).</li> </ul>
	②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연락을 끊고 약속된 시간에 나오지 않아 곤란한 적이 있었음(K).</li> <li>체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있어 체험에 진지하게 임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 필요(J, K)</li> </ul>
	③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직장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 기본 지식을 가르치는 데 시간이 많이 투입됨, 청소년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신경을 쓰면서 에너지 소모가 큼(I, L).</li> </ul>
5. 지역연계 관련 발전방향	① 학교 밖 청소년관련 사전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연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작 전 학교 밖 청소년의 이해를 위한 충분한 교육 필요(I)</li> </ul>
	② 센터의 개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가 본인의 일을 하면서, 통제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관리(멘토링 진행)하기 어려움. 이러한 부분에서는 센터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함(L).</li> <li>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J).</li> </ul>
	③ 다양한 분야 및 취업연결까지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 체험 후 다른 곳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음으로, 취업 연계까지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I, J)</li> <li>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으며(J, L), 3차 산업 외에, 1, 2차 산업에도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K).</li> </ul>
	④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 해소되어야 함(J).</li> </ul>

영역	범주	의미 단위
	⑤ 지역적 연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마다 제공할 수 있는 체험의 종류가 다르므로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I)</li> <li>연계기관 실무자들 간의 교류 필요(I)</li> </ul>

주: 해당 영역은 연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집단 4의 참석자인 I, J, K, L의 응답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였음.

## ① 꿈드림센터를 알게 된 경로

### 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면접에 참여한 연계기관 종사자 모두가 오랜 시간 동안 취약계층 혹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K종사자는 오래전 검정고시 학원에서 일하다가 꿈드림센터를 통하여 검정고시 멘토로 활동하는 중에 해당 사업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등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종사자는 법인 특성상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관심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J). 카페를 운영 중인 종사자는 대학생 때 상담심리를 전공하면서 취약계층에 관심이 있었는데, 과거 위클래스에서 청소년들에게 상담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험도 있었다(I). 선·후배들 중에 꿈드림센터나 Wee센터 종사자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꿈드림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L).

### 나. 꿈드림센터 종사자와의 만남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꿈드림센터의 제안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센터와의 연계가 진행되고 있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구체적인 지원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실천으로 바뀌게 되었다.

## ② 진행 프로그램

### 가. 다양한 분야

면접에 참여한 연계기관 종사자들은 사회적 농장에서의 농사 체험, 카페에서의 바리스타, 종업원 등의 일자리 체험,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 경험, 행정업무 경험 기회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농장 체험은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험 뿐 아니라, 농작물을 수확하고, 가공하여, 판매까지 하는 일련의 경험을 제공하였다(K).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수익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등록금으로 기부하여

단순히 농사 체험뿐 아니라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K). 카페에서의 체험은 지역마다 시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기관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약 100시간 정도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L),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훈련 차원에서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I).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법인의 종사자는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관련 경험 기회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원했던 청소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J).

#### 나. 단순 체험에서 취업까지 연결

이러한 체험이 실제 취업까지 연결되는 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한 카페의 종사자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학교 밖 청소년이 성실하게 일함에 따라 실제 채용까지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L). 두 명을 채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자신감도 없어 고객을 상대할 때 낯을 가리거나 부끄러워했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능숙하게 응대하고 성장하면서 채용으로 연결됐다고 보고하였다(L). 또 다른 종사자는 본인의 카페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이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다른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I).

### ③ 학교 밖 청소년 특성

#### 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변화

카페에 종사하고 있는 두 명의 종사자들은 꿈드림센터와의 연계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선입견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I, L).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마다 특성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I). 또한 다른 성인 직원들보다 더욱 성실히 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면서 편견이 사라졌다고 보고하였다(L).

I: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아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경험을 해보면서 아이들마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L: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만 제공해 주면 된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자퇴 등의 이유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20-30대 직원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한 모습들을 보니 저의 편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실하게 일을 잘 하다 보니 채용까지 하게 된 경우가 있었고...

#### 나. 다양한 스펙트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기 어렵거나, 심하게는 정서적인 불안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거나, 누구보다 성실한 사례 등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I, K, L).

#### 다. 과거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차이가 있음

오랜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났던 연계기관의 종사자는 과거의 학교 밖 청소년과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K). 과거의 학교 밖 청소년들보다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목표 의식이 더 뚜렷하고, 꿈드림센터로부터 지원을 다양하게 받으면서 경험의 폭이 넓어져, 사고의 폭도 넓어진 것 같다고 하였다(K).

### ④ 애로사항

####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연계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불량 청소년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K).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종사자는 장애인들도 고용하여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보다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느꼈을 정도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점에 대해 토로하였다.

K: 농장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비장애인분들이 아이들을 불량청소년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식의 개선보다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의 자존감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 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성실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종사자들도 있었다.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K), 참여는 하지만 진로체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하였다(J, L).

J: 제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징은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여를 했을 때 **자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참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역의 청소년센터 담당 팀장님께도 지속적으로 문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꿈드림센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떻게 아이들을 끝까지 참여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투여되는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큼

한 카페 종사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카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직업 체험을 하러 오기 때문에, 기본 지식을 가르치다가 3개월의 체험 시간을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I). 다른 종사자는 본인의 일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멘토링하고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경을 쓰는 일이 에너지 소모가 크고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L).

#### ⑤ 지역연계 관련 발전방향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전 교육 필요

한 연계기관의 종사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기관의 종사자들 중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청소년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본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를 보았다고 하였다(I).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 센터의 개입 필요

연계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센터 종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계기관 종사자들은 본인의 일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간혹 통제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만날 때 그 청소년들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주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신체적·심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으며(I), 학교 밖 청소년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I), 필요한 경우 연계기관 활동과 더불어 전문적인 상담도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J).

#### 다. 다양한 분야 및 취업 연결까지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J). 구성된 연계 프로그램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맞추기보다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심 분야에서 직업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L).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종사자는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다양함에 따라, 3차 산업 외에도 1, 2차 산업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K).

또한 이러한 직업체험이 취업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 카페 종사자는 본인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본인의 카페에서 청소년들이 업무 역량을 기른 후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한 그 카페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한다고 하였다(J). 이러한 직업체험이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 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직업체험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J). 과거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 큰 어려움 없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J).

#### 마. 지역적 연계 필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I). 지역마다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직업군이 연계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역 연계는 학교 밖 청소년들 간의 교류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연계기관 종사자(대표)들도 서로 교류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I).

## 4. 지역사회 지원방안 제언

### 1) 분석결과 요약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관<sup>44)</sup>

본 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들을 알아보고,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진로 관련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책무를 바탕으로 2015년 여성가족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가 신설되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설립·운영되었다. 현재 꿈드림센터는 전국에 220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생활기록부 등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업중단 예방 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행 중에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하여, 학교를 그만둘 의사를 밝히거나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숙려 기간을 갖게 함으로써 학교 복귀를 유도하며, 여러 지원을 안내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유도하고 여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을 통해 친구랑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지원·창출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대상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들이 수행되고 있다. 각 꿈드림센터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및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자립·진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진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역의 자립·진로 지원 사례로서 전라남도 곡성군의 학교 밖 청소년 협동조합인 카페 다얼, 위기청소년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인 스마일어게인을 살펴보았다. 카페 다얼은 꿈드림센터 종사자와 학교 밖 청소년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단순한 직업체험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 제공을 넘어서서 자기 주도적 자립으로까지의 지원 제공을 위하

44) 이하의 요약은 앞의 본문에 해당 인용 출처와 함께 제시된 내용으로, 가독성을 고려하여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여 설립하였다. 스마일어게인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학교 밖 청소년 뿐 아니라 미혼모와 같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한다.

##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는 중소도시 꿈드림센터(2021년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구 20만 미만 소도시 센터 제외)의 총 47명의 종사자가 참여하였다. 조사결과, 꿈드림센터 주요 이용 경로는 '학교·교육청을 통해서'(59.6%)였고, 독립된 전용공간을 확보한 비율은 36.2%로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의 10곳 중 6~7개의 꿈드림센터가 독립된 전용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드림센터 공간에 대한 인식 문항인,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질문에서도 87.2%의 종사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꿈드림센터가 건강검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건강검진 외에도 직업훈련지원, 급식지원(95.7%)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는 교통비 지원(36.2%)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많은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에 83.0%,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에 78.7%,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에 66.0%가 긍정 응답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가족의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종사자들이 많았다. 꿈드림센터와 관련해서는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률과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률(각 91.5%)이 높았다. 지역사회 및 정부에 대해서는, 행정업무가 많고(97.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95.7%)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 관련 인식으로는 해당 꿈드림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협력체계가 잘 되어 있고(83.0%),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는(80.9%)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종사자 중 2명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지역규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95.7%).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들의 74.5%가 꿈드림센터에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의 이용 중단 이유로는 타 지역으로의 이사 혹은 타 지역 꿈드림센터로의 이동 때문이라는 응답이 63.8%로 가장 높았다.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의 48.9%는 시·도 센터가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6.2%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교육청과의 연계 강화, 질적으로 우수하며 지역별 욕구 및 특색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다양한 직업 훈련처 확보, 비대면 프로그램의 내실화, 전문 상담원 확충,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확충, 독립적 공간 확보,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센터 인식개선 등이 제안되었다.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지역 연계기관 현장종사자 면접조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지역 연계기관 현장종사자 대상 면접조사는 총 4개 집단의 FGI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기관 현황과 관련해서, 예산은 지역마다 모두 다른 상황을 보였으며, 기관의 공간은 매우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온라인 가상공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더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었다. 또한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보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시에 과거와는 다르게 목표가 뚜렷하여 본인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언어로 인한 장벽, 학습 부진, 무기력을 포함한 불안정한 심리·정서 상태, 또래 관계 및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보고되었다. 효과적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확충, 독립적인 공간 확보, 1:1 매칭 혹은 소규모 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지역 연계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지역사회 관심과 지역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나 협의체가 없다고 응답한 종사자들이 많았다. 지역연계를 위하여 시·도 센터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과의 연결을 주선하고 있었으며, 시·군·구 센터는 대형 병원, 대학교, 큰 기업에서부터 지역의 사회적 농장, 카페 등의 소기업까지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외에, 봉사 차원으로만 연계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등이 언급되었다. 연계기관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관심이 있어왔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농작물 재배 및 판매, 카페에서의 바리스타 체험, 종업원 체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행정업무 경험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애로사항으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점,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지시키기 어려운 점, 투여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들이 도출되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사전 교육의 필요성,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의 개입,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이 제안되었다.

## 2) 정책적 시사점<sup>45)</sup>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크게, 꿈드림센터 지원,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우수성 제고, 지역연계 활성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그림 V-6 참조). 우선 꿈드림센터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모든 지역에서 필요하다. 특히 읍·면/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는 독립 공간 확보 비율이 11.1%로 매우 낮았는데, 작은 지역일수록 꿈드림센터를 제외한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적은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독립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김희진 외, 2021a).

꿈드림센터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적 우수성 제고	지역연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적인 공간 확보</li> <li>• 예산 확충</li> <li>• 종사자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개선 및 인력 확충</li> <li>- 고용의 안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다양화</li> <li>• 전문 상담 지원 강화</li> <li>• 이주배경(다문화)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준비</li> <li>• 경제적 지원 확대</li> <li>• 지역 및 개인 맞춤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연계기관 확보</li> <li>• 연계기관 종사자 대상 사전 교육</li> <li>• 연계기관에 보상책 지급</li> <li>• 학교 밖 청소년 부정적 인식 개선</li> <li>• 꿈드림 홍보</li> </ul>

그림 V-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관련 정책적 시사점

또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많은 현장종사자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토로하였다. 한 종사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모 사업 참여는 종사자들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울여야 할 시간과

45) 2022년 면접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며, 필요시 이전 연구(1차년도~4차년도) 결과도 함께 활용하였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임금 개선, 인력 확충, 고용의 안정화 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종사자 처우개선은 매년 설문조사와 면접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개선사항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아 종사자들의 인력 소모가 크고, 읍·면/소도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적지만, 대도시에 비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많아 개별적인 맞춤 지원을 하는데 있어 인력 소모가 큼에 따라(김희진 외, 2021a), 꿈드림센터의 인력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임금 개선, 고용 안정화 등의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되고, 질적으로도 향상되어야 한다.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거나 학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업을 지속해나가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아졌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학업 지원, 직업체험 및 진로 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진입 관련 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 FGI에서 여전히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울, 불안, 대인기피와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전문 상담 인력 확충과 상담·정신건강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가정불화 등으로 위축된 경우가 많고, 은둔하거나 소극적, 무기력한 경우가 많아 발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적은 수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의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FGI에서 몇몇 종사자들은 지역 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후원금, 반찬 등을 지원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실제로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정기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날 수 있었다는 종사자도 있었다. 재난지원금을 꿈드림센터를 통해 신청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에 도움이 된 사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징이 같지 않고, 또 지역별로 환경적 특징, 인프라의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및 지역 인프라에 맞추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집단을 위한 혹은 1:1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례관리의 내실화, 통합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꿈드림센터 내에서만 직업체험과 같은 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

가 있으므로, 지역연계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꿈드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업 및 일자리 경험 관련 지역연계 기관도 카페, 대학교 등과 같이 한정된 기관들과 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외받는 지역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없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가 확대되어야 한다. 대도시에서는 대기업, 대형 병원 등과 같이 큰 기관에서부터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 등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 읍·면/소도시에서는 지역의 작은 카페 혹은 미용실과 같은 기관과의 연계로 한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김희진 외, 2021a). 읍·면/소도시 지역에는 기업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도시와 연계한다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직업체험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지역 연계기관들에게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연계기관들은 본인의 주 업무가 따로 있고 부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유도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내 부정적인 인식과 꿈드림센터에 대해 잘 모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GI에 참여한 지역사회 연계기관의 한 종사자는 동료들 중에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비행청소년으로 오해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지역연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꿈드림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 — 제6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 2.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 3.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방안



## 1. 주요 연구결과 요약<sup>47)</sup>

### 1)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조사

#### (1) 2018~2022년 질적패널조사 개요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조사는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 패널은 2013년부터 본원에서 수행한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의 양적 패널이었으며, 대부분 그 이전에 학교를 그만둔 상태여서 이 질적패널조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였다. 이들은 2018년에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들이다. 따라서 2018년에 처음 패널로 구축할 때도 가능한 학업, 직업, 무업형 등의 이행경로 유형과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등 거주지와 성별을 고려하여 할당, 선정하였다(윤철경 외, 2018: 9).

2018년에 패널로 구축되어 1차 조사를 실시한 기존 패널은 2019년에 2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부 군입대를 포함한 패널 이탈로 48명이 면접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당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의 필요성으로, 기존 패널은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면접에 참여하였다. 2020년의 지역사회 지원방안 대상지역이 대도시임에 따라, 추적이 가능했던 패널 중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22명은 면접조사를,

46) 이 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과 서고운 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47) 올해가 2018년부터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협동연구의 마지막 수행연도임에 따라 1절에는 그동안에 수행된 주요 연구결과들과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할 필요성 때문만이 아닌 이에 기반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1절 내용은 2018년~2021년도 연구의 주요내용(김희진 외, 2020; 김희진 외, 2021a; 윤철경 외, 2018; 장근영 외, 2019)과 2022년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함께 요약, 정리한 것으로 가독성을 위하여 문장마다의 세부 출처는 생략하였다.

그리고 이외 20명의 패널은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패널관리 및 근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2021년에는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의 초점이 지방 소도시와 읍면지역임에 따라 전년도와는 반대로 패널관리조사 대상이었던 패널은 면접조사에, 그리고 다른 지역의 패널들은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하였다. 2022년에는 2020년과 2021년에 면접조사에 참여한 패널들 중 접촉 가능한 40여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면접에 응하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 중 2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기존 패널들의 연도별 조사 참여 현황은 표 VI-1과 같다.

표 VI-1.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연도별(2018~2022년) 조사 현황

구분	2018년(1차)	2019년(2차)	2020년(3차)	2021년(3차) <sup>주)</sup>	2022년(4차)
나이	만18~24세	만19~25세	만20~26세	만21~27세	만23~28세
조사완료 패널 수	면접조사 : 60명	면접조사 : 48명	42명 (면접조사 : 22명, 패널관리조사 : 20명)	37명 (면접조사 : 18명, 패널관리조사 : 19명)	27명
특이사항	성별, 지역규모, 유형별 할당		면접조사: 대도시 거주자	면접조사: 중소/읍면지역 거주자	면접태도 성실성, 사례 중요도 고려

주: 2020년도 조사대상자와 다른 지역의 거주자로서 2021년도 조사 참여자들은 2019년의 2차 조사에 이어 3차 조사에 참여함

\* 출처: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I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98 표 업데이트

기존 패널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였는지, 청년기에 어떠한 애로사항을 경험하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당시와 현재와는 큰 시간차가 있고 또 사회 및 정책환경상의 변화로 구체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주는 함의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5년 전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에는 비교적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규 패널을 구축하였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 이용 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불규칙했고, 또 청소년쉼터 등에서도 해당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또한 한정된 연구범위에서 기존 패널에 대한 면접조사와 동시에 신규 패널의 구축과 면접조사를 진행했어야 함에 따라 인원수는 35명 내외로

하되, 학교 밖 이행경로에 따른 유형을 최대한 안배하여 만 15~19세의 청소년들로 패널을 구축하고 1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에는 일부 패널들이 이탈함에 따라 추가 패널을 구축하였는데, 2021년의 다소 불균형했던 지역규모 할당을 고려하여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집중적으로 14명의 추가 패널을 발굴하였다. 이에 2021년에는 2020년에 1차 면접을 완료한 청소년 24명과 추가 패널 14명까지 총 38명의 면접을 완료하였다. 2022년에는 전년도 면접참여자를 추적하였는데 초반에는 상당수 면접참여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단순 변심이나 수능 및 대학입시 준비 등을 주요 이유로 실제 면접을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24명이 면접에 참여하였다, 15명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3차 면접조사까지 완료하였고, 나머지 9명은 전년도에 이어 2차 면접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면접참여자에 대한 현황은 아래 표 VI-2와 같다.

표 VI-2.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연도별(2020~2022년) 조사 현황

구분	2020년(1차)	2021년(2차)	2022년(3차)
나이	만15~19세	만16~20세	만17~20세(주)
조사완료 패널 수	33명	38명	24명
특이사항	성별, 학교 밖 청소년 유형 안배, 할당	24명은 2차 조사 14명은 1차 조사(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패널 추가)	15명은 3차 조사 9명은 2차 조사

주: 전년도 만 20세 패널이 2022년 면접에 참여하지 않음.

2018년에 실시된 1차 연구의 면접 조사 내용은 표 VI-3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 자립에 미치는 요인으로 미시체계(개인과 가족), 중시체계(지역사회, 이웃, 또래관계, 학교, 학원, 직장 등), 거시체계(경제사회구조, 정책, 교육체계)가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어떻게 여여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과 위의 체계들과 관련된 면접문항들을 개발하였다(윤철경 외, 2018: 9-10). 그리고 조사내용은 2018년의 면접조사내용을 기본 틀로 하여 재검토하면서 전년대비 상황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였고, 특히 신규 패널이 구축된 2020년 면접조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 검토 및 자문과정을 거쳐 일부 면접내용들을 추가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취업과 관련된 상세 내용, 심리적 측면에서 학교를 그만둔 사건에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고,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도 추가하였다. 더불어 지자체 내 지원 내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내용도 포함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는 면접조사내용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면접을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본 연구의 마지막 면접법에 따라 학업중단을 포함한 청소년기 경험에 대해 다시 회고하도록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안 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그동안 수년간 본 면접에 참여한 경험이 어떠했는지 회고하는 내용을 면접에 포함하였다.

표 VI-3.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조사 내용

구분	2018~2019년 면접내용	2020~2021년 추가 내용	2022년 추가 내용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교를 그만둔 시기</li> <li>현재 주로 하는 일/장래 희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대비 변화 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추가사항 없음.</li> </ul>
현재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하고 있는 일</li> <li>하루 일과: 자유 시간 중심</li> <li>현재 주요 관심사/고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정규직/비정규직 등 상세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추가사항 없음.</li> </ul>
학업중단후 주요 경험과 계기적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업중단후 경험과 기간</li> <li>변화의 계기와 의미 및 학업 중단경험의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전환점으로서의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li> <li>트라우마, 불이익/차별 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업중단에 대한 후회</li> <li>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 청소년기 경험</li> </ul>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계획 및 희망 직업</li> <li>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 결혼과 자녀 및 자립준비/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경제상태, 학업중단에 따른 진로 준비/취업 어려움</li> <li>주 수입원, 주거상황, 재테크 현황, 대출 및 채무 유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에 대한 걱정/불안 극복 방안</li> </ul>
자신에 대한 생각(정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에 대한 생각</li> <li>의욕/동기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기 이행 시기 인식, 성인으로서의 정체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경험과의 관계 성 탐색</li> </ul>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중한 사람,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li> <li>이외에 중요한 관계</li> <li>학업중단 이후 인간관계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고립감 유무와 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구성 및 결혼관 등</li> </ul>
지역사회/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의 공간적 범위</li> <li>지역사회에서의 주요 경험과 인식, 도움 경험</li> <li>사회에 대한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수준의 지원 내역 및 아쉬운 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대한 의견</li> <li>낙인/차별 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에 대한 의견</li> </ul>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관련 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동안의 본 면접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회고</li> </ul>

\* 출처: 김희진 외(2020), 김희진 외(2021a), 윤철경 외(2018), 장근영 외(2019) 연구와 올해 연구내용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위한 면접 내용은 기존 패널의 2018년 면접 내용을 기본틀로 하였다. 여기에 신규 패널의 연령대 및 발달단계를 고려하였고, 또 최근에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사회·환경적 변화와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면접 내용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조사내용을 추가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접조사지를 개발하였으며, 확정된 면접내용은 표 VI-4와 같다. 신규 패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부모 및 가정 배경을 더 강조하였고, 학교를 그만둔 당시의 계획과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학업중단속려제 경험 여부 및 내용,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의 정체성 변화, 본격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경험과 지원 요구 등이 추가되었다.

표 VI-4.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조사 내용

구분	2020년 면접내용 <sup>주)</sup>	2021년 추가 내용	2022년 추가 내용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 연령, 거주 지역, 학교를 그만둔 시기</li> <li><b>부모 및 가정 배경 확인</b></li> <li>현재 주로 하는 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대비 변화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추가사항 없음.</li> </ul>
현재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하고 있는 일: 학업, 취·창업 준비, 일·아르바이트 경험, 무업 시 일정</li> <li>하루 일과: 자유시간, 취침시간 등</li> <li><b>학교를 그만둔 당시의 계획 및 현재 하고 싶은 일과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b></li> <li>현재의 주요 관심사나 고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추가사항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추가사항 없음.</li> </ul>
학업중단 경험과 이후 변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업중단 사유 및 결정 과정(<b>학업중단속려제 경험</b>)</li> <li>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영향</li> <li>학교중단에 따른 어려움, 만족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생각의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재학을 가졌했을 때 현재와의 비교</li> <li>학업중단 과정에서의 학교/정부의 역할</li> </ul>
자신에 대한 생각 (정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에 대한 생각: 자존감, <b>정체성 변화(학생→학교 밖 청소년)</b></li> <li>의욕/동기 수준: 무기력 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생애사건 및 영향</li> <li>심리정서적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 청소년기 경험</li> </ul>
미래/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앞으로의 계획 및 희망하는 직업과 이를 위한 준비 여부와 그 이유</li> <li>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 걱정/불안</li> <li>진로 결정 여부/기준, 희망 직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 및 주거 상황(주 수입원, 소비 및 재테크 현황)</li> <li>자립의 의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출, 채무 유무</li> <li>성인기 이행과 자립</li> </ul>
관계 (지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감동), 교사, 또래와의 관계</li> <li>소중한 사람, 영향을 끼친 사람 등</li> <li>이외 중요한 관계: 지원기관 종사자 등</li> <li>학업중단 이후 인간관계의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추가사항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고립감, 결혼관, 가족구성 등</li> </ul>
지역사회와 사회일반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의 공간적 범위(지역사회 인식)</li> <li><b>지역사회에서의 도움 경험(꿈드림 포함)</b></li> <li>지자체 지원 내역, 아쉬운 점</li> <li>지원 애로사항, 지원 요구</li> <li>사회에 대한 인식, 차별 경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추가사항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요구 (꿈드림센터)</li> </ul>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관련 경험 및 지원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동안의 본 면접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회고</li> </ul>

\* 출처: 김희진 외(2020), 김희진 외(2021a), 윤철경 외(2018), 장근영 외(2019)의 연구와 올해 연구내용

주: 굵은 글씨 처리한 내용은 기존 패널 면접에서 추가, 강조된 부분

이후 매년 면접조사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면접 내용을 추가하였다. 2021년에는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전년대비 생각의 변화, 학교를 그만둔 일을 포함한 생애사건 및 그 영향, 관련 맥락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 경제 및 주거 상황(주수입원, 소비 및 재테크 등), 자립의 의미, 코로나19관련 경험과 지원요구도 추가되었다. 2022년 면접에서는 학교를 계속 다녔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상황과의 비교,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의 학교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 청소년기 경험이 추가되었다. 이외에 대출 및 채무 유무, 사회적 고립감, 결혼관 등에 대한 질문이 더해졌고, 올해 면접조사가 마지막임에 따라 기존 패널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본 면접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기존 패널 및 신규패널 면접대상자가 수십 명에 달함에 따라 연구진 차원에서 모든 면접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패널관리 및 접촉은 조사위탁기관을 통해, 그리고 면접참여는 연구진이 일부 참여하되, 관련 전공의 유자격자를 면접원으로 선발, 활용하였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공동연구진인 질적연구 전문가와 유관 전공 대학원생들이 대면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대면 면접이 불가능해지면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화상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도 청소년복지 및 질적 연구에 이해가 깊은 석·박사들로 면접원을 선발하였고, 면접원 교육·워크숍을 통해 본 연구전반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본 질적종단조사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면접지를 가능한 구조화하였고 면접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각기 다른 면접원이 진행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면접이 되도록 하였다. 연도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질적 패널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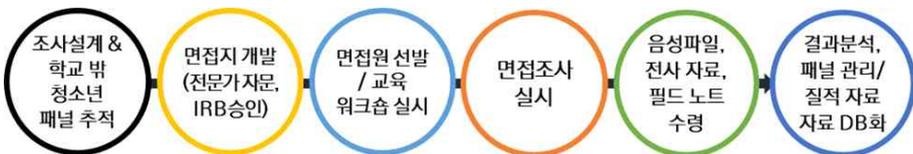


그림 VI-1.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조사 실시 과정

## ② 2018~2022년 면접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여기에서는 지난 연구에서의 질적자료 분석방법과 내용,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질적자료 특성상 수집된 자료가 매우 방대하며, 기존 패널의 5개년간의 분석결과와 신규 패널의 3개년간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보고서 몇 장 수준으로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가독성과 제한된 지면을 고려하여 질적자료 분석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일부 종단적 관점에 기초한 분석도 있으며, 또 당해연도에 초점을 둔 면접 내용에 대해 횡단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도 있다. 시범적으로 수행된 총괄보고서 내 질적자료 종단분석이나 외부 협동 연구방식으로 수행된 질적자료 종단분석은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 가. 기존 패널 질적자료 분석결과

앞서 기술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질적자료인 전사자료와 필드 노트는 연구자들에게 전달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먼저 기존패널 질적자료 분석과 관련해서 2018~2020년에는 Krippendorff(2004)가 제시한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절차에 따라 자료가 분석되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사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의미있는 진술을 찾아 유관한 개념들을 묶어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김희진 외, 2020; 윤철경 외, 2018; 장근영 외, 2019). 2020년에는 먼저 1단계 분석으로 Strauss와 Corbin(1990)의 개방코딩의 방법을 활용하였고 개방 코딩을 통해 추출된 개념들을 그룹화하여 하위범주를 도출하고 이 하위범주들은 이후 상위범주를 형성하였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 패널들의 현재 삶과 진로 모색 과정을 4개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김희진 외, 2021a). 2020년에는 일부 사례들을 대상으로 과거 2~3년간 수집된 질적자료를 종합하여 종단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21년부터 협동연구를 통한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이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의미있는 진술들을 통해 핵심내용을 코딩하고, 반복적으로 주요 코딩내용들을 비교하며 하위 범주를 도출하는 반복적 비교분석법(Glaser & Strauss, 1967; Merriam & Tisdell, 2015)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들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고, 전사자료와 필드 노트를 상호 검증하는 삼각화 기법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전문가들의 자문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결과분석(범주화 등)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김희진 외, 2020: 118-119; 김희진 외, 2021a: 109).

2018년에는 전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을 탐색하였고, 2019년에는 이전년도 연구결과 중 특히 관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2020년에는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학령기 이후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실과 대처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2021년에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기존 패널들의 삶의 모습과 진로 모색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2022년에는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과 이후의 지원 경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그리고 과거 수년 간 본 면접에 참여했던 경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기존 패널 대상의 2018~2022년간의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표 VI-5와 같다. 5개년간의 조사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을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의 학교의 상담, 즉 학업중단 숙려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둘째,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가정 및 학교 또래와 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 또래 관계 결핍 등에 따른 소속감 증진과 자연스럽게 또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부분 20대인 이들은 여전히 학교를 그만둔 시기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지속되었으며,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후기 청소년기 또는 초기 청년기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다섯째, 진학에 대한 목적이 다소 분명한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보다 직업형이거나 무업형인 패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나 의지 및 동기 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당장의 경제적 필요로 인해 미래에 대한 전망 없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거나, 또는 그마저도 하지 않는 상황에 주목하고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과 동기부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다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낙인 경험이 상당수 보고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패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은 물론 당해 연구의 정책 제안 도출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은 올해 연구에서 수행된 AHP 방식을 활용한 전문가 대상의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과정에도 반영되었다.

표 VI-5.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자료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2018~2022)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존패널 질적자료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속려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와 학업중단 이후의 장기계획이 검토되지 못한 점</li> <li>• 학업중단 이후 특별한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잠정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형태로 이어지기도 함.</li> <li>• 학업중단 직후 부정적 정서를 압도적으로 경험한 후인따 편견을 포함하여 현실에 직면함.</li> <li>•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또래관계와 친구의 소중함을 보지 못함.</li> <li>• 장기적인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거나 이를 힘들어하였고, 일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나 진입장벽이 낮은 단순 서비스직, 사무직 등에 종사함.</li> <li>• 학업형은 비교적 미래를 구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직후 대인기피, 무기력,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가족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함. 반대로 부모의 신뢰 가족의 지지를 받은 경우 학업중단 과정에서 힘이 되었음.</li> <li>•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시 경험했던 부정적 자아 인식이 20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임.</li> <li>• 학교를 그만둔 이후 또래들로부터의 소외감, 고립감, 발달감과 같은 관계에 대한 결핍으로 애정을 기반으로 한 이성 관계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음.</li> <li>•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관계기관(직업학교, 청소년상담센터 등)의 한계와 확incer 프로그램, 해당 기관 종사자들을 신뢰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이전] 자별적/목표 지향적인 능동형, 심리자신체적 외상,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로 학업을 중단한 불기피형, 특별한 동기/원인이 없는 도피형으로 유형화함.</li> <li>• [학업중단 직후] 학업중단 후 복귀를 추구하는 '정지형'(정지×학업형),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학교를 떠난 이후 목표가 없는 '배회형'(배회×학업형),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떠난 '주도형'(주도×학업형)으로 구분함. 취업형 중 '정지형'(정지×취업형)은 단순히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사용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치 않는 직업을 전전하는 경우는 '배회형'(배회×취업형)으로 유형화함.</li> <li>• [희망기 이후] '정지형'은 사회적 자원/소속감 결여상태, 배회형은 진회(배회×학업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삶은 '학업 지속과 중단', '아르바이트 강행', '학업 지속에의 추구 및 자원', '부모와의 관계', '우대관계 부재', '차별로 범주화됨.</li> <li>•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의 생활과 진로를 찾는 과정에 기초하여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음.</li> <li>• 유형 1은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학업을 계속한 유형으로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안정적인 직업도 유지하고 있음.</li> <li>• 유형 2는 가족의 경제상태가 불안정하여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유형으로, 급여수준은 만족스러워하지만 직업의 안정성은 낮은 편임.</li> <li>• 유형 3은 부모의 지원으로 진로를 잘 찾아가</li> <li>• 유형 4는 현재 및 미래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패널의 사적 지원 통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청소년단체 활동, 주변 지인들이었고, 공식 영역으로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경향을 유망한 지원으로 보고함. 초기 상담센터에서 일부지원받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쿠팡 직업훈련과정이 도움이 되었음.</li> <li>•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멘토링, 상담지원, 학교 밖의 다양한 진로 선택지에 대한 안내, 소속감을 기릴 기회, 경제적 지원 및 소비교육 등을 제시함.</li> <li>• 학교를 그만둔 후 10여년 가까이 지나면서 일부는 조기 진로 개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일부는 과거에 비해 후회하기도 함. 개인의 상황/욕구 변화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됨.</li> <li>• 몇 년간 면담에 참여하면서 자</li> </ul>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책적 시사점	<p>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나 직업형과 무업형은 다수가 경제적·시간적 어려움과 의지, 동기 부족이 많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속려상담의 내실화</li> <li>• 사회적 관계 결말 및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업중단 강행자나 전문직업인 통한 멘토링 등의 기회 제공</li> <li>• 다양한 방식의 경제적 지원</li> <li>• 빈곤 모색(취업)후 생활 등 지원</li> </ul>	<p>지 못하는 문제, 프로그램과 취업현장 간의 격차 등을 언급함. 취업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후 충분한 자기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 후기 학교 부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상담 지원체계 마련 필요</li> <li>• 학부모 대상의 교육/상담 지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li> <li>• 또래와의 관계형성 및 소속감 증진 위한 문화적 활동 지원</li> <li>• 취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 교육/자격증 취득 지원 필요</li> </ul>	<p>및 취업에서(배회×취업형) 실패를 겪으며 목표 의식을 잃음. 자신감 부족 상태. '주도형은 적극적으로 학업/취업 준비이행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그만두기 전후 시기, 각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li> <li>•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멘토십 기회 마련</li> <li>•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지원 병행</li> <li>• 사회적 관계 지원 강화</li> <li>• 심리적 안정을 위한 우선 지원</li> <li>• 과 이후 진로지원 필요</li> <li>• 학업 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 사회적 차별 해소 노력</li> <li>• 직업교육 등이 더욱 필요함, 자신감 결핍, 소속감 부재 등에도 관심 필요</li> </ul>	<p>진도가 모두 불안정한 상황으로, 심리적 문제가 수반되는 사례가 많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드림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홍보 강화</li> <li>•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멘토십 기회 마련</li> <li>•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지원 병행</li> <li>• 사회적 관계 지원 강화</li> <li>• 심리적 안정을 위한 우선 지원</li> <li>• 과 이후 진로지원 필요</li> <li>• 학업 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 사회적 차별 해소 노력</li> </ul>	<p>기 삶의 궤적을 성취해 볼 수 있었고, 개관화시킬 수 있었다고 진술함.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비슷한 상황의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시설 및 기법에 대한 접근성 강화, 실질적인 진로 및 취업 준비 정보에 대한 안내 필요</li> <li>• 상인기 이현에 필요한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성장 지원(심리·사회적 지원, 진로준비, 여가문화 활동, 경제적 지원) 필요</li> <li>• 학교를 그만둔 것은 개인 삶의 맥락에서 전형적인 대안/생애 선택지일수 있음, 낙인이 없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됨</li> </ul>

\* 출처: 윤철경 외(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개발 개발연구 I: 질적 페널조사를 중심으로. pp.223-236.  
장근영 외(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개발 개발연구 II: 질적 페널조사를 중심으로. pp.181-198.  
김희진 외(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개발 연구 III: 질적 페널조사를 중심으로. pp.207-216.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개발 연구IV: 질적 페널조사를 중심으로. pp.371-372.

#### 나. 신규 패널 질적자료 분석결과

신규 패널의 질적자료 분석은 대체로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 분석(Inductive analysis)을 수행하되,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활용하였다(김희진 외, 2020: 232). 2020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과 이후 경험, 현재 상황과 진로 준비, 지원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파악하였고, 2021년에는 특히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사례에 대한 중단분석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사건과 지원 경험 및 지원 요구, 지원서비스 및 전달체계,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춰 횡단분석이 실시되었다(김희진 외, 2021a). 2022년에는 정책과제 도출에 직접적인 함의를 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경험과 인식과 변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아쉬움과 지원 요구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고, 기존 패널과 마찬가지로 본 질적 중단조사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한 회고 내용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의 질적 제고와 엄격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 자료, 필드 노트 등을 활용하여 삼각검증과정을 거쳤고, 질적연구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와 워크숍 과정을 거쳤다(김희진 외, 2020: 234; 김희진 외, 2021a: 181).

2020~2022년의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의 면접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표 VI-6과 같다.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의 3개년의 조사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간단히 종합, 요약해 보면 첫째, 신규 패널들은 학교를 그만둔 시점이 비교적 최근임에 따라 많은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했던 따돌림, 또는 가족 간 갈등 등으로 여전히 심리적 부담을 갖거나 우울증을 갖고 있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갈등에 따른 심각한 스트레스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또래와의 교류를 위한 기회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과 직후에 조기 개입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모색을 가능한 빠른 기간에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 그리고 학교 체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들은 진학 또는 취업에 있어 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을 필요로 했는데, 청소년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위해서 그 내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VI-6.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페널 질적자료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2020~2022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규페널 질적자료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목표한 진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도 있었으나, 학교에서의 또래관계, 때때로 같은 학교폭력이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주요 원인의 사례도 상당수 있었고, 여기에는 교사와의 학교의 무관심도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li> <li>• 대부분의 면접참여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았음.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막막함을 경험하거나, 또래관계·단체생활에 대한 동경과 소속감으로 후회한다는 응답이 있었음.</li> <li>• 청소년 자신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자기관리를 하게 되면서 더욱 책임감이 생겼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케어함과 책임감 부재의 이유로 부정 평가도 있었음. 고등학교 진학/복고와 검정고시 준비, 대학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진로계획을 피력했고, 미래 다양한 직업/영역을 희망함.</li> <li>• 학교 밖 이후 지원 요구로는 대학학 및 직업/취업과 관련한 신종적인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다양한 활동경험 기회 및 경제적인 지원을 제언함. 대도시 및 인접 지역의 청소년들에게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긍정 평가가 많았으며, 읍면지역은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확산으로 검고시 준비와 학업/자격증 준비, 직업체험/인턴십 참여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일자리 상실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음.</li> <li>• 생애시간으로 가족 및 교사의 문제, 또래관계 갈등,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성적 피해, 학교를 그만둔 경험, 교통사고, 대학 입학 등이 조사됨.</li> <li>• 꿈드림센터의 지원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교통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li> <li>•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심리·정서적인 지원과 경제적 지원, 진학 준비 및 지원 지원, 취업회 확대 등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였음.</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였으나, 꿈드림센터의 홍보 미흡, 꿈드림센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이용 장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li> <li>• 읍·면/소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은 진로준비 관련 인프라와 문화체험 기회 등에서 지역 격차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였음.</li> <li>•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 경험을 토로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험했던 진로탐색 및 진로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지원받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므로써 다양한 활동 참여, 규칙적인 수면 습관, 사회적 증진 등의 변화가 있었음. 집에서 나와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청소년도 일시적인 지원금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음.</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잘 둘러싸 필요할 시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함. 여러 이유로 기회가 제한되거나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지원이 있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줌.</li> <li>• 지원 내용뿐 아니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들에 대한 수요 파악,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집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장소나 기회 필요, 대학입시나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화된 지원 요청 등</li> <li>• 2-3차례 면접조사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며, 생각의 변화, 성장에 대해 생각하게 됨.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도움이 되길 희망함.</li> </ul>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피돌림 등 심리·정서적 피해에 대한 우선 개입의 필요성, 학교에서의 조기 개입과 학교를 그만둔 직후 공동센터에서의 더욱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li> <li>• 학업중단이 결정된 후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안내될 필요(공동센터 포함)</li> <li>• 집단피돌림,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피해 등은 보다 전문적인 개입과 복합적인 지원 필요.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내 여러 유관 체계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 지원 필요</li> <li>• 포레들과의 교류 기회, 소속감 증진 활동 제공</li> <li>• 공모전 등에서의 배제 등 차별 방지, 인식개선 사업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재난 상황을 대비한 온라인 지원체계 확립 시사</li> <li>• 생애사건과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에 영향을 준 문제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의 전문적인 지원 시사</li> <li>• 지역 격차로 인해 지원서비스, 특히 경제적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청소년 개인과 환경 특성에 기반한 지원 필요</li> <li>• 청소년 수요를 고려한 진로 준비와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연계 사업체/직업장 인센티브 필요성 시사</li> <li>• 청소년 개인의 욕구 맞춤형 지원 필요</li> <li>• 공동센터의 고유 기능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정책지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소외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필요(청소년 진로와 관련한 정확한 진단 및 지원)</li> <li>• 지역에 있어 지역에 따른 격차 최소화</li> <li>•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히 오갈 수 있는 전용공간과 포레들과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타 공동센터/기관과의 연계 필요</li> <li>• 다양한 진로 및 직업체험 기회와 일자리 소개 및 취업연계, 전문성과 연계시스템 요청</li> <li>• 향후 진로를 고려한 경제적 지원 확대</li> <li>•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검토 및 조사, 이에 기초한 인식개선 사업 필요</li> <li>•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그 이야기를 공유할 기회 제공</li> </ul>

\* 출처: 김희진 외(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III: 질적 페널조사를 중심으로. pp.342-347.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IV: 질적 페널조사를 중심으로. p.373.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용하고 있는 꿈드림센터에서 원하는 수준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타 꿈드림센터나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센터 간 연합사업과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필요로 하였다. 여섯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읍면지역이나 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도 대도시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생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주목하고 어떻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규 패널의 조사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은 기존 패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구의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내용 역시 이후 관련 정책제안들을 총정리한 전문가 대상의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에도 반영되었다.

## (2) 학교 밖 청소년 질적자료DB 및 패널 관리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질적자료는 매우 방대하다. 기존 패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전자자료만 175개 파일이며, 신규 패널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전자자료 파일은 95개로 총 270개에 달한다. 이외에도 필드 노트(field note)를 포함하여 연도(차수)별로 질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트리구조의 체계도에 따라 폴더를 생성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다.



\* 출처: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101 업데이트

그림 VI-2. 학교 밖 청소년 질적자료 DB관리 체계도

음성파일을 모두 녹취한 전사자료는 MS-world 파일양식으로 저장되었으며, 연구진과 패널·조사관리 위탁기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질적자료의 특성상 전사자료에는 개인사적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민감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보들이 누적되면서 개개인과 관련한 수많은 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들은 최대한 블라인드 처리하였다. 면접참여자의 익명화 및 정보보안을 위해 모든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였고, 자료 송부 및 자료 분석을 위해 패널·조사관리 위탁기관과 외부 연구진/집필진이 전자메일로 자료 전달 시에는 모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안에 유의하였다.

질적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관리뿐 아니라 누구의 전사자료이며 이에 대한 배경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등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의 정보 역시 잘 정리, 관리하여야 한다. 수집된 자료가 방대할 뿐 아니라, 조사참여 청소년의 이름을 가명 처리함에 따른 혼선이 발생한다면, 수많은 전사자료가 뒤엉키게 된다. 이 경우 어느 패널의 어느 시점의 면접자료 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되며, 또 유실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패널 고유의 ID(PID)와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등과 연구보고서에 활용된 ID번호, 면접 참여 년도, 담당 면접원, 면접 당시 주요 활동, 특이사항, 활동기관(섭외된 꿈드림센터 등) 담당자들을 기존 및 신규 패널별로 최종 정리한 패널 정보DB도 따로 작성, 보관하였다. 전사자료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운 이러한 자료수집관련 개인정보 들은 Excel 파일로 정리하였고, 해당 파일은 암호화하였다. 정리된 DB파일의 예시는 그림 VI-3과 같다.

연도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활동기관	면접원	면접연도	면접월	면접일	면접시간	면접장소	면접내용	면접비밀번호
2019년	남성	2001년	서울시	꿈드림센터	김민준	2019년	1월	15일	14:00-16:00	꿈드림센터	면접내용	12345678
2019년	여성	2002년	부산시	꿈드림센터	이서진	2019년	2월	10일	10:00-12:00	꿈드림센터	면접내용	87654321
2019년	남성	2003년	대구시	꿈드림센터	박지현	2019년	3월	5일	09:00-11:00	꿈드림센터	면접내용	98765432
2019년	여성	2004년	인천시	꿈드림센터	최민서	2019년	4월	1일	13:00-15:00	꿈드림센터	면접내용	21098765
2019년	남성	2005년	광주광역시	꿈드림센터	정민준	2019년	5월	20일	11:00-13:00	꿈드림센터	면접내용	34567890
2019년	여성	2006년	대전광역시	꿈드림센터	김서진	2019년	6월	15일	14:00-16:00	꿈드림센터	면접내용	45678901
2019년	남성	2007년	충청남도	꿈드림센터	박지현	2019년	7월	10일	10:00-12:00	꿈드림센터	면접내용	56789012
2019년	여성	2008년	경상남도	꿈드림센터	최민서	2019년	8월	5일	09:00-11:00	꿈드림센터	면접내용	67890123
2019년	남성	2009년	경상북도	꿈드림센터	정민준	2019년	9월	1일	13:00-15:00	꿈드림센터	면접내용	78901234
2019년	여성	2010년	전라남도	꿈드림센터	김서진	2019년	10월	20일	11:00-13:00	꿈드림센터	면접내용	89012345
2019년	남성	2011년	전라북도	꿈드림센터	박지현	2019년	11월	15일	14:00-16:00	꿈드림센터	면접내용	90123456
2019년	여성	2012년	경기도	꿈드림센터	최민서	2019년	12월	10일	10:00-12:00	꿈드림센터	면접내용	01234567

그림 VI-3. 학교 밖 청소년 면접관련 배경정보DB Excel파일 예시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조사가 올해 마지막으로 수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앞서 기술한 질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이 질적자료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 앞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에서도 다루었지만, 이렇게 최근에 수집된, 또 상당수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으로부터 수집된 개인사적인 정보가 많이 포함된 이러한 질적자료는 취급에 매우 주의를 요한다. 매 차례 1시간~1시간 30분 동안 수행된 면접내용을 녹취한 전사자료의 분량도 막대하지만, 그 안의 개개인에 대한 특정 정보가 많아, 심층적인 개인사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들이 연도별로 축적되어 있다.

전사자료에는 개인사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현재도 실시되고 있는 특정 지원서비스와 종사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가 가감 없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에는 이들의 개인적 특성, 가족, 환경적 특성 및 거주 지역, 지원받고 있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 맥락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정보들이지만, 한편으로 자료의 취급에 더욱 유의하도록 요구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동안 축적된 질적자료에 대한 질적연구 전문가들과의 심층분석과정에서도 익명성 보장과 연구윤리 차원(프라이버시 침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보호)에서의 재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는 매년 총괄보고서를 통해 당해 수집된 질적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 과제 도출에 활용하였고, 전년도부터는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을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다. 질적연구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이 각각의 학문적 배경에 기초하여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주제를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고, 전년도에는 3개 주제로, 올해에는 4개 주제로 심층분석이 수행되었다. 또한 이렇게 총괄보고서와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분석된 일부 내용은 더욱 발전되어 해당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편의 학술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기관의 고유과제나 수시과제의 일환으로 질적자료 분석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할 뿐 아니라, 외부 질적연구 전문가들을 집필진으로 하여 심층적인 2차 자료분석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이슈는 지금까지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올해 종료된다는 점이다. 올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가 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추적 및 면접조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연구가 수행될 경우 면접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컨택을 해도 될지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쳤다 (후속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후속 연구가 수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이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컨택이 가능한 시기는 올해까지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패널관리 및 조사 위탁기관에서 올해 패널 관리 및 면접이 공식적으로 마지막임에 따라 면접조사 경험과 관련한 리뷰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면접참여자의 90%가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보고하였고, 이외에도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경우, 면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92.3%가 넘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sup>48)</sup>

표 VI-7.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의 면접 참여 경험 평가

구분	매우 긍정적	약간 긍정적	보통이다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	계
빈도	25	10	4	0	0	39
비율	64.1	25.6	10.0	0.0	0.0	100.0

주: 한국리서치(2022).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리뷰 서베이 결과 인용

위의 서베이와 함께 해당 기관에서 올해 면접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참여한 면접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앞의 3장과 4장에서 제시한 면접 참여 경험에 대한 회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일부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sup>49)</sup>

매년 찾아오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물어봐 주셔서 목표 및 계획이 생기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기존 패널).

후속 연구에 참여해 오랫동안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기존 패널).

좋은 경험이었으며 처음에는 계속 안 좋은 기억을 꺼내는 것 같아서 부정적이었는데 이번 마지막 인터뷰에서 느낀 점은 같이 성장한 것 같아서(기존 패널)

제 속마음을 하나씩 털어놓을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중략) 제가 불편해하는 질문들은 당연하게 건너뛰어 주시거나 다음 질문으로 넘겨주셔서 인터뷰하는 내내 정말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신규 패널).

이런저런 얘기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신규 패널).

48) 출처: 한국리서치(2022).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리뷰 서베이 결과 .

49) 출처: 한국리서치(2022).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리뷰 서베이 결과

## 2)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 (1) 2018~2022년 지역사회 지원방안연구 개요

본 연구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현장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sup>50)</sup>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애로사항 및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첫 시작인 2018년도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추진되었으며, 2019년에는 중소도시를, 2020년에는 대도시를, 2021년에는 읍·면/소도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마지막 해인 2022년도에는 모든 지역규모의 특징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지역의 지원체계를 같이 살펴보았다(표 VI-8). 2020년도부터는 지역규모별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FGI나 면접조사를 통한 질적자료뿐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자료도 수집하였다.<sup>51)</sup>

표 VI-8.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의 연도별 조사지역

종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면접 조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소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설문 조사	-	-	대도시	읍·면/소도시	중소도시

\* 출처: 김희진 외(2020), 김희진 외(2021a), 윤철경 외(2018), 장근영 외(2019) 연구 및 올해 연구결과

- 주: 1) 2018년과 2019년의 조사는 협동연구로 수행되었고, 2020년부터는 본원 연구진이 직접 수행함.  
 2) 2018년에는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이 선정되었고, 2019년의 중소도시는 꿈드림센터 '나' 등급의 센터가 있는 세 곳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으로, 읍·면/소도시는 인구수 20만 이하 지역으로, 중소도시는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50) 2018년에는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지역이 선정되었고, 2019년도의 중소도시는 꿈드림센터의 등급인 '가', '나', '다' 유형 중, '나'형 센터가 속한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2020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대도시를 전국의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으로, 중소도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수 20만 이상인 지역으로, 읍·면/소도시를 인구수 20만 이하인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51) 중소도시 지역의 지원체계에 대해 연구한 2019년에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2022년도에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종사자 대상 면접조사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개별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하였다(표 VI-9).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에는 대면조사와 온라인 화상면접을 병행하였고, 2021~2022년에는 온라인 화상면접으로만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역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및 특징 등을 파악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은 중소도시, 2020년은 대도시, 2021년은 읍·면/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인 올해는 모든 지역의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계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꿈드림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연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내용으로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역연계 현황 및 연계 시 애로사항, 필요한 지원, 지역규모별 장점 및 단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었다.

표 VI-9.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면접조사 연도별 개요

종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조사 방법	-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개별심층면접 및 FGI 대면면접	-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개별심층면접 및 FGI 대면면접	-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개별심층면접 - 대면면접/화상면접	-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개별심층면접 및 FGI - 화상면접	-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FGI - 화상면접
조사 대상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7명 - 학교 밖 청소년 20명	- 중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3명, 중소도시 지역 지역사회연계기관 종사자 4명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3명	- 읍·면/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5명, 꿈드림센터 연계기관 종사자 3명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8명, 연계기관 종사자 4명
주요 조사 내용	- 제공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 대응정도 - 지역연계 프로그램, 연계 시 필요 사항 - 지역사회 지원 현황 - 센터 특화 지원, 성과요인, 개선사항 등	- 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발굴경로 - 서비스 제공시 애로사항, 필요한 사항, 지역 특성, 지역 내 자원, 지역의 한계점, 특화 지원 등	- 대도시 지역 센터로 의 장점 및 단점 - 대도시 지역 센터간 차이, 대도시 지역 센터의 핵심역할과 기능, 전달체계의 어려움 및 개선방안 등	- 타 지역 이동 학교 밖 청소년 수/특성 - 읍·면/소도시 센터로 의 장점 및 단점, 핵심역할과 기능 - 적은 이용자 수를 고려한 효율적 운영방안 등	- 진로탐색/진로체험 제공현황(지역연계 서비스 중심으로) - 꿈드림센터 온라인 가상공간 의견 - 경제적 지원 필요

\* 출처: 김희진 외(2020), 김희진 외(2021a), 윤철경 외(2018), 장근영 외(2019) 연구 및 올해 연구결과

주: 면접대상자(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현장종사자, 연계기관 현장종사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따라 면접지가 다름에 따라 해당 표의 조사내용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조사내용은 이전년도 조사내용에서 추가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2020년부터 수행된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는 웹/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각 센터 당 실무자 1명이 대표로 응답하였다(표 VI-10).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센터 이용 주요 경로, 공간 사용 현황, 위치 및 공간, 센터 이용 학교 밖 청소년 및 부모·기관·지역사회 및 정부 관련 인식, 지역규모별 인프라, 서비스 접근성,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었고,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이용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같은 시기적 특성을 반영한 질문들도 포함되었다.

표 VI-10.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연도별 개요

종류	2020년	2021년	2022년
조사 방법	- 웹/모바일 링크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 각 센터 당 실무자 1명이 대표로 조사에 참여		
조사 대상	- 대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전수조사 - 목표: 총 75개 센터 - 실제 완료 수: 56명(77.8%)	- 읍·면/소도시 꿈드림센터 전수조사 - 목표: 총 85개 센터 - 실제 완료 수: 63명(74.1%)	-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 전수조사* - 목표: 총 60개 센터 - 실제 완료 수: 47명(78.3%)
주요 조사내용	- 이용 현황/경로, 공간 현황, 지원내역 - 지역 센터의 인프라, 서비스 접근성, 인력의 전문성 관련 인식, 단점, 지자체, 기초지자체간 지원의 차이 정도 - 지원 내용 차별화에 대한 의견, 발전 방향, 필요한 지원 등	- 읍·면/소도시 지역 센터의 인프라, 서비스 접근성, 인력의 전문성 인식, 센터의 장점/강점, 꿈드림센터 이용 중단 이유 -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필요 지원, 시·도 센터의 역할, 코로나19관련	- 전용공간 필요 사유, 지원 확대 분야, 센터의 인프라, 서비스 접근성, 인력의 전문성 관련 인식 - 해당 지역에서의 센터의 장점/강점, 온라인 가상공간에 대한 필요성 및 필요한 공간 등

\* 출처: 김희진 외(2020), 김희진 외(2021a) 연구 및 올해 연구 결과

주: 조사내용은 이전년도 조사내용에서 추가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2022년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대상 이외 센터는 모두 포함하였음.

## (2) 2018~2022년 현장종사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sup>52)</sup>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는, 본 연구 과제의 1차년도 연구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윤철경 외, 2018)」부터 5차년도 올해 연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연도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VI-11). 먼저, 2018년의 면접조사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청소년은 읍·면 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일 경험을 많이 하였으며, 읍·면 지역 청소년들은 불편한 교통, 지역사회의 인프라 부족 때문에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고, 정신적인 문제와 도박 등의 위험이 있었다. 지원기관의 인력 부족, 수당 부족, 실무자의 잦은 이직,

52) 김희진 외(2020), 김희진 외(2021a), 윤철경 외(2018), 장근영 외(2019) 연구와 올해 수행된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중 현장종사자 대상 면접조사 분석결과를 요약하였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체계,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지역연계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여러 어려움이 파악되었다.

2019년에는 중간규모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과 청소년 시설 부족, 교통시설 불편과 같은 애로사항이 도출되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무자 처우, 상담 전문 인력, 사업 예산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지원방안 모델로,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 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 등이 제안되었다.

2020년에는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살펴보았는데, 기관의 접근성이 용이하였고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편이었다. 청소년작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실무자 처우와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기관 특성 반영 프로그램 마련, 공간 및 예산 확충 등의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다.

2021년의 읍·면/소도시 센터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전용공간 부족, 은둔, 부모의 방임,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같은 취약한 환경적 특성들이 파악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 낮은 종사자 처우, 불편한 교통, 부족한 일자리·인프라·전문 인력, 지역사회의 무관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애로사항이 파악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포상제도 및 장학금 지원, 적극적인 지역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기관 보상책 마련 등의 보완사항이 도출되었다.

2022년 면접조사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지역의 종사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는데, 대부분 전용공간의 부족, 지역사회의 무관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호소하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부터 목표가 뚜렷하고 적극적인 사례까지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특징이 나타났다. 대도시에서는 대기업, 대학병원 등과 같은 큰 기관부터, 중소도시, 읍·면/소도시의 대학교, 카페, 농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연계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연계기관 종사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 연계 프로그램 진행 중 꿈드림센터의 개입(멘토링 포함), 단순 일자리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역사회 연계 확충 등의 발전방안이 제시되었다.

표 VI-11. 연도별 꿈드림센터 현장조사자 면접조사 결과

※ 2020년 연구부터 연구제목, 연구비항목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음. 2018~2019년의 지역사회 지원 모델 도출보다는 더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지역사회 지원방안으로 변경됨.

종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조사 목적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기초 연구	-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방향 모색	-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읍·면/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총괄적 개선방안 도출
조사 결과	- 대도시 빈곤지역에서 결손가정 과 비행 위험이 많았고, 중소도시는 저소득층과 특성학교 중단이 많았음. 읍·면지역은 교통 불편, 인프라 부족으로 도시 이동이 많음. - 대도시, 중소도시 청소년은 일 경험에 많았으나, 읍·면에서는 정서적 문제 비행 위험이 보고됨 - 인력 부족, 실무자의 잦은 이직,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 체계, 학교 밖 청소년 발원/지역 연계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어려움이 도출됨.	- 예산 확보는 원활한 편이었으나, 타 기관과 공간 공유 사례가 많았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 비율은 높으나 청소년 시설의 부족, 교통 불편 등의 애로사항이 있음. - 대학진학 교육비 지원, 인력 확보 중요, 프로그램 개발 어려움, 실무자 채용/개선 상담 전문인력 확보, 꿈드림센터 기능 확장 필요 제한 - 정부/민간사업 유치형, 지역내 트윈크 발굴을 통한 기관지원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부정적 인식 등 어려움이 도출됨.	- 프로그램의 성공 이유로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지원, 현장실무자의 의지와 노력, 학교 밖 청소년의 소속감 증진,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유도 이벤트 마련, 청소년의 욕구 반영 등이 내용이 포함됨. - 기관의 접근성이 용이하였고, 지역사회의 연계가 원활하였음. - 청소년사업장 인센티브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실무자 채용개선 등의 보완사항 도출 - 기관 특성 반영 프로그램 마련, 공간, 예산 확보 등의 개선방안 제시	- 전용공간 부족, 적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 경직된 예산 사용, 낮은 종사자 처우, 불편한 교통, 부족한 일자리, 인프라 부족, 전문인력 부족, 지역사회와의 무관심, 부정적 인식 등의 애로사항 나타남. - 포상제도 및 장학금, 지역사회 연계 기관 대상 보상책 마련 등 지역연계 관련 보완사항 도출	-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 감소, 은둔, 부모의 방임, 타 지역으로 이동과 같은 읍·면/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특징 도출 - 전용공간 부족, 교육청 연계 어려움, 지역사회와의 무관심,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식 개선 필요성 언급 - 대기업부터 지역의 농장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역연계가 진행 중임, 연계기관 종사자 대상 사전 교육, 연계 시 꿈드림센터의 개입, 취업연결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분야 연계 확충 등의 발원 방안 제시

\* 출처: 윤철경 외(2018), 장군영 외(2019), 김희진 외(2020), 김희진 외(2021a) 연구 및 올해 연구 결과

주: 2018년과 2019년의 조사는 협동연구로 수행되었고, 2020년부터는 본인 연구진이 수행함.

(3) 2020~2022년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연구결과<sup>53)</sup>

본 연구과제의 3차 년도 연구가 수행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였다. 먼저, 콤포트센터 공간 현황을 지역규모별로 비교하면(표 VI-12), 센터의 독립 공간을 확보한 비율은 중소도시가 36.2%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가 23.2%, 읍·면/소도시가 11.1%로 그 뒤를 이었다. 많은 콤포트센터가 독립적인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읍·면/소도시의 경우에는 10곳 중 9곳에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12. 콤포트센터 공간 현황 연도별 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단위: 비율)

	대도시(2020년)	중소도시(2022년)	읍·면/소도시(2021년)
콤포트센터 독립 공간 확보 비율	23.2%	36.2%	11.1%

- 주: 1) 이 연구에서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이며, 2021년의 소도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지역임, 2022년의 설문조사에서 중소도시는 앞의 특별시·광역시, 읍·면/소도시 지역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중간급 규모 도시를 지칭함.  
 2) 조사연도순서가 아닌 지역규모별 순서대로 제시함. 이하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3) 대도시는 56명, 중소도시는 47명, 읍·면/소도시는 63명의 센터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응답률임.

비교 가능한 조사문항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았다.<sup>54)</sup> 먼저, 센터 소재 지역에 대해서, 중소도시 지역 센터(8.5%)보다 읍·면/소도시 센터에서 강점/장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센터의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이용률은 중소도시 센터에서 읍·면/소도시에서보다 더 높았으나, 이용률의 비중은 대부분 10% 미만이었다. 읍·면/소도시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의 이용률이 센터별로 차이가 컸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지역의 비교가 가능한 문항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만 살펴보았는데(표 VI-13),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지역 규모가 클수록 센터의 종사자들은 예산이 부족하고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였고, 중소도시 지역에서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지역 규모 및 인프라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 센터에서 읍·면/소도시 센터보다 정부 지원을 위한 행정 업무가 더 많다고 인식하였고, 대도시 지역의 종사자들이 중소도시, 읍·면/소도시에서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종사

53) 김희진 외(2020), 김희진 외(2021a)연구들과 올해 수행된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요약하였다.  
 54) 주로 2021년 설문지에 추가된 문항들로, 중소도시와 읍면/소도시 지역 조사에만 해당되는 사례들이 있다.

자들은 기관 소재 지역에 인프라가 충분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좋으며,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소도시 지역 센터 종사자들이 대도시나 읍·면/소도시 지역에서보다 더 지역 규모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표 VI-13.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연도별 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영역		대도시 (2020)	중소 도시 (2022)	읍·면 /소도시 (2021)	t, F
꿈드림 센터 위치 및 공간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위치에 있다	2.98	2.96	2.67	2.41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2.68	2.53	2.27	3.25*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충분하다	2.70	2.57	2.46	1.13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	-	3.43	3.60	-1.40
	우리 기관은 안전한 곳(위치)에 있다.	-	3.15	3.10	0.36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2.30	2.32	-1.18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	2.86	2.98	2.89	.47
	청소년이 방임되었거나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많다	3.00	2.83	2.76	2.29
	청소년들의 부모 대부분이 자녀에 대해 (충분히) 지지적이다	-	2.19	2.38	-1.80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	2.77	2.68	2.83	.70
	청소년들의 사회적기술(대인관계/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다	2.84	2.96	2.92	.52
꿈드림 센터	예산이 부족하다	3.23	2.87	2.73	6.11**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다	2.95	3.02	3.17	1.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상담, 서비스 연계 등)이 부족하다	2.88	2.89	2.65	1.75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	3.73	3.64	3.35	5.22**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2.43	2.51	2.63	1.38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정보찾기)이 어렵다	2.55	2.55	2.71	1.08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	2.89	3.30	2.94	5.55**
지역 사회 및 정부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 기관(상담센터, 취업지원 기관 등)이 부족하다	2.43	2.60	2.68	1.83
	지역 내 담당공무원이 협조적이다	-	2.89	3.02	-0.80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2.55	2.70	2.48	0.92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3.05	3.09	2.84	1.61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	3.52	3.57	3.10	8.88***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3.61	3.40	3.37	3.06*
기관 소재 지역	활용가능 기관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	2.54	2.64	2.10	8.26***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	2.80	2.87	2.38	7.02**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3.05	2.91	2.78	3.32*
	협력체계(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3.00	2.91	2.92	0.31
차별화	지역규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에 차별화나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3.05	3.51	3.22	6.16**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 (4) 지역규모별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sup>55)</sup>

지역사회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지역의 환경적 특징, 지역 규모에 따른 애로사항, 필요한 지원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안되었던 지역규모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 제시하였다(표 VI-14). 지역규모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정책적 시사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지역은 지역 내의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꿈드림센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학교 밖 청소년 욕구 및 수요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인근 센터와 통합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모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재구조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대도시 외곽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인근 지역들과의 연계를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소도시 지역은 그 안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크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다양하지 않은 곳도 많다. 해당 지역의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 도시지역 꿈드림센터와 연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청소년작업장 확대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통이 불편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및 교통수단 편의 제공도 필요하다.

읍·면/소도시 지역은 인근 도시지역 꿈드림센터 혹은 시·도 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연합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연계기관 대상 보상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연계가 더욱 촉진되어야 하며, 찾아가는 상담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예산 사용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이 미흡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 및 직업체험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통비 지원 및 교통수단 편의 제공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꿈드림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고립되어 지원에서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없어야 한다.

지역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제시된 시사점으로,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원활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독립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55) 대도시 연구결과는 김희진 외(2020) 연구, 중소도시 연구결과는 장근영 외(2019) 연구, 읍·면/소도시 연구결과는 김희진 외(2021a)의 연구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내용에 따라 윤철경 외(2018)와 올해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

둘째, 개개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다양하고, 프로그램, 서비스의 양과 종류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센터 평가체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센터 실무자들의 낮은 처우가 개선됨으로써 안정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표 VI-14. 지역규모별 지원체계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종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도시
지역 특징	- 편리한 교통 - 풍부한 인프라 - 활발한 지역 네트워크	- 지역 규모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시설 - 부족한 인프라	- 불편한 대중교통 -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관의 위치 - 부족한 인프라/지역연계
애로 사항	- 행정업무의 부담 - 독립 공간 및 예산 부족 - 자치구별 지원정책의 차이 - 사업 초기 시범모델 운영으로 업무 과중 - 낮은 종사자 처우(낮은 인건비, 높은 이직률, 업무속련도 하락)	- 독립 공간의 부족 - 부족한 실무인력 - (빠른 변화로) 청소년들의 흥미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 독립 공간의 부족 - 예산의 부족, 경직된 예산 사용 - 지자체·지역사회 지원/자원 부재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의 어려움 - 낮은 종사자 처우
필요 지원	- 예산 확충, 실무자 처우개선 - 꿈드림센터에 대한 독립적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예산확충, 실무자 처우개선, 독립 공간, 상담 전문 인력 필요 - 꿈드림센터의 기능 확장 - 경제적 지원, 작업장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 예산 확충, 실무자 처우개선, 독립적인 공간 - 지역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정책적 시사점	- 지역 내 청소년 지원 기관이 다양한 만큼, 꿈드림센터 차별화 전략 필요(진로 관련 사업 특성화 등)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수요 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재구조화(인근 센터와 통합 모델 개발·운영, 연합사업 운영체 별도 설립, 통합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 대도시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 인근지역과의 지역연계 활성화	- 꿈드림센터 기능 확장 - 직업체험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인근 도시지역 꿈드림센터와의 연계 활성화 - 지역 내 청소년작업장 확장 - 학교 밖 청소년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교통비 지원 등 이동성 보장 - 꿈드림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	- 취(창)업 지원 플랫폼 개발, 확산 - 인근 꿈드림센터와의 긴밀한 연계 및 연합 프로그램 진행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연계 활성화 - 연계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 - 유연한 예산 사용 지침 필요 - 교통비 지원 및 교통수단 편의 제공을 통한 이동성 보장 - 꿈드림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
[공통내용] 독립 공간 확보, 예산 확충, 지역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실무자 처우 개선			

\* 출처: 김희진 외(2020), 김희진 외(2021a), 윤철경 외(2018), 장근영 외(2019)의 연구와 올해 연구결과 요약 정리

### 3) 학교 밖 청소년 해외지원사례 연구결과 요약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해외 지원사례로,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수집된 내용들을 표 VI-15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난 5년간의 연구에서 해외사례 분석은 2018년, 2020년, 2021년에 수행되었는데, 스웨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일본, 호주,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대도시, 지방소도시, 농어촌 등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검토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정책과제 도출에 반영되었다.

표 VI-15. 학교 밖 청소년 해외 지원사례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국가	요약	시사점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기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둘 경우 학교장이 지역 당국에 신고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편지, 전화,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접촉 시도함.</li> <li>• 지자체 JOB센터는 아웃리치외에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직업훈련 및 실습, 구직 준비 등의 전체적인 과정을 지원하며, 해당 센터 프로그램 참여시 사회복지 수당을 지급함.</li> <li>• 민중학교(Folk Highschool)를 통해 고용부 시스템에 등록된 18~25세까지의 NEET 대상으로 고교졸업자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 중단 시 학교→지자체 신고절차와 같은 지자체 역할 필요</li> <li>• 지원사업의 적극적 홍보</li> <li>• 수당 지급을 통한 경제적 지원</li> </ul>
스코틀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교육연령이 끝나기 이전에 이후 진로정보를 포함하여 학교교사가 관련 시스템에 입력함. 이 시스템에는 세금납입정보, 대학진학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 관련정보가 전혀 없는 청소년을 발굴, 접촉하여 지원을 제공함.</li> <li>• NEXT STEP 프로젝트를 통해 18세에서 20대 전반기까지 6개월동안 청소년의 학업 및 취업 지원</li> <li>• 16~19세 무업청소년을 위해 자원봉사와 사례관리를 전제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고용,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발굴 시사</li> <li>• 교육, 고용, 훈련 기회 제공</li> <li>• 프로그램 참여 및 사례관리를 위한 수당 지급 방안 마련</li> </ul>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인 Youthreach사업(연중 무휴)을 통해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력인정 프로그램과 사회적 교육,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현장실습, 멘토 교육 등 제공</li> <li>• 부모가 자녀의 프로그램 참여에 관여하도록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를 유스리치에 출석시키지 않을 경우, 지역의 복지위원회에 신고되며, 벌금 부과나 자녀 출석을 강제할 수 있음.</li> <li>•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수당이 지급됨.</li> <li>• 이외 16~21세(취약계층은 25세까지)의 학업 중단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훈련센터(Community Training Centre)에서 문해력 등 기초 역량과 사회적 기술 및 직업 기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우 6개월 동안 추적 및 모니터링 대상이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학습역량 지원 중요성 시사</li> <li>• 프로그램 참여 출석률에 따라 수당 지급</li> <li>• 학력인정교육뿐 아니라 사회성교육, 자존감 향상 지원 필요</li> <li>• 부모 대상 개입 필요성 시사</li> <li>•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례관리의 필요성</li> </ul>
일본	<p>[중앙·대도시(요코하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형 외톨이, 무업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국에 75개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들도 참여, 지원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형 외톨이 직장 체험 및 취업처 발굴에 사회적 기업 참여</li> </ul>

국가	요약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으로 청소년들의 학습경험이 공식역력으로 인정됨</li> <li>• 요코하마 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 지원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유스서포터(Youth Supporter)' 자원봉사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li> <li>• 유스플러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 서비스 제공,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제공, 본인/가족 상담과 일상생활 직장견학, 사회적 훈련 등에 참여 기회 제공</li> <li>• 요코하마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 아웃리치 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전문 가를 통한 진로 상담, 지원기관과 연계 활동 참여 지원, 취업시 직장적응을 위한 추가 훈련기회 제공, 졸업자 간담회 관계망 지원. 취업 기술 및 지식 훈련, 자격증 취득, 직장 체험 기회 제공, 지역사회 취업지원기관, 정신보건기관, 지자체 부처 등과 연계하여 허브역할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전문성 필요</li> <li>•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필요</li> <li>• 허브역할을 담당할 거점센터 필요</li> </ul>
	<p>[지방 소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쓰다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협의회 운영, 아웃리치 서비스, 학습지원, 교직원 연수, 지원모델 개발, 주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li> <li>• 요네자와시 : 지역 내 대안학교 운영 법인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일대일 방문 지원 서비스 제공</li> <li>• 우라소에서: '청소년서포스테 류큐(琉球)'가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담당함. 학업중단위기/장기결석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진로미결정 청소년 대상으로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니트 청소년 대상 집중 훈련 프로그램, 직장 정착 프로그램 등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방문상담 및 아웃리치 중심으로 지원 사업 수행</li> <li>• 취업 이후의 직장 정착 등을 위한 지원 필요성 시사</li> </ul>
호주	<p>[중앙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연계 지원 사업(Faster Connections and Greater Support): 15~24세의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더 신속하게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구직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지원 제공</li> <li>• 일찍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견습직 및 훈련을 포함한 구직기회 제공, 기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등에게 교육성과에 따른 수당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주당 일정 시간 근로 참여 등 조건에 따라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지급 [농촌, 원거리 지역]</li> <li>• 농촌/지방 회복 재단 프로그램 지원: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리더십 고취 및 교육과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li> <li>• 이든시(Eden): 'FRRR ABC Heywire Youth Innovation Grants program' 기금으로 어촌지역 무업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및 이를 통한 기술 습득과 성취감, 사회적 기술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맞춤형 훈련, 취업 기회제공,</li> <li>• 일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근로시간 조건 등에 따른 수당 지급</li> <li>• 농촌지역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li> </ul>
미국	<p>[연방정부] TRIO 프로그램: 학업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 이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p> <p>[소외지역] SSRHY 사범사업과 버몬트 주 NEK 지역 지원 프로그램: 농어촌 지역에서 노숙하거나 가정 밖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임. 성인이 이행과정에서 취약한 상황으로 자립이 힘든 여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학업 및 취업 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 거주 및 교통 지원 등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 지역 위기 청소년 대상의 개인적 상황과 주변환경적 체계를 고려한 포괄적인 지원 제공 필요성 시사</li> </ul>

\* 출처: 윤철경 외(2018) 연구의 pp.382-384 내용, 김희진 외(2020) 연구 pp.76-94, 김희진 외(2021a) 연구 pp.60-94의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음.

## 2.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 1)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과정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도출, 제안하기 위해 그동안 개발된 정책과제들과 2022년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지원정책 우선순위(시급성)와 중요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정책영역과 정책과제는 계층적 의사결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방식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 AHP 방식은 요소 간의 체계적인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방식을 통하여 여러 대안 중 최선을 선택하기 위한 것(Rabinowitz, 1992: 87)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제안된 정책과제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세부추진과제의 중요도 산출은 그 내용이 많고 복잡함에 따라 비논리적 응답 우려가 있어 AHP 방식 대신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 청소년 및 청소년복지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정책연구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들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사업과 정책 환경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시의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을 삭제하고, 여전히 유의미한 정책과제들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올해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기관 종사자 조사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크게는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홍보, 차별 개선, 2) 지원 전달체계 개선, 3)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4) 지원내용에 있어서의 개선 및 범위 확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정책과제들은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진 차원에서 최종 정리된 정책내용들은 이후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을 거쳐 어느 정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정되었다. 우선순위와 중요도 파악을 위한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의 도출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VI-4와 같다.



그림 VI-4. 우선순위 및 중요도 산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과정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확정된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들은 표 VI-16에서 관련 상세 설명과 함께 제시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고, 실제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하거나, 또는 더 확대가 필요한 정책과제들은 지속적으로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사업은 해당 지역의 청소년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나, 이는 결국 지역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국차원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도 가능한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표 VI-16. 우선순위 및 중요도 산출을 위한 정책과제 및 상세 설명 내용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상세 설명 내용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홍보 및 차별 개선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①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의무 연계 강화 및 법제화	- 의무교육 대상으로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 연계가 가능한 초등학교, 중학교의 연계 강화 법제화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 미진학 청소년의 개인정보 연계 의무화 필요
		② 학업중단과정/학업중단 숙려제, 미진학 등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조기개입 체계 마련	- 장기결석 청소년 포함 학업중단숙려제 과정,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공동센터 개입을 위한 제도 마련,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안내 범위 해당 법조항에 학부모 명시 등
		③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청소년증 혜택 확대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 추가 혜택 개발, 확대 - 주민센터 청소년증 발급 시 공동리 홍보/안내 체계 마련
		④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강화(주민센터 등 행정체계 통한 발굴체계 구축)	-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 해당 법률과 조례에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경로 확대 조항 포함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인식/차별 개선	① 학교/교육청 관계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	- 학교 교감 및 학적담당교사, 교육청 및 교육자원청 관계자 대상 적극 안내 및 홍보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별도 홈페이지 구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하위메뉴가 아닌 별도의 공동 홈페이지 구축, 지원 내용 상세 안내
		③ 학교 밖 청소년 명칭 재검토	-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도록 명칭 재검토
		④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 차별 금지 법제화	- 학생 대상 행사·대회 참여 및 기회 제공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 법제화 - 차별/낙인 방지를 위해 청소년증 활용 확대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개선	1)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강화	①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및 지원서비스 개발	- 비대면 환경에 익숙한 학교 밖 청소년(대면 지원서비스를 힘들어하는 청소년 포함)에게 온라인상의 학습지원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제공
		② 온라인 환경 제반구축을 위한 제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무자 대상의 관련 교육 및 공간, 기자재(PC, 태블릿PC 등) 제반 마련
		③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부모대상 안내 및 교육	- 홈스쿨러, 학교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부모, 학교 밖 청소년 부모 등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상세 설명 내용
인적·물리적 인프라 개선	2)	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원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조직 체계 구성 - 실무자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임금체계 개선 - 지역 간 종사자 처우(임금) 불균형 해소 등
		② 진로·직업상담 전문가, 사례관리자 등 전문 인력 공모금 배치	- 진로·직업 상담 전문가, 사례관리자 등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배치
		③ 학교 밖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활동 및 휴식 전용공간 마련,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지자체 지원 필요
지역사회 연계 및 지역 격차 개선	3)	①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다양한 자원들과의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상담, 활동, 보호, 복지 원스톱 서비스와 이를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지역사회 내 직업체험/인턴십 기회 확대를 위한 연계망 구축 및 보상 체계 마련	- 공동리-고용센터-사업장 간의 민간협력네트워크 연계 강화, 지자체 내 민간자원 연계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직업체험/작업장 제공 시 인센티브 지급
		③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격차 완화	-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차별화/맞춤형 지원 통한 경쟁력 강화, 인근 군지역 공동리과의 연계 확대 - 중소도시/읍면지역: (수요를 고려한) 별도 독립 공간 마련, 외부 지원 활용, 동기부여 인센티브 등 고안, 이동성 보장, 권역별 연합프로그램 구성, 거점센터 구축 등
3. 지원대상·범위 확대	1) 은둔 무업형 청소년 발굴·지원 확대	① 은둔 청소년·가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내용 법제화	- 은둔 고립 청년이 되지 않도록 10대 청소년 시기 개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은둔형 청소년 관련 조항 추가
		②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구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동반자 등을 통한 은둔형 외톨이 징후 교육 및 학교/가정 방문상담 가능 체계 마련 - NEIS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계 체계 마련(취약·학대/방임·장기결석 학교 밖 청소년 발굴)
		③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마련	- 은둔형 무업 청소년을 공동리센터의 적극적인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가능 확대, 인적자원 총원 등) -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 - 심각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우선 지원(전문 상담 등), 이후 공동리 연계 가능
	2)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① 초등학교 미진학/초등학교 단계 학교 밖 아동·청소년 지원 요구 파악, 지원 제공	- 초등학교 단계의 저연령 아동·청소년들의 지원 요구 실태 파악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3) 후기 청소년(만19~24세) 지원 강화	① 진로상담, 직업능력·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확대
4) 특수육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가정 밖, 비행 등)	4)	①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종합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쉼터에서 지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심리적/경제적/진로지원 포함
		② 비행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비행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진로지도 확대 - 보호관찰 부가처분 시 공동리 포함 대안교육유평 프로그램 제공 등(공동리 인프라 사전 준비 필요)
4. 지원내용(프로그램)	1) 진로탐색 및 기초학습지원	① 진로미결정 청소년 대상 전문 진로상담 및 진로지원 제공	- 진로미결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심층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 진로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상세 설명 내용
개선·범위 확대	2) 심리·정서·사회적 지원	② 검정고시 등 기초 학력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강화(학습부진 사례 집중 심화 지원)	- 교육청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을 포함한 검정고시 학습지원 강화, 학습부진 등 기초 학력이 부족한 청소년 집중 심화 지원 필요
		①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전문 상담(정신적 외상) 치료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심리검사(정서행동특성검사 등) 포함, 후속 치료지원 확대 - 심리·정서적 지원 및 트라우마 전문 치료 지원(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대상 신속 개입 포함) -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검사도구 개발
		② 사회적 관계 확대/소속감 기회 제공(또래관계 구축 기회 등)	- 또래관계 구축 및 소속감 증진을 위한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3) 대학진학 지원	③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강화	-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과거 학교 밖 청소년) 청년과의 멘토링 지원 - 멘토 대상 인센티브 제공
		① 대학진학 전문 입시 상담 제공	- 대학진학과 관련한 전문 입시 상담 제공
		② 대입 전형에 따른 입시 준비 심화 지원	- 대입 전형(지원 방식)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제공 - 수시뿐 아니라 수능능력시험을 통해 정시로 대입을 희망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심화 학습 지원
		③ 대학진학 희망 청소년 장학금 지원	- 대학진학 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 독려·지원
	4) 취업·훈련 지원	④ 대학진학을 위한 청소년생활기록부 활용 기회 확대	-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한 대학진학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대학 협력 - 청소년생활기록부 준비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①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전국 확대	- 현재 제공중인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전국 확대·실시
		② 청소년 욕구 맞춤형 직업훈련/직업체험 기회 확대	- 내일이룸학교, 지역고용센터, 꿈드림 통한 청소년 선호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 기회 발굴, 확대
		③ 직업훈련/인턴십 수당 확대를 통한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 촉진	- 내일이룸학교 직업훈련을 포함한 관련 훈련 및 인턴십 수당 확대
		④ 취업/아르바이트/인턴십 전 사전교육 강화	- 취업/아르바이트/인턴십 전 사전교육을 통한 직업역량 개발(일 경험/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 내용 개발)
		⑤ 지역규모를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자립직업장 설치(거점형 자립직업장,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 대도시: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인턴십 기회 제공, 인근 소도시/군지역 꿈드림과의 연계서비스 제공 - 중소도시·읍면: 인근 도시 및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기회 제공,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 촉진 - 거점형 자립직업장 설치/권역별 교류형 자립직업장 운영을 통해 중소도시/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수요 대응
		⑥ 학교 밖 청소년의 취·창업 지원 플랫폼 개발·확산	- 학교 밖 청소년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내) 일자리 발굴·개발 및 지원 환경 구축 포함
	5) 경제적 지원	① 학생 청소년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꿈드림 프로그램 참여 수당, 교육비 등 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급여(프로그램 참여 수당, 검정고시 무상교재 등 포함) 추가/확대 - 교통비 지원 확대(지원금 형평성 고려)
		② 경제적 취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부모 지원이 없는 청소년 등)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지원자격/범위, 내용 확대(내일이룸학교, 청소년쉼터 소속 등 우선)

\* 출처: 올해 연구내용 및 김희진 외(2020), 김희진 외(2021a), 윤철경 외(2018), 장근영 외(2019)의 연구에서 정책제언관련 참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정책영역과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계층적 의사결정 방식조사를 개발한 Satty의 9점 척도(Saaty & Vagas, 1991; 김옥선, 권정연, 2015: 8에서 재인용)를 활용하였다(표 VI-17). AHP 방식에서는 비교해야 하는 쌍이 많아질수록 체계적인 응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선순위 도출에 포함되는 과제 수는 최대한 3~4개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표 VI-17.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방식 예시

정책과제	« 왼쪽 과제가 더 중요 »»									동 등	« 오른쪽 과제가 더 중요 »»									정책과제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강화																				2. 인적·물리적 인프라 개선						
1.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강화																				3. 지역사회 연계 및 지역 격차 개선						
2. 인적·물리적 인프라 개선																				3. 지역사회 연계 및 지역 격차 개선						

세부추진과제들의 중요도 산출은 일반적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표 VI-18).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부추진과제들까지 AHP 방식을 활용할 경우 쌍대비교가 매우 많아져 대안으로 선택한 방식이다.

표 VI-18. 세부추진과제 중요도 산출 예시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상세 설명 내용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홍보 및 차별 개선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①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의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의무 연계 강화 및 법제화	- 의무교육 대상으로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연계가 가능한 초·중학교의 경우도 연계 강화 법제화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 미진학 청소년의 개인정보 연계 의무화 필요	①	②	③	④	⑤

## 2)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결과

### (1)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결과

AHP 방식을 통한 결과의 신뢰도는 전문가들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참여하였는지가 관건이며,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가 0.1(10%) 이하일 경우에 일관성있게 쌍대비교가 수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Saaty, 2008; 이창호, 최용환, 도수관, 2016: 82에서 재인용). 이번 AHP를 활용한 결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영역과 정책과제에서 모두 일관성 지수 0.1 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그 결과를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정책영역의 우선순위를 먼저 살펴보면, 표 VI-19와 같다. 1순위 정책영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으로, 이 영역에 해당되는 정책과제들은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강화’, ‘인적·물리적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연계 및 지역 격차 개선’ 등이다. 2순위는 ‘지원내용(프로그램) 개선 및 범위 확대’, 3순위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홍보 및 차별 개선’, 4순위는 ‘지원 대상·범위 확대’였다.

표 VI-19. 정책영역 중요도 및 순위

정책영역	중요도	순위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홍보 및 차별 개선	0.23	3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개선	0.30	1
3. 지원대상·범위 확대(은둔 무업형/저연령/후기/특수 욕구 청소년 등)	0.21	4
4. 지원내용(프로그램)개선·범위 확대	0.26	2

각 정책영역에 해당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는 그림 VI-5와 표 VI-20과 같다. 앞의 정책영역에서 1순위로 도출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개선’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들을 먼저 살펴보면, 1순위로는 ‘인적·물리적 인프라 개선’이, 2순위는 ‘지역사회 연계 및 지역 격차 개선’, 3순위는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강화’ 내용으로 확인된다. 정책영역 중 2순위인 ‘지원내용 개선·범위 확대’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들 중에서는 ‘진로 탐색 및 기초 학습지원’이 1순위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지원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다음으로 2순위는 ‘심리·정서·사회적 지원’이었고<sup>56)</sup>, 3순위는 ‘취업·훈련

56) 중요도 점수가 1순위와 같았으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차이가 있었다.

지원’, 4순위는 ‘경제적 지원’, 마지막으로 5순위는 ‘대학진학 지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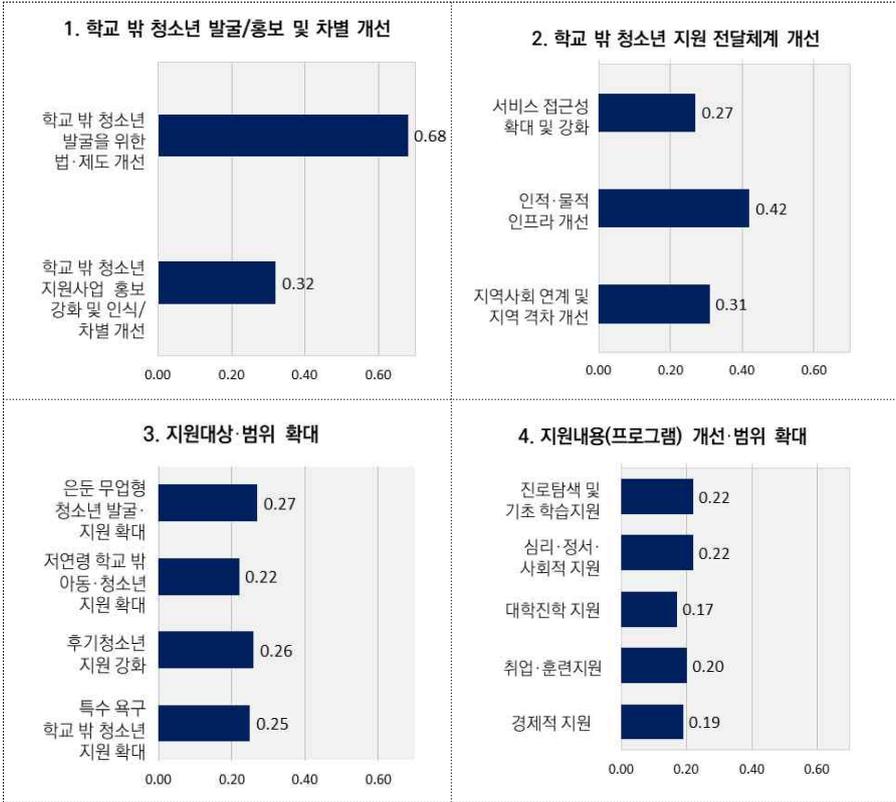


그림 VI-5. 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학교 밖 청소년 발굴/홍보/차별 개선’ 영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인식/차별 개선’ 보다 더 우선시 되었다.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영역에서는 ‘은둔 무업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가 1순위, ‘후기청소년(만19~24세) 지원 강화’가 2순위였다.

표 VI-20. 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정책영역	정책과제	중요도	순위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홍보 및 차별 개선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법·제도 개선	0.68	1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인식/차별 개선	0.32	2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개선	1)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강화(온라인 접근성 및 해당 인프라 구축 등)	0.27	3
	2) 인적·물리적 인프라 개선(체계적인 조직체계 구성, 처우개선 등)	0.42	1
	3) 지역사회 연계 및 지역 격차 개선(원스톱서비스 협의체 구성, 지원 격차 완화 등)	0.31	2
3. 지원대상·범위 확대	1) 은둔 무업형 청소년 발굴·지원 확대(조기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등)	0.27	1
	2) 저연령 학교 밖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0.22	4
	3) 후기청소년(만19~24세) 지원 강화	0.26	2
	4) 특수 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가정 밖, 비행 학교 밖 청소년 등)	0.25	3
4. 지원내용(프로그램) 개선·범위 확대	1) 진로탐색 및 기초 학습지원(검정고시 포함, 진로미결정, 학습부진 사례 등)	0.22	1
	2) 심리·정서·사회적 지원(심리검사, 사회적 관계 구축 기회제공, 멘토링 등)	0.22	2
	3) 대학진학 지원(전문입시상담, 대입전형에 따른 심화 지원, 장학금 지원 등)	0.17	5
	4) 취업·훈련 지원(청소년 선호 직업훈련/직업체험 기회 확대, 훈련/인턴십 수당 확대, 사회적 협동조합 등)	0.20	3
	5) 경제적 지원(교통비/프로그램 참여 수당 확대, 부모 지원이 없는 청소년 지원)	0.19	4

(2) 세부추진과제 중요도 산출 결과

정책영역과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에 이어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중요도 산출결과를 그림 VI-6과 표 VI-21~표 VI-24와 같다. 먼저 전문가들이 각 세부추진과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는지를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5점 만점의 중요도에서 4점 이상의 중요도를 보인 세부추진과제들만 따로 높은 평균값 순으로 정렬하여 정리하였다(그림 VI-6). 그 결과,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중요도와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로 진로·직업 상담 전문가, 사례관리자 등 전문 인력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배치, 경제적 취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경제적 취약 청소년 지원, 그리고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체계적 조직 운영, 종사자 처우 개선, 전문 인력 배치 등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I-6. 세부 추진과제 중요도(4점 이상 과제)

가독성을 고려하여 세부추진과제는 각 정책과제 중 높은 평균값을 보인 순서대로 정렬하였다. 먼저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홍보 및 차별 개선’ 영역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에서는 ‘학업중단과정/학업중단속려제, 미진학 등에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조기 개입 체계 마련’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장기 결석에

대한 개입을 포함한 학업중단숙려제 과정 등 학교를 그만둔 직후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다(표 VI-21). 이는 학교 체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청소년의 기본 권리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의 상호이해 및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올해 연구에서 실시한 현장실무자 초점집단인터뷰(FGI)에서 한 실무자는 지역 내 학교의 학적담당교사의 이해와 협조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발굴에 매우 중요했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인식/차별 개선’ 과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 및 차별 금지 법제화’ 세부 과제가 다른 세부 과제들보다 훨씬 높은 평균값을 보이면서 그중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이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 청소년과 다르게 행사나 대회 참가 기회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사례가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면접에서 다년간 보고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안이다.

표 VI-21. 영역별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중요도①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평균 값(점)	표준 편차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홍보 및 차별 개선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② 학업중단과정/학업중단숙려제, 미진학 등에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조기개입 체계 마련	4.45	0.510	
		①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의무 연계 강화 및 법제화	4.35	0.671	
		④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강화(주민센터 등 행정체계 통한 발굴 체계 구축)	4.35	0.671	
		③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청소년증 혜택 확대 및 홍보	4.00	0.725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인식/차별 개선		④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 및 차별 금지 법제화	4.35	0.745
			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	3.95	0.686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별도 홈페이지 구축	3.95	0.686
			③ 학교 밖 청소년 명칭에 대한 재검토	3.10	0.912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개선’ 영역에서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강화’과제에서는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부모대상 안내 및 교육’ 세부 과제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표 VI-22).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의 권유나 안내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알게 됐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김희진 외, 2020). 두 번째로, ‘인적·물리적 인프라 개선’ 정책과제에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종사자 처우 개선’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수준은 결국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의 질적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시키는 결과이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연계 및 지역 격차 개선’ 과제에서는 해당되는 3개의 세부추진과제 간 평균차가 크지 않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과 ‘지역사회 내 직업체험/인턴십 기회 확대를 위한 연계망 구축 및 보상 체계 마련’이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노력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가 많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에 더욱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VI-22. 영역별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중요도②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평균 값(점)	표준 편차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개선	1)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강화	③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부모대상 안내 및 교육	4.35	0.671		
		② 온라인 환경 제반구축을 위한 제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4.00	0.649		
		①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및 지원서비스 개발	3.60	0.681		
	2) 인적·물리적 인프라 개선	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종사자 처우 개선	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종사자 처우 개선	4.65	0.671	
			② 진로·직업 상담 전문가, 사례관리자 등 전문 인력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배치	4.50	0.513	
			③ 학교 밖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마련	4.05	1.050	
		3) 지역사회 연계 및 지역 격차 개선	①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①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4.35	0.671
				② 지역사회 내 직업체험/인턴십 기회 확대를 위한 연계망 구축 및 보상 체계 마련	4.30	0.657
				③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격차 완화	4.20	0.696

‘3. 지원대상·범위 확대’ 영역의 ‘은둔 무업형 청소년 발굴·지원 확대’ 정책과제에서는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마련’이 가장 중요도가 높았는데,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구축’도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표 VI-23). 은둔 청소년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발굴체계 역시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저연령 학교 밖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에 해당되는 세부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과제의 세부 과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4점 미만의 중요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후기청소년(만19~24세) 지원 강화’ 과제에서 ‘진로상담, 직업능력·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확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보다 성인기 이행과정의 후기청소년 지원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수 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과제에서는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종합지원체계 마련’이 비행 청소년을 위한 내용보다 더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 밖 청소년이 된 사례이다. 이들의 취약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 대부분이 공감한 결과로 보인다.

표 VI-23. 영역별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중요도③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평균 값(점)	표준 편차
3. 지원대상·범위 확대	1) 은둔 무업형 청소년 발굴·지원 확대	③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마련	4.20	0.951
		②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구축(가정방문 상담, 지역사회 체계 마련 등)	4.15	0.813
		① 은둔 청소년과 가족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내용 법제화	3.90	0.852
	2)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① 초등학교 미진학/초등학교 단계 학교를 그만둔 아동·청소년 지원·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3.95	0.686
	3) 후기 청소년(만19~24세) 지원 강화	① 진로상담, 직업능력·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확대	4.35	0.587
		② 대학입시 및 취(창)업지원을 위한 전문 진학/취업지원 제공	4.05	0.605
	4) 특수 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가정 밖, 비행 등)	①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종합지원체계 마련	4.20	0.616
		② 비행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3.95	0.686

‘4. 지원내용(프로그램) 개선·범위 확대’ 영역 중 ‘진로탐색/기초 학습지원’ 정책과제에 해당하는 ‘진로미결정 청소년 대상 전문 진로상담 및 진로지원 제공’과 ‘검정고시 등 기초 학력 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강화’ 세부 과제가 동일하게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표 VI-24). 이는 두 세부추진과제 모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지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심리·정서·사회적 지원’ 과제에서는 ‘심리상담 및 정신 건강 지원 강화, 전문 상담(트라우마) 치료 지원’이 매우 높은 평균값을 보이면서 전체 세부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

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가족관계와 학교에서의 또래·교사와의 문제가 학교를 그만두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상담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단계에서의 개입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I-24. 영역별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중요도④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평균 값(점)	표준 편차
4. 지원내용 (프로그램) 개선·범위 확대	1) 진로탐색 및 기초 학습지원	① 진로미결정 청소년 대상 전문 진로상담 및 진로지원 제공	4.15	0.671
		② 검정고시 등 기초학력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강화(학습부진사례 집중 지원 등)	4.15	0.671
	2) 심리·정서·사회적 지원	①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전문 상담(트라우마) 치료 지원	4.65	0.489
		② 사회적 관계 확대 및 소속감 기회 제공(또래관계 구축 기회 등)	4.30	0.657
		③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강화(학습중단 경험자 멘토링 포함)	4.15	0.671
	3) 대학진학 지원	③ 대학진학 희망 청소년 장학금 지원	4.10	0.718
		④ 대학진학을 위한 청소년생활기록부 활용 기회 확대(관련 꿈드림 역량 강화)	3.90	0.641
		② 대입 전형에 따른 입시 준비 심화 지원(정시, 수시 등 전형에 따른 지원)	3.85	0.671
		① 대학진학 전문 입시 상담 제공	3.80	0.616
		③ 직업훈련/인턴십 수당 확대를 통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촉진	4.35	0.587
	4) 취업·훈련 지원	② 청소년 욕구 맞춤형 직업훈련/직업체험 기회 확대	4.25	0.639
		①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전국 확대	4.05	0.759
		⑤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를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자립직업장 설치 (거점형 자립직업장,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4.05	0.686
		⑥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 지원 플랫폼 개발·확산	4.00	0.858
		④ 취업/아르바이트/인턴십 전 사전교육 강화	3.85	0.671
		② 경제적 취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부모 지원이 없는 청소년 대상 지원 확대)	4.50	0.688
	5) 경제적 지원	① 학생 청소년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수당(교육급여), 교육비 등 지원 확대	4.25	0.639

‘대학진학 지원’ 정책과제에서는 ‘대학진학 희망 청소년 장학금 지원’ 세부 과제가 그중 중요도가 높았는데, 이외에 다른 대학진학 관련 지원들은 4점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 중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전문가들은 대학진학 지원에 해당하는 세부 과제들 보다는 전반적으로 취업·훈련 지원과 관련된 세부 과제들의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취업·훈련 지원’ 정책과제에서는 ‘직업훈련/인턴십 수당 확대를 통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촉진’ 세부 과제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는데, 이는 동기부여 차원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하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원’ 과제에서는 ‘경제적 취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부모 지원이 없는 청소년 대상 경제적 지원 확대)’ 세부 과제가 역시 매우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더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가정 밖의 학교 밖 청소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 및 진로 준비와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심지어 부모가 수급 대상자일 정도로 취약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사례들이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본 절에서의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및 중요도 평가 결과는 다음 절에 제시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다음 절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은 이러한 결과와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도출된 정책과제들로 구성하였다.

### (3) 전문가들의 추가 제안 의견

여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일부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영역별로 범주화하여 표 VI-25와 같이 정리,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은둔 청소년, 경제적 지원, 꿈드림센터의 인적·물적 인프라, 종사자 전문성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은둔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발굴 및 지원의 어려움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해, 그리고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꿈드림센터 전용공간 마련과 종사자 처우 개선, 종사자 전문성에 더해, 진학 및 직업, 취업관련 전문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배치도 강조되었다. 이렇게 제안된 추가 의견 역시 앞의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결과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표 VI-25. 전문가들의 추가 제안 의견

영역		전문가 의견
정책 대상	은둔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을 별도의 지원체계와 법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에 통합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한 욕구를 가진 고립·은둔/가족부양 청소년 등에 대한 욕구중심의 전문적인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성 수립 필요</li> <li>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려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굴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타당함. 조기발굴을 위해서 교육수당/자격증 지원과 같은 사업추진 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하도록 하고, 실제 서비스는 꿈드림센터로 연계 필요</li> </ul>

영역		전문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형 청소년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은둔"이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므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li> </ul>
	후기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 개선이 필요함.</li> </ul>
지원 내용	정보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학, 취업 지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예, 미래산업 관련 안내 및 체험활동 등).</li> </ul>
	심리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의지 증진과 진로 설정을 위한 동기 부여, 자아탄력성 증진 등 심리적 지원 필요</li> </ul>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서비스 내용 중(경제적 지원 등) 기존 지자체 지원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확인 필요</li> <li>•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금액에 차등을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li> <li>•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정책 사업 지양</li> </ul>
전달 체계	꿈드림 센터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꿈드림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꿈드림센터 전용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li> <li>• 학교 밖 청소년 정책대상 및 지원 범위 확대(저연령화, 후기 청소년 지원 요구, 정신건강 고위기 사례 등) 인적, 물리적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li> <li>• 전용공간과 종사자 처우에 대한 지자체 간 편차가 있으며, 유사 청소년관련 시설 및 기관과도 종사자 수당 등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li> <li>• 안정적 고용형태 필요, 성과 위주의 사업평가 지양</li> </ul>
	종사자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 중요</li> <li>• 꿈드림센터 종사자로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li> <li>•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법적 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전문인력 보강 중요</li> <li>• 업무의 범위가 넓어질 수록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희석됨. 학습, 대학진학, 사례관리, 취업지원, 상담 등과 같이 주요 분야별 전문가 배치 및 업무의 질 향상 필요</li> </ul>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구축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전문기관(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보다 체계적인 협력 강화</li> </ul>
	중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교육청의 유사 사업(친구랑)의 운영 및 확대로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일원화/확실한 차별화 지원이 효율적일 것임.</li> </ul>
	지역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특장, 욕구 등에 지역별 편차가 크므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li> </ul>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청소년 지원과 많이 비교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더 세심한 검토 필요</li> </ul>
	학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교사 교육 필요, 학업중단숙려제의 실질적 운영 강화,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li> </ul>
기타	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부모 상담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족 단위 진로상담 프로그램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지속적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정책도 의미가 있으나, 중요하고 효과가 검증된 굵직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li> </ul>

### 3.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방안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질적패널조사와 학교 밖 청소년 주요 지원체계 종사자 및 연계기관 관계자 조사들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협력·자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연구결과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2021년까지 수행된 본 연구과제의 조사 및 연구결과<sup>57)</sup>들도 검토하였고, 이를 전문가대상의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과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수행 및 정책과제 도출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VI-7과 같다.



그림 VI-7. 연구수행 및 정책과제 개발 과정

#### 1) 기본방향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8~2021년간 수행된 연구 결과와 시사점에 더해 올해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총 5개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환경 속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방향을 두어야 한다. 과거 비행이나 일탈 이미지가 강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족문제나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같은 이유로 부득이 학교를 떠나기도 하며, 또는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다. 본 연구의 여러 곳에서도 보고되는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이 여전히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며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전제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57) 김희진 외(2020), 김희진 외(2021), 윤철경 외(2018), 장근영 외(2019)의 연구들이 해당된다.

학생 청소년에 대한 지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에 주목하여, 현재보다 더욱 확대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마다 지역적 특성, 재정적 현황 등에 차이가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원내용에서뿐 아니라 전용공간 마련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지자체나 기초지자체의 우수사례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여 홍보, 발굴되어 전국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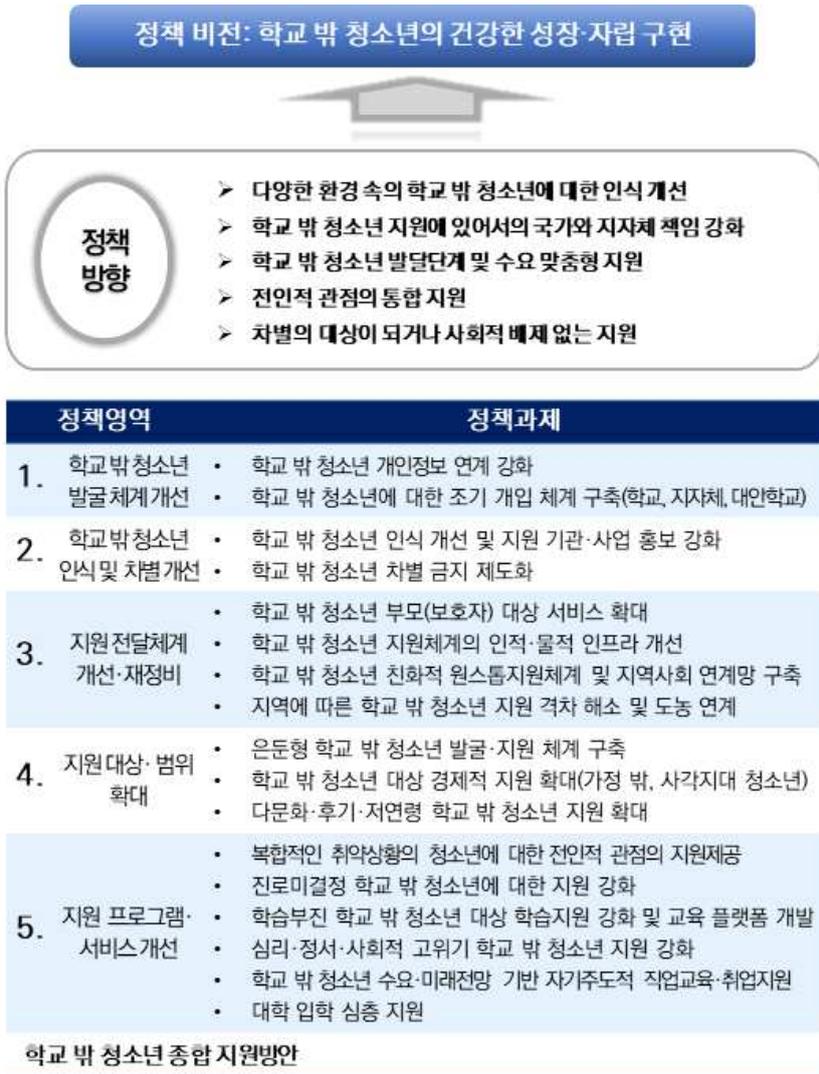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수요에 맞는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고등학생 시기에 학교를 떠나면서 성인기 이행 과정에 접어들게 된다. 이 시기는 스스로의 노력에 더해 많은 지원과 자원이 필요하며, 이후 성인기 삶이 좌우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학교의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효성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발달단계와 주변 체계, 무엇보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넷째, 전인적 관점의 통합 지원이 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마다 처한 상황과 필요로 하는 지원은 매우 다양하며, 그중에서는 심리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가정의 문제까지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례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프라의 한계로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을 전인적 관점에서 진단하지 못하고 검정고시 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수준의 지원에서 그치거나, 당장의 필요로 하는 도움에 대해 분절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전인적 관점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이 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 충원 등의 인프라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은 차별이나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학생 청소년들이 받는 지원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도 각종 대회나 공모전, 또는 다양한 지원에서 소외된 경험들이 보고됨에 따라 여전히 이에 대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성장·자립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하에, 앞서 서술한 다양한 환경 속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의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발달단계 및 수요 맞춤형 지원, 전인적 관점의 통합 지원,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이라는 5개 방향성에 기반하여 5개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17개 정책과제, 4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세부 추진과제를 제외하고 도출된 정책영역과 정책과제는 그림 VI-8과 같다.



**그림 VI-8.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 2) 정책과제<sup>58)</sup>

앞에서 제시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를 총괄, 정리하여 표 VI-26과 같이 추진기관과 주무부처 등과 함께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의 기본 틀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현 정책 현황과 관련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여 시의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였다. 현재 수준에서 아직 미흡하거나 개선, 또는 확산이 필요한 내용, 지속적으로 강조가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였고(조기 발굴 시스템의 지자체 연계 방안 모색, 주민센터와의 연계, 부모대상 안내 등), 올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세부 추진과제들도 제안하였다(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이주배경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및 발굴·지원, 도농지역 간 꿈드림센터 연계·협력, 꿈드림센터 교육·프로그램 참여 수당 제공을 통한 동기부여,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플랫폼 개발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 지원방안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한 새로운 내용에 초점을 두되, 기존 정책 중에서도 앞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도출된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정책과제들을 포함하였다.

표 VI-26.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총괄표

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기간	주무부처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개선	1-1.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연계 강화	의무교육단계 및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강화 법제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미진학 청소년 개인정보 의무 연계 법제화 조기 발굴 시스템의 지자체 연계 방안 모색		
	1-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 체계 구축(학교, 지자체, 대안학교)	장기 결석 청소년 상담, 학업중단속려제 등에서의 꿈드림센터 조기개입 체계 구축 청소년증 발급기관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 체계 마련 인가·미인가대안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58) 여기에 제시된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들 중에는 올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새롭게 제안된 정책과제들뿐 아니라, 전문가조사결과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즉 과거 학교 밖 청소년 선행연구(2018년 이후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김하진 외, 2020; 김하진 외, 2021a; 윤철경 외, 2018; 장근영 외, 2019)에서 제안한 정책제안 중 아직 미진하거나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도 보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기간	주무부처
II. 학교 밖 청소년 인식 및 차별 개선	2-1.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및 지 원기관·사업 흥 보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아웃리치, 유튜브 적극 활용을 통한 꿈드림 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	중장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2-2. 학교 밖 청소년 차별금지 제도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 및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학교 밖 청소년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차별 대처방법 안내 및 지원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III. 지원 전달체계 개선 재정비	3-1. 학교 밖 청소년 부모(보호자) 대 상 서비스 확대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부모(보호자) 대 상 꿈드림센터 및 지원내용 안내 가족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부모대상 사업 마련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인 적·물적 인프라 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 전문 인력의 꿈드림센 터 배치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확충	중장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3-3. 학교 밖 청소년 친화적 원스톱 지원체계 및 지 역사회 연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원스톱지원을 위한 적극적 인 협의체 운영 청소년 친화적 직업체험/인턴십 기회 확대 를 위한 지역사회 내 연계망(지역생태계 구 축) 및 보상 체계 마련	단기~중기
	3-4. 지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격차 해소 및 도 농 연계	도시지역 꿈드림센터 지원 차별화·재정비 소도시/읍면지역 꿈드림센터의 지원 격차 완화 지원 도농 간 꿈드림센터 연계·협력	중장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4-1.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 원체계 구축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구축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프로그램 마련	단기~중기
IV. 지원 대상· 범위 확대	4-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경제적 지 원 확대(가정 밖, 사각지대 청소년)	꿈드림센터 교육·프로그램 참여 수당 제공 을 통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동기 부여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 경제적 사각지대, 실질적 1인 가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위한 장학금 지원	단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4-3. 다문화 후기·저 연령 학교 밖 청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단기~중기

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기간	주무부처
	소년 지원 확대	후기청소년(만19~24세)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초등학교 미진학, 초등단계 학교 밖 청소년 요구 파악 및 현실적 지원체계 모색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정 지원기관
V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	5-1. 복합적 취약 상황의 청소년에 대한 전인적 관점의 지원 제공	복합적인 취약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진단-지원체계 구축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5-2. 진로미결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진로미결정 청소년 대상 심층 진로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진로상담 전문 인력 배치	단기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5-3. 학습부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습 지원 강화 및 교육 플랫폼 개발	학습부진 학교 밖 청소년의 기초학력 취득을 위한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플랫폼 개발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5-4. 심리·정서·사회적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전문 상담 및 병원 치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의지 및 동기부여,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제공 사회적 관계 및 소속감 기회 제공 확대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5-5. 학교 밖 청소년 수요/미래전망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직업교육·취업지원	청소년 요구 및 미래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직업체험 기회 확대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같은 자기주도적 자립직업장을 포함한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제고를 위한 경제적 보상 확대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5-6. 대학 입학 심층 지원	대입 전형에 따른 전문적인 대학 진학 지원 제공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학 기회 확대	중장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방안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생태체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 세부추진과제

1	의무교육단계 및 고등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미진학 청소년의 개인정보 의무 연계 법제화
3	조기 발굴 시스템의 지자체 연계 방안 모색

○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수준은 학생 청소년과 크게 대비된다. 그러나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비교한 논의는 주로 지원 내용, 지원 범위, 지원 예산 등에 대한 것이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비교하지 않는다. 미취학아동에게 취학통지서가 발급되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상의 교육단계인 고등학교도 대부분 진학하거나 고등학교 학력 취득까지 권장된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아예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은 당사자나 부모의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으로 치부된다. 즉, 이들 역시 교육받을 권리,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보장해야 하는 주체(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 전제는 이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꿈드림센터로의 정보연계 강화 등 발굴 체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 **추진내용**: 첫째, **의무교육단계 및 고등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강화내용이 법제화**되어야 하며, 실제 자동 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③...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의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절반에 가까움에도<sup>59)</sup>,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자동 연계되지 못했다. 현재 주무부처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법률개정을 예고하고 있는데<sup>60)</sup>, 더욱 신속하게 제반 여건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무교육단계와 고등

5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21년 기준)(<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2.10.16. 인출)

60) 출처: 여성가족부 브리핑. 학교 인פק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29552>에서 2022.10.19. 인출)

학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연계가 각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계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체계에서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통한 환류(Feed-back)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미진학 청소년의 개인정보연계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학교급 전환과정에서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음을 볼 때,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 성인기 이행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놓치는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의 개인정보 자동연계의 필요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모든 교육에서의 미진학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모 추정과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연계 의무화를 포함한 개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진학 청소년을 포함한 꿈드림센터로의 개인정보연계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면 표 VI-27과 같다.

표 VI-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

현행 <sup>61)</sup>	개정안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후략)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자퇴한 청소년과 이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후략)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연계**되어야 한다. 코로나 19시기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와 연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FG에서 한 꿈드림센터 종사자는 드물게 지자체 차원에서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제공했는데, 꿈드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주민센터에 명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센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보호 및 복지 지원을 받을 권리 보장

6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2.10.18. 인출)

## 세부추진과제

1	장기결석 청소년 상담, 학업중단숙려제 등에서의 꿈드림센터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청소년증 발급기관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 체계 마련
3	인가·미인가대안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이들의 개인정보가 꿈드림센터로 연계되기 이전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장기결석 상태가 유지될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만나기 어려우며, 개인정보연계를 위한 동의절차도 불가능할 수 있다. 장기결석인 청소년을 모두 잠재적인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볼 수는 없으나, 결국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후 은둔이나 고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기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 **추진내용**: 첫째, **장기결석 청소년 상담, 학업중단숙려제 등에서의 꿈드림센터 조기개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적담당교사, Wee센터와의 사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장기결석 학생 상담, 학업중단숙려제 과정에 꿈드림센터가 개입하여 자연스럽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연계함으로써 큰 공백 없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업중단숙려제 과정에서 꿈드림센터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잘못 전달되거나 아예 관련 정보를 듣지 못해, 결국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증 발급기관인 주민센터와의 연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 수당은 극히 일부 지자체에 제한된 것이지만, 청소년증 발급은 모든 지역에 해당됨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과정에서 주민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대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가·미인가대안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이 필요하다. 대안교육기관은 주로 교육에 초점이 있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한다.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 **기대효과** : 시의적절한 지원서비스 제공, 장기간 공백기 없는 진로/성인기 이행 준비

## 세부추진과제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2	아웃리치, 유튜브 적극 활용을 통한 꿈드림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

○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정적 시선은 남아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꿈드림센터 연계기관 종사자들은 동료들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시선, 오해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계기관 종사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비장애인분들이 아이들을 불량청소년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식의 개선보다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꿈드림센터 연계기관 종사자, 2022년)

꿈드림센터 및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를 위해 학부모나 청소년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꿈드림센터를 민간기관으로 오해하기도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을 꺼려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기관 및 사업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추진내용**: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떠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전 국민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실제적인 방안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영방송과 같은 공신력있는 채널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인식 개선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9.22). 다양한 채널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SNS와 등을 활용한 UCC 공모전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년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수상작을 선정하여 유튜브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에 사용한 적이 있다.<sup>62)</sup> 이러한 인식 개선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아웃리치,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여 꿈드림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꿈드림센터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해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혹은 이웃을 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꿈드림센터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형태인 아웃리치와 온라인 접근성이 뛰어난 유튜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전문가 FGI에서 꿈드림센터 홍보를 위해 아웃리치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였고, 또 유튜브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는 청소년들이 공적인 체계 안에서 꿈드림센터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장, 교감 및 학적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꿈드림센터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꿈드림센터 홍보 책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 지역사회 연락망을 공유하여 관련자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언제든지 청소년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접점이 있을 수 있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지자체

○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서비스 접근성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및 적극적인 참여 독려

---

62) 출처: 여성가족부 블로그,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최초 개최(<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598717614>)에서 2022.10.17. 인출)

세부추진과제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 및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2	학교 밖 청소년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법 안내 및 지원

○ **필요성**: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소외와 차별은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소속감 없이 불안정한 상태인 학교 밖 청소년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의 현장종사자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 공모전, 전시회 등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던 불공정한 상황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소외 및 차별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실제적인 진로 탐색 및 준비 과정도 방해함으로써 건강한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추진내용**: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대회 참여 등에서 학생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고, 또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제도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차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표 VI-28과 같이 해당 법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대상의 활동 및 복지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시, 고지될 필요가 있다.

표 VI-28. 학교 밖 청소년 차별 금지 조항 신설

현행	신설
없음	제22조(학교 밖 청소년 차별 금지)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복지 등의 영역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 출처: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425에서 인용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권리침해 및 차별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안한 차별 금지법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꿈드림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차별 사례를 신고 받고 법률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꿈드림센터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으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홈페이지의 신고게시판에서 사안을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63)</sup> 이러한 정보 제공 및 신고·접수 뿐 아니라, 문제 사안들과 해결된 상황들을 꿈드림센터 홈페이지 및 SNS, 공영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적극 공유하여 학교 밖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더욱 이해하고 무의식중에 이들을 소외시키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이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기관 등에서는 신분증으로써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의 사용을 공식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 소외·차별 방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공평한 기회 제공

---

63) 출처: 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5/sub050301.asp>에서 2022.10.17. 인출)

## 세부추진과제

1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부모(보호자) 대상 꿈드림센터 및 지원 내용 안내
2	가족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부모(보호자) 대상 사업 마련

○ **필요성**: 현장중사자 FGI에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모의 권유로 꿈드림센터에 대해 알게 되어 방문하거나 부모 스스로가 꿈드림센터에 연락하여 본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조사 결과에서도 부모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컸는데, 부모와의 갈등, 가정불화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부모의 적극적인 지지로 건강한 진로 발달을 경험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부모(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안내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 **추진내용**: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꿈드림센터 및 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모는 물론, 자녀의 홈스쿨링을 계획하는 부모가 꿈드림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꿈드림센터, 지자체 등을 통해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가족 지지체계 확보를 위하여 부모(보호자) 대상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족 단위 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꿈드림센터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 캠프<sup>64)</sup> 등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가족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함께 관계를 개선하고 또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가족 지지체계 마련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64) 출처: 꿈드림센터. 우수프로그램(직동힐링캠프)([https://www.kdream.or.kr:446/user/sub/view.asp?page=1&rows=15&task=ins&bid=bid\\_305&boldx=4308&si=title&st=에서](https://www.kdream.or.kr:446/user/sub/view.asp?page=1&rows=15&task=ins&bid=bid_305&boldx=4308&si=title&st=에서) 2022.10.17. 인출)

## 세부추진과제

1	종사자 전문성 강화, 전문 인력의 꿈드림센터 배치
2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
3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확충

○ **필요성**: 꿈드림센터가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의 인적·물적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현장종사자 면접조사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전문 인력의 배치,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 등의 요구가 매년 지속적이고 제기되었다. 전문가 대상의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에서도 인적·물적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 **추진내용**: 첫째,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사, 진로상담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꿈드림센터에 배치**해야 한다. 학습지원, 대학진학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등에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 센터마다 이러한 인력 배치가 어렵다면, 인근 센터들 간 전문 인력을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많아 업무 부담이 큰 대도시, 적은 수라도 방문상담 등의 업무가 많은 읍면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해 임금 체계 개선,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하여 우수한 인력이 꿈드림센터에 종사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결 수준이 담보된, 안정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이 더욱 확보**될 필요가 있다.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소속감이 없어지고 또래와의 교류가 어려워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또래들과 교류하고 학습 및 여러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외에도, 지자체, 지역사회 내의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공간 무상 임대 등의 공간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지자체

○ **기대효과**: 현장종사자 고용 안정화 및 전문성 향상, 학교 밖 청소년 소속감 증진

## 세부추진과제

1	학교 밖 청소년 원스톱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체 운영
2	청소년 친화적 직업체험/인턴십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및 보상 체계 마련

○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현장종사자 면접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자체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으며, 이러한 관심의 부재는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심한 경향성을 보였다.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지역 내의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의 연계망 구축이 어려웠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써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위기상황에서는 시급한 지원을 필요로 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유관기관 및 자원들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첫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 기관 및 다양한 자원들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담, 활동, 보호, 복지 등의 원스톱지원체계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의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장종사자 면접조사에서, 지역사회 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의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사례가 안전으로 올라와져 있을 때 정도에만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종사자들은 적극적으로 지역의 군수 혹은 관련 전문가를 학교 밖 청소년 행사에 초청하는 등 지역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이끌어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기협의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협의체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상담, 활동 지원, 보호 및 복지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이 더욱 현실화될 것이다. 실제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었는데<sup>65)</sup>, 협의체의 참여기관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러한 사례를 적극 공유하여, 지자체 상황에 맞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친화적 직업체험/인턴십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연계기관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12개 정도의 내일이룸학교가 운영<sup>66)</sup>되고 있고,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 16개의 시·도 꿈드림센터(세종시 제외)에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sup>67)</sup>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욱 실질적인 내용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꿈드림센터, 고용센터, 사업장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민관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내 연계망 구축과 민간자원 연계 우수사례를 선정, 포상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청소년의 수요를 고려한 청소년 친화적인 내용의 인턴십과 취업에 초점을 맞춰 견고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연계기관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종사자 FGI에서 보듯이, 연계기관 담당자들에게 봉사차원으로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렵다. 직업체험/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세금감면 혜택 등 실질적인 보상 제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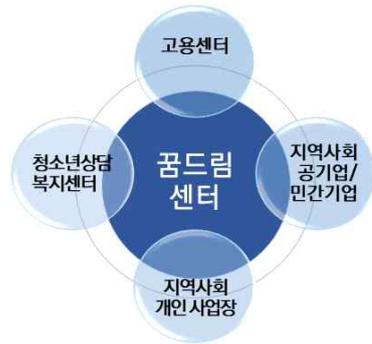


그림 VI-9. 지역사회 연계망 예시

-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통합지원 제공 및 다양한 직업체험/인턴십 기회 제공

65) 출처: 시사종합신문. 나주교육지원청,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관협의체 개최 (<http://www.sisatotalnews.com/article.asp?aid=1650455878165791005>)에서 2022.10.17. 인출)

66) 출처: 꿈드림센터. 내일이룸학교(<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1.asp>)에서 2022.10.17. 인출).

67) 출처: 꿈드림센터 홈페이지. 직업역량강화(<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2.asp>)에서 2022.10.17. 인출).

## 세부추진과제

1	도시지역 꿈드림센터 지원 차별화 및 재정비
2	소도시/읍면지역 꿈드림센터의 지원 격차 완화 지원
3	도농 간 꿈드림센터 연계·협력

○ **필요성**: 지역규모에 따른 지원체계를 파악한 결과, 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차이가 있었다. 도시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관기관 및 프로그램이 많아 꿈드림센터만의 차별화된 역할,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였다. 또 자치구 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청소년들이 이를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 소도시/읍면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많았다. 이러한 지역 간 지원 격차는 공평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소도시/읍면지역에서의 이러한 지원의 부족은 학교 밖 청소년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규모별 대책이 필요하다.

○ **추진내용**: 첫째, 도시지역은 꿈드림센터 지원을 차별화하고 역할 및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지역사회 내에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하여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기관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많다(예, 서울시 교육청, 친구랑센터 등). 따라서 꿈드림센터만의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꿈드림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특히 중복사업의 경우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한 각 기관들의 차별화 전략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로 관련 사업 특성화나 휴식공간 제공 등 차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외곽 소외지역이나 인근 소도시 꿈드림센터와도 연계하여 지원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도시/읍면지역의 꿈드림센터의 지원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도시/읍면지역의 경우 지역 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기관을 포함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집 외에는 갈 곳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집마저 안정적인 보호처가 되어주지 못하

는 경우도 있음), 소수라도 해도, 지역 내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021년도 본 연구에서도 소도시/읍면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은 적은 수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정부 부처에서 제시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한, 소도시/읍면지역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자체가 많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차 간격이 넓거나 대중교통이 꿈드림센터 인근까지 오지 않는 등 교통이 매우 불편할 수 있다. 소도시/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꿈드림센터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 편의 제공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이동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도농지역의 꿈드림센터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연계 및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도농 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진로체험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농촌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대도시의 진로관련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의 청소년이 농산어촌의 생태환경적 활동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일례로 올해 강원도 영월군의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 관악구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1박 2일간 다양한 진로관련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sup>68)</sup>, 이러한 도농 간 연계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와 관련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주요방안이 될 수 있다.

	도시지역	소도시/읍면지역
지역 특성	<p>풍부한 인프라, 편리한 교통,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청소년 기관다수, 충분한 가용 및 유사 자원</p>	<p>부족한 인프라, 불편한 교통,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부족, 제한적인 가용 자원</p>
정책 고려 사항	<p><b>꿈드림센터 지원 차별화 및 역할 재정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및 역할 관련 논의 필요</li> <li>• 서비스 차별화 및 맞춤형 지원 제공</li> <li>• 소외지역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계 지원</li> </ul>	<p><b>지원 격차 해소,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지역 꿈드림센터(인근 도시 지역)와의 연합사업 등 지역연계 활성화</li> <li>• 원거리 소외지역 청소년 이동성 제고</li> <li>• 취업/창업 포함 다양한 플랫폼 통한 지원</li> </ul>

주: p.240의 정리표에서 해당 내용을 도식화함. 소도시/읍면지역은 인구수 20만 이하의 지역으로, 도시지역은 그 외의 지역을 의미함.

그림 VI-10. 지역규모별 특성에 따른 정책 고려사항

-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지자체
- **기대효과:** 도농 간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한 형평성 있는 지원 제공

68) 출처: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진로원정대!([https://www.facebook.com/youthdreamtown/?ref=page\\_internal](https://www.facebook.com/youthdreamtown/?ref=page_internal)에서 2022.10.31. 인출)

## 세부추진과제

1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구축
2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 **필요성**: 최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청년 고립 등에 대한 이슈가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더해지고 있다. 은둔 성향이 높을수록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며(우울, 불안), 사회적 회피 등의 특성을 보인다(이윤지, 서민재, 최태영, 2015).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악화될 때, 또는 이러한 상태의 신호탄으로 청소년들은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고 그만두기도 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에서도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집에서 은둔한 경험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더 이상 과거 학교에서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은둔 성향을 보인다면, 이는 결국 청년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청년 NEET문제로 인해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윤철경 외, 2021),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의미가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또는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했던 '무업형'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은둔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또 학교체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서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더욱 이슈화되고 있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결국 정신건강 문제와 진로 불안, 경제적 불안정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유민상, 신동훈, 2021),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인력충원 등 인프라 보완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첫째,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가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은둔 성향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는 드물지 않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발굴 및 지원에 있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 주민센터,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 등 주변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그리고 청소년안전망과 아웃리치(out-reach) 및 청소년동반자 등을 활용한 은둔형 외톨이 징후 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내 은둔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경로로 지역사회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안전망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뿐 아니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학대, 가정폭력 피해 정보 등) 연계를 통한 발굴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둘째,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이후에는 체계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하다. 은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부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심리·정서적으로 심각한 상태인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가족 이력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부모나 형제자매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 문제와 가족 간 갈등관계의 사례도 있다(윤철경 외, 2021). 꿈드림센터의 여건을 고려할 때, 가족 에까지 개입하기는 어려우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건강가정 지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의 연계수준에서 역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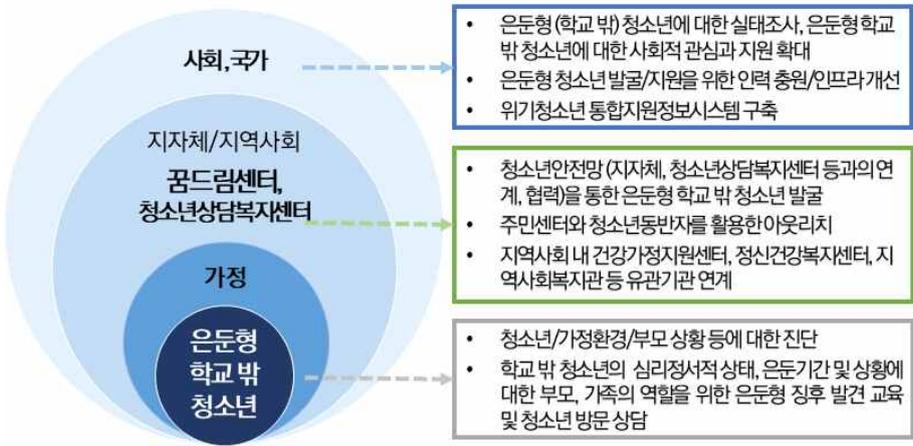


그림 VI-11.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다차원적 지원체계 예시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청년 고립 예방,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 세부추진과제

1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수당 제공을 통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동기 부여
2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
3	경제적 사각지대, 실질적 1인 가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4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위한 장학금 지원

○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이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이 매우 다양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에서도, 우선적으로 검정고시 준비 지원 등 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의 생활을 곤궁하게 할 뿐 아니라, 당장의 필요를 위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결국 자신의 희망이나 미래 설계 없이 성인이 이행시기를 지나쳐 버리게 한다.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내일이 룬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집을 나온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가 수급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1인 가구인 상황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는 아래의 청소년처럼 부모와의 갈등으로(학교를 그만두는 문제가 더해져) 집을 무작정 나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례도 있으며<sup>69)</sup>, 경제적인 문제로 희망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도 한다.

청소년 지금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벌이도 다 제가 직접 해야되는 거라서,

면담자 부모님한테 어떤 도움도 안 받고 계세요?

청소년 단 1원도 안 받고 있어요. (중략)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신규패널 학교 밖 청소년 25, 2020년)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Housing)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경제적인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경제적인 필요가 먼저 충족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지원은 이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69) 이 청소년은 당시 면접조사에서 계속 경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올해 면접조사에서는 이후 꿈드림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 위기를 넘겼다고 하였다. 현재는 대학에 진학하였고 어머니로부터 생활비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 **추진내용** : 첫째,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수당 제공을 통한 경제적 지원 확대와 이를 통한 동기 부여**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현장실무자 FGI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직업훈련 참여나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sup>70)</sup>,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제적 지원 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FGI에서 해당 실무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수당 지급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은둔형 청소년들이 부모의 독려를 통해, 또는 자발적으로 꿈드림센터를 찾게 되면서 정기적인 상담(분기당 1회)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sup>71)</sup> 또한, 일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원하는 진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후속지원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2)</sup>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러한 부가적인 장점들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 및 지자체 수준에서의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에서, 그리고 전국 규모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이 가장 열악하고 힘든 사례였다(김희진 외, 2021b). 이들은 부모의 지지나 지원 없이 경제적 필요를 채워야 하면서 또 자신의 진로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집중사례관리 등을 통한 심리 정서적 지원과 진로지원을 더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경제적 사각지대, 실질적 1인 가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부모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거나 도움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주무부처에서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더 확대할 것으로 공표하였

70) 현장실무자 FGI에서 경기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훈련 참여 및 성취를 기준으로 자립수당지원금을, 2020년부터 춘천시에서 시작한 ‘꿈드림 수당’은 2022년부터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되어 분기별 1회 상담을 전제로 월 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주어진다고 보고되었다. 이외에 앞서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의 친구랑 센터의 지원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은 월 20만원여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71) 출처는 현장전문가 FGI 내용으로, 해당 꿈드림센터에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아 프로그램 참여 수당에서 제외된 사례는 상당히 적었다고 하였다.

72) 출처: 현장전문가 FGI 내용

다(그림 VI-12 참조).<sup>73)</sup> 학교 밖 청소년이 모두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 눈에 띄지 않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만이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다른 법령에 따라 부모가 수급자이지만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거나,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sup>74)</sup> 청소년이 따로 나와 불안정하게 생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생활지원비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비, 학원비, 문화체험비 등 다양한 혜택, 선착해서 받자!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월 55만 원 → 월 65만 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	의복·음식물, 연료비, 숙식 등	월 55만원 ~ 월 65만원 (2인 기준)
간접	경식, 약, 예방·재활, 수송, 집회, 진료 등	연 200만 원 이내
학업	학교 수업료, 강연교사, 교과목 학원비 등	(수업료) 월 15만 원 [학원비] 월 30만 원 이내
직업	기술 습득, 진로상담 및 직업재활 등	월 36만 원 이내
상담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월 30만 원 이내
합동	수송, 법률상담비용 등	월 350만 원 이내 * 교육·문화·복지 분야별
청소년 활동	수업활동비, 문화체험비, 교외활동비 등	월 350만 원 이내
기타	교복, 체육복, 생활용품, 수업준비용 등	월 30만 원 이내

\* 지원대상: 생활·건강지원: 중위소득 95% 이하, 문화·복지: 중위소득 72%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모포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웹사이트(www.bokjiro.go.kr) 및 접속해 신청

출처: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72](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72)에서 2022.10.19. 인출.

그림 VI-1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안내문

넷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실질적인 1인 가구 청소년이거나, 심지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이 어렵다. 희망하는 진로를 위해 대한진학이 필요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민간후원의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지원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기대효과** : 경제적 취약 학교 밖 청소년 생활 안정, 안정적인 진로 준비 및 설계 보장

73) 출처: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간담회 개최([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72](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72)에서 2022.10.19. 인출)

74) 현재는 가구 소득이 기본적인 생활지원 기준이 되고 있다(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생활·건강 지원 분야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임)('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간담회 개최.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72](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72)에서 2022.10.19. 인출)

## 세부추진과제

1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2	후기청소년(만19~24세)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3	초등학교 미진학, 초등단계 학교 밖 청소년 요구 파악 및 현실적 지원 체계 모색

○ **필요성**: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에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그 안에는 다문화 배경, 후기 청소년기, 초등학교 단계 학교 밖 아동·청소년 등과 같이 다양한 정책대상이 포함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으나 여전히 인적·물적 인프라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책대상에 대한 논의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도 중국이나 남미와 같은 다문화 배경으로 학교부적응 사례가 있었고, 또 홈스쿨링을 이유로 초등학생 때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 한편으로, 10대 시기 이용했던 꿈드림센터를 2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찾아가기는 청소년도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서 다양한 특성의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 **추진내용**: 첫째,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와 ‘집안 경제사정’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양계민, 정윤미, 장운선, 2021). 또 교육부 최근 자료에서는 학교부적응에 따른 이유가 약 35%로 보도된 것에서 보듯이<sup>75)</sup>,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적응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는 가장 큰 이슈인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콜로키움에서 현장의 다문화가정 지원기관의 실무자는 다문화 청소년은 재학 중에도 따돌림과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지만, 학교를 나온 이후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두 가지 선입견에 직면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은둔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발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꿈드림센터 및

75) 출처: 세계일보(2022.02.22.). “교내 차별 너무 힘들어요”... 학업 중단 30%가 ‘부적응’(<https://www.segye.com/newsView/20220221514814>에서 2022.10.19. 인출)

관계기관 현장실무자 FGI를 위한 섭외 당시에도 도시나 읍면지역에서 모두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하였고, 위의 최근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28%만이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양계민 외, 2021).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다문화가정 지원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발굴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현장종사자 설문조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과 기초학력·한국어 교육 지원과 같은 특수한 지원 요구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기청소년(만19~24세)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면접에 참여했던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10대 시기 꿈드림센터를 이용했다가 20대가 되면서 대학진학과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이용하지 않았으나 일부 이용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또 취업이나 직업훈련의 요구가 커지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대학에 진학했어도 진로미결정 상태인 청소년도 있고, 여전히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적어도 센터를 이용했던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는 필요해 보인다. 올해 면접조사에서 20대 중·후반의 기존 패널과 10대 후반의 신규 패널 모두 본 연구를 위해 매년 연락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준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편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기도 했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진술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초등학교 미진학, 초등단계의 학교 밖 아동·청소년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현실적인 지원체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결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저연령화가 두드러졌고(김희진 외, 2021b), 본 연구를 위해 대면한 현장종사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해주었다. 이들 저연령 학교 밖 아동·청소년들은 홈스쿨링이나 별도의 대안교육기관 이용을 위해 초등학교를 그만두고(또는 미진학 상태), 꿈드림센터 이용을 병행하기도 한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9세부터 꿈드림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성인기 이행을 앞둔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책대상으로서 이들의 지원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고, 지원요구에 대한 실태 파악에 기초하여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지자체,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정 지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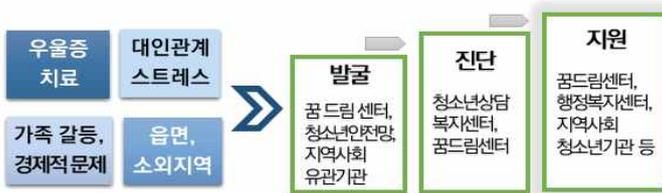
○ **기대효과** : 다양한 상황/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실질적인 성장 지원

세부추진과제

복합적인 취약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진단-지원 체계를 통한 전인적 관점의 지원 제공

○ **필요성**: 본 과제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처한 사례들이 있었다. 개인의 노력, 가족 간 갈등 해소, 지지체계의 역할 등으로 개인적 문제와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고, 꿈드림센터와 청소년기관 등을 통한 지원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복합적인 문제들은 단기간 해결이 어렵고, 이 가운데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준비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또 진로지원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는 분절적인 지원이 아닌 전인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추진내용**: **복합적인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진단-지원하는 체계를 통해 전인적 관점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래 그림 VI-13처럼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또래관계 갈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가족 간 문제가 있었으며, 읍면지역에서 인프라가 부족했고, 친구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 버렸다. 이후 꿈드림센터와 청소년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상황도 개선되었으나, 다소 단편적인 지원에 그쳤다. 취약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주목하고 이들을 발굴하여 문제와 상황들을 정확히 진단한 후 전인적 관점에서 지원할 체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지점이다.



주: 올해 추진된 협동연구보고서의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결과의 일부 내용을 도식화하였음.

그림 VI-13. 복합적으로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진단-지원 체계 예시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기대효과** : 복합적인 취약한 상황·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 생활 안정 및 진로 준비

세부추진과제

1	진로미결정 청소년 대상 심층 진로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	진로상담 전문 인력 배치

○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조사 설계 시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로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으로 구분하였다(윤철경 외, 2018). 그러나 이후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실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기보다 진학할 것인지, 또는 취업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진로미결정’인 상태가 많았으며, 최근의



출처: 김희진 외(2021b).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111의 통계표에서 해당 내용을 도식화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학교 밖 청소년 중 35.7%가 진로미결정으로 조사되었다(김희진 외, 2021b).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미결정 상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I-14. 학교 밖 청소년의 향후 진로계획

○ **추진내용**: 첫째, 진로미결정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진로지도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실효성있는 진로지도를 필요로 하였고,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는 불안감에 대학진학을 한 후에도 향후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는 더욱 심층적인 진로지도와 체험 기회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지원은 진로상담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꿈드림 및 관련기관 종사자 비율이 8.3%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김희진 외, 2021b), 전문가를 통한 진로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먼저 지자체, 지역사회 내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점차적으로 진로상담 전문 인력의 꿈드림센터 배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 **기대효과**: 진로미결정 학교 밖 청소년의 구체적인 진로 결정 및 미래 설계, 준비

## 세부추진과제

1	학습부진 학교 밖 청소년의 기초학력 취득을 위한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플랫폼 개발

○ **필요성**: 학업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거나, 학습부진으로 누적된 기초 학습능력의 부족은 학교생활에 더 흥미를 잃게 할 수 있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성 지능문제나 다문화가정 배경에 따른 언어능력 미흡의 이유가 아니라고 해도 학습부진은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며,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검정고시 등을 통한 기초학력취득도 쉽지 않게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격취득을 위한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의 취업현장에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추진내용**: 첫째, **학습부진 학교 밖 청소년의 기초학력 취득을 위한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꿈이음)이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이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부진일 경우, 쉽게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부진 학교 밖 청소년의 기초학력 취득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대학생 멘토나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습부진인 청소년에게는 심층적인 개별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등록과정을 거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학습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런'<sup>76)</sup>과 같이,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의 기초학력 취득 및 이후 진로 모색 기초 마련

76) 출처: 서울런 홈페이지 '서울런' 소개(<https://slearn.seoul.go.kr/front/introduce.do>에서 2022.11.01. 인출)

## 세부추진과제

1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전문 상담 및 병원 치료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의지 및 동기부여,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제공
3	사회적 관계 및 소속감 기회 제공 확대

○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경제적 결핍, 가정불화, 따돌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었고, 이 시기 심리·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거나 불안, 우울해 진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것이 정상적인 발달을 벗어난 것 같다는 자책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현장종사자 FGI에서도 이러한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울, 불안, 대인기피와 같은 심리·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물 치료 등의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첫째, **심리·정서·사회적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심각한 트라우마, 우울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 상담 및 병원 치료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검진 항목에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의 심리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후속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용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정신건강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이 꿈드림센터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의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및 유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트라우마,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전문적인 상담 및 병원 치료를 지원해야 하며,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의지 및 동기 부여,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올해의 협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약한 상황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스스로를 성장시키려는 의지, 노력과 같은 내적인 힘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사례들이 있었다. 또 현장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진로 설정 및 탐색을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 및 동기가 없다면 이러한 프로그램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를 통해 자아를 발달시키고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학교를 그만두면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존에 형성하였던 또래 관계에서의 단절을 경험한다. 단순히 이야기를 할 대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를 아껴주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단절을 경험하면서 소외감, 무기력감, 우울감 등을 느끼게 된다. 현장중사자 FGI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교류를 매우 필요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여럿이 한 친구 집에 모여 같은 공간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지속적으로 또래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수학여행 등의 다양한 활동 기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의미 있는 성인과의 관계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년 및 성인들과의 멘토링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학교 밖 청소년 진로 탐색 및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학교 밖 청소년 소속감 및 사회성 증진

세부추진과제

1	청소년 요구 및 미래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직업체험 기회 확대
2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자기주도적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3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제고를 위한 경제적 보상 확대

○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교육·취업체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현장종사자 FGI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취업지원의 중요성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였을 때, 프로그램 참여도 및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과 같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혹은 외부 활동을 꺼려하는 은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협동조합, 온라인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식이 고려되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 **추진내용**: 첫째, **청소년의 요구 및 미래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내일이룸학교, 지역고용센터, 꿈드림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및 체험 기회를 폭넓게 발굴하고,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 및 체험 기회를 카페, 제과·제빵 등의 서비스업종 이외에,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부터 IT기술 및 컴퓨터 관련 산업, 창업까지 미래 전망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히 실제 취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기술 습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꿈길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인증받은 직업훈련 및 체험처를 활용하고<sup>77)</sup>,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지원센터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기주도적 자립 작업장을 포함한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대도시는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인근 도시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 내의 부족한 인프라로 인한 제한된 취업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거점형 자립작업장이나 권역별 교류형 자립작업장을 운영<sup>78)</sup>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

77) 출처: 꿈길 홈페이지-공지사항: 인증기관 선정결과 공고([https://www.ggoomgil.go.kr/front/bbs/bbsDetail.do?&bbs\\_seq=14947](https://www.ggoomgil.go.kr/front/bbs/bbsDetail.do?&bbs_seq=14947)에서 2022.10.31. 인출)

며, 협동조합(예, 5장의 곡성군 꿈드림센터의 카페 다얼), 사회적 기업과 같은 형태로도 취업지원이 가능하다. 카페 다얼의 꿈드림센터 담당자 면접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기획에서는 꿈드림센터 실무자의 역할이 클 수 있으나, 사업 아이템 발굴부터,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더욱 주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창업 기획 및 회계,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지원과 협동조합 대표자 및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필요성도 나타났다.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을 다양하게 개발, 확산하고, 취업·창업 동아리, 진로 멘토 강의, 컨설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셋째,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수당, 직업훈련 수당, 인턴십 수당과 같은 경제적인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 수당 지급을 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는 학교를 조기에 그만둔 청소년의 취업 및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다(김희진 외, 2021a). 청소년의

**표 VI-29. 호주의 학생 및 견습제도 참여 청소년 수당 지급 내용<sup>79)</sup>**

환경적 여건	수당(격주)
18세 미만, 미혼, 무자녀,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313.80
18세 미만, 미혼, 무자녀, 학업, 훈련, 구직을 위해 부모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경우	\$530.40
18세 이상, 미혼, 무자녀이면서 부모 집에 거주하는 경우	\$367.60
18세 이상, 미혼, 무자녀, 부모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경우	\$530.40
미혼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679.00
자녀가 없는 부부	\$530.40
자녀가 있는 부부	\$577.40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부모로부터의 독립 여부 등에 따라 수당 금액에 차등을 두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관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표 VI-29).

○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취업지원 참여 독려 및 자립 지원 강화

78) 거점형 자립작업장은 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가 자립작업장을 제공하는 거점지역의 센터로써 같은 권역의 인근 도시 지역 센터에 자립작업장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권역별 교류형 자립작업장은 인근 지역에 있는 A지역과 B지역이 자립작업장을 교류하는 형태로, 각각 다른 직종의 자립작업장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79) 출처: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68의 표를 업데이트 하였음(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How much you can ge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youth-allowance-students-and-australian-apprentices/how-much-you-can-get#payment-rates>에서 2022.10.17. 인출)

## 세부추진과제

1	대입 전형에 따른 전문적인 대학 진학 지원 제공
2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학 기회 확대

○ **필요성**: 적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꿈드림센터를 통한 입시 지원(검정고시 지원, 대학 진학 컨설팅 등)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에 비해 수능 준비, 대학 입시 정보 취득, 진학 상담 등의 기회가 적어, 고군분투하며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 입학 관련 심층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추진내용**: 첫째, **대입 전형에 따른 전문적인 대학 진학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수시 뿐 아니라 수험능력시험을 통하여 정시로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시 학원 및 강사와의 수업을 지원하는 등 심화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sup>80)</sup> 또한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대학 진학 기회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생활기록부 정보 제공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꿈드림센터 종사자 대상 워크숍 등 청소년생활기록부 준비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과제의 협동연구에서 제안한바와 같이, 대학 입학 진로상담을 위해 교육청·고등학교와의 연계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입학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통하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데, 2022년 입시에서는 6개의 대학에서 시범 운영하여 향후 16개의 시·도별로 1개 이상의 대학에서 추진할 예정(여성가족부, 2022a)이다. 이러한 방식의 대학 입학이 보다 넓은 지역에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교육부

○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학 기회 확대 및 진로 준비 강화

80) 본 연구의 기존 패널 면접조사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알려주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강(인터넷 강의)밖에 없거든요. 의지할 데가”라고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도 있었다.

## 세부추진과제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주기, 발달단계와 생태체계에 기반한 종합적인 지원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 성과도 컸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결과에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집을 나오면서 경험하는 경제적 위기 등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시한 지원체계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들을 적시에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오래전 학교를 그만둔 기존 패널과 최근 학교를 그만둔 신규 패널들에 대한 면접결과를 정리하면서 주목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생애주기와 또 이들을 둘러싼 체계를 아우르는 더욱 전인적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하고, 파편화되거나 분절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입과 지원, 이후 사례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제도권 공교육을 중도에 그만둔 이탈자로서의 부정적인 시선에 갇히기보다, 학생 청소년과 다를 바 없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적인 틀 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단계, 그만둔 직후, 또 이후 학교 밖 생활이 적응되면서 본격적으로 진로준비에 돌입하는 단계, 그리고 이후의 성인기 이행을 구분하고, 각 시기에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심리적 지원이 한 시점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집중해야 될 시기가 있으며, 또 개인과 가족체계와 지역사회 및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원들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주기와 발달단계, 학교를 그만둔 시점, 그리고 주변 체계를 함께 고려한 지원방안을 정리하면 그림 VI-15와 같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모든 지원이 제시된 것은 아니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인프라와 관련된(인적, 물적 자원, 종사자 관련)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그림 VI-15.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생태체계 기반 종합적인 지원방안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강종구, 김영표, 정광조, 최종근 (2018).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론 :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David W. Stewart, Prem N. Shamdasani, 2015, FOCUS GROUPS : The ory And Practice, Sage).
- 고용노동부 (2020). **한눈에 보는 청년고용지원정책**. 세종: 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에서 2022.10.01. 인출.
- 김경애, 선혜연, 임종현, 조은주, 류방란, 안해정, 권희경 (2018).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III)**(연구보고 RR 2018-05).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애, 선혜연, 조은주, 임종현, 양희준, 안해정, 한은정, 박철희 (2017).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II)**(연구보고 RR 2017-14).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애, 선혜연, 조은주, 임종현, 이상은, 안해정, 한은정 (2016).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I)**(연구보고 RR 2016-1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연구보고 21-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곤, 염주희, 정희선, 최준영, 권지성, 이은미, 정선옥, 정혜숙, 조준용, 이현주 (201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2013-20).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염주희, 최현수, 정희선, 김성아, 김은빈, 권지성, 이은미, 정선옥, 조준용, 하경희, 이현주 (2012).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2012-36).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세원, 김선숙 (2012). 지역사회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복지학**, 39, 127-150.

- 김옥선, 권정언 (2015). AHP를 이용한 교육기부자, 진로진학상담교사, 학생의 직업체험 성과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 **진로교육연구**, 28(3), 1-19.
- 김은석, 양안나, 오찬호, 장서영, 하지영, 송스란 (2016).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3차년도)**(기본연구 2016-27).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은석, 오찬호, 심우정, 하지영 (2015).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2차년도)**.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은석, 장서영, 심우정, 오찬호, 하지영, 송순영 (2014). **베이비부머 경력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1차년도)**.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정원, 강구섭, 김지수, 김성식, 조정아, 최유림, 조정래 (2016).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I)**(연구보고 RR 2017-17).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 김지수, 김지혜, 김진희, 조정아, 김윤영, 김성식, 조정래 (2018).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III)**(연구보고 RR 2018-04).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수, 강구섭, 김진희, 박희진, 김지혜, 조정아, 김윤영, 김현철, 조정래 (2017).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II)**(연구보고 RR 2016-1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연, 백혜정 (2017).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연구보고 17-R4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혜, 김정원, 김지수, 이동엽, 조정아, 김윤영, 김선, 조정래 (2019).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IV)**(연구보고 RR 2019-10).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I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21-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서고운 (2021b).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III: 질적패널조사 중심으로**(연구보고20-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창용, 나주몽 (2013). 대학 캠퍼스 외부시설의 공간적 특성이 지역커뮤니티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용봉캠퍼스를 사례로. **지역개발연구**, 45(2), 109-138.
- 박휴용 (2014). **질적연구 방법론**. 전북: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청소년정책과제 제안 자료집. <http://www.f-youth.or.kr/notice/view.asp?key=926&Page=1>에서 2022.

01.16. 인출.

- 양계민, 정운미, 장윤선 (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2022a). **202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b).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II**. 서울: 여성가족부.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 21-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박선영, 임말희, 김재희, 문금화, 김연정 (202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가족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https://m.nars.go.kr/report/list.do?page=2&cmsCode=CM0010&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에서> 2022.09.05. 인출.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18-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연구보고 13-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윤지, 서민재, 최태영 (2015). 한국 청소년에서 사회적 은둔의 정신병리적 특성.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4(4), 549-555.
- 이창호, 최용환, 도수관 (2016).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16-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윤철경, 서고운, 이동훈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19-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미경, 김경애, 선혜연, 임종현, 조은주, 최한나, 정광희, 한은정, 이선영, 이슬아, 홍세진 (2019).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IV)**(연구보고 RR 2019-01).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2012). **청소년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Rice, F. Philip, Dolgin, Kim Gale, 2008,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Pearson Education, Inc).
- 조아미, 임정아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보고 18-R16-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아미, 임정아, 김남은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지역사회**

-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연구보고 19-R16-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 천정웅 (2011). 청소년참여의 유형화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7-47.
- 최민정, 권정호 (2014).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불평등의 실증분석.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7(1), 103-138.
- 최현수, 정혜숙, 권지성, 이은미, 정선옥, 조준용, 하경희, 유진영, 정희선, 고지영 (201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질적 연계 패널조사**(연구보고서 2011-21).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리서치(2022).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리뷰 서베이 결과**. 내부자료. 서울: 한국리서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이야기하다.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통권 제3호. [https://www.kyci.or.kr/fileup/issuepaper/IssuePaper\\_2022%EB%85%84%203%ED%98%B8.pdf](https://www.kyci.or.kr/fileup/issuepaper/IssuePaper_2022%EB%85%84%203%ED%98%B8.pdf)에서 2022.10.18. 인출.
- Berlin, G., Furstenberg, F. F., & Waters, M. C. (2010). Introducing the issue. *The Future of the Children*, 20(1), 3-18.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merson, R. M., Fretz, R. I., & Shaw L. L (1995). *Writing Ethnographic Fieldno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arrall, S.(2006). What is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LSE Methodology Institute. Papers in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Series*, Paper 11.
- Fellin, P. (2001). *The community and the social worker*. Itasca: F. E. Peacock Publishers.
- Furstenberg, F. F. (2010). On a new schedule: Transitions to adulthood and family change. *The Future of the Children*, 20(1), 67-87.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 for qualitative research*. Piscataway, NJ: Transaction Publishers.
- Hillery, G.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Holland, J., Thomson, R., & Henderson, S. (2006).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A discussion paper*. London: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Sage: Thousands Oaks.
- MacArthur Research Network on Transition to Adulthood (2005). *Adolescence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Rethinking Public Policy for a New Century*. Conference Summa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erriam, S.B., & Tisdell, E. J. (2015).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 Bass.
- Molloy, D., Woodfield, K., & Bacon, J. (2002).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in Evaluation Studie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Working Paper No. 7. London: HMSO.
- Rabinowitz, J., (1992). Collective Decision-Mak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26(1), 87-97.
- Rumbaut, R. G., & Komaie, G. (2010). Immigration and adult transitions. *The Future of the Children*, 20(1), 43-66.
- Saaty, T. L. (2008). Relative measurement and its generalization in decision making why pairwise comparisons are central in mathematics for the measurement of intangible factors the analytic hierarchy/network process. RACSAM-Revista de la Real Academia de Ciencias Exactas, Fisicasy Naturales. Serie A. *Matematicas*, 102(2), 251-318.
- Saaty, T. L. & Vargas, L. G. (1991). *The Logic of Properties*. RWS, Pittsburgh, PA.
- Settersten, R. A., Furstenberg, F. F., & Rumbaut, R. G. (Eds.). (2005).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ucksmith, M., & Philip, L. (2000). *Social exclusion in rural areas: A literature*

*re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The Scottish Executive Central Research Unit.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196.6693&rep=rep1&type=pdf>.에서 2021.02.16. 인출.

Strauss, A. L. & Corbin, J.(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lifornia: Sage.

The University of Melbourne. Life Patterns Longitudinal Study Overview. <https://education.unimelb.edu.au/life-patterns#about>에서 2022.02.18. 인출.

Thomson, R., (2007). The qualitative longitudinal case history: practical, methodological and ethical reflections. *Social Policy and Society*, 4(4), 571-582.

Ward, J., & Henderson, Z (2003). Some practical and ethical issues encountered while conducting tracking research with young people leaving the 'care'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6(3), 255-259.

#### [보도자료·기사]

교육부 보도자료 (2014.05.28.). 학업중단 학생 보호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돌봄 공간「친구랑」설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53598&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10.01.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 (2016.12.1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 마련.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65149&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10.01.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 (2022.01.19.). 코로나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041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02.15. 인출.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2.05.29.).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학업중단 숙려제」도입.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3061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

m=020402&opType=N에서 2022.10.01. 인출.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11.28.).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수립.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51526&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2&s=moe&m=020402&opType=N>에서 2022.10.01. 인출.

세계일보(2022.02.22.). “교내 차별 너무 힘들어요”... 학업 중단 30%가 ‘부적응’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221514814>에서 2022.10.19. 인출.

시사저널 (2021.10.10.).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선입견 없어야”.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336>에서 2022.02.15. 인출.

시사종합신문 (2022.04.20.). 나주교육지원청,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관 협의체 개최. <http://www.sisatotalnews.com/article.asp?aid=1650455878165791005>에서 2022.10.17.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4.05.0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694322](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694322)에서 2022.05.30.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5.02.05.).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첫 발을 내딛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69568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695687)에서 2022.05.30.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9.22.). 여성가족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지원, 인식 개선 협력.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234](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234)에서 2022.10.17.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15.). 학교 밖 청소년, 「생활기록부」로 대학 간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43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439)에서 2022.05.30.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1.26.). 내일이룸학교, 이 안에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가 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838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8388)에서 2022.10.01.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9.2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간담회 개최.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8772](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8772)에서

2022.10.01. 인출, 2022.10.19. 인출.  
여성가족부 브리핑.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29552>에서 2022.10.19. 인출.  
이데일리 (2021.8.26.). 팬데믹의 역설... 학업중단을 15년만에 최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12726629151256&mediaCodeNo=257>에서 2022.01.19. 인출.

### [홈페이지 자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4.do>에서 2022.10.01. 인출.  
고용노동부. 기관소개. <https://www.moel.go.kr/agency/overview/vision/list.do>에서 2022.10.01. 인출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에서 2022.10.01. 인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에서 2022.10.01. 인출.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진로원정대! [https://www.facebook.com/youthdreamtown/?ref=page\\_internal](https://www.facebook.com/youthdreamtown/?ref=page_internal)에서 2022.10.31. 인출.  
꿈길 홈페이지-공지사항: 인증기관 선정결과 공고 [https://www.ggoomgil.go.kr/front/bbs/bbsDetail.do?&bbs\\_seq=14947](https://www.ggoomgil.go.kr/front/bbs/bbsDetail.do?&bbs_seq=14947)에서 2022.10.31. 인출  
꿈드림센터. 내일이룸학교.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1.asp>에서 2022.5.30, 2022.10.01, 2022.10.17. 인출.  
꿈드림센터. 서비스소개.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1/sub010204.asp>에서 2022.05.30. 인출.  
꿈드림센터. 우수프로그램. 2021년 7월 우수프로그램집. [https://www.kdream.or.kr:446/user/sub/view.asp?page=1&rows=15&task=ins&bid=bid\\_305&boIdx=4736&si=title&st=](https://www.kdream.or.kr:446/user/sub/view.asp?page=1&rows=15&task=ins&bid=bid_305&boIdx=4736&si=title&st=)에서 2022.05.30. 인출.  
꿈드림센터. 우수프로그램. [https://www.kdream.or.kr:446/user/sub/list.asp?bid=bid\\_305](https://www.kdream.or.kr:446/user/sub/list.asp?bid=bid_305)에서 2022.05.30. 인출.  
꿈드림센터. 우수프로그램(직동힐링캠프). <https://www.kdream.or.kr:446/user/sub/>

view.asp?page=1&rows=15&task=ins&bid=bid\_305&boIdx=4308&si=title&st=에서 2022.10.17. 인출.

꿈드림센터. 지역 꿈드림센터 찾기. <https://www.kdream.or.kr:446/user/kdm200pm/list.asp>에서 2022.05.30. 인출.

꿈드림센터. 직업역량강화.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2.asp>에서 2022.10.17. 인출.

꿈드림센터.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1.asp>에서 2022.05.30. 2022.10.01. 인출.

꿈드림센터.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3.asp>에서 2022.10.01. 인출.

꿈드림센터.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내일이룸학교.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1.asp>에서 2022.10.01. 인출.

꿈드림센터.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직업역량강화.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2.asp>에서 2022.10.01. 인출.

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5/sub050301.asp>에서 2022.10.17. 인출.

꿈이음. 제도소개. <https://www.educerti.or.kr/webmdl/institution/menuHtmlDetail.do?cmkey=10823>에서 2022.10.01. 인출.

내일새싹교육. <http://naeilschool.org/xe/seoul>에서 2022.05.30. 인출.

동방센터. <https://dbschool.modoo.at/>에서 2022.05.30.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2.10.17., 2022.10.18. 인출.

서울런 홈페이지. '서울런' 소개. <https://slearn.seoul.go.kr/front/introduce.do>에서 2022.11.01. 인출

스마일어게인. <https://www.sagain.org/>에서 2022.05.30. 인출.

윈두. <https://www.facebook.com/DailyRoasting12/>에서 2022.05.30. 인출.

여성가족부 블로그.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최초 개최.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598717614>에서 2022.10.17. 인출.

은평도서관마을. <https://cafe.daum.net/youthcafejk>에서 2022.05.30. 인출.

일하는 학교. <https://www.workingschool.net/264>에서 2022.05.30. 인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학생1인당 투자액 연도별 추이. <https://www.eduinfo.go.kr/portal/theme/studentTap1Page.do>에서 2022.02.15. 인출.

찰나. <https://www.facebook.com/chalna1324>에서 2022.05.30. 인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에서 2022.10.01. 인출.

청소년자립학교. <http://youthschool.co.kr/24>에서 2022.05.30. 인출.

친구랑(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연혁. [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034&menuNo=1050000](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034&menuNo=1050000)에서 2022.10.01. 인출.

친구랑. 친구랑 주요사업. [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18&menuNo=2020000](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18&menuNo=2020000)에서 2022.10.01. 인출.

카페 다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cafe\\_daeol](https://smartstore.naver.com/cafe_daeol)에서 2022.05.30., 2022.10.17. 인출.

카페 다얼. <https://dream.gsyouth.kr/cafe-%EB%8B%A4%EC%96%BC>에서 2022.05.30.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2.11.08.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5~2021년 학업중단자 수 검색.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2.11.08.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9년부터 2021년 학업중단 사유 검색.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21년 기준).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2.10.16. 인출.

함께시작. <https://starttogether.or.kr/>에서 2022.05.30.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How much you can ge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youth-allowance-students-and-australian-apprentices/how-much-you-can-get#payment-rates>에서 2022.10.17. 인출.

○ — 부 록



# 부록

## 부록1.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 상세 면접조사 질문지

※ 아래 질문지는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예시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실제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진행 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재구성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질문은 가능한 지양함.

영역	면접내용	
I. 도입	1. 연구 목적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조사는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li> <li>•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교를 그만두는 또는 그만둔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li> <li>• 심층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li> </ul>
	2. 인터뷰 방식 설명 및 동의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의 답은 맞거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평소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li> <li>• 응답하기 곤란하거나 잘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해 주셔도 무방합니다.</li> <li>• 면접내용과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다.</li> <li>• 단, 조사 내용분석을 위해 녹음이 필요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li> <li>• 면접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li> </ul>
	3.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및 연령 : 성별 및 태어난 연도 확인</li> <li>• 거주지역: 현재 살고 있는 곳 확인, 이사 여부 확인</li> <li>• 마지막으로 정규학교를 그만둔 시기 재확인(“OOOO년도에 학교를 그만두셨지요?”)</li> </ul>
II. 현재생활 및 진로 발달 상황	1. 현재 생활	<p>① <b>요즘 주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학업)/ 진로·취업준비/ 취업·아르바이트 /(남자의 경우)군입대(공익, 사회복무 요원 근무) 중</li> <li>* 아래 현재 진로발달 상황 중 아래 2), 3), 4) 중 해당되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질문</li> <li>- 전년도 상황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li> </ul>
	2. 진로관련 과거 경험	<p><b>[(학업중단 후) 본격적인 진로결정 전 검정고시,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경험 조사]</b></p> <p>1-1) (학업중단 후)검정고시 취득/준비를 했었나요?</p>

영역	면접내용
(학업 중단 후)	<p>①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했나요?          ②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③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④ 검정고시 합격이후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신과 주위의 반응, 아르바이트를 더하게 되거나 생각지 않았던 대학선택을 하기도 함)</p> <p>※ (검정고시를 준비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경우) 학력취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p> <p>1-2) (학업중단 후)과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          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② 그 일은 어떠한 경로(정보 취득 경로, 지원 경로 등)로 하게 되었습니까?          ③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④ 그 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었나요? 등          ⑤ 그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 탐색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나요?</p> <p>1-3) 혹시 (학업중단 후)과거/현재에 취업준비(직업훈련/자격증취득 등)를 한 적이 있나요?          ① 어디에서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예시: 내일이룸학교)          ② 어떠한 경로로 하게 되었습니까?          ③ 그러한 준비가 취업 혹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족스럽습니까?          ④ 준비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셨나요? 아니라면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만족/불만족, 어려움, 그 이유 등 포함          ⑤ 이것을 마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⑥ 이와 관련하여 바라는 점(또는 도움이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p>
	<p>1) <b>공부/학업/진학과 관련된 경우 (검정고시 취득 이후 대학 진학 등)</b>          ①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② 최초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공부해 왔습니까?(대학/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③ 공부를(대학/대학원에 진학) 하게 된 이유나 계기는 무엇입니까?          ④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학업/학력의 의미)          ⑤ 지금 하는 공부를 마치고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⑥ 학교를 그만둔 것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p> <p>2) <b>현재 일(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경우</b>          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확인)          ② 언제부터 해 왔으며 언제까지 계속할 예정입니까?          ③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 이 일은 어떤 경로(정보 취득 경로, 지원 경로 등)로 하게 되었습니까?          ④-1.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나요? 학교를 그만둔 것 때문에 취업에(또는 일하면서) 어려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⑤ 4대보험 가입과 같은 처우/복지 수준은 어떠한가요?          ⑥ 일 경험이 만족스러운가요?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⑦ 일 경험이 불만족스러운가요?(어렵거나 힘든 점 포함)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만족스럽다면 이직할 생각이 있나요?(구체적인 사유는?)</p>
3. 현재 진로 상황	

영역	면접내용
	<p>3) 무업,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li> <li>② 무엇을 할 계획이 있는지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는지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1. 이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li> </ol> </li> <li>③ 현재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li> <li>④ 불만족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생활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합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1. 어떻게 하면 (어떤 도움이 있으면) 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li> <li>④-2. 생활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li> </ol> </li> </ol> <p>4) (남자의 경우) 군복무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언제 군복무를 마쳤습니까?</li> <li>② 군복무를 마친 후 어떻게 생활하였습니까?</li> </ol> <p>※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p>
<p>4. 현재 하루 일과 [무업인 경우 우만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평일과 주말의 기상 및 취침시간은 어떻게 됩니까?</li> <li>② 평일과 주말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보기: 동아리·단체·종교·모임·컴퓨터 게임·SNS·술마시기 등]</li> <li>③ 이러한 생활이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li> </ol> </li> <li>④ 원하는 생활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원하는 도움이나 지원이 있습니까?</li> </ol>
<p>5. 직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재 본인의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1. [현재 공부/학업/진학 관련 생활 하고 있는 경우] 현재 하고 있는 공부나 미래 갖고 싶은 직업과 관련이 있나요? 미래 직업은 결정하였나요?</li> <li>①-2.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갖고 싶었던 직업/일인가요? 미래에 다른 직업을 갖고 싶은가요?</li> <li>①-3. [무업인 경우]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이 있나요?</li> </ol> </li> <li>② [갖고 싶은 직업이 있는 경우] 그렇게 결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1. 그 직업을 희망하게 된 계기나 영향을 받은 사람, 정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li> </ol> </li> <li>③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1. 이를 위해 지원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십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li> <li>③-2. 준비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li> <li>③-3. 그 이유가 학교를 그만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③-4. 어떠한 도움이 있으면 희망하는 직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ol> </li> </ol>
<p>6. 최근 주 관심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재의 주요 관심사나 고민은 무엇입니까? (보기: 진로, 가족, 친구·이성, 경제적 어려움, 건강, 거취나 생활 문제 등)</li> <li>②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까?</li> <li>③ 지금 말씀하신 고민이, 만약 과거 학교를 계속 다녔었다면 없었을까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1.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달라졌을까요?</li> <li>③-2. 학교를 계속 다닌 친구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li> </ol> </li> </ol>

영역	면접내용
III. 학업 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인식 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도권 공교육(학교)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까? 본인과 주변의 생각은?</li> <li>②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모습과 달랐을까요?</li> <li>③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1. 학교를 그만둔 결정(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0(매우 불만족)에서 10점(매우 만족)으로 표현한다면, 당시는 몇점 정도였을까요?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몇 점인가요?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수가 높아졌다면) 어떻게 점수가 높아졌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요?</li> <li>- (점수가 낮아졌다면) 뭐가 달라지면 점수가 높아질까요?</li> </ul> </li> </ol> </li> </ol> </li> </ol> <p>[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2. 학교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었다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 같나요?</li> <li>③-3. 만일, 어떠한 지원이나 상황이 되었다면 학교로 복귀하였을까요?</li> </ol>
IV. 청소년기 경험에 대한 인식/영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학업 중단과정의 학교/정부의 역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학교 또는 정부(국가)가 어떠한 역할 또는 안내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li> </ol> </li> </ol>
V. 경제적 상황 및 자립 실태, 미래 전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기 경험의 영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재 삶(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0대의 경험(생애사건 포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학업 중단 경험, 부모님의 이혼, 가족의 사망, 가출, 검정고시 도전 등)</li> <li>② 그러한 경험들이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서적, 경제적 등으로)</li> </ol> </li> <li>2. 현재 경제 상황 및 주거 상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재 수입이 있습니까? 주 수입원은 어디입니까? 수입원이 없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 월급 등 근로소득, 부모님/형제자매로부터 받는 지원, 정부/민간 지원금 등</li> <li>② 그 수입(또는 생활비)을 기준으로 어떻게 소비가 이루어지나요? (예: 50만원은 월세, 10만원은 핸드폰비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li> <li>③ 현재 부모님과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1. 독립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시기가 언제쯤인가요?</li> <li>③-2.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li> <li>③-3. 월세 혹은 생활비를 부모님께 드리고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li> </ol> </li> <li>④ 부모님과 살고 있지 않다면, 어디에서 누구와 언제부터 생활하고 있으며 이유는 무엇인가요?</li> <li>⑤ 대출 혹은 빚이 있었거나(혹은 신용불량상태), 현재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요?</li> <li>⑥ 대출 혹은 빚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청산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li> <li>⑦ 대출 혹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li> </ol> </li> <li>3. 성인기 이행과 자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li> <li>② 자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경제적, 심리적 자립 모두 포함)</li> <li>③ 본인이 자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li> </ol> </li> </ol>

영역	면접내용
	<p>[자립했다고 응답한 경우]</p> <p>③-1.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일시적으로라도 자립성공 경험/실패 경험 공유)</p> <p>③-2. 자립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제도, 주위의지지, 기회, 칭찬과 격려, 의지 등)</p> <p>[자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p> <p>③-3. 자립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p> <p>③-4. 자립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어려움 극복/문제해결 의지, 성취의지 등 포함)</p> <p>③-5. 자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심리적, 경제적 자립 포함)</p>
3. 미래 전망	<p>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것입니까?</p> <p>② 이를 해결/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셨나요?</p>
VI. 자신에 대한 생각과 사회적 관계 (지지체계)	<p>1. 자신에 대한 생각</p> <p>①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자존감 포함) 이러한 생각이 학교 밖 경험(학업 중단 과정 혹은 후에 겪은 경험)과 관계가 있나요?</p> <p>② 학업중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 남 앞에 서기 싫은 감정, 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혹은 느낌 등을 가진 적이 있나요?</p> <p>②-1. 언제 그런 생각, 느낌이 주로 들며, 얼마나 자주 드나요?</p> <p>②-2. 어떻게 대처하시나요?</p>
2. 심리 정서적 상태	<p>①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니까? 또는 불만족하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② 기분이 좀 가라앉아있거나, 혼자 있는 것 같거나, 안 좋은 감정(우울감, 소외감, 위축감, 불안함 등)을 느끼고 있나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p> <p>③ [학교를 그만둔 이후] 사회적으로 동떨어져 있다고(고립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3. 소중한 사람	<p>①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p> <p>②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일 미쳤거나 닮고 싶은 사람(role model)이 있습니까?</p> <p>③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p> <p>④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p>
4. 가족 관계	<p>[부모님]</p> <p>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p> <p>②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보기: 경제, 심리정서적 지지 등] 혹은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p> <p>③ 부모님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개입하십니까? 또는 무관심하십니까?</p> <p>③-1.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④ 과거 학교를 그만둔 시기와 현재 부모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면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p>
	<p>[형제·자매]</p> <p>① 형제·자매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혹은 어떠한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p> <p>② 형제·자매 중 학교를 그만둔 경우가 있습니까? 본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p>
5. 친구/이성 관계	<p>① 친구관계는 어떠한가요? 만족할만한 관계입니까?</p> <p>② 친한 친구는 어떻게 알게 된 친구이며, 친구와 만나 무엇을 하며 어떤 도움을 주고받습니까?</p>

영역	면접내용
	<p>③ 연인(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  <u>[있다고 응답한 경우]</u>            ③-1. 얼마동안 사귀었습니까?            ③-2. 갈등(싸움)이 있을 때,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폭력/욕 사용 유무)?            ③-3. 주로 어떠한 식으로 갈등(싸움)을 푸나요?            ③-4.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  <u>[없다고 응답한 경우]</u>            ③-5. 연인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연인이 있나요?            ③-6. 그 친구가 기억에 남는 이유와 헤어진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③-7. 연인이 없었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p>
6. 이외에 중요한 관계	<p>① 이 외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까?            ①-1.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입니까?            [보기: 학교선생님, 직장동료, 사회복지사, 지원기관 종사자(꿈드림 선생님, 멘토 등), 동호회, 교회와 같은 종교모임과 같은 개인적인 관계망 등]            ①-2. 어떤 점에서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p>
VII. 가족 구성에 대한 생각	<p>① 현재 연인과 동거를 하고 계시거나, 결혼을 하셨나요?  <u>[그렇다고 응답한 경우]</u>            ①-1. 동거 혹은 결혼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이는 있으신가요?            ①-2. 동거를 시작할 때/결혼할 때 상황이 어떠했나요?(예: 경제적 상황, 부모님의 지원 등)            ①-3. 학교 밖 경험이 동거/결혼하는 과정과 동거/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①-4. 현재의 동거/결혼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5. 현재의 동거/결혼 생활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6.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7. 동거/결혼 과정 혹은 생활 중 정부/지자체로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u>[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amp; 위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u>            *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한 경우, 위에서 하지 않았던 질문만            ①-8. 10년 후 본인이 속한 가족을 그렸을 때 어떠한 가족의 형태가 떠오르시나요? 이유는?            ①-9.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10. 학교 밖 경험이 결혼 과정 혹은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①-11. 결혼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어려운 점은 무엇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①-12. 결혼을 할 때 정부/지자체로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p>
VIII. 지역사회 및 정부 자원과 세부 정책과 사회 일반에 대한 생각	<p><b>[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의 도움 경험]</b>            ① 학교를 그만둔 후 현재까지 지역사회(기관/단체 등)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관 예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그 밖의 청소년관련 기관,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            [지원 예시: 상담, 검정고시 지원, 아르바이트 알선, 인턴이나 취업 준비 등]            ①-1. 어떤 경로로 그 기관/지원/도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①-2. 궁극적으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p>

영역	면접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지원/도움을 받고 싶었으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li> <li>③ 본인의 과거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했던 도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당시 지역사회, 지자체 특성상 아쉬웠던점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원체계 접근성, 인프라, 자원인력의 전문성, 협력네트워크 등의 어려움. 대도시 대비 열악함 등)</li> <li>④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지자체, 정부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④-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사회 수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예시: 진로탐색기회 제공, 심리상담 제공 등) ④-2.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러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li> </ul>
2. 기타 세부 정책 과제들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고 할 때, 어떠한 것(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을까요? 필요한 공간이 있나요?</li> <li>②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할 때, 어떠한 부분에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까요?</li> <li>③ 학교 내에서는 진로상담교사라고 진로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교사가 배치되어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학교 밖에서도 이러한 진로 상담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할까요?</li> <li>④ 꿈드림, 내일이룸학교 등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모르고 혼자 애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과 같은 서비스를 알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집에 은둔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li> </ul>
3. 사회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과거와 현재 생각 차이가 있습니까? [보기: 공평한 사회, 내가 살아가기 좋은 사회, 불리한 사회] ①-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만둔 시기, 현재를 두고 볼 때 사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요?</li> <li>②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학업중단(학력) 때문에 불이익이나 차별받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대학입시, 취업시 등) ②-1. 있다면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②-2. 그런 경험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li> </ul>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크게 와 닿는다면 언제인 것 같은가요?, 혹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지요? (앞서 생애사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학업중단이 비교적 큰 생애사적 사건으로 여겨지는지요?(또는 그렇지 않은지요?)</li> <li>② 본인의 학교 밖 경험들이 후배들이나 혹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해본 적 있나요? 어떠한 식으로 후배 혹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li> <li>③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 중에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li> <li>④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경험과 현재의 삶까지 아우르는 내용으로 몇 년간 면접에 참여했는데, 지난 수년간의 면접 경험이 어떠했나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면접을 마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지금까지 성심껏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 부록2.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 상세 면접조사 질문지

※ 아래 질문지는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예시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실제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진행 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재구성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질문은 가능한 지양함.

영역	면접내용
I. 도입	1. 연구 목적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조사는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li> <li>•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소중한게 활용될 예정입니다.</li> <li>• 심층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li> </ul>
	2. 인터뷰 방식 설명 및 동의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의 답은 맞거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평소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li> <li>• 응답하기 곤란하거나 잘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해 주셔도 무방합니다.</li> <li>• 면접내용과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다.</li> <li>• 단, 조사 내용분석을 위해 녹음이 필요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li> <li>• 면접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li> </ul>
	3.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및 연령 : 성별 및 태어난 연도 확인</li> <li>• 거주지역: 현재 살고 있는 곳 확인, 이사여부와 이유(최근1년간)</li> <li>• 마지막으로 정규 학교를 그만둔 시기 재확인("OOOO년도에 학교를 그만두셨지요?")</li> </ul>
II. 현재생활 및 진로 발달 상황	1. 현재 생활 <p>① <b>요즘 주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학업)/ 진로·취업준비/ 취업·아르바이트 /(남자의 경우)군입대(공익,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li> <li>* 아래 3.현재진로발달상황의 1), 2), 3), 4) 중 해당되는 응답에 따라 선택, 질문</li> <li>- 전년도 상황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li> </ul>
	2. 진로관련 과거 경험 <p><b>[(학업중단 후) 본격적인 진로결정 전 검정고시,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조사]</b></p> <p>1-1) (학업중단 후) 검정고시 취득/준비를 했었나요?            ①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했나요?            ②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③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④ 검정고시 합격이후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신과 주위의 반응, 아르바이트를 더하게 되거나 생각지 않았던 대학원학을 하기도 함)</p> <p>※ (검정고시를 준비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경우) 학력취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p> <p>1-2) (학업중단 후) 과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            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② 그 일은 어떠한 경로(정보 취득 경로, 지원 경로 등)로 하게 되었습니까?</p>

영역	면접내용
	<p>③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④ 그 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었나요? 등          ⑤ 그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 탐색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나요?</p> <p>1-3) 혹시 (학업중단 후) 과거/현재에 취업준비(직업훈련자격을 취득 등)를 한 적이 있나요?          ① 어디에서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예시: 내일이룸학교)          ② 어떠한 경로로 하게 되었습니까?          ③ 그러한 준비가 취업 혹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족스럽습니까?          ④ 준비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셨나요? 아니라면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만족/불만족, 어려움, 그 이유 등 포함          ⑤ 이것을 마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⑥ 이와 관련하여 바라는 점(또는 도움이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p>
<p>3. 현재 진로발달 상황</p>	<p>1) 공부/학업/진학과 관련된 경우 (검정고시 취득 이후 대학 진학 등)          ①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② 최초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공부해 왔습니까? (대학에 진학한 경우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③ 공부를(대학에 진학) 하게 된 이유나 계기는 무엇입니까?          ④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학업/학력의 의미)          ⑤ 지금 하는 공부를 마치고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⑥ 학교를 그만둔 것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p> <p>2) 일(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경우          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확인)          ② 언제부터 해 왔으며 언제까지 계속할 예정입니까?          ③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 이 일은 어떤 경로(정보 취득 경로, 지원 경로 등)로 하게 되었습니까?          ④-1.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나요? 학교를 그만둔 것 때문에 취업          에(또는 일하면서) 어려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⑤ 4대보험 가입과 같은 처우/복지 수준은 어떠한가요?          ⑥ 일 경험이 만족스러운가요?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⑦ 일 경험이 불만족스러운가요?(어렵거나 힘든 점 포함)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로 인해 이직할 생각이 있나요?</p> <p>3) 무업,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경우          ①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② 무엇을 할 계획이 있는지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는지요?          ②-1. 이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현재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④ 불만족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생활이 어떻게 변화기를 원하십니까?          ④-1. 어떻게 하면 (어떤 도움이 있으면) 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④-2. 생활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영역	면접내용
	<p><b>4) (남자의 경우) 군입대/사회복무요원</b></p> <p>① 언제 군대에 갔으며 언제 제대했습니까?          ② 군대를 마친 후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③ 언제 군대에 갈 예정입니까?          ④ 군대에 빨리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늦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④-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4. 현재 하루 일과 [무업인 경우만 질문]</p>	<p>① 평일과 주말의 기상 및 취침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② 평일과 주말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보기: 동아리·종교·모임·컴퓨터 게임·SNS·음주 등]          ③ 이러한 생활이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③-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 원하는 생활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원하는 도움이나 지원이 있습니까?</p>
<p>5. 직업</p>	<p>① 미래 직업을 결정하셨나요?          ①-1. [현재 공부/학업/진학 관련 생활 하고 있는 경우] 현재 하고 있는 공부가 미래 갖고 싶은 직업과 관련이 있나요? 미래 직업은 결정하였나요?          ①-2.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갖고 싶었던 직업/일인가요? 미래에 다른 직업을 갖고 싶으세요?          ①-3. [무업인 경우]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이 있나요?          ② [갖고 싶은 직업이 있는 경우] 그렇게 결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②-1. 그 직업을 희망하게 된 계기나 영향을 받은 사람, 정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③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③-1. 이를 위해 지원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십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③-2. 준비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③-3. 그 이유가 학교를 그만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③-4. 어떠한 도움이 있으면 희망하는 직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6. 최근 주 관심사</p>	<p>① 현재의 주요 관심사나 고민은 무엇입니까?          (보기: 진로, 가족, 친구·이성, 경제적 어려움, 건강, 거취나 생활 문제 등)          ②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까?          ③ 지금 말씀하신 고민이 만약 과거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달라졌을까요? 학교를 계속 다닌 친구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p>
<p>Ⅲ. 학업 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p>	<p>1.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인식 변화</p> <p>① 학교를 그만두고자 했을 때 학교에서의 대응(정보제공, 대안제시 등)은 어떠했나요? 만약 학교 대응이 어떠했다면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이 달라졌을까요?          ②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③ 학교를 그만둔 이후 계획이 있었을 텐데, 중단 후 경험에서 만족스러운 점, 불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지요?          ③-1.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④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모습과 달랐을까요?          ⑤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p>

영역	면접내용
	<p>것 같나요?            ⑤-1. 학교를 그만둔 결정(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0(매우 불만족)에서 10점(매우 만족)으로 표현한다면, 당시는 몇점 정도였을까요?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몇 점인가요?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점수가 높아졌다면) 어떻게 점수가 높아졌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 (점수가 낮아졌다면) 뭐가 달라지면 점수가 높아질까요?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면]            ⑤-2. 학교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었다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 같나요?            ⑤-3. 만일, 어떠한 지원이나 상황이 되었다면 학교로 복귀하였을까요?</p>
2. 학업 중단과정의 학교/정부의 역할	<p>①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학교 또는 정부(국가)가 어떠한 역할 또는 안내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p>
IV. 청소년기 경험에 대한 인식/영향	<p>1. 청소년기 경험의 영향</p> <p>① 현재 삶(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0대의 경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학업 중단 경험, 부모님의 이혼, 가족의 사망, 가출, 검정고시 도전 등)            ② 그러한 경험들이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서적, 경제적 등으로)</p>
V. 경제적 상황 및 자립 실태, 미래 전망	<p>1. 경제 상황 및 주 거상황</p> <p>① 본인 또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가요? 어려움이 있나요?            ② 현재 수입이 있습니까? 주 수입원은 어디입니까? 수입원이 없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 월급 등 근로소득, 부모님/형제자매로부터 받는 지원, 정부/민간 지원금 등            ③ 그 수입(또는 생활비)을 기준으로 어떻게 소비가 이루어지나요? (예: 50만원은 월세, 10만원은 핸드폰비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④ 현재 부모님과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④-1. 독립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④-2.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④-3. 월세 혹은 생활비를 부모님께 드리고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⑤ 부모님과 살고 있지 않다면, 어디에서 누구와 언제부터 생활하고 있으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⑥ 대출 혹은 빚이 있었거나(혹은 신용불량상태), 현재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⑦ 대출 혹은 빚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청산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⑧ 대출 혹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p>
2. 성인기 이행과 자립	<p>① 성인은 어떤 대상이며, 본인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자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경제적, 심리적 자립 모두 포함)            ③ 본인이 자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립했다고 응답한 경우]            ③-1.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일시적으로라도 자립성공 경험/실패 경험 공유)            ③-2. 자립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제도, 주위의지지, 기회, 칭찬과 격려, 의지 등)</p>

영역	면접내용
	<p>[자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p> <p>③-3. 자립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p> <p>③-4. 자립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어려움 극복/문제해결 의지, 성취의지 등 포함)</p> <p>③-5. 자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심리적, 경제적 자립 포함)</p>
3. 미래 전망	<p>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것입니까?</p> <p>② 이를 해결/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셨나요?</p>
1. 자신에 대한 생각	<p>①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존감 포함) 이러한 생각이 학교 밖 경험(학업 중단 과정 혹은 후에 겪은 경험)과 관계가 있나요?</p> <p>② 학업중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 남 앞에 서기 싫은 감정, 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혹은 느낌 등을 가진 적이 있나요?</p> <p>②-1. 언제 그런 생각, 느낌이 주로 들며, 얼마나 자주 드나요?</p> <p>②-2. 어떻게 대처하시나요?</p>
2. 심리·정서적 상태	<p>①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니까? 또는 불만족하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② 기분이 좀 가라앉아있거나, 혼자 있는 것 같거나, 안 좋은 감정(우울감, 소외감, 위축감, 불안함 등)을 느끼고 있나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p> <p>③ [학교를 그만둔 이후] 사회적으로 동떨어져 있다고(고립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3. 소중한 사람	<p>①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p> <p>②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일 미쳤거나 닮고 싶은 사람(role model)이 있습니까?</p> <p>③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p> <p>④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있나요?</p>
VI. 생애 사건 및 심리사회적 상태	<p><b>[부모님]</b></p> <p>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요?</p> <p>②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보기: 경제, 심리정서적 지지 등] 혹은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p> <p>③ 부모님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개입하십니까? 또는 무관심하십니까?</p> <p>③-1.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④ 과거 학교를 그만둔 시기와 현재 부모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면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p> <p><b>[형제·자매]</b></p> <p>① 형제·자매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혹은 어떠한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p> <p>② 형제·자매 중 학교를 그만둔 경우가 있습니까? 본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p>
5. 친구/이성 관계	<p>① 친구관계는 어떠한가요? 친구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p> <p>②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친구관계가 영향을 주었습니까?</p> <p>③ 학교 밖에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만나 친구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떠한 영향(정보제공, 심리적지지 등)을 미쳤습니까?</p> <p>④ 연인(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동안 사귀었습니까? (후속질문 아래에 계속)</p>
6. 지원기관에서의 관계	<p>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쉼터에서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p> <p>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쉼터에서의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p> <p>②-1. 선생님과의 관계</p>

영역	면접내용
	②-2. 또래, 선후배와의 관계 ②-3. 멘토들, 자원봉사자 등
7. 이외에 중요한 관계	① 이 외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까? ①-1.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입니까? [보기: 학교선생님, 직장동료, 사회복지사, 지원기관 종사자(꿈드림 선생님, 멘토 등), 동호회, 교회와 같은 종교모임과 같은 개인적인 관계망 등] ①-2. 어떤 점에서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VII. 결혼에 대한 생각	1. 결혼관 및 학교 밖 경험과의 연관성 ① 현재 연인과 동거를 하고 계시거나, 결혼을 하셨나요? <u>[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시려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르게 아래 질문으로 이동)]</u> ①-1. 동거 혹은 결혼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이는 있으신가요? ①-2. 동거를 시작할 때/결혼할 때 상황이 어떠했나요?(예: 경제적 상황, 부모님의 지원 등) ①-3. 학교 밖 경험이 동거/결혼하는 과정과 동거/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①-4. 현재의 동거/결혼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5. 현재의 동거/결혼 생활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6.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7. 동거/결혼 과정 혹은 생활 중 정부/지자체로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u>[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amp; 위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u> *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한 경우, 위에서 하지 않았던 질문만 ①-8. 10년 후 본인이 속한 가족을 그렸을 때 어떠한 가족의 형태가 떠오르시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9.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10. 학교 밖 경험이 결혼 과정 혹은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①-11. 결혼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어려운 점은 무엇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①-12. 결혼을 할 때 정부/지자체로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VIII.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과 세부 정책 과제, 사회 일반에 대한 생각	1. 지역사회에서의 주요경험과 인식 ① 지금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나요? ①-1. 학교/학업/일 경험에 있어 이 지역과 관련된 장점이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①-2. 이외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요? 이와 관련된 기관, 단체, 시설, 동아리 등이 있었나요?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b>[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의 도움 경험]</b> 2.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요구 ① 학교를 그만둔 후 현재까지 지역사회(기관/단체 등)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 중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관 보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그 밖의 청소년관련 기관,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 [지원 보기: 상담, 검정고시 지원, 아르바이트 알선, 인턴이나 취업 준비 등] ①-1. 어떤 경로로 그 기관/지원/도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①-2. 궁극적으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② 지원/도움을 받고 싶었으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영역	면접내용
	<p>③ 본인의 과거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했던 도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당시 지역사회, 지자체 특성상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원체계 접근성, 인프라, 지원인력의 전문성, 협력네트워크 등의 어려움. 대도시 대비 열악함 등)</p> <p>④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및 자립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지자체, 정부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④-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사회 수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예시: 진로탐색기회 제공, 심리상담 제공 등)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④-2.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러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p>
3. 기타 세부 정책 과제들에 대한 생각	<p>①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고 할 때, 어떠한 것(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을까요? 필요한 공간이 있나요? ②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할 때, 어떠한 부분에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까요? ③ 학교 내에서는 진로상담교사라고 진로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교사가 배치되어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학교 밖에서도 이러한 진로 상담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할까요? ④ 꿈드림, 내일이룸학교 등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모르고 혼자 애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과 같은 서비스를 알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집에 은둔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p>
4. 사회에 대한 인식	<p>① 우리 사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과거와 현재 생각 차이가 있습니까? [보기: 공평한 사회, 내가 살아가기 좋은 사회, 불리한 사회] ①-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만둔 시기, 현재를 두고 볼 때 사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②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학업중단(학력) 때문에 불이익이나 차별받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대학전형 포함) ②-1. 있다면 어디서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②-2. 그런 경험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p>
마무리	<p>①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크게 와 닿는다면 언제인 것 같은가요?, 혹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지요? (앞서 생애사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학업중단이 비교적 큰 생애사적 사건으로 여겨지는지요?(또는 그렇지 않은지요?) ② 본인의 학교 밖 경험들이 후배들이나 혹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해본 적 있나요? 어떠한 식으로 후배 혹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③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 중에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④ 마지막으로 2020년, 2021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경험과 현재의 삶까지 아우르는 내용으로 몇 년간 면접에 참여했는데, 그동안의 면접 경험이 어떠했나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면접을 마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p> <p style="text-align: center;">지금까지 성심껏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 부록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표는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내용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가능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에는 대도시, 2021년에는 인구 20만미만 소도시와 군지역 소재 꿈드림을 조사했음.

※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 6월

설문조사는 10분 ~ 15분 내외가 소요되며, 완료하신 분께는 감사의 의미로 모바일 상품권 만원권을 휴대폰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담당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044-415-2106)

조사담당자:  한국리서치 황인창 부장 (02-3014-0086)

※ 기관 및 응답자 개인정보 보호, 비밀 엄수의 원칙

-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관련 현황, 지원내용, 애로사항 및 필요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본 조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는 귀하의 개인식별정보를 익명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으며, 조사결과는 정규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조사 참여자는 원할 경우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본 조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연락처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익명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4.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2022년 \_\_\_\_ 월 \_\_\_\_ 일      성명 : \_\_\_\_\_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내용 파악</li> <li>·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성별, 직위, 근무기관, 기관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역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li> </ul>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2022년 ____ 월 ____ 일      성명 : _____ (인)	

※ 본 조사 내용은 그 동안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이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연구진이 작성한 것입니다.

1. 귀하가 현재의 기관에서 근무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년 \_\_\_\_개월

2. 현재 시설/기관에서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 ① 시설장      ② 팀장급 이상 선임 실무자(3년 이상 종사자)      ③ 실무자

3. 귀하의 성별과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별		연령			
① 남자	② 여자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4. 귀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이용(발굴) 경로에 대해 1~3순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학교·교육청 통제(Wee클래스 등)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  
 ③ 대안학교      ④ 직업훈련학교(내일이룸학교)  
 ⑤ 청소년 쉼터  
 ⑥ 경찰,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회복지원시설 등)에서  
 ⑦ 센터의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⑧ 주민자치센터·지자체(교통카드 또는 수당 신청 과정에서)  
 ⑨ 검정고시 시험장      ⑩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⑪ 가족의 소개로      ⑫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⑬ 기타 (\_\_\_\_\_)

5. 귀 기관의 공간 사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독립된 전용공간 확보  
 ② 타 기관 내 설치된 전용공간 사용(타 기관명: \_\_\_\_\_)  
 ③ 타 기관과 공간 공유(타 기관명: \_\_\_\_\_)

\* 타 기관의 예: 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6. 귀 기관의 위치 및 공간(시설 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1)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위치에 있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4)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우리 기관은 안전한 곳(위치)에 있다	①	②	③	④

6-1). 6번의 4)에서 '필요하다(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 밖 청소년과의 개인 상담공간이 필요해서
- ② 학교 밖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 필요해서
- ③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예: 동아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 ④ 학교 밖 청소년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7.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십니까?

지원 항목	제공여부	
	예	아니오
1) 심리·상담 지원	①	②
2)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	①	②
3) 동아리, 체육, 문화예술, 봉사활동,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지원	①	②
4) 건강검진 안내 및 제공	①	②
5) 수당(교통비) 등 배움을 위한 지원	①	②
6) 자립을 위한 기초생활 지원	①	②
7) 급식 지원	①	②
8) 자산관리 등 경제 교육(저축 관리, 합리적 소비생활 등)	①	②
9) 복교 절차 및 방법 안내	①	②
10) 검정고시 준비위한 강의(수업) 제공 등 직접 지원	①	②

지원 항목	제공여부	
	예	아니오
11) 검정고시 위한 학원 및 교재 지원	①	②
12) 대입 정보 제공 및 대학 진학 상담	①	②
13) 진로지도(진로상담, 적성검사 등)	①	②
14) 직업훈련 지원(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인턴십, 자격증 취득 등)	①	②
15) 취업준비 지원(면접 준비/이력서 작성 지원, 노동권리 알기 등)	①	②
16) 취업정보 제공(일자리 알선·연계 등)	①	②
17) 기타 ( )		

8. 경제적 지원이 확대 혹은 신설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1~3순위를 기재하여 주시고,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사유: )

(2순위: , 사유: )

(3순위: , 사유: )

- ① 교통비 지원
- ② 급식 지원
- ③ 생필품 지원
- ④ 내일이룸학교 교육훈련수당
- ⑤ 청년주택지원
- ⑥ 학자금, 장학금 및 포상제도(대학 진학 시)
- ⑦ 기타 (구체적으로: )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b>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b>				
1)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이 방임되었거나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많다	①	②	③	④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청소년들의 부모 대부분이 자녀에 대해 (충분히) 지지적이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대인관계/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b>기관 관련</b>				
7) 예산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8)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다	①	②	③	④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상담, 서비스 연계 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0)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	①	②	③	④
11)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2)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정보 찾기)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3)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	①	②	③	④
<b>지역사회 및 정부</b>				
14)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 기관(상담센터, 취업지원 기관 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5) 지역 내 담당공무원이 협조적이다	①	②	③	④
16)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7)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8)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	①	②	③	④
1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0.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는 지역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 * 인프라 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함한 청소년 관련 시설, 센터 등)	①	②	③	④
2)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	①	②	③	④
3)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협력체계(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 ④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예: 우울증 등)
- ⑤ 센터 내부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 ⑥ 센터 실무자(종사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 ⑦ 센터 실무자의 연락 부재(이직 등)로 인하여
- ⑧ 다른 서비스/프로그램 연계로 인하여
- ⑨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센터가 제공하지 않아서
- ⑩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5. 콤드림 시·군·구 센터들을 위해 시·도 센터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군·구 센터 운영 컨설팅 및 모니터링
- ②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 ③ 시·군·구 연합사업 및 지원
- ④ 센터 간 청소년과 실무자 교류 지원
- ⑤ 모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대
- ⑥ 효율적인 업무 수행 노력(행정 허브 역할, 전달 체계 공문으로 일원화 등)
-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6.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다음 중 1~3순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아웃리치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려워짐
- ②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 이용 및 오프라인 활동, 모임을 꺼려함
- ③ 방역수칙으로 인해 여러 오프라인 활동들을 진행하기 어려움
- ④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사업 수행이 어려워짐
- ⑤ 추가로 필요한 지원들이 많아짐(예: 방역물품 지급, 심리적 지원, 재정 지원 등)
- ⑥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을 위한 기자재(pc, 태블릿 등 IT관련 인프라) 부족
- ⑦ 비대면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데이터 부족(통신비 부담)
- ⑧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부록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및 관계자 FGI 면접지

### ■ 집단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대상 집단면접(FGI)

구 분	FGI 내용
<p>I. 기관현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 기관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보조금수입(국비/지방비/구비)/기관 내 수익(수익자부담 수업료 등), 후원금, 공모사업비 등 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차별적으로 배정되나요? 어느정도 예산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나요?</li> <li>2. 귀 기관의 공간 현황은 어떠한가요? - 공간소유여부(자기/임대), 기관독립 전용공간, 타 기관 내 전용공간, 타 기관과 공용공간(타 기관: 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2-1. (전용공간이 없거나 협소한 경우) 전용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청소년들을 상담·활동지원 하고 계신가요? 2-2.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한) 어떠한 공간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까요? 2-3. 귀 기관과 지역의 꿈드림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수평적인 관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li> <li>3. 귀 기관의 조직 현황은 어떤가요? 조직현황(겸직여부 파악), 상근직원(정규직/비정규직) 등</li> </ol>
<p>II. 해당 기관 이용 청소년의 특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귀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어떤가요? - 현재 등록 인원, 실제 이용 인원 - 등록 및 실제 이용 인원의 연령대 - 보호관찰/소년원, 이주배경, 중도입국, 또는 보다 취약한 청소년들 현황은 어떠한지?</li> <li>5. 귀 기관에 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어디를 통해 오나요?(발굴 경로) 5-1.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실효성/실현가능성에 대해 질문) 5-2. 이 외에 효과적인 발굴경로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li> <li>6.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 중단 시기 및 주요 이유는?</li> <li>7.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어떠한가요? 그러한 특성으로 어려운 점이 있나요?(예,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 폭력적 성향 청소년의 경우 위협적인 상황 발생 등)</li> <li>8.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욕구는 무엇인가요?(욕구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뒤의 문항과 연계하여 질문)</li> <li>9. 귀 기관을 이용 중 타 지역으로 이동(이사 등)하거나 이용을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의</li> </ol>

구 분	FGI 내용
	<p>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그렇게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과 남아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p> <p>10. 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귀 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이용시 어려운 점)</p>
<p>Ⅲ. 해당 기관 서비스 제공현황 및 전반적 서비스 관련</p>	<p>11. 귀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 기관의 가장 성공적인 지원 사례는 무엇이며, 그 요인은 무엇인가요?</li> <li>- 귀 기관에서 안타까웠던 지원 사례(혹은 실패 사례)는 무엇이며, 원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li> </ul> <p>12. 어떤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지역사회 다양한 지원/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꿈드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li> <li>- 지역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원:</li> </ul> <p>※ 지역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인력문제, 해당 지침부재, 인식 부족?</p> <p>12-1. 지역사회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p> <p><b>[아래의 13~16의 질문의 경우, 11번과 12번 응답 시 관련되어지는 경우 적절히 질문]</b></p> <p>13. 검정고시 지원 외에 다양한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제공을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li> <li>-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요?</li> <li>- 서비스 운영 시 애로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li> <li>-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li> <li>- 이러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지자체/정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으신가요?</li> <li>- 검정고시 지원 외의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을 위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li> </ul> <p>14. 꿈드림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할까요? 누구*를 위한 어떠한 지원서비스가 무엇일까요? * 예: 은둔형, 소도시 거주 청소년 등</p> <p>1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진로상담전문가 확충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예: 시도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담당 전문 진로상담전문가 배치, 각 시군구센터마다 학교 밖 청소년 담당 전문 진로상담사 배치 등)</p> <p>15-1. 귀 기관의 현 실무자의 진로상담 수준은 어떠한가요? 현 실무자의 진로상담 제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p> <p>1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 혹은 신설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교통비 확충, 장학제</p>

구 분	FGI 내용
	<p>도 확대 등)</p> <p>17.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법)에 의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에 제시된 지원 중 제공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있으신가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p> <p>18.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비스 제공시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애로사항은?</p> <p>19. 귀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 내용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홍보하고 있는지요</p>
<p>IV. 지역사회 지원 및 네트워크, 정책 개선방안</p>	<p><b>[지역특성 및 꿈드림 운영]</b></p> <p>19.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귀 지역의 지역 특성에 대해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인원 수는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지역의 환경적 특성은 어떠한니까?</p> <p>20. 꿈드림 시·도 센터가 시·군·구 센터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효과적/효율적일까요)? 20-1. 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b>[해당 지역의 지역적/지자체 특성]</b></p> <p>21. 귀 기관의 위치와 시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까?</p> <p>22. 귀 기관의 지역에서 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청소년 대상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p> <p>23. 지역 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함께 모이는 공식적인 회의/협의체가 있나요 (시장, 구청장, 군수 또는 지자체의 담당자 포함)? - 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등 운영 여부, 운영방식, 운영효과성, 선점? 등 구체적으로 질문 23-1. 이러한 지역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p> <p>24. 학교 밖 청소년문제에 대한 시장, 구청장, 군수 등 정책 의지는 어떠한지 의회는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조례제정, 예산 문제 등)?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꿈드림을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제정이나 예산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p>
	<p><b>[지자체 및 지역네트워크의 지원]</b></p> <p>25. 귀 기관은 지자체, 지역사회 내 기관 및 시설 등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요?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요?</p> <p>26.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및 직업체험을 위한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사업체 등과</p>

구 분	FGI 내용
	<p>어떠한 연계를 하고 계십니까? 또한 어떠한 연계를 하고 계십니까?</p> <p>27. 지역사회(기초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개선점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나요?</p> <p>28. 중앙부처/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지자체→기초지자체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서비스 전달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양한 지원(학업, 의료, 생활지원, 상담 등)들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 협력체계 어려움/개선방안 확인</p> <p>29.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사회 차원,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p>
V. 종사자 관련	<p>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업무부담(소진경험 유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 <p>31. 꿈드림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 겸직의 경우 센터장님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어느정도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시나요?</p> <p>32. 현재 귀 기관의 종사자 전문성 수준은 어떠한가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요?</p> <p><b>[예비문항]</b>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로서 필요한 자격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자격요건 개선방안)</p>
VI.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변화 및 애로 사항	<p>32. 기관의 종사자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어떻게 대처하셨나요?</p>

■ 집단 2: 내일이룸학교, 지역연계기관, 학교밖청소년 협동조합 종사자 대상 집단면접(FGI)

FGI 내용

1. 귀 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2. ○○지역의 꿈드림 기관/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3. 귀 기관에 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어디를 통해 오게 되나요?
4.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용현황은 어떤가요?
  - 이용인원
  - 연령
  - 성별
  - 욕구(관심분야)
  - 특성
5. 귀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6. 꿈드림과 연계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무엇인가요?
7. 어떤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8.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9.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비스 제공시 가장 어려운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0.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11.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12.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의 어떤 기관과의 연계가 더 필요할까요?
  - 12-1. 지역 내 기관(예: 꿈드림)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꿈드림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청소년들의 관련한 주요 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 특히 진로 지원(직업탐색 및 체험 등)과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1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하시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과 경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진로 발달, 지원 경험 및 요구 등을 면밀하게 파악, 분석하여 제도권 공교육 밖의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 연구는 5개년도 연구로 계획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마지막 년도의 연구로, 그동안 수행된 2018~2021년 연구의 결과와 올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와 관련해서도, 2018~2021년간 지역 규모에 따라 각각 수행된 연구 결과와 올해 수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 개선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및 지역사회 지원에 관한 행정통계 및 자료를 검토하였고, 성인기 이행, 지역사회 지원, 질적 종단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20대 중·후반의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 27명과 대부분 10대 중·후반인 신규 패널 2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정책과제 개발에 초점을 두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직업체험 연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이전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간 규모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그동안 제안된 정책과제들과 올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종합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이외에 면접지 및 설문지 내용의 타당성 검토, AHP방식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질적연구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축적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종단자료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분석된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자립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과, ① 다양한 환경 속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③ 학교 밖 청소년 발달단계 및 수요 맞춤형 지원, ④ 전인적 관점의 통합 지원, ⑤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이라는 5개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초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인식 및 차별 개선, 지원 전달체계 개선 및 재정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지원 프로그램·서비스 개선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과제와 각 과제에 해당하는 세부 추진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 학교 밖 청소년, 질적종단자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방안

## A b s t r a c t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support plans for out-of-school youth that are out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so that they can grow into healthy members of the society by closely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life and experiences after dropping out of school, career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adulthood, and support experience and needs. In particular, this year's study is the last of the 5-year research titled "A Study on Community-based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s: With a Focus on Qualitative Panel Data", and it is conducted to derive comprehensive support plans by combining the results of the studies conducted in 2018-2021 and the results of this year's study. Moreover, regarding research on community support systems, we combined the results of the studies conducted in 2018-2021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region and the results of this year's study to seek community support systems considering the regional differences in terms of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used variou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First, we reviewed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data on the size of out-of-school youth and community support and examined previous studies on transition to adulthood, community support, and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Next,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previous panel of 27 out-of-school youths in their mid- to late 20s and a new panel of 24 youths in their mid- to late teens and analyzed the results with focus on policy task development. As a study on community support systems,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field workers at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Counseling & Welfare Centers for Youth, and career experience institutions, as well as a survey on workers at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in medium-sized regions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evious year's survey, and analyzed the results. Moreover, we combined the policy tasks suggested thus far to derive comprehensive support plans for out-of-school youth and the tasks derived through this year's study and identified the priorities and importance based 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n addition, this study went through the expert consulting process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review of the validity of the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and derivation of policy implications. Finally, as part of cooperative research, we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n various topics about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on out-of-school youth accumulated thus far with qualitative research exper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established the policy vision of 'healthy growth and independence of out-of-school youth' and set the five following directions: ① improving the social awareness of out-of-school youth in diverse environments, ②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in supporting out-of-school youth, ③ providing customize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stages and demands of out-of-school youth, ④ providing integrated support in a holistic view, and ⑤ providing support without discrimination or social exclusion. Based on these

policy directions, we proposed various policy tasks as well as detailed tasks for each policy task, such as improving the system for discovering out-of-school youth, improving the social awareness and reducing discrimination of out-of-school youth, improving and reforming the support delivery system, expanding the scope of beneficiaries, and improving support programs and services.

Keywords: Out-of-school youth,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out-of-school youth community support systems, comprehensive support plans for out-of-school youth

##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임희진·오승근
- 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 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 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 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 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 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 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 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 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 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 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 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 22-일반02-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 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 22-일반03-0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자체번호 22-일반0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우경 (자체번호 22-일반04-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자체번호 22-일반0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자체번호 22-일반05-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자체번호 22-일반05-0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자체번호 22-일반0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자체번호 22-일반0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박광욱 (자체번호 22-일반0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 (자체번호 22-일반08-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박환보·최종학 (자체번호 22-일반08-0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화·변수정·하태정 (자체번호 22-일반08-0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욱·이기연·이복실·안예지 (자체번호 22-일반08-0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성운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자체번호 22-일반0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명 (자체번호 22-일반09-01)

## 수 시 과 제

- 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 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 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 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 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 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 수탁과제

- 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 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 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 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운
- 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 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 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 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 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 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옥·오욱찬·조양진
- 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 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유미·송현주·김균희
- 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 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 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 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 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 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 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 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 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 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 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 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유미
- 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유미
- 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 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 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 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 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 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 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 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 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 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 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 자 료 집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7호 :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8호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9호 :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0호 :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1호 :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2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3호 :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4호 :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64호 :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65호 :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NYPI Bluenote 통계 66호 :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67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68호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NYPI Bluenote 통계 69호 :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70호 : 디지털 성범죄
- NYPI Bluenote 통계 71호 :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NYPI Bluenote 통계 72호 :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NYPI Bluenote 통계 7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가나다 순)

### ◆ 자 문 진 ◆

- 권 나 연 (전라남도 곡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원)  
김 미 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사연수부장)  
김 영 옥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과장)  
김 은 정 (덕성여자대학교·교수)  
김 진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민 윤 경 (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박 수 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사무관)  
신 우 균 (경기도 여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원)  
오 주 윤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주무관)  
유 성 렬 (백석대학교·교수)  
장 대 성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사무국장)  
정 선 옥 (덕성여자대학교·교수)  
진 종 순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연구보고 22-일반04

---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044)866-7451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72-5 94330

979-11-5654-371-8 (세트)